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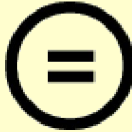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학위논문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연구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이 소 흔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연구

지도교수 김 영 욱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이 소 흔

Collection @ uos

이소흔의 문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목 정 수 ㊞

심 사 위 원 김 수 영 ㊞

심 사 위 원 이 용 ㊞

심 사 위 원 장 윤 희 ㊞

심 사 위 원 김 영 욱 ㊞

2016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uos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종결어미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현대국어 종결어미는 근대국어의 종결어미와 형태, 기능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형성 과정과 체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종결어미의 전반적인 변화는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초까지 그 과정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형성되는 종결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결어미가 형성된 방법을 기준으로 나누어 종결어미화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시기의 문헌 자료로는 고소설, 한글 편지, 문법서, 회화서, 신문, 잡지, 신소설, 근현대 소설, 희곡 그리고 음성 자료(유성기에 녹음된 연극)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다양한 종결어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구어체 자료가 중요한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회화서류, 소설·희곡류, 음성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결어미의 형태, 기능,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2, 3, 4장에서는 종결어미 형성에 대해 다루었다. 19세기에 형성된 종결어미의 구성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종결어미가 다른 형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는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가 있다. 이러한 어미가 형성된 것은 선어말어미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약화되거나 결합에서 제약을 받게 된 선어말어미는 그 지위를 잃고 형태가 소멸되기도 하고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종결어미화하기도 한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은 '-습-'과 '-느-, -더-, -리-', 그리고 '-거/어-, -니-, -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화자 겸양의 '-습-'은 뒤에 오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습니-/-습디-' 형태가 되면서 청자 대우 기능으로 바뀐다. 이것은 다시 종결어미 '-다/까'와 결합하게 된다. '-엇-'의 형성으로 기능이 변화하게 된 '-느-', '-더-', '-리-' 가운데 '-느-'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종결어미와 결합 양상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더-'와 '-리-'는 기능 변화와 함께 종결어미와 결합에 제약이 생긴다. 현대국어에서 '-거/어-', '-니-', '-도-'는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종결어미와 결합한 형태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종결어미로 처리하였다. '-거-'의 이형태 '-어-'는 '하라'체 명령형 어미 '-라'와 결합하여 '-어라'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라'를 대체하여 '해라'체를 이룬다.

Collection @ uos

둘째, 비종결어미인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된 것이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문장과 문장 접속 구문에서 도치와 생략이 가능해야 하고,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선·후행절이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을 구분하였다. 종결어미는 연결어미와 의미가 달라져 독립된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로서만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종결적 용법은 종결어미 자리에 놓여 종결 기능은 하고 있으나 연결어미와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 연결어미로도 쓰이는 것이다.

연결어미 구성은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연결어미로 나뉜다. 대등·종속적 연결어미는 후행절의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화하지만 부사형 연결어미는 이와 다르다. 부사형 연결어미는 사동 구문 '-게 하-'의 '하-'가 생략되어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또한 대등·종속적 연결어미는 양태 어미로 '해'체를 형성하고 주로 평서형과 의문형 어미로 실현된다. 이와 달리 부사형 연결어미는 명령형 어미 '-게'를 형성하여 '하소'체의 명령형 어미 '-소'를 대체한다.

셋째, 통사 구성이 종결어미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인용 구성, 의존명사 구성, '하-' 결합 구성, '말-' 결합 구성이 포함된다. 연결어미 구성도 종결어미화 정도에 따라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을 구분하듯이, 통사 구성도 문법화 정도에 따라 환원 가능한 구성과 환원 불가능한 구성으로 나누어진다. 환원 가능한 구성은 하나의 종결어미로 볼 수 없지만 환원 불가능한 형태는 융합형으로 하나의 종결어미이다. 이들 어미는 상위문의 어미가 연결어미일 경우 '해'체로 형성되지만, 상위문의 어미가 종결어미일 경우는 그 어미에 따라 화계가 결정된다.

의존명사 구성이 종결어미화된 형태는 고대국어에서부터 나타나던 구성이다. 중세, 근대국어에서는 의존명사 'ᄃᆞ', 'ᄉᆞ'의 구성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ㄹ 것'이 축약되어 나타난 형태들이다. 이 구성은 '해'체 외에도 '해라'체로도 실현된다. '하-' 결합 구성은 '-어야 하지', '-어야 하겠다', '-려 하-' 구성에서 '하-'가 탈락한 것이다. '-어야지'는 융합형으로 실현되는데, '-어야겠다'는 '-어야지'보다 융합 정도가 약하다. '-려 하-'는 환원 가능한 구성과 환원 불가능한 구성으로 나뉜다.

5장에서는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 변화를 고찰하였다. 19세기에 세 과정으로 종결어미가 형성되었다면, 20세기에는 일부 종결어미가 의미 기능 변화를 일으키어 양태 어미가 형성됨으로써 한 형태가 두 체계로 나누어진다. 양태 어미는 주로 평서형과 의문형 어미로 실현되며 일부 감탄형과 명령형 어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양태 의미를 가진 평서형 어미가 '감탄'을 나타낼 경우, 억양을 수반하는데, '감탄'만을 수행할 경우 구어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생긴다. 이 외에도 음절과 음운의 변화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며, 보조사, 계사를 결

Collection @ uos

합하여 의미 기능을 첨가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해'체 어미가 대거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해'체에 속하게 되는 종결어미들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것은 종결어미 사용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변화는 신분제가 붕괴된 사회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이후에도 종결어미에 반영된다.



□ **주요어** : 19세기, 20세기, 종결어미화, 종결어미, 종결적 용법,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양태 어미, 청자 대우법, 화계, 융합, 문법화, 의미 기능 변화.

eCollection @ uos

문학박사학위논문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연구



2017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이 소 흔

Collection @ uos

- 목 차 -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4

1.3. 연구 방법 8

1.4. 연구 자료 11

2.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 18

2.1. '-습-' 19

2.1.1. '-습-' 결합형 종결어미 20

2.1.2. '-습-'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26

2.2. '-느-', '-더-', '-리-' 36

2.2.1. '-느-', '-더-', '-리-' 결합형 종결어미 37

2.2.1.1. '-느-' 결합형 종결어미 37

2.2.1.2. '-더-' 결합형 종결어미 40

2.2.1.3. '-리-' 결합형 종결어미 43

2.2.2. '-느-', '-더-', '-리-'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48

2.2.2.1. '-느-'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48

2.2.2.2. '-더-'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65

2.2.2.3. '-리-'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71

Collection @ uos

2.3. '-거/어-', '-니-', '-도-' 77
2.3.1. '-거/어-', '-니-', '-도-' 결합형 종결어미 77
2.3.1.1. '-거/어-' 결합형 종결어미 77
2.3.1.2. '-니-' 결합형 종결어미 81
2.3.1.3. '-도-' 결합형 종결어미 82
2.3.2. '-거/어-', '-니-', '-도-'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83
2.3.2.1. '-거/어-'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83
2.3.2.2. '-니-'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86
2.3.2.3. '-도-'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88
2.4. 요약 89

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91
3.1.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 91
3.2.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98
3.3. 부사형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107
3.4. 요약 112

4. 통사적 구성의 종결어미화 114
4.1. 의존명사 구성의 종결어미화 114
4.2. 인용 구성의 종결어미화 116
4.2.1. 상위문 종결어미와의 결합 구성 119
4.2.2. 상위문 연결어미와의 결합 구성 126

Collection @ uos

4.3. ‘하-’ 결합 구성의 종결어미화 ········ 131

4.4. ‘말-’ 결합 구성의 종결어미화 ········ 140

4.5. 요약 ········ 141

5.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 변화 양상 ──── 143

5.1. 양태 의미 ········ 143

5.1.1. 양태 범주 ········ 144

5.1.2. 양태 어미 ········ 147

5.2.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 변화 ········ 149

5.2.1. 평서형 어미 ········ 150

5.2.2. 의문형 어미 ········ 155

5.2.3. 감탄형 어미 ········ 162

5.3. 종결어미의 형태와 의미 기능 변화 ········ 170

5.3.1. 음절·음운 변화형 ········ 170

5.3.2. 보조사·계사 결합형 ········ 177

5.4. 요약 ········ 186

6. 결론 ──── 188

□ 참고문헌 ········ 193

□ Abstract ········ 200

Collection @ uos

- 표 목 차 -

<표1> 19세기 자료 ······ 12
<표2> 20세기 자료 ······ 13
<표3> 20세기 자료-신소설 ······ 14
<표4> 20세기 자료 - 희곡, 소설 ······ 15
<표5> 20세기 자료 - 유성연극 ······ 17
<표6>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 94
<표7> 인용 구성과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 ······ 121



dCollection @ uos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형성되는 종결어미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종결어미들의 결합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현대국어 종결어미가 근대국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종결어미의 변화와 사용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는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도래하던 시기로, 국어에서도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면서 현대국어의 틀이 완성되어 가던 시기이다. 종결어미 연구에 있어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19세기 말 종결어미의 형성이 현대국어 종결어미 체계 마련에 있어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종결어미는 이 시기에 현대국어의 형태와 체계가 갖추어지는데, 19세기에 다양한 종결어미가 형성되고 변화된 것은 근대국어에서 시작된 선어말어미의 변화에서 비롯된 언어 내적 요인도 작용하였지만 언어 외적으로도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는 근대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신분제 동요와 더불어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변화, 계층 분화는 종결어미 변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종결어미 변화의 특징은 반말이라고 하는 '해'체의 형성이다. 그러나 '해'체는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한 19세기에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한다. 기존의 화계를 사용하면서, 화자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체의 어미들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만을 보인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해'체의 높임말인 '해요'체가 여성 계층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됨으로써 '해'체도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해'체와 '해요'체의 발달이 가져온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자 대우법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해'체와 '해요'체의 사용 범위는 기존에 세워져 있던 체계들의 사용 범위와 겹치면서 화계 등급을 가르는 기준도 기존의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원적 체계가 아닌, 기존의 격식체인 '하소서'체[1]를 대체한 '하십시오'체,[2] '하오'체,[3] '하게'체[4]와 '해(요)'체의

1) 19세기 당시의 '하소서'의 표기는 대개 'ᄒᆞ쇼셔'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9세기 국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초의 변화 양상도 다루고 또한 다른 문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19세기 국어 이후의 용어는 '하소서'체라 하겠다. 'ㆍ'가 나타나는 다른 용어들도 마찬가지이다.

2) '합쇼'체가 아닌 '하십시오'체라 하는 것은 '하십시오'의 변이 형태로 '합쇼'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음절이 축약되어 나타나는 형태가 아닌 사회방언의 한 형태로 20세기 전반기까지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성기철(1999/2007)에서도 '합쇼'체와 '하십쇼'체를 구별하여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

Collection @ uos

비격식체로 이루어진 이원적 체계가 세워진다. 그리고 이것은 화계의 혼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기반이 된다. 중세국어, 근대국어에서 화계를 혼용하여 쓰기도 하였지만, 이전 시기 화계의 혼용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청자에 대한 전략적인 면이 강했다면 이 시기 화계의 혼용은 화자의 표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둘째, 양태 종결어미의 발달이다. 이것은 화자의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과 연결된다. 반말의 개념에서 출발한 '해'체지만 이보다 큰 특징은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체 어미들은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의 어미가 있었음에도 많은 형태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양태 의미를 가진 '해(요)'체가 발달하면서 화계 혼용만이 아니라 다른 화계에도 영향을 끼친다. 양태 의미를 가지지 않은 화계의 어미들에서는 형태 변화를 하거나 다른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하나의 형태에서 의미 분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현대국어의 종결어미는 복잡한 양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종결어미가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선어말어미의 기능 약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선어말어미가 동요했다는 것이 작용한다. 그동안 선어말어미가 가졌던 기능들의 일부가 종결어미로 이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종결어미의 기능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종결어미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종결어미들이 형성되면서 기능이 확장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19세기 후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형태와 청자 대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5] 그것은 19세기 말에 새로운 형태의 종결어미들이 대거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성 과정을 보이는 과도기적인 형태들도 출현하였고, 청자 대우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체계가 형성되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자 대우법 중심의 연구는 종결어미가 가지는 기능의 일부분이므로 종결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라 보기는 어렵다.[6] 그러므로 19세기 후반 종결어미는 형태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청자 대우법은 문장 종결법과 함께 종결어미 형태를 분류하

3)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하오'체가 활발하게 나타나나, 본고에서는 이 시기에 형성된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기술될 것이므로 주 논의 대상은 아니다.

4) '하소서'체 화계 자체를 대체한 '하십시오'체와 달리 '하게'체는 '하소'체 가운데 명령형 어미를 대체한 것이다.

5) 김태엽(2001)은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경우 주로 문법적 기능에 집중되어 왔는데, 문법적 기능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결어미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19세기 후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기능보다는 형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세기는 새로운 종결어미가 생성되던 시기였고 그 어미들은 현대국어와 이어져 있어서, 기능에 대한 연구는 현대국어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6) 문장 종결법 중심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종결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모든 기능을 살펴야 한다.

Collection @ uos

는 기준이 된다. 이 외에 종결어미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7]

19세기 종결어미의 양상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형태 변화와 함께 기능 변화도 논하여야 한다. 앞서 밝힌 바대로 19세기 말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선어말어미들의 기능 변화가 있다. 전기 근대국어에서부터 시작된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는 이들이 담당하던 기능이 점차로 종결어미로 이동하거나 기존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융합하여 기능이 확장된 종결어미로 재탄생된다. 그리고 연결어미 및 통사 구성이 종결어미화되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것이 나타내고 있던 의미 기능이 사용 양상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습-', '-느-' 등의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를 다루면서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통해 종결어미의 기능을 논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말의 전반적인 종결어미 기능 연구라기보다 일부에 국한된 연구였다. 또한 19세기에는 다양한 '해'체 어미들이 형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도 청자 대우법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형성 과정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몇몇 어미를 제외하고 현대국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현대국어 '해'체 어미들의 의미 기능이 이 시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국어 공시적 연구만으로는 '해'체 어미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없다. 언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는 해도 이 시기가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었다기보다 혼란한 양상을 보이며 변화의 과정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현대국어로 이어지며 자리 잡아 가는 양상도 살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기능이 완전히 바뀜으로써 그것이 종결어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변화 과정에서 종결어미가 형성되고 형태와 기능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결어미의 형성과 변화의 양상 살피기 위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형성되는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종결어미화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세기에 형성된 종결어미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생성된 종결어미이다. 선어말어미 결합형은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먼저 종결어미에 대해 논의한 후,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와 함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종결어미의 기능 변화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둘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를 통하여 생성된 종결어미이다. 셋째, 통사 구성의 종결어미화를 통하여 생성된 종결어미이다. 이 두 구성은 몇 개의 어미와 상위문의 종결어미 결합형을 제외하고 '해'체 어미들을 형성하는데,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종결어미의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의미 기능 변화를 통해 분화되는 종결어미를 다룰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양태 어미에 대해 논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과 종결어미가 변화해 가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

7) 19세기 종결어미는 단일형, 절단형, 통합형, 융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한다.

Collection @ uos

1.2. 선행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청자 대우법을 중심으로 한 형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종결어미는 현대국어 종결어미 초기의 모습으로 현대국어 종결어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본격적인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보다는 청자 대우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반해 청자 대우법이 이 시기의 논의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원 체계였던 근대국어와 달리 이 시점에서 이원 체계로 화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이 전 시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19세기에 형성된 '해(요)'체는 사용 범위가 다른 등급과 겹치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띤다. 최현배(1961)은 청자 대우법을 '해요'체를 제외한 5등급으로 설정하여 일원적 체계를 세우고 반말은 등외 처리하였다. 이렇게 일원적 체계를 세운 논의로는 정준영(1995), 이승희(2004), 김태엽(2007) 등으로, 일원적 체계에 대한 근거는 반말 등급이 다른 체계와 두루 통용되는데 그것은 '히(요)'체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원적 체계로 세웠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 범위가 겹치는 것보다 기존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하게'체와 '해'체의 경우, '하게'체는 아랫사람을 예우하는 표현이지만 윗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데 반해 '해'체는 아랫사람을 예우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하게'체보다 화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게'체보다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원적 체계로는 성기철(1970/2007), 서정수(1984), 남기심·고영근(1985/1993), 李圭昌(1992), 한길(2002) 등이 있는데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나눠, 비격식체에는 '해'체와 '해요'체를 두었다. 이 두 체계는 사용 범위가 넓어 두 체계 이상 겹치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일원적 체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청자 대우법의 등급은 5등급 내지 6등급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5등급으로 보는 것은 기존의 체계에 반말 등급을 세우는 것으로 '해요'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해요'체를 하나의 체계로 보지 않는 것은 20세기 초기에는 반말이 활발하게 쓰이지 않았을 뿐더러, '해요'체의 경우, '-요'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보조사로 반말에 높임의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요'체가 활발히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넘어서의 일이다. 이경우(1998)은 '해요'체가 20세기 초에 성립되었으나 1920~30년대에야 비로소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경우(1998)은 이 시기의 '해요'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1890년대와 1910년대의 개화기 자료에는 '해요'체의 쓰임이 '하소서'체만큼 적은 편이었으나 경어법상으로는 독립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청자 대우법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주요한 변수이므로 대화가 많이 등장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료 선정에서 그동안 대우법의 주 연구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신소설이었는데, 근래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서를 자료로 삼은 최은규(2010)와 같이 자료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자 대우법 중심의 연구는 종결어미의 전반적인 연구라 보기는 어렵다.

청자 대우법에서 벗어나 형태에 집중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고영근(1989), 홍종선(1994), 민현식(1999) 등은 문장 종결법에 따라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명령법 등으로 나누어 형태들을 살펴보고 있다. 홍종선(1994), 민현식(1999)는 19세기 말, 즉 개화기라는 시기에 집중하여 종결어미에 대해 논하고 있는 반면 고영근(1989)는 현대국어 연구이지만 자료 사용에 있어서 20세기 초의 문헌인 신소설과 1920~3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20세기 전기의 종결어미 연구라 할 수 있다.

20세기 전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종결어미의 다양한 모습을 다루고 있는 고영근(1989)는 존비법과 문체법, 종결어미의 구조로 나누어 종결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종결어미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형태 분석을 통하여 그 형태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있는데, 주 논의 대상이 아닌 축약형 어미나 음운 첨가형들까지 상세히 다루었다. 문체법에서는 축약이나 첨가를 함으로써 미세한 의미 차이가 나는 부분도 다루며 존비법에서는 사용 양상을 통하여 화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후 19세기 말~20세기 초 종결어미의 형태 중심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종결어미에 대해 상세한 부분까지 다루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형태 분석 나열에 그치는 경향을 보인다.

19세기 말 종결어미의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여러 형태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종결어미들이 형성되는데, '하십시오'체를 비롯하여 반말인 '해'체의 형성은 이 시기에 주목되는 새로운 어미들이다. 그런데 이 종결어미들은 형성되는 방식이 다르다. '하십시오'체는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체는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을 분리하여 논의를 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 형성의 원인이 되는 '-습-'의 기능 변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근대국어의 '-습-'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습-'은 화자 겸양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과 청자 대우 기능을 한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서정목(1988), 한동완(1988), 정언학(2006), 남미정(2007) 등은 전자의 입장으로 선어말어미 '-이-'가 근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청자를 높이고 있으므로 '-습-'은 화자 겸양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

Collection @ uos

다른 입장으로 '-습-'의 기능을 화자 겸양과 청자 대우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윤용선(2006)은 19세기의 '-습-'은 화자 겸양의 기능과 청자 높임의 기능이 분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습-'이 '-이-'의 기능을 보충하게 됨으로써 '습ᄂᆞ이다 > 습니다'와 같은 축약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형태적 차이에 따라 기능도 달리한다고 하였다.[8)]

'하십시오'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습-'과 더불어 '-느-'의 기능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근대국어 시기 '-엇-'의 재구조화로 '-느-', '-더-', '-리-'의 기능 또한 변화하였다. 최동주(2002)는 후기 근대국어 시상 체계에 대해 논하였는데, 종결형의 경우 '-느-'의 기능 변화는 그동안 대립관계를 유지해 오던 '-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9)] 즉 최동주(2002)의 주장은 '-느-'의 영향으로 '-더-'가 상황시에서 인식시로 시점(視點)이 옮겨져 새로운 대립관계가 성립했다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종결형에 나타나는 '-더-'는 시상 체계가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더-'의 연구는 후기 근대국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 시기의 '-더-'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느-'의 기능 변화는 종결어미와 결합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소서'체, '하십시오'체, '하게'체, '해라'체에 '-느-'가 결합되는데 그것은 종결어미에 따라 형태, 기능,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십시오'체에 결합된 '-느-'는 형태가 바뀌면서 종결어미화하였다. '하소서'체의 경우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기능이 없어졌으므로 종결어미와 결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소서'체에 나타나는 '-습-'과 '-느-'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소서'체 내에서도 '-습-'과 '-느-'의 기능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십시오'체와 달리 '-습-'과 '-느-'가 따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소서'체와 '하십시오'체의 경계에 놓은 형태들도 출현한다. '해라'체는 종결어미에 따라 형태, 기능, 결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느냐', '-ㄴ다'의 경우 하나의 종결어미로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느냐', '-ㄴ다'에 나타나는 '-느-'의 기능과 결합 양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상 체계와 종결어미의 관련성에 대하여 우인혜(1988)과 이승희(2008)이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에는 시상 체계와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이 중요하다. 시상 체계가 재편되면서 본래 현재시제 요소를 가지고 있던 '-느-'의 기능이 축소되어 한정된 종결어

8) '습'은 'ᄉᆞ오'에 비해 화자 겸양으로서의 기능이 명료히 드러나기 때문에 '습ᄂᆞ이다'나 '습더이다'만이 현대국어의 '습니다', '습디다'로 이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ᄉᆞ오리다, ᄉᆞ오이다/오이다'는 현대구어에서 '사오리이다/사오리다'나 '소이다, 오이다/외다'의 형식으로 문어체에 일부 남아 있을 뿐이며 의미도 약간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9) 이에 따라 '-더-'는 '-느-'와 새로운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점의 위치가 인식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되고 그 결과 인칭 제약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미에만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승희(2008)은 시제 체계의 변화가 종결어미의 형태적 측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종결어미 '-오', '-아(요)', '-지(요)'의 등장에 밑바탕이 되고, '-ᄂᆞ-'를 포함하고 있던 종결 형태 '-ᄋᆸᄂᆞ이다', '-ᄂᆡ' 등이 단일한 종결어미로 재분석되는 데 동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인혜(1988)은 시제와 상을 주로 나타내는 경우와 서법을 주로 나타내는 경우로 양분하여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시제와 상 그리고 서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우인혜(1988), 이승희(2008)은 시제 체계의 변화가 종결어미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시상 체계와 종결어미의 관련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체 어미들은 '하십시오'체 어미들과 형성 방식이 다르다. 종결어미화라는 문법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국어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현대국어에서 다루어진다. 인용 구성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남기심(1973), 권재일(1986), 김홍범(1987), 이필영(1993), 한길(1996), 안주호(2003), 이금희(2006) 등이 있다. 남기심(1973)은 인용 구성 즉 완형보문술부구성은 융합축약, 보문자축약, 절단축약의 세 가지 축약형을 갖는데, 융합축약은 형태 음운 변화를 거쳐 축약된 참된 축약형과 겉모양은 같되 근원이 다른 유사 축약형으로 나누었다. 이금희(2006)은 인용 구성의 문법화 과정을 종결어미 구성의 제1유형과 연결어미 구성의 제2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해서는 김태엽(2000), 유현경(2003), 남미정(2010) 등의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문법화한 연결어미가 완전한 종결어미화하는지 아니면 종결적 용법으로만 쓰이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모든 어미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문법화가 그러하듯이 어미들은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그 쓰임 양상이 달라진다. 이 외에 통사 구성의 문법화는 어미마다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용 구성의 문법화나 연결어미의 문법화 모두 현대국어에서만 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미들은 현대국어의 종결어미 체계를 이루고 있고 문법화의 정도에 따른 형태들도 나타나므로 현대국어를 공시적으로 다루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화가 시작되어 나타나는 것은 19세기이므로 문법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문법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통시적으로 보아야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

반말 자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는데, 한길(1982), 박영준(1994ㄴ), 박영준(1996), 이기갑(1998), 고광모(2001), 그리고 '-요'에 대한 논의로 고광모(2000)이 있다. 이 논의들은 반말 어미로 처음 등장하는 '-어'와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해'체 어미들과 달리 '-어'와 '-지'는 19세기 이전에 등장하는데 그것의 기원형은 정확하지 않다. 이들 논의에서는 '-어'와 '-지'의 이전 시기의 자료들을 통해 '-어'와 '-지'

Collection @ uos

의 기원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해'체 종결어미의 특징이라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태 의미나 양태 어미는 현대국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20세기 초에 양태 의미에 따라 어미가 분화되므로 국어사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태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Lyons 1977), 국어에 적용되는 양태나 양태 어미에 대해서는 張京姬(1985/1986), 고영근(1989, 1995/2004) 박재연(1999)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양태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張京姬(1985/1986)은 양태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정의하고, '-겠-', '-더-', '-네', '-구나', '-지', '-ㄴ', '-ㄹ'만을 설정한다. 박재연(2006)은 양태를 '화/청자의 태도'에 한정시키고, 양태의 하위 범주로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를[10] 두었으나, 감정 양태는 양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박재연(1999)는 '해'체 어미들은 대부분 양태 의미를 표현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고영근(1995/2004)는 양태의 범주를 인식 양태로 한정하는데 '양태성'에 감정 양태를 나타내는 '정감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해'체 어미는 대부분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의 양태 어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하게'체에서 양태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해'체로 분화하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초이므로 이 시기의 '하게'체에서 '해'체로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에 주목받는 연구 경향은 20세기 전반기 화계의 사용 양상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주로 음성 자료와 영상 자료를 참고로 하여 연구되고 있다. 음성 자료로는 1930년대 유성기에 녹음된 연극 등이고 영상 자료로는 1930년대부터 현재 남아 있는 영화들이다. 이러한 작품 속에 나타난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종결어미 내지 화계가 화·청자 관계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논의한 것으로, 명령형의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인 정경재(2016), '하오'체의 실현 양상에 관한 정경재 외(2015)가 있다. 이 분야는 더 폭넓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자료를 대상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연구는 개화기국어로 시기를 구분하지만 본고에서 개화기국어로 시기를 잡지 않은 이유는 국어사에서 말하는 개화기와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의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11] 본고

10) 박재연(2006)은 '의무 양태'를 좀 더 넓은 개념의 '행위 양태'라 한다.
11) 개화기는 1876년(강화도 조약) 내지 1894년(갑오경장)부터 1910년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1930년대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삼는다.

Collection @ uos

가 삼는 자료는 19세기 말 문법서류를 시작으로[12] 20세기인 1930년대까지의 문헌 내지 음성 자료이다. 자료 대상을 일반적인 시기보다 더 넓게 잡은 이유는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종결어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시기는 새로운 종결어미가 형성되어 정착되어가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종결어미에서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세기는 새로운 종결어미들이 형성된 시기라면 20세기는 새로운 종결어미와 체계가 정착되어 가던 시기이다.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청자 대우법을 통해 종결어미를 고찰할 수 있고, 문장 종결법을 통해 종결어미를 고찰할 수 있으며, 종결어미의 유형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다. 그러나 청자 대우법이나 문장 종결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종결어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니다.[13] 대부분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형태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청자 대우법과 문장 종결법은 종결어미의 분류 기준이 된다. 19세기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종결어미가 생성됨에 따라 종결어미의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살필 수도 있다. 그러나 유형 중심의 연구는 종결어미 체계를 세우기가 어렵다.

본고는 19세기에 형성된 형태를 중심으로 종결어미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종결어미가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 장을 분류하여 기술할 것이다. 19세기 종결어미가 형성되는 방식은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종결어미에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선어말어미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종결어미가 아닌 형식이 문법화의 과정을 통하여 종결어미화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통사 구성의 종결어미화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이 분화하는 것이다.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은 선어말어미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를 살펴본 후 선어말어미의 기능과 그에 따른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능이 약화된 선어말어미는 종결어미의 결합의 결합 양상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한다. 여기서 결합 형태와 결합형 어미의 구분해야 하는데, 결합 형태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고착되지 않고 결합 양상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종결어미는 기능이 변화하거나 기능을 잃은 선어말어미가 종결어미와 결합함으로써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형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습니다/까'와 같이 통합형 어미도 포함된다.

종결어미화하는 종결 기능을 하지 않은 형식이 문법화를 통해 종결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

12) 이보다 이른 시기인 19세기 중·후반의 <南原古詞>(1864~1869), <한글간찰>(19세기 중·후반~20세기 초)를 살피기도 하지만 주된 자료 대상은 아니다.

13) 현대국어는 대부분의 종결어미에 청자 대우법의 기능이 실현되지만 15세기의 경우 청자 대우법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도 있지만 15세기의 청자 대우법은 주로 선어말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Collection @ uos

가 되는 것으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통사 구성의 종결어미화가 있다. 통사 구성에는 의존명사 구성, 인용 구성, '하-' 결합 구성, '말-' 결합 구성이 포함된다. 선어말어미의 결합에서와 같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서도 종결어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종결 기능만 하는 형태가 나누어지며, 인용 구성의 종결어미화의 경우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 형태로 나뉘는데 환원 가능한 형태가 종결어미이다. 이것은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의미 기능의 변화는 하나의 형태에 의미 기능이 분화하여 화계가 나뉘는 경우이다. 의미 기능이 변화는 양태 의미를 가지지 않던 종결어미에 양태 의미가 나타나 하나의 형태가 '하게'체와 '해'체로 구분이 된다. 이 외에도 형태가 변화하거나 다른 형식이 결합하여 높임, 강조 등의 의미 기능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의미 기능 변화 양상에서 논의할 것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는 종결어미가 체계를 갖추어 가는 시기이므로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다양한 형태들이 출현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종결어미와 19세기에 형성된 종결어미가 함께 쓰이면서 종결어미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문장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 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자료의 전체적인 종결어미의 사용과 화·청자 간의 화계 사용, 문맥 등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증명할 것이다.

자료는 19세기 말의 자료와 더불어 20세기 전반기 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볼 것인데, 독립신문, 잡지 등과 판소리 소설, 신소설 등 소설류의 지문에서는 문어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고, 한국어 교재, 소설류의 대화 부분, 희곡, 음성 자료에서 구어체의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특히 판소리 소설, 신소설, 현대소설로 이어지는 소설류의 지문을 통하여 문체의 변화를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양식의 문체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면, 구어는 화계 여섯 등급에서 다양한 변이 형태들이 출현한다. 이는 단지 형태만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계를 달리하거나 계층 간의 쓰임이 다르거나 하는 등 그 사용 양상에 있어서 변화를 보인다. 또한 같은 문체 안에서도 화계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화계를 형태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청자의 관계와 담화 상황에 따라 쓰임 양상을 파악하여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양태 의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화계를 중심으로 하여 나눈 문체를 그 등급에 고정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담화 상황에 중심을 두어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혹은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에 따라 청자 대우법 및 양태 기능이 어떻게 실현되고 변화를 일으키는지 고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새로이 형성된 종결어미 형태와 종결어미의 기능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대우법에서 다루어졌던 화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였으며 그것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19세기 판소리 소설, 신소설 등의 자

Collection @ uos

료와 20세기 초의 현대소설, 희곡, 음성자료 등 주로 구어체의 특성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볼 것이며, 또한 새로운 양식의 문체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밝히고자 한다.

1.4. 연구 자료

종결어미의 형태상 변화는 20세기 초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만 기능과 사용 양상의 변화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종결어미의 형태, 기능 그리고 사용 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문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종결어미 형태를 보기 위해서 구어체가 반영된 자료를 보아야 하는데, 문어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종결어미 형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종결어미의 기능은 문장 종결법은 물론 청자 대우법 그리고 양태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화·청자의 관계, 혹은 태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실현되기 때문에 문어의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헌에 나타나는 구어체를 보기 위해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기까지의 고소설,[14] 한글 편지, 문법서, 회화서(한국어 학습서), 신소설, 근현대소설, 희곡 등을 참고하였으며, 그리고 음성 자료로 유성기에 녹음된 연극(이하 유성연극)을 참고하였다. 소설의 경우 그 속에 실린 대화를 통하여 화·청자 간의 관계에 따라 실현되는 구어체를 볼 수 있다. 고소설의 경우 이전 시기의 문체가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전 시기의 양상을 통하여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표기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성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글 편지의 경우 비록 글로 쓰인 문어이지만 화·청자(내지 필·독자) 관계에 따라 대우법 양상이 실현되는 독특한 문체로 이것도 구어체 범주에 포함시킨다. 문법서는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예문을 통하여 당시의 그 형태소가 가지는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문법서와 회화서에 쓰인 문장들은 당시에 활발하게 쓰인 화계로 볼 수 있다.

20세기 신소설은 근대문학의 새로운 장르로서 고소설과는 문체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문체를 통해서도 당시의 종결어미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결어미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근현대소설,[15] 희곡으로 오면, 일부 예전의 문체나 종결어미도 등장하지마는 현대국어와 근접한 양상을 보인다. 희곡의 경우 배우들의 발화를 염두에 두고 쓰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구어체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

14) 고소설의 경우 시기가 19세기 말보다 앞선 19세기 중·후반이지만 참고한 것은 종결어미의 변화 양상을 살피기 위함이다.

15) 근현대소설에서 작가 염상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참고하였는데, 그것은 염상섭은 서울 중인 출신이므로 서울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 심훈도 서울 출신이다.

Collection @ uos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주로 음성 자료들을 참고로 하였는바, 바로 유성연극이다. 유성연극은 1930년대에 유성기에 녹음된 음성 자료로서 30년대의 종결어미 사용 양상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음성이 함께 있는 자료의 장점은 표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양태 의미와 억양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독립신문>과 같은 문어 자료와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현대국어의 자료도 활용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시기의 종결어미 변화 양상을 형태, 기능,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표 1> 19세기 자료

종류	자료	연도	저자	비고
고소설	남원고ᄉᆞ(南原古詞/경판본/1864~1869)			고전명작이본총서 춘향전 전집 5
간찰	창원황씨, 순흥안씨	19th-20th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역주 연구2
종교서	예수성교젼셔	1887	John Ross (羅約翰)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텬로력뎡	1895	E.G. Harriet, 이창직(번역)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신문	독립신문			영인본
문법서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 번역본 <韓國天主敎會史>	1874 1979	Dallet, CH.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7冊 21
	KOREAN SPEECH	1882	Ross, J.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1冊 6
	GRAMMAIRE CORÉENNE	1884	Ridel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6冊 19
	언문말칙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1887	Scott, J.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2冊 8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1893	Scott, J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2冊 9
	韓英文法 AN INTROD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1890	Underwood, H.G.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3冊 11

eCollection @ uos

회화서	日韓英三國對話	1982		大阪(출판지)
	日韓通話	1893		東京
	日韓會話	1894		東京
	朝鮮語學案內	1894		東京

<표1>은 19세기 자료로, 고소설, 종교서, 신문, 잡지, 문법서, 회화서(한국어 학습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소설의 경우, <춘향전>의 내용이 담긴 『南原古詞』를 참고로 하였는데, 이 텍스트는 <춘향전> 중에서도 19세기 후반까지 간행되고 서울 방언이 많은 경판본을 주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南原古詞』와 『한글 간찰』은 띄어쓰기를 제외한 표기법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판본이다. 그 외의 자료들은 영인본 자료들이다.

<표 2> 20세기 자료

종류	자료	연도	저자	비고
종교서	신약젼셔	1990	성경번역자회 (영국성서공회 경성지부)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잡지	신학월보 '권즁가'	1901	엡웟청년회	사진 자료
	少年	1910-1911		영인본(역락)
	白潮			영인본(태학사)
	廢墟			
	廢墟以後			
문법서	辭課指南KOREAN GRAMMATICAL FORMS	1903	Gale, J. S.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4冊 14
	辭課指南KOREAN GRAMMATICAL FORMS, rev. ed	1916	Gale, J. S.	『歷代韓國文法大系 第[2]部』第4冊 15
회화서	實用韓語學	1902	島井浩	東京
	韓語會話	1904	村上三男	東京

Collection @ uos

회화서	最新日韓會話案內	1904	嵩山堂編輯局	東京
	韓語教科書	1905	金島苔水·廣野韓山	東京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1905	島井浩	東京
	獨學韓語大成	1905	伊藤伊吉	東京
	日韓韓日新會話	1906	島井浩	大阪
	日韓言語合璧	1906	金島苔水	東京/大阪
	韓語正規	1906	近藤信一	東京
	韓語通	1909	前間恭作	東京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910	島井浩	大阪

<표2>의 자료들은 영인본 자료들이다. 『少年』은 육당 최남선이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잡지로 1908년 11월 창간하여 1911년 5월 통권 23호로 종간되었다. 『白潮』는 1922년에 창간되어 1923년 종간된 통권 3호이고 『廢墟』는 1920년에 창간되어 1921년 종간된 통권 2호이다. 『廢墟以後』는 1924년 1호만이 간행되었다. 『신학월보』는 기독교 단체인 '엡윗청년회'의 자료로 본고에서는 『사진으로 보는 정동제일교회 120년』(2007)에 실린 사진 자료을 참고로 하였다.

<표 3> 20세기 자료 – 신소설

작품	연도	작가	작품	연도	작가
혈의루(血淚)	1906	이인직	鬼의聲	1906	이인직
화즁화(話中話)	1907	이종정	枯木花	1907	이해조
愛國夫人傳	1907	장지연	驅魔劒	1908	이해조
은세계	1908	이인직	빈상셜(鬢上雪)	1908	이해조
치악산	1908	이인직	텰세계(鐵世界)	1908	이해조
금슈회의록	1908	안국선	경셰죵(警世鍾)	1908	김필수
숑뢰금(松籟琴)	1908	육정수	셜즁미(雪中梅)	1908	구연학
ᄌᆞ유죵(自由鍾)	1910	이해조	九疑山	1911	이해조

eCollection @ uos

두견셩(杜鵑聲)	1911	선우일	鴛鴦圖	1911	이해조
쌍옥젹(雙玉笛)	1911	김용준	紅桃花	1911	이해조
月下佳人	1911	김용준	화세계	1911	이해조
牧丹花	1911	김교제	모란병	1911	이해조
현미경	1912	김교제	琵琶聲	1912	이해조
비행선	1912	김교제	힝낙도(行樂圖)	1912	민준호
花의血	1912	김용준	玉壺奇緣	1912	민준호
黃金塔	1912	김용준	츄월식(秋月色)	1912	최찬식
산쳔초목	1912	南宮濬	안의셩	1912	최찬식
명월뎡(明月亭)	1912	박이양	재봉춘	1912	이상협
恨月	1912	박승옥	눈물	1913	이상협
雨中行人	1913	이해조	金剛門	1914	최찬식
金菊花	1914[16)]	작가 미상	금의쟁성		작가 미상
洗劍亭		작가 미상	추천명월		작가 미상

신소설은 1978년 亞細亞文化社에서 간행된 영인본이다. 작가 미상의 작품들은 말뭉치 자료에서만 확인한 것들이다.

<표 4> 20세기 자료 - 희곡, 소설

작품	연도	작가	판본	비고
두데기 詩人의 幻滅 李永女 難破 山돼지 正午	1925 1925~26(추정) 1926 1926 연대미상	김우진		김우진 전집 1 (연극과인간)
萬歲前 해바라기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1924 1924 1923-1924	廉想涉	高麗公司 발행판본 博文書舘 발행판본 東亞日報	廉想涉全集 1 (民音社)

16) 김용준이 1914년에 간행하였다.

Collection @ uos

標本室의 靑게고리(1921), 闇夜(1921) 除夜(1922), E先生(1922) 죽음과 그 그림자(1923), 電話(1925) 난 어머니(1925), 孤獨(1925) 檢事局待合室(1925), 輪轉機(1925), 遺書(1926), 南忠緖(1927), 밥(1926) 宿泊記(1927), 똥파리와 그의 안해(1929) 池先生(1930), 남편의 책임(1929) 嫉妬와 밥(1931), 불똥(1934), 失職(1936)		廉想涉		廉想涉全集 9
常綠樹	1935-1936	심 훈	漢城圖書(1952)	
永遠의微笑	1933-1934	심 훈	漢城圖書(1954)	
無情	1917	이광수	又新社(1981)	
흙	1932	이광수	三中堂文庫(1977/1982)	
元曉大師	1942	이광수	光英社(1956)	
운수조흔날	1924	현진건	『韓國代表短篇文學全集』, 庚美文化社(1979)	
물레방아	1925	나도향		
모밀꽃필무렵	1936	이효석		
따라지	1937	김유정		
印刷한 러브레터	1927	권경완	新民二二號	영인본 韓國近代戱曲作品資料集(亞細亞文化社)
홀아비형제	1928	춘 강	佛敎四八號	
흰젓	1928	백 우	佛敎五一號	
그들의 남매(月姬)	1929	이기영	朝鮮之光八二-九四	
복사나무 백인집	1929	이경손	新民四九號	

『김우진 전집』은 1999년에 띄어쓰기만 현행 맞춤법에 맞추고 표기는 원본에 실린 표기법 그대로 발행된 것이다. 『廉想涉全集』은 작품 발표 당시 신문, 잡지의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며, 단행본의 경우 초판본을 원문으로 삼은 것을 발행한 것이다. 심훈의 『상록수』와 『永遠의微笑』는 1950년대에 간행된 것이고, 이광수의 『無情』과 『흙』은 1980년대에 간행된 것이다.

Collection @ uos

『無情』의 경우 1917년 당시 표기를 말뭉치 자료에서 확인한 후, 1981년 판본과 대조·확인하였다. 김우진의 희곡 외에 『근대희곡집』에 실린 다섯 편의 희곡은 1920년대 작품으로 1989년 亞細亞文化社에서 간행한 영인본이다.

<표 5> 20세기 자료 - 유성연극(1930년대)

말 못 할 사정	아리랑 고개
동방의 비가	토막_ 빵보 일가의 이향(離鄕)
토막(土幕)_ 빵보 일가(一家)의 이향(離鄕)	낙화암(洛花岩)
순동(順童)이의 효성(孝誠)	동방(東方)의 비가(悲歌)
일편단심(一片丹心): 고려말엽 정몽주(鄭夢周) 실전(實傳)	낙랑공주(樂浪公主)와 마의태자(麻衣太子) 비사극(悲史劇)
벌 밧는 어머니	정희의 옵바
모성애	순사와 산부
한 많은 신세	눈물 저즌 자장가
모던 심청전	누구의 죄
저승에 맺는 사랑	마즈막 편지
무엇이 숙자를 죽였나	불여긔
불여긔	신장한몽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사의 승리
처량한 밤	

<표5>는 1930년대 음성 자료로, 20세기 초에 쓰인 희곡으로 공연한 것을 유성기에 녹음한 것이다. 음성은 수행되는 억양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20세기 후반 자료로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와 이만희의 희곡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를 참고하였다.

Collection @ uos

2.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

교착적 성격을 가진 국어는 중세국어 시기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그러나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선어말어미가 재구조화하며 기능이 변화함으로써 종결어미의 형태가 변하고 기능까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하여 종결어미는 굴절적인 성격도 띠게 되었다. 교착적인 특성을 지닌 국어에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기능을 하여 그 의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소를 하나씩 교착해야 하지만, 굴절적인 특성이 나타나려면 그러한 형태소들이 결합 혹은 융합을 하여 하나의 형태소에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하고 그 어미는 굴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종결어미는 15세기에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었지만[17] 16세기를 지나면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이 되면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굴절 현상이 종결어미의 특징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된다. 이는 선어말어미의 재구조화로 인한 기능 변화가 종결어미에까지 영향을 미쳐 종결어미의 형태와 기능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근대국어 이후에 생성된 모든 종결어미가 기능이 바뀐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단형 종결어미가 생성되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선어말어미의 체계가 달라졌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18]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면서 선어말어미의 기능은 축소되기 시작했는데, 기능을 잃은 선어말어미는 소멸되거나 뒤의 종결어미와 통합되기도 하였다. '-엇-'이나 '-겟-'과 같이 구 구성에서 새로운 선어말어미가 생성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선어말어미는 종류와 기능에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선어말어미의 재구조화로 인한 선어말어미 체계의 변화와 선어말어미의 기능 축소는 종결어미에 영향을 끼치고, 그럼으로써 종결어미는 일부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부담 지게 되어 그 기능이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선어말어미의 기능까지 떠안게 됨으로써 기능이 확대된 종결어미는 성격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갖가지의 양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결어미를 필요로 하게 된다.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은 여러 방법으로 형성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선어말어미의 체계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

17) 이러한 어미는 중세국어에서도 출현한다. 'ᄒᆞ쇼셔'체의 명령형 어미 '-쇼셔', 'ᄒᆞ야쎠체'의 명령형 어미 '-야쎠' 등과 같은 어미들은 단일 형태가 아닌 어미들이 결합한 형태로서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더 이상 분석이 되지 않으며 기능은 명령, 의문의 종결법 외에도 대우법 기능을 한다.

18)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는 같지 않다. 연결어미는 '-느-, -더-, -리-' 등의 선어말어미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llection @ uos

근대국어에서 시작된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는 19세기 종결어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선어말어미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능이 다른 기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기능을 잃고 소멸되기도 한다. 또한 종결어미와의 결합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나타난다. 선어말어미가 결합에 제약을 받게 되면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잃고 종결어미와 하나의 형태로 통합된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선어말어미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결합에 따라서도 바뀌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예를 들어, '-ㄴ다'와 '-습니다', '-더라'에서 결합된 선어말어미는 그 기능의 변화 양상이 같지 않고 종결어미와 결합에 있어서도 종결어미에 따라 그것이 하는 기능은 다르며 결합 양상도 같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어미들이 분석이 되는지, 분석이 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인지는 종결어미를 가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9)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새롭게 형성된 종결어미를 살펴본 후, 종결어미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와 함께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가 정확히 구분되기보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장에서는 '-습-'과 '-느-', '-더-', '-리-'와 '-거/어-', '-니-', '-도-'가 종결어미와의 결합에 따라 기능, 결합 양상 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그러한 현상이 종결어미의 형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1. '-습-'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청자 대우에 있어서 '-숩-'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17세기에 화자 겸양의 단계를 거쳐 청자 대우 단계로 이르게 됨으로써 중간 등급이 둘로 나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ᄒᆞᄋᆞᆸ소'체이다.20) 18세기 등장하는 'ᄒᆞ오'체는 '-숩-'이 청자 대우 기능을 띠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때의 '-숩-'은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종결어미

---

19) 예를 들어, '-ㄴ다'에서 '-느-'가 분석이 되는지 아니면 분석이 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인지는 '-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0) 'ᄒᆞ소'체에 나타나던 화자 겸양의 '-숩-'이 종결어미와 결합함으로써 청자 대우 기능을 띠게 되고 통합형 종결어미를 형성하며 하나의 화계를 이루는 것이다. 중간 등급의 청자 대우 기능을 하는 종결어미에 화자 겸양 혹은 청자 대우 기능 요소가 통합되어 화계는 'ᄒᆞᄋᆞᆸ소'체가 'ᄒᆞ소'체보다 높은 등급을 나타낸다. 17세기의 'ᄒᆞ소'체와 'ᄒᆞᄋᆞᆸ소'체는 화계가 같다고 볼 수 없는데, 'ᄒᆞ소'체는 16세기 이후로 17, 18, 19세기에도 주로 상위자인 화자가 하위자인 청자에게, 혹은 화자가 자신과 비슷한 신분과 지위를 지닌 청자에게 사용된 데 반해, 'ᄒᆞᄋᆞᆸ소'체는 화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인 청자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이승희 2007). 이와 달리 'ᄒᆞ쇼셔'체의 경우 '-숩-'의 결합은 필수적이 아닐뿐더러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될 뿐이지 화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Collection @ uos

이다.[21] 19세기에 '-ᄉᆞᆸ-'은 후행요소와 결합하면서 청자 대우 기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22] 종결어미와 결합한다. 이 시기 '-ᄉᆞᆸ-'은 기능이 변화하고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19세기에 나타나는 '-ᄉᆞᆸ-' 결합형 종결어미와 '-ᄉᆞᆸ-'의 기능 변화에 따른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2.1.1. '-ᄉᆞᆸ-' 결합형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ᄉᆞᆸ-'이 결합된 종결어미가 형성되기 전, '-ᄉᆞᆸ-' 자체가 종결어미로 된 형태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다. 18세기에 형성된 'ᄒᆞ오'체는 19세기가 되면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므로 19세기 특징을 대표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23] 19세기 다양한 양상을 띠며 발달한 '하오'체는 '-ᄉᆞᆸ-' 뒤의 문말형식이 절단된 형태이다.[24] 절단된 형태인 '-오'가 종결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ᄉᆞᆸ-'이 청자 대우로 기능 변화한 것과 관련된다. 종결어미 '-오'는 전 시기의 'ᄒᆞ(ᄋᆞᆸ)소'체의 '-소'와 다른 형태이고,[25] 'ᄒᆞᄋᆞᆸ소'체의 '-ᄉᆞᆸ-'과도 기능이 다르다. 'ᄒᆞᄋᆞᆸ소'체의 경우 '-ᄉᆞᆸ-'이 완전하게 청자 대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ᄉᆞᆸ-'의 결합으로 'ᄒᆞᄋᆞᆸ소'체가 'ᄒᆞ쇼셔'체와 'ᄒᆞ소'체의 중간 등급을 이루고는 있으나 'ᄒᆞ쇼셔'체에서는 이와 같은 '-ᄉᆞᆸ-'의 결합이 독자적인 등급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승희 2007). 그렇기 때문에 'ᄒᆞᄋᆞᆸ소'체는 불안한 등급일 수밖에 없다. 18세기에 이르러서 '-ᄉᆞᆸ-'은 '-오'의 형태로 종결어미화하여 하나의 화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17세기 화자 겸양에서 청자 대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ᄒᆞ오'체의 '-오'와 다른 '-ᄋᆞᆸ'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1) ㄱ. 야간 평안이 쥬무신 문안 듣ᄌᆞᆸ고 듣듣ᄒᆞ오이다 긔별ᄒᆞ신 거ᄉᆞᆫ 보션은 쌜라 기우랴고 ᄒᆞ던 것 보ᄂᆡᄋᆞᆸ 빅미ᄂᆞᆫ 여도 업사와 명일 앗침 ᄒᆞ랴고 ᄒᆞ것ᄉᆞ오셔 되보ᄂᆞᄋᆞᆸ <창원황

21) 15세기 종결어미들 가운데 청자 대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명령형 어미 '-쇼셔', '-야쎠', 청유형 어미 '-사이다' 정도였으나, 16세기가 되면 'ᄒᆞ야쎠'체에서 'ᄒᆞ소'체로 대체되면서 평서형 어미 '-ᄂᆡ'류, 의문형 어미 '-ㄴ가'류, 명령형 어미 '-소', 청유형 어미 '-새'와 같은 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22) 17세기부터 시작된 '-ᄉᆞᆸ-'의 재구조화로 19세기에는 'ᄒᆞᆸ시오'체가 형성되는데, 윤용선(2006)은 [-ᄉᆞᆸᄂᆞ이다 > -ᄉᆞᆸᄂᆡ다]의 재구조화가 완결된 시기로는 19세기 중반으로 추정하였다.

23) 이에 반해 19세기에 형성된 '해'체는 20세기의 특징을 대표하는 형태이다.

24) 윤용선(2006)은 'ᄒᆞ오'체의 '-오'는 '-ᄉᆞᆸ-'의 기능이 청자 높임으로 바뀐 후에야 [-ᄉᆞᆸ>-오]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남미정(2007)은 '-오'는 '-ᄉᆞᆸ-'의 후행요소가 절단된 상태이므로 '-ᄉᆞᆸ-'이 청자 경어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5) '하소'체의 '-소'는 비분간 어미로 분간어미인 '하오'체와 구별된다.

Collection @ uos

씨 13>

ㄴ. 숨자리도 ᄒᆞᆫ 괴약 뒤슈슝ᄒᆞ오니 마음 노히지 아니ᄒᆞ오이다 아기년 돌 지나ᄉᆞ오니 긔특 긔특ᄒᆞ오나 외오셔 못 보오니 섭섭ᄒᆞᆫ 말솜은 다 못 ᄒᆞ게ᄋᆞᆸ 언마나 크고 거르겨 ᄒᆞᄋᆞᆸ ᄎᆞ마 굼굼 보고시븐 ᄉᆡᆼ각 근졀 근졀ᄒᆞ오며 <창원황씨 63>

(1)은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언간으로 (1ㄱ)은 시집간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이고 (1ㄴ)은 시집 간 여동생이 오라버니에게 쓴 편지인데, '-ᄋᆞᆸ'이 '하소서'체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ᄋᆞᆸ'은 'ᄒᆞ쇼셔'체에서 '-ᄉᆞᆸ-'의 후행형식이 생략된 형태로,[26] 19세기에도 이러한 형태는 이어지지만 이승희(2007)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편지, 신문의 공고 등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체로 하나의 독립된 화계 내지 종결어미로 보기 어렵다. (1)에서도 확인되는 것같이 편지 등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체이다.

'-ᄋᆞᆸ'과 달리 '-오'는 하오체를 형성하여 19세기에 활발하게 쓰이는데 '하오'체에 화자 겸양을 나타내는 '-옵(시)-'가 결합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오'체의 '-오'가 중간 등급을 나타내는 청자 대우 기능을 하고 있고, '-옵-'의 결합으로 인해 화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오'와 결합하는 '-옵-'은 화자 겸양이다. 오늘날에는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화자 겸양 '-옵-'은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청자 대우 요소가 있는 형태에서 화자 겸양은 잉여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화자 겸양 요소는 의고적인 의미 기능을 띠게 되고, '하소서'체에 수의적으로 결합한다.

현대국어에서 '하오'체에 결합하던 '-옵시/ㅂ시-'는 평서형, 의문형 어미로의 쓰임이 사라진다. 남미정(2011)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온말을 써야 한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작용하는 데 비해 반말은 그러한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운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말[27] 계열에 속하는 '하오'체가 쓰인 장면은 '하소서'체에 비해 비격식적이고 친밀감 있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비격식적이고 친밀감 있는 '하오'체가 구어에서 활발하게 쓰이면서 의고적 느낌을 주는 화자 겸양 요소는 더 이상 결합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우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거나 둘 다 높임이 되는 대상

26) 황문환(1999, 2010)은 'ᄒᆞᄋᆞᆸ'류 종결형은 기원적으로 'ᄒᆞ(ᄋᆞᆸ)쇼셔'체 종결형엣 '-ᄉᆞᆸ-' 뒤 임의 형태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며, 생략형인 만큼 'ᄒᆞ(ᄋᆞᆸ)쇼셔'체의 대우에 영향을 미쳐 화청자(=발수신자) 간의 대우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ᄒᆞᄋᆞᆸ'류는 'ᄒᆞ(ᄋᆞᆸ)쇼셔'체의 임의적 생략형으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분포의 확대와 함께 18세기 이후 점차 독자적인 대우 성격을 확보하여 'ᄒᆞᄋᆞᆸ'체로 정착하면서 'ᄒᆞᄋᆞᆸ'체는 특히 [남편→아내]의 언간에서 기존의 'ᄒᆞᄋᆞᆸ소'체와 'ᄒᆞ(ᄋᆞᆸ)쇼셔'체 사이의 새로운 중간 등급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기술하고 있지만 이것은 독립된 화계로 보기 어렵다.

27) 여기서 말하는 반말이란, 문말형식이 절단된 형태를 이르는 것이다. 김영욱(1997)은 중세국어 반말에 대해 "본래 '半말'이란 완전한 어형이 아닌 어미의 일부가 잘려 나가는 형태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된 것, 즉 형태상으로 완전하지 못한 어형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였다.

Collection @ uos

이어야 하는 문장에서만 나타나는 제약이 있으므로 하나의 종결어미로 굳어지지 못한다.[28)]

(2) ㄱ. 부탁허오니 ᄉᆡᆼ각대로 좇토록 ᄒᆞ여 주옵시오 <日韓通話 53>

ㄴ. 그럿케 되면 작히 돗킷소 잘 슈션헙시오 <日韓韓日新會話 232>

ㄷ. 「고맙습니다!」하고 중환이가 내밀고 섯든 솟을 바다들고 「안령히 갑쇼」 하고 저 속에 차려 노흔 빙수 파는 터전으로 드러가 버렷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ㄹ. 큰 갈에오토: (빙긋 우스며) 때가 왓습니다. 난 나가겟습니다. 그러나 별이 발서 떨어진 줄을 잇지 마십쇼. 두 분이 다. <難破>

평서형, 의문형과 달리 주체와 청자가 일치해야 한다거나 둘 다 높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과 상관이 없이,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는 문장에서만 실현되는 명령형의 경우 '-ㅂ시-'와 하나의 어미로 융합되어 화계가 '하오'체보다 한 단계 높게 형성됨으로써 '하십시오'체에 비어 있는 명령형 어미 자리를 메운다. (2ㄱ, ㄴ, ㄷ)에서 하나의 형태로 융합된 명령형 어미 '-ㅂ시오'는 다시 앞에 주체 존대 '-시-'와 결합한 형태인 (2ㄹ)의 '-십시오'가 '하십시오'체의 대표적 명령형 어미로 자리하게 된다. 20세기 초에는 '-ㅂ시오'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지만 점차 그 쓰임은 줄어들고 '-십시오'가 대체하게 된 것이다. 정경재(2016)은 1990년대에는 '합쇼'체 명령형 어미가 출현한 모든 예에서 '-시-'가 함께 나타나, 20세기 전기부터 드러난 경향이 더욱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화계의 명칭이 '합쇼'체에서 '하십시오'체로 변화한 것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며, 오늘날 '-시-' 없이 '-ㅂ쇼'가 단독으로 쓰인 예는 "어서 옵쇼", "한 푼만 줍쇼"와 같이 상인이나 걸인 등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사회 방언이라[29)] 생각된다는 것이다.

'하오'체에 '-ㅂ시-'가 결합한 '-ㅂ시오'는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로 쓰이지 않게 되면서 하나의 화계로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나 명령형 어미의 경우 '하십시오'체의 '-십시오'와 함께 '-ㅂ시오'는 계속 사용되었고, 축약형인 '-십쇼', '-ㅂ쇼'도 나타났다. '-ㅂ쇼'의 경우 계사 '-이-'와 융합된 '-입쇼'가 생성되어 '-요'와 같이 반말에 결합된다. 그런데 '-요'와 달리 '-입쇼'는 결합에 있어서 제약을 보인다.

'하십시오'체는, 청자 대우로 기능이 변화한 '-습-'이 뒤의 선어말어미와 융합하여 새로운 종결어미를 생성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아주 높임의 '하소서'체를 대

28) 이에 대한 부분은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9) 이정복(1998)은 '-ㅂ쇼'의 형식에서 이름이 만들어진 '합쇼'체는 현대국어 초기 상업에 종사하는 등의 특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쓰던 사회 방언이라 하였다.

Collection @ uos

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 청유형 어미와 명령형 어미는 다른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령형 어미가 '하오'체에 '-(시)ㅂ시-'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과 달리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어미는 '하소서'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3) ㄱ. 앗씨게셔ᄂᆞᆫ 고ᄉᆡᆼ만 ᄒᆞ시고 ᄃᆡᆨ에게셔도 쓸ᄃᆡ <u>업습니다</u> 앗씨게셔 가시려면 진작 가셔야지 ᄒᆞᆫ 나이라도 절무셧슬 ᄊᆡ에 가셔야 <u>ᄒᆞᆸ니다</u> <혈의루 52>

ㄴ. 드러안지신 슌사도게셔 무어슬 <u>아르시깃슴닛가</u> 렴문ᄒᆞ야 붓친 놈들이 몹쓸놈이지오 <은세계 57>

(4) ㄱ. 비가 올 모양이니 여긔 자고 <u>갑시다</u> / 그리 <u>하옵시다</u> <日韓會話 227>

ㄴ. 「우리 인사<u>하십시다</u>」하며 繁雜스럽게 말을부친다. <萬歲前>

ㄷ. 「이건 무슨 품삭을 바드셧슴니까. 나두 좀 먹어 <u>봅시다그려</u>」<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3)은 '하소서'체의 '-습-+-느-+-이-'가 융합하여 '-습니-'를 형성한 후, '-다', '-까'가 통합한 형태인 평서형 어미 '-습니다', 의문형 어미 '-습니까'에 대한 예이다. (4)는 청유형 어미에 대한 예로 '-습-'에 '-사이다'의 축약형인 '-시다'와 결합한 것이다. 청유형 어미는 명령형 어미와 마찬가지로 '-ㅂ시다' 앞에 '-시-'가 결합하여 (4ㄴ)과 같이 '-십시다'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오늘날 '-시-'가 결합된 '-십시오'는 하나의 명령형 어미로 고착되지만 청유형 어미의 경우 '-시-'의 결합은 수의적이다. 청유형 '-(시)ㅂ시다'는 형태상으로는 '하십시오'체에 속하지만 화계상으로는 '하오'체에 속한다.[30]

(5) ㄱ. 붓시 죠흐면 글시도 <u>잘되옵니다</u> <日韓英三國對話>

ㄴ. 흑이 부탓스니 씨서라 씨서 <u>왓습네다</u>. <日韓會話 45>

ㄷ. 너무 칭찬ᄒᆞ시니 <u>붓구롭습늬다</u> <獨學韓語大成 193>

ㄹ. 니후 ᄂᆡᄂᆡ 긔체후 안령ᄒᆞ압심 <u>복축하압난니다</u> <순흥안씨 18>

ㅁ. 감ᄉᆞᄒᆞ고 ᄀᆞᆺ치 ᄂᆞ려 <u>간답데다</u> <日韓會話 80>

---

30) 그러나 오늘날 실제 쓰이는 양상은 청자(독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문어와 구어에서의 양상이 다른데, 문어에서는 '-ㅂ시다'가 '하십시오'체로 쓰인다. '해요'체가 '하십시오'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어와 달리 문어에는 청유형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독자)이 불특정 다수이므로 구어에서 쓰이는 화계보다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계가 낮아졌어도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오'체는 명령형 어미에 '-시-'가 결합된 형태인 '-시오' 외에는 문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데 반해, '-ㅂ시다'는 '-시-'가 결합하지 않는 형태가 쓰인다. 그리고 구어의 경우, 윗사람에게는 '-(시)ㅂ시다'가 쓰이지 않으므로 '하오'체에 속하지만, 청자가 화자와 대등할 경우 '하십시오'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계속 새로운 형태들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다양한 형태들이 출현한다. '하십시오'체 '-습니다'류는 '-ᄉᆞᆸᄂᆞ니이다 > -ᄉᆞᆸᄂᆞ니다 > -습느니다 > -습늬다 > -습니다'의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데(이현희 1982), 이러한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음을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5ㄱ) '-옵니다'는 '하소서'체와 '하십시오'체의 경계에 놓인 형태로, 오늘날에는 의고체로 나타난다. (5ㄹ)과 같이 원칙법 '-니-'가 '-ㄴ-'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곧 소멸된다. (5ㅁ)은 '-느-' 대신 '-더-'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습니-'의 '-느-'와 달리 '-습디-'의 '-더-'는 그 의미가 살아 있다. '-습디다'는 '-더-'가 가진 [경험]이라는 의미로 인하여 구어에서만 사용되며 화계는 '하오'체로 '-습니다'와 화계가 다르게 실현된다.

(6) ㄱ. 노국말은 엇더케 ᄒᆞᆸ닛가 <獨學韓語大成 136>
  ㄴ. 어듸가 … 계섯습듸가 <日韓言語合璧 151>

(6) 의문형 어미의 경우, 초기 한국어 회화 교재에서는 다른 종결어미에 비해 '하십시오'체가 활발하게 쓰이지 않고 주로 '-오닛가'와 같은 '하소서'체가 쓰인다. '하십시오'체 의문형 어미 '-ㅂ니까/습니까'는 '하소서'체의 의문형 어미 '-오닛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결어미에 비해 '하소서'체 의문형 어미가 늦게까지 활발하게 쓰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는 융합형이지만 '-습-'과 '-ㅂ-' 그리고 '-읍-'[31]이 환경에 따라 교차되는데, 당시에는 이형태들의 교차가 더 많았다. 즉 새로운 종결어미 '-습니다/까' 외에도 '-습-'의 이형태인 '-옵-'이 결합된 '-옵니다/까' 형태도 나타났다. 이 형태들은 평서형과 같이 '하십시오'체와 '하소서'체 경계에 있는 어미들로서 '하소서'체의 '-옵나이다/까', '-나이다/까', '-이다/까'와 함께 혼용되어 쓰인다.[32]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의고형으로 남아 있다.

(7) ㄱ. 그거슨 나무가 가벼웁고 소리가 잘 나는 연고외다 <獨學韓語大成 310>
  ㄴ. 쌀아서 그 慾求나 希望에 비추어서 서로 相對者를 吟味하고 理解하게 되엇슬 것이외다. <除夜>
(8) ㄱ. 참 장ᄒᆞ신 말슴이올시다 나의 경영ᄒᆞᄂᆞᆫ 바를 드러보시랴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217>

---

31) 청유형에서는 '-ㅂ'과 '-읍-'이 교차되어 실현된다. 평서형, 의문형에서도 표기상으로는 '-읍-'이 쓰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2) '하소서'체에는 '-겠-'이 결합하여 '-겠나이다/까'도 쓰이지만 '-리-'가 결합된 '-(오)리다/까'도 여전히 쓰인다. 또한 감동법 어미가 결합된 '-오소이다/까', '-로소이다/까'도 쓰인다.

Collection @ uos

ㄴ. 崔氏집과는 벌서 絶緣이올시다. 오늘밤에라도 가겟습니다. 어대던지 가겟습니다. 永遠히, 永遠히올시다. …… <除夜>

(9) ㄱ. 증과 북 뚜들기고 춤추는 거시 우습ᄉᆞ외다 <日韓通話 91>

ㄴ. 칭찬만ᄒᆞ시니 너무 북그럽소이다 <日韓韓日新會話 62>

ㄷ. 표를 어더왓쇠다 <獨學韓語大成 173>

ㄹ. 택시 기사: 댁 남편이슈? 자, 여기 있수다. …… 차비는 안 받수다. <이만희_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7), (8), (9)는 평서형 어미 '-외다'33), '-올시다', '-소이다' 등 역시 19세기에 형성된 것이다. '-외다'와 '-올시다'는 계사에 연결되는 형태로서 '-느-'가 융합되지 않았다. (7) '-외다'는 '-습-'의 이형태인 '-오-'와 '-이-', '-다'가 '-이- 융합된 형태이고, (8) '-올시다'는 '-습-'의 이형태 '-오-'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되어 있는 구성으로 '-오-+-ㄹ#ᄉᆞ+-이-+-다'의 융합형이다. 그러나 평서형, 의문형 모두 나타나는 '-습니다', '-습니까'와 달리 '-외-'와 '-올시-'는 '-다'와만 결합되어 평서형으로만 실현된다.

(9)의 '-사외다', '-소이다'는 '-외다'와 같은 결합형이지만 '-사외다', '-소이다'는 어간 내지 어미 뒤에 오는 형태이다. (9ㄴ) '-소이다'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부터 보이던 '-로소이다'와는 다른 형태이다. '-로소이다'는 감동법 어미 '-돗-'이 결합한 형태로, 계사 뒤에 결합하여 '-이로소이다'로 실현된 것이다. 선어말어미 '-리-'와 결합한 '-리로소이다'는 축약되어 '-ㄹ소이다'로 실현된다. 그러나 '-사외다', '-소이다'의 '-사오-'와 '-소-'는 '-습-'의 이형태로서 '-습-+-이-+-다'가 융합한 형태이고,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었-', '-겠-'하고 결합한다. '-소이다', '-쇠다'는 오늘날에도 출현하지만 '-사외다'는 쓰이지 않는다.

(9ㄹ)은 20세기 후반 자료로 '-소이다 > -쇠다 > *-소다 > -수다'의 변화를 보인다. '-쇠다'에서 '-이-'가 축약되고 /ㅗ/>/ㅜ/로 바뀐 것인데, '-쇠다', '-수다'는 '하십시오'체가 아니다. 앞의 '남편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 '하오'체에서 변화한 '하우'체이다. 축약·탈락됨으로써 화계가 낮아진 것이다.34)

(10) 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환희 035>35)

33) 17세기에 하나의 예가 나타난다. "후심 고쳐 보내오ᄃᆡ 곱지 아니외다" <하씨 간찰>

34) 김영욱(1997)은 공손한 표현일수록 간접적이면서 어형도 길어지는 것이 상대 높임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하였고, 남미정(2008/2011)에서도 온전한 형태에서 절단이 일어나면 경어도가 한 단계 하락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축약·탈락의 단계를 거친 형태도 화계가 낮아질 수 있다.

35) 19세기에도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도련임 웬 목통이요 고함 소ᄅᆡ에 사또 놀ᄂᆡ시사 엄문하라 하옵시니 엇지 아뢰잇가" <춘향철종 上:17ㄱ>

Collection @ uos

ㄴ. 맙시사 맙시사 그리를 마시사 감사도 사름이지 남의돈을 쌔서먹으려고 무죄흔사름을 잡아다가 가진 악형을 다흐더니 돈을 아니 쥰다고 亽름을 엇지 쥭인단 믈이냐 <은세계 364>

(11) ㄱ. 졍익는 그 말을 듯는지 마는지 도시 상관 아니흐고 줄곳 흐는 소릭가 시어머니 회기히 줍시사 남편 쇽히 도라오게 흐야 줍시사 흐고 쏘흐고 쳔번만번 흐며 그 밤을 지닉는딕 <안의성 117>

ㄱ'. 「神主」: …… (詩人이 죽어 가는 白衣女를 둘쳐 업고 나온다. 醫師의게) 내 孫子 왓소. 아 하느님 내 孫子를 살녀즙시사. <難破>

ㄴ. (샛이) 예 져는 예셔 사환 흐는 아희올시다 이 아릭에서 리시종 령감게셔 가비차를 보닉시며 일긔가 치운딕 흔곡보식 마십시사 엿쥬라고 흐셔요 <산쳔초목 11>

ㄷ.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십사 하고 한 건요. 저 다른 게 아니라……」 <永遠의微笑 101>

(10ㄱ)의 '-사'는 연결어미 '-시어'의 축약 형태이고, (10ㄴ)은 '-사' 앞에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명령형 어미로 20세기에 등장한다. 그리고 '-습-'이 결합하고(11ㄱ), 다시 '-시-'가 결합(11ㄴ) 후 '-습-' 뒤의 '-시-'가 탈락한 형태(11ㄷ)로, 현대국어에 남아 있는 것은 (11ㄱ, ㄷ)이다. (10ㄱ)은 연결어미이지만 (10ㄴ), (11ㄱ, ㄴ, ㄷ)은 '합쇼'체, '하십시오'체의 종결어미로 [부탁], [청원]을 의미하고 주로 인용절에 쓰인다.

2.1.2. '-습-'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중세국어에서 객체 존대를 담당하던 '-습-'은 17세기 화자 겸양 단계를 거쳐 19세기가 되면 청자 대우를 나타내게 된다. 17세기 선어말어미 '-습-'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여, 일부 어미에 따라 '-습-+-시-'의 구조가 '-시-+-습-'의 구조로 점차 바뀌게 되는 것이다.[36] 화자 겸양을 나타내던 '-습-'은 18세기가 되면 '-습-' 뒤의 문말형식이 절단되어 종결어미 '-오'가 형성되고, 청자 대우를 나타내게

36) 박부자(2005) 근대국어 [시+습]의 분포

	종 결 형			비 종 결 형								
				연 결 어 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평서	의문	명령	-니	-고	-며	-되	-다가	-기	-ㅁ	-ㄴ	-ㄹ
17세기	o	o	x	o	o	o	x	x	x	x	x	x
18세기	o	o	x	△	△	△	o	x	x	x	x	x
19세기	o	o	o	o	o	o	△	o	o	x	x	x

Collection @ uos

됨으로써 하나의 화계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오' 외에 선어말어미 '-삽-'에서도 기능 변화가 이루어져 청자 대우를 담당하게 되는데, 박부자(2005), 윤용선(2006)은 19세기에 '-삽-'의 재구조가 완료되었다고 하였다.

'-시-삽-'으로의 변화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삽-시-'형과 '-시-삽-'형은 19세기까지 공존한다. 이에 대하여 김영욱(1993/1995)는 '-시-삽-'형은 종결문에 나타나고 '-삽-시-'는 대체로 비종결문에 나타나는데, 종결문에서의 '-삽-'의 이동이 19세기에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동이 완료된 '-삽-'의 경우는 모두 상대 높임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부자(2005)도 현대국어에도 이러한 공존 현상이 나타나는데, 종결형에서는 현대국어 이전에 완료되어 '-시-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명사형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등 전성어미와의 결합에서 '-습-'은 오히려 '-시-' 뒤에 놓이는 것이 부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12) ㄱ. 뎌의 눈압헤 하ᄂᆞ님을 두려워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ᄒᆞ신 말ᄉᆞᆷ이 곳 이 셰ᄃᆡ를 ᄀᆞ르친 거시오니 엇지 졀통치 아니ᄒᆞ리오 <경셰종 3>

ㄴ. 츈향이 엿ᄌᆞ오ᄃᆡ 원졍의 알왼 말ᄉᆞᆷ 분간이 업ᄉᆞᆸ고 다시 분부 이러 ᄒᆞ오시니 ᄃᆡ비졍 쇽ᄒᆞ온 후ᄂᆞᆫ 관기가 아니옵고 <남원고ᄉᆞ 3:28ㄱ>

ㄴ'. 우리 아버니 하늘의 계옵시니 <THE LORD'S PLAYER IN COREAN>[37]

ㄷ. (김) 규수에 말ᄉᆞᆷ이 뎍당ᄒᆞ시오나 ᄂᆡ 규수가 혼ᄌᆞ 한탄ᄒᆞ시는 말ᄉᆞᆷ을 듯ᄉᆞ오니 즉이 ᄉᆞ람과 일반니시라 <洗劍亭 4>

ㄹ. 우리 아바지여, 일홈의 거륵ᄒᆞ심이 나타나옵시며 나라히 림ᄒᆞ입시며 우리의게 날마다 일용ᄒᆞᆯ 량식을 주옵시고 <신약젼셔 눅 11:2-3>

ㄹ'.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눅 11:2-3>

ㅁ. 상한의 긔후 안녕ᄒᆞ압신 문안 아옵고져 바라오며 객듕 쎄치시옵고 <창원황씨 언간 14>

(13) ㄱ. 더구ᄂᆞ 츌류ᄒᆞ오신 셩효로 약셕의 효 잇기를 앙츅ᄒᆞ옵시다 <창원황씨 언간 02>

ㄴ. 상한의 긔후 안녕ᄒᆞ압신 문안 아옵고져 바라오며 객듕 쎄치시옵고 …… 힝ᄎᆞ도 못 뫼옵시니 망조ᄒᆞ옵신 심사을 사옵시랴 <창원황씨 언간 14>

(14) ㄱ. 하루바삐 끊어 주시기 간절간절 바라옵고 겸하야 내내 근강하옵심 바라오며 이만 그치나이다 <생의반려 251>

ㄴ. 하ᄂᆞ님 아바지여 지금이 녀인이 평ᄉᆡᆼ 지은 죄악을 아바지씌 일일히 쟈복ᄒᆞ옵고 아바

37) 미국성서공회 발간 잡지 <Bible Society Rocord(BSR)> 1885년 5월호에 실린 이수정 번역의 '한국어 주기도문'

지의 광ᄃᆡ 무변ᄒᆞ신 은혜를 입어 그 죄를 용셔히 쥬시옵기를 간졀히 바라옵ᄂᆡ다 <눈물 848>

ㄷ. 아바지ᄭᅴ셔 뎌희를 ᄎᆞᆷ 리치로 거륵ᄒᆞ게 ᄒᆞ옵시기를 비옵ᄂᆞ니 아바지의 말ᄉᆞᆷ은 ᄎᆞᆷ 리치니이다 <신약젼서 요 17:17>

19세기 선어말어미 '-습-'은 연결형, 관형사형, 명사형 그리고 종결형에 나타나는데 이때의 기능은 화자 겸양이다. 연결형, 관형사형, 명사형의 경우 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어미에 결합된 '-습-'의 기능은 청자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화자 겸양이고, 이들 어미에 나타나는 '-습-'과 '-시-'의 결합 양상은 '-습-시-'가 된다. 그러나 19세기의 '-습-'은 화자 겸양에서 청자 대우로 변해가는 과정에 놓여 있었고 결합 순서도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이 세 어미에서는 혼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12)는 연결형이고 (13)은 관형사형이며 (14)는 명사형으로, 결합 양상이 '-습-시-'와 '-시-습-'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고 형태도 '-오-', '-ᄋᆞᆸ-', '-옵-', '-ㅂ-'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쪽으로 고착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습-시-'와 '-시-습-', '-오-'와 '-옵-'은 혼용된 양상을 보인다.[38]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연결형, 관형사형, 명사형이 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 어미에 나타나는 '-습-'은 화자 겸양인 것이다.

(15) ㄱ. 쥬여 구ᄒᆞ쇼셔 우리들이 죽겟ᄂᆞ이다 <신약젼서 마 8:25>

ㄱ'. 셰상에 친구를 잘 사귀면 명헤를 어더 ᄃᆞ인이 되나이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92>

ㄴ. 두름이를 학이라 ᄒᆞ옵ᄂᆞ이다 <韓語正規 237>

ㄴ'. 일즉 니러낫ᄉᆞᆸᄂᆞ이다 <獨學韓語大成 115>

ㄴ''. 아모ᄶᅩ록 덕힝을 닥고 지식 널펴셔 ᄃᆞ인군ᄌᆞ 되시기 바람나이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92>

ㄷ. 구ᄒᆞ여 보리다 / 어더 드리리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62>

ㄷ'. 슈고로히 먼길을 오시니 ᄀᆞᆺ부시오리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83>

(16) ㄱ. 쥬여, 어ᄃᆡ로 가ᄂᆞ닛가 <신약젼서 요 13:36>

ㄱ'. ᄇᆡᆨ셩이 능히 다시 회복ᄒᆞ고 셜치ᄒᆞᆫ 날이 잇ᄂᆞ잇가 <愛國夫人傳 25>

ㄴ. 언졔 상근으로 도라오실 터이오닛가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79>

ㄴ'. 무어시라 ᄒᆞᄋᆞᆸᄂᆞ닛가 <獨學韓語大成 109>

38) 19세기에는 제약 없이 모든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은 19세기에 비해 제약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연결어미 '-니'에서는 (1ㄴ')과 같이 '-습-시-'형과 '-옵-'은 나타나지 않는다.

Collection @ uos

ㄴ''. 그 ᄉᆞ이, 오ᄅᆡ 뵙지 못ᄒᆡᆺ 스니어듸를 <u>가셧습더닛가</u> <日韓韓日新會話 205>

ㄷ. <u>측냥ᄒᆞ오릿가</u>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92>

ㄷ'. ᄑᆞᆺ밥을 <u>지으릿가</u> 흰밥을 <u>지으릿가</u> <韓語正規 240>

(17) ㄱ. 우리게 <u>닐ᄋᆞ쇼셔</u> <신약젼서 마 22:17>

ㄴ. 단코 불가 텽시오니 출이리 다시 뎨긔치 <u>마시옵소셔</u> <日韓言語合璧 347>

ㄴ'. 이ᄃᆞᆯ 그믐날ᄭᆞ지 ᄃᆡ답ᄒᆞᆯ터이니 그리 알고 참아 <u>가십쇼셔</u> <獨學韓語大成 95>

ㄷ. 선분의 고초ᄂᆞᆫ 후분의 안락될 장본이니 조곰도 비상치 마르시고 젼후 방침을 <u>도모ᄒᆞ사이다</u> <셜즁ᄆᆡ 77>

종결형은 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습-'형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청자 대우가 아닌 화자 겸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자 대우와 달리 화자 겸양은 화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소서'체, '하게'체, '해요'체는 '-습-'이 결합하기도 하지만 화계는 변하지 않는다. (15)-(16)은 '하소서'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예로, 여기서 '-ᄉᆞᆸ-'의 기능은 화자 겸양이다. '하소서'체에서 청자 대우 기능을 하는 것은 '-이-', '-소서'이다. (15ㄱ), (16ㄱ), (17ㄱ)은 '-습-'이 결합되지 않은 형태이고 (15ㄴ'), (16ㄴ'), (17ㄴ')은 '-습-'이 결합된 형태로, 이들을 비교하여 알 수 있듯이 '-습-'의 결합 유무가 화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습-'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공손한 표현이 될 뿐 화계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 '-습-'이 결합된 '하십시오'체가 아주 높임의 '하소서'체를 대체하지만 '하소서'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하십시오'체와 '하소서'체는 혼재되어 쓰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15ㄱ), (16ㄱ), (17ㄱ)의 종교서와 같이 보수적인 문체를 지향하는 문헌 자료에서는 오히려 '하십시오'체보다는 '하소서'체가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서나 기도문과 같은 언어에서는 '하소서'체가 잔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영역에서는 '하십시오'체가 주로 쓰였으므로 '하소서'체는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고 의고체로 남게 된다.

'-습-'에 청자 대우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이다. '-ᄉᆞᆸ-' 뒤에 오는 문말형식이 절단됨으로써 종결어미 '-오'가 형성되고[39] 이것은 'ᄒᆞ오'체라는 하나의 화계를 형성하여[40] 'ᄒᆞᄋᆞᆸ소'체를 대체하게 된다. 그런데 종결어미 '-오' 외에도 '-옵' 형태도 나타난다.

39) 윤용선(2006)은 청자 높임의 '-ᄉᆞᆸ-'은 [ᄋᆞᆸ > ㅂ]의 변화가 이루어져 [ᄉᆞᆸ~ㅂ]의 교체를 보이지만 화자 겸양의 '-ᄋᆞᆸ-'은 오히려 '-옵-'으로 강화되는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40) 'ᄒᆞ오'체의 '-오/소'는 그 기원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는데, 장윤희(2012)는 이 모든 기원설은 약간씩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장윤희(2012)는 'ᄒᆞ오'체의 '-오/소'는 각각 '-ᄉᆞᆸ-', '-ᅀᆞᆸ-'과 관련된 변화형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ᄉᆞ외 > -ᄉᆞ오 > -소', '(-ᅀᆞ외 >) -ᄋᆞ외 > -ᄋᆞ오 > -오'의 변화를 경험한 결과 형성된 것이라 하였다.

Collection @ uos

(18) ㄱ. 편지를 그 아오의 압흐로 던져 주ᄂᆞᆫᄃᆡ 신 교쟝 부인이 집어본즉 피봉 젼후면은 모다 ᄇᆡᆨ문이오 다만 봉ᄒᆞᆫ 곳에 「 」 짜만 쓸 ᄲᆞᆫ이라 그 편지 원폭을 ᄂᆡ여 보니 별로 여러 말 업고 「그 일은 그ᄃᆡ로 ᄒᆞᆯ 터이오니 부ᄃᆡ 안심ᄒᆞ시고 나ᄂᆞᆫ 오날 출입ᄒᆞᆯ 수가 업셔 두 어ᄌᆞ ᄀᆡ별ᄒᆞ오니 아비산(亜砒酸) ᄒᆞᆫ 구람만 구ᄒᆞ여 오날로 곳 <u>보ᄂᆡ주시ᄋᆞᆸ</u> 더 ᄒᆞᆯ 말 업습고 편지 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은 필젹 보면 <u>아실뜻</u>」 ᄒᆞ엿고 셩명도 ᄀᆡ록지 안코 편지 밧ᄂᆞᆫ ᄉᆞᄅᆞᆷ도 불명ᄒᆞᆫ지라 <金剛門 54>

ㄴ. 영감주 젼 상셔 문안 <u>알옵</u> 먼져 하문ᄒᆞ옵시이 황공 젓젓사온 말삼 못ᄂᆡ 알옵ᄂᆡ다 <창원황씨 언간 26>

ㄷ. 두 냥 ᄌᆞ시 <u>받ᄌᆞ오시ᄋᆞᆸ</u> <추사언간 제8신>

ㄹ. '행복이첫거름을 튼튼히<u>드듸시옵</u>'[41]이라고 일본말로 기다라케 쓴 것이 무슨 뜻이 잇는 것 가타얏다. <해바라기 122>

(18)의 '-옵'은 '하오'체의 '-오'와 같이 '-습-' 뒤의 문말형식이 절단되어 나타난 형태이지만 '-오'의 변이형태가 아니다. 이것은 언간 특유의 문체로 구어에서 쓰이지 않았고 하나의 종결어미로도 형성되지 못한다. '-옵'을 '하오'체로 볼 수 없는 것은 (18ㄴ)에서 보듯 언제나 '하소서'체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 편지 대상이 '하소서'체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18ㄴ)은 일종의 '고목'[42]으로 상대에게는 '영감주', '나리'라는 호칭어를 쓰고 있다. 이 외에도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또는 사돈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이러한 '-옵'이 '하소서'체와 함께 쓰이고 있다. 이 시기의 편지에는 '하소서'체에서 '-옵'과 같이 축약 형태들이 많이 보인다. '섭섭'과 같이 어근만으로도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8ㄱ)의 '아실뜻'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데 '하소서'체에 나타나는 '-습-'은 화자 겸양이지만 (18)의 '-습'은 후행요소가 절단돼 종결형이 된 것이어서 '-습'을 화자 겸양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비록 하나의 형태로 형성되어 체계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때의 '-습'은 종결형이므로 청자 대우이다. (18ㄷ)은 김영욱(1993/1995)에서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는 '-시습-' 앞에 '-습-'이 하나 더 결합되어 있다.[43]

'-옵'이 편지에서만 쓰이고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과 달리, '-오'는 '하오'체를 형성하여 구어만이 아니라 문어에도 쓰이는 등 활발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현대국어 '하오'체 '-오'는, 평서·의문형의 경우 '-습-'의 변화형과 같이 모음 뒤에서는 '-오'로 자음 뒤에서

41) 전보 내용이다.

42) '고목(告目)'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내는 보고서나 편지이다. (18ㄴ)에 나타나는 '하문(下問)'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이른다.

43) 김영욱(1993/1995)는 '-ᄌᆞ오-'와 '-ᄋᆞᆸ-'이 동일한 기능을 지닌 형태로 보기 어려운데, 뒤의 '-ᄋᆞᆸ-'은 청자 대우이지만 앞의 '-ᄌᆞ오-'는 중세국어 당시의 객체 높임이 이때까지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는 ‘-소’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명령형은 자음 뒤에서는 ‘-으오’로 실현된다.[44] 장윤희(2012)는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비분간어미 ‘-소’가 현대 표준어의 ‘-(으)오’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즉 ‘ᄒᆞ오’체의 명령형은 주로 ‘ᄒᆞ시오’로 사용되었으므로 ‘ᄒᆞ시오/ᄒᆞ쇼’의 ‘-(으)쇼’와 같은 것으로 재분석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대 표준어 ‘-(으)오’는 ‘-(으)소’와의 유추적 평준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 ㄱ. 그런 것 ᄒᆞ나만 어더 주시면 다힝ᄒᆞ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59>
ㄴ. 로국도 모른단 말이요 아라ᄉᆞ라면 알깃소 <日韓韓日新會話 236>
ㄴ'. 창이 ᄇᆞᆰ으니 동이 터오는가 시푸오 <韓語正規 227>

(20) ㄱ. 인지위덕이라니 좀 견듸시오 <日韓韓日新會話 234>
ㄴ. [녀] 여보 내말 드르오 나ᄂᆞᆫ 신랑놈의 화샹을 보기 슬여 집으로 드러가기도 실흐니 우리 둘이 이 길로 도망을 ᄒᆞᆸ시다 <구의산 下 38>
ㄷ. [총] 될 말인가 셩례ᄒᆞᆫ 신랑은 엇더케 ᄒᆞ고 여보 그런 간사ᄒᆞᆫ 말은 두 번도 말으오 <구의산 下 38>
ㄷ'. 다시ᄂᆞᆫ 리씨니 박씨니 ᄒᆞᄂᆞᆫ 부당ᄒᆞᆫ 말을 고지 듯지 마오 <구마검 3>

(19)는 평서형으로, 모음 다음에 ‘-오’로, 자음 다음에 ‘-소’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은 명령형으로, 모음 다음에 ‘-오’로, 자음 다음에 ‘-으오’로 실현된다. 그런데 (19ㄴ')과 (20ㄷ')에서는 혼동된 양상을 보인다. 명령형 (20ㄷ')의 경우, 앞의 자음 ‘-ㄹ’ 혹은 어휘 ‘말-’ 뒤에서 혼란을 보이는 이유는 ‘-오’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 ‘말-’과 종성 ‘-ㄹ’의 음운 변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19ㄴ')은 명령형이 자음 뒤에서 ‘-소 > -으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평서형의 혼동된 양상으로 보인다.

19세기에는 종결어미 외에서 선어말어미 ‘-습-’이 청자 대우로 기능이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습-시->-시-습-’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선어말어미 ‘-시-’ 뒤로 자리를 이동한 ‘-습-’이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을 통해 또 하나의 종결어미를 형성하면서 청자 대우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21) ㄱ. 붓시 죠흐면 글시도 잘되옵니다 <日韓英三國對話 2부 129>

44) 18세기 ‘-오’가 실현되는 양상을 보면, 모음 뒤에서는 ‘-오’로 자음 뒤에서는 ‘-소’로 나타난다. 이것은 장윤희(20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ᄉᆞ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명령형일 경우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한 ‘-시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18세기에도 명령형이 자음 뒤에서 ‘-으오’로 실현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Collection @ uos

ㄴ. 오ᄅᆡ간만에 뵈오니 반갑습늬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86>

ㄴ'. 너무 칭찬ᄒᆞ시니 붓구롭습늬다 <獨學韓語大成 193>

ㄷ. 죠션은 금강산이란 데가 잇셔 유명ᄒᆞᆸ듸다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107>

(22) ㄱ. 선ᄉᆡᆼ님, 안녕ᄒᆞᄋᆞᆸ시오닛가 <신약젼서 마 26:49>

ㄴ. 어머니 어머니씌셔 엇지ᄒᆞ야 이곳ᄭᅡ지 오셧습닛가 <안의성 148>

ㄴ'. 에그 나는 이길로 보ᄂᆡ 쥬세요 금돌이 져 사람만 안이더면 ᄂᆡ가 엇던 흉악ᄒᆞᆫ 놈의 계집 노릇을 ᄒᆞᆯ 번 ᄒᆞ엿겟습닛가 <치악산 下 44>

ㄷ. 五六日쯤 지나서 어머님은 올러가시지 안엇습니ᄭᅡ <除夜>

ㄷ'. 이 박사, 심 순례 사랑한 일 있습니까? <흙 2:151>

(23) ㄱ. ᄌᆞ쥬 상죵ᄒᆞ옵시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89>

ㄴ. ᄯᅩ ᄒᆞᆫ 잔 잡스시고 져녁 먹읍시다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117>

ㄷ. 인제 ᄒᆡ빈을 가셔, 죠개를 잡이 노십시다 <日韓言語合璧 202>

'하소서'체의 경우 여전히 선어말어미 '-이-'로 청자 대우법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습-'이 뒤로 자리 이동을 하고 '-느-'는 점차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리하여 평서형에서는 '-습-+-느-+-니-+-이-+-다'가 통합되고 의문형에서는 '-습-+-느-+-닛가'가, 청유형에서는 '-습-+-사이다'가 통합됨으로써 청자 대우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가 형성되고, 이들 어미는 '하십시오'체를 형성한다. (21)은 평서형 어미, (22)는 의문형 어미, (23)은 청유형 어미로, 종결어미가 형성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출현한다. '하소서'체에서 '하십시오'체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들도 나타나게 된다. (21ㄱ)은 '하소서'체와 '하십시오'체의 경계에 있는 형태이고, (22ㄱ)은 '-시오-' 앞에 다시 '-ᄋᆞᆸ-'이 결합된 형태로,45) 이러한 형태들은 '-습-'의 기능 변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24) ㄱ. 부탁허오니 ᄉᆡᆼ각대로 죳토록 ᄒᆞ여 주옵시오. <日韓通話 53>

ㄱ'. (검홍) 앗씨 그럿케 서러ᄒᆞ지 맙시오 <치악산 上 6>

ㄱ''. 참 미안합니다. 어제 잘 못 한 것은 용서 해줍쇼 <輪轉機 237>

ㄴ. 큰 갈에오토 : (빙긋 웃으며) 때가 왓습니다. 난 나가겟습니다. 그러나 별이 발서 떨어진 쥴을 잇지 마십쇼. 두 분이 다. <難破>

ㄴ'. 아씨 아씨 참으십시오 그게 무슨 쳘을 압닛가 키만 엄부렁ᄒᆞ지 <빈샹셜 526>

(25) ㄱ. 칭찬만 ᄒᆞ시니 너무 북그럽소이다 <日韓韓日新會話 62>

---

45) 반대로 '-ᄋᆞᆸ시-' 뒤에 '-오-'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화자 겸양+주체 높임'과 '청자 대우(-닛가)' 사이에 다시 '청자 대우'가 삽입된 것이 되므로 청자 대우 기능이 두 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ㄴ. 져ᄉᆞᄅᆞᆷ 겻테는 괴이 ᄒᆞᆫ놈이 잇셔 부촉ᄒᆞᆫ다 ᄒᆞ니 ᄎᆞᆷ 무셥ᄉᆞ외다 <日韓言語合璧 323>

ㄷ. 감샤ᄒᆞ신 말슴이올시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87>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은 '하소서'체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와 달리 명령형은 '하오'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습-+-시-+-오'가 통합되어 청자 대우의 기능을 획득한 것이다. 그리고 '-습시오' 형태 앞에 다시 '-시-'가 통합한 '-십시오' 형태가 형성되어 두 형태가 공존하게 된다. (25)의 '-소이다', '-외다', '-올시다' 역시 '-습-'의 기능 변화로 형성된 종결어미로 문장 종결 기능과 함께 청자 대우 기능을 하는 '하십시오'체이다. 그리고 '하소서'체에서 '하십시오'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4ㄱ)과 같이 '하오'체인지 '하십시오'체인지 구분짓기가 어려운 경우도 나타난다.

오늘날 '하소서'체나 '하소서'체와 '하십시오'체 경계에 놓인 '-옵니다/까' 형태가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듯이 종결형에 결합하는 화자 겸양 '-습-'이 존재한다. 그런데 20세기 초에는 '하소서'체 어미 외에도 다른 종결형에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게'체, '해요'체에 '-습-'이 결합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화계가 변동되지는 않는다.

(26) ㄱ. 져기 ᄉᆡᆼ이분 셩덕하고 고운 체 ᄒᆞ옵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97>

ㄴ. 그 ᄉᆞᄅᆞᆷ도 죠션 말 잘 ᄇᆡ왓데 **자네**만 잘ᄒᆞᄂᆞᆫ 체 말게 그 ᄉᆞᄅᆞᆷ도 잘ᄒᆞᆸ데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52>

ㄴ'. 허언인 줄 알면셔도 ᄒᆞᆫᄉᆞᆺ흐로 무셥습데 <朝鮮語五十日間獨修 86>

ㄹ. 몃 자 잇ᄉᆞ올가 <日韓英三國對話 2부 93>

ㅁ. 그런 고초 격그면셔 우리 슈졍 ᄆᆞᆰ은 졀이 츄호 짯딕을 아니ᄒᆞ니 쳔고의 창기졀힝 니럿튼 말 드럿습나 <동양문고본 춘향전 8:9ㄱ>

ㅂ. 목욕ᄒᆞᆸ셰 <朝鮮語五十日間獨修 39>

(27) ㄱ. 「네! 네! 그럽지요」 하고 웃으며 나가 버렸다. <池先生>

ㄴ. 고모리: 고맙습니다. 네 네 네 操心합지요. <正午>

(26)은 '하게체'에 화자 겸양 '-습-'이 결합된 형태이다. 그런데 '-옵네'나 '-습데'의 경우 근대국어의 'ᄒᆞ옵소'체가 이 시기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ᄒᆞ옵소'체는 18세기에 'ᄒᆞ오'체로 대체되었다. (26ㄴ)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네'가 쓰였는데,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 등의 격차가 크지 않은 하위자에게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로 '하게'체와 호응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이 당시의 '하오'체는 신분이나 지위 등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위자에게 사용

Collection @ uos

하던 화계로, ‘하게’체는 ‘하오’체보다 화계가 낮다. 그러므로 (26)의 화계는 ‘ᄒᆞᄋᆸ소’체와 다르다. ‘-습네’, ‘-습데’ 등은 ‘하옵소’체가 아니므로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없고, 화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하게’체에 나타나는 ‘-습-’은 화자 겸양인 것이다. 그런데 ‘하게’체의 경우 모음 뒤에는 ‘-옵-’이 결합하는 ‘하소서’체와 달리 모음 뒤에 ‘-옵-’과 ‘-ㅂ-’이 모두 나타난다.

(27)은 ‘해요’체에 ‘-습-’이 결합한 것으로, 이것도 화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요’체에서 청자 대우를 담당하는 것은 보조사 ‘-요’이다. 그런데 ‘해요’체의 경우 모든 어미에 ‘-습-’이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오롯이 ‘-지요’에만 결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해요’체에 결합하는 형태는 청자 대우 ‘-습-’과 같이 자음 뒤에서는 ‘-습-’으로 실현된다. 오늘날 일상 대화에서는 ‘하게’체와 ‘해요’체에 화자 겸양 ‘-습-’은 결합되지 않는다.[46] 그러나 이것은 표기상에서이고 음운적으로는 “그렇게 합죠.”, “우리 그렇게 합세.”와 같이 실현 가능하다. ‘-습-’이 결합됨으로써 의고적이고 보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

(28) ㄱ. 북편은 ᄃᆡ단이 칩고 남편은 더웁소 <獨學韓語大成 289>
ㄴ. 일본 음식은 다담ᄒᆞ오구려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118>
(29) ㄱ. 상감마마 납시오.
ㄴ. 오늘은 일을 그만 하랍시오.
ㄷ. 참 영특도 합시오. <운현궁의 봄 767> (고광모 2000)
(30) 웨 무슨 일이 잇습닛가 말슴ᄒᆞᆸ시오 <日韓韓日新會話 217>

‘하오’체에도 ‘-습-’이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28), (29)는 ‘하오’체에 ‘-습-’이 ‘-오’와 ‘-구려’에 결합된 것이다. 그런데 예문 (29)를 통하여 (30)을 보면 명령문의 경우 ‘하오’체인지 ‘합쇼’체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오’체에 결합하는 ‘-습-’은 ‘-시-’와 결합할 때 ‘-ㅂ시-’의 형태가 되어 명령형은 ‘-ㅂ시오’로 실현된다. 그런데 ‘하십시오’체에서 앞의 ‘-시-’가 탈락하여 ‘합쇼’체가 비롯된 것이라면 ‘-ㅂ시오’가 명령형 어미로만 실현되어야 하지만 ‘-ㅂ시오’는 (29)와 같이 평서형, 의문형으로도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ㅂ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고광모(2000)은 ‘-읍시-’를 주체 덧높임이라 보았던 김정수(1984)와 달리, 일차적으로는 주체를 높이지만 ‘-ㅂ시-’가 나타나는 문장은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는 문장이므로 결국 청자를 높이는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명령문 ‘-ㅂ시-’는 대체적으로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는 문장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평서문,

46) 사극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하게’체, ‘해요’체에 ‘-습-’이 들어간 표현을 볼 수 있다.

eCollection @ uos

의문문 역시 주체와 청자 모두 높여야 하는 경우에 '-ㅂ시'가 사용되지만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고광모(2000)에서 예를 들고 있는 (29)와 같은 문장도 주체와 청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주체, 청자 모두 높여야만 하는 문장이다.

'-ㅂ시-'의 기능이 주체와 청자를 높이는 것이라면, 문제는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습-시-'형에서 '-습-'의 기능은 화자 겸양 단계까지이다. 청자 대우로 변화기 위해서는 '-습-'의 결합 순서는 '-시-' 뒤로 가야 하는 것인데, '-ㅂ시-'의 경우 청자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앞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서문, 의문문의 경우 '-ㅂ시-'에서 '-ㅂ-'의 기능은 청자 대우라 보기 어렵다. 또한 '하오'체는 '-시오'에서 '-시-'와 '-오'를 분석해 낼 수 있으므로 '-ㅂ시-' 또는 '-ㅂ시오'가 융합된 하나의 형태라 볼 수 없다.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28ㄱ)과 같이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문장일 경우 '-시-'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습-'이 결합되어도 화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ㅂ-'의 기능은 여전히 화자 겸양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명령형은 다르다. '-시-'가 결합한 '하오'체 명령형 '-시오'의 경우 '-시-'는 주체를 높이고 '-오'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지만 주체와 청자가 같기 때문에 결국 같은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시-'가 결합된 형태는 그렇지 않은 형태보다 공손한 표현이지만 화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가 결합된 '하게'체의 '-시게', '해(요)'체의 '-셔(요)' 모두 그러하다. 그런데 '하소서'체나 '하십시오'체의 경우 명령형 어미 '-소서', '-십시오' 앞에 다시 '-시-'가 결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높임의 종결어미 '-소서', '-십시오'에는 '-시-'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십시오'체 '-십시오'는 융합형으로 오늘날에는 '-시-'가 탈락한 '-ㅂ시오'로 활용되지 않는다. '하소서'체는 '-옵-'이 종결어미 '-소서' 앞에 결합되면서 그 앞에 '-시-'의 결합이 가능하게 되어 '-소서', '-옵소서', '-시옵소서' 형태가 출현한다. 그러나 '-옵-'이 없는 '-시소서'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옵시소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즉 '-습-시-'의 경우 '하소서'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하오'체는 '-오' 앞에 '-시-'가 올 수 있으므로, '-시오' 앞에 화자 겸양 '-습-'이 결합된 '-ㅂ시오' 형태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자 겸양과 청자 대우 기능 구분이 모호한 종결형에서는 '-시-습-' 형태가 고착되면서 평서형과 의문형에 실현되던 '-습-시-' 형태의 '-습-'은 탈락된다. 명령형의 경우 하나의 형태로 융합되었는데, 그 원인은 '-시-'와 '-습…오'의 높임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 '-시-'가 종결어미에 융합됨으로써 '하오'체보다 화계가 한 단계 높아진다. '-ㅂ시오'는 '-ㅂ쇼'로 축약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서 '-ㅂ시오' 앞에 다시 '-시-'가 결합되어 '-십시오'가 형성된다. 그럼으로써 '-십시오'는 '-ㅂ시오'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 되면서 '-ㅂ시오'

Collection @ uos

는 사회 방언으로 사용될 뿐 더 이상 활용되어 쓰이지 않는다.

19세기 말, '−습−'은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난다. 그 중 화자 겸양의 '−습−'은 선어말어미로서 연결어미, 관형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그리고 일부 종결어미에 결합한다. 그러나 화자 겸양의 '−습−'은 결합 유무에 따라 의미나 기능의 차이가 미미하므로 연결형, 관형사형, 명사형에 점차 쓰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47] '하소서'체는 의고체로 남는다. 그리고 청자 대우의 '−습−'은 종결어미로 '하십시오'체를 형성한다.

2.2. '−느−', '−더−', '−리−'

근대국어시기에 일어났던 선어말어미의 변화는 종결어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7세기의 시상 체계는 '−엇−'의 문법화로 인하여 달라진다.[48] '−엇−'과 결합하면서 충돌하게 된 '−ᄂᆞ−', '−더−'는 기능이 변화하거나 축소된다.[49] '−엇−'은, 이전의 다른 시제성 표현 형태소와는 달리 서법적인 영역과의 관련이 비교적 적어서 비로소 서법과 상당한 거리를 가지는 새로운 시제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게 되는데(홍종선 1997), 기존의 '−ᄂᆞ−', '−더−'는 '−엇−'과 대립이 아닌 결합 관계를 형성하면서 시제성보다는 양태성을 더 가지게 되었다. 즉 '−었−'이 침투한 종결형과 일부 연결형에서는 '−었−'으로 인해 시상 체계에 큰 재편이 일어나는데, 과거 완망상을 나타내던 Ø는 체계에서 사라지고, 과거 비완망상을 나타내던 '−더−'는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시제적 의미는 유지한 채 [경험이나 추론을 통해 새로 앎]이라는 양태 내지 증거성의 의미를 더 가지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더−'는 시제 체계의 주된 항으로서의 지위는 많이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박진호 2011).

선어말어미의 기능 약화로 인하여 종결어미와 융합하여 종결어미화하기도 하였지만, 융합

---

47) 오늘날 내포문에 화자 겸양 '−오−'가 다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를 더 높이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오류는 아니나 '−시−'가 청자 대우로 잘못 쓰이고 현상과 관련된다.

48) 박진호(2011)은 중세국어의 '−어 잇−'은 [결과상]을 나타내는 것('−어 $잇_1$−')과 [연속상]을 나타내는 것('−어 $잇_2$−')이 있는데, 이 중 [결과상]으로부터 [과거시제]의 발달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어 $잇_1$−'은 두 갈래로 발달하였는데, 하나는 형태 측면에서 우언적 구성을 유지하면서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결과상]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형태 측면에서 '−었−'으로 축약/삭감되면서 의미도 [과거시제]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 형태상으로 '−었−'으로 축약/삭감되었지만 의미는 여전히 [결과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일부 있다(예: '웃기고 앉았네', '게 섰거라', '그는 결혼했다'의 두 가지 용법 중 "그는 기혼자이다"라는 해석).

49) 근대국어 시기 '−었−'의 문법화로 인해 국어의 시상 체계가 바뀐다. 동사에서 부정법이 나타냈던 과거 완료의 경우 '−었−'이 대체하고, '−었−'이 '−느−', '−더−'와 결합하게 됨으로써 기능이 충돌하게 되자 '−느−'와 '−더−'는 기능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었−'이 과거 완료를 실현함에 따라 본래 과거 완료를 표시하던 부정법은 현재를 나타내게 된다. 즉 부정법은 형용사에서는 현재를 나타냈는데 점차 그 영역을 동사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Collection @ uos

하지는 않았지만 뒤에 오는 종결어미에 따라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기존의 결합 양상을 유지하는 경우 예스러운 표현이 되어 주로 의고체로 쓰이거나 문어에서 쓰였으나, '-더-'의 경우는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따라 구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며, '-느-'의 경우는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따라 기능이 세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선어말어미의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2.2.1. '-느-', '-더-', '-리-' 결합형 종결어미

'-느-', '-더-', '-리-'와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새로운 종결어미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 경우 형태가 바뀌기도 하지만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 형태가 바뀌지 않고 결합 양상대로 종결어미가 되는 경우는 두 형태가 융합한 경우도 있지만 '-더라', '-리라'와 같이 결합에 제약이 생기거나 더 이상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로서 기능을 하지 않아[50]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2.2.1.1. '-느-' 결합형 종결어미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종결어미화하는 것으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네'이다. 그러나 16세기에 형성된 '-닋'의 경우 '-ᄂᆞ-'의 기능이 살아 있어서 형용사에는 '-ᄂᆞ-'는 결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19세기 말에 가서는 '-느-'가 수의적으로 결합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

(31) ㄱ. -에 ; ᄒᆞ네 / 먹네 / 깁헤 <韓英文法>
ㄴ. 하지만 여보게 참정말 전활랑은 아예 걸지 말게. 그러다가는 우리집 마나님께 이혼 당할까 무서우이[51] <電話>

(32) ㄱ. 그 집에는 보음즉ᄒᆞᆫ 화초가 만으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27>
ㄴ. 먼데가 어된가 참 갓갑히셔 사람 죽깃네 <日韓韓日新會話 236>

(31)을 보면, 형용사에는 '-느-'가 결합되지 않고 '깊헤'와 같이 '-에'만 나타난다. 그러나

50) 현대국어에서 '-라'는 더 이상 종결어미가 아니다.
51) 형용사와 결합하는 '하게'체 평서형 종결어미 '-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존의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닋'의 '-ᄂᆞ-'가 늦게까지 계속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ollection @ uos

20세기 초 자료인 (32)에서는 '-느-'가 완전히 기능을 잃고 하나의 형태소로 융합되어 형용사에도 결합되고 '-겟-' 뒤에서도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52) 그러나 (31ㄴ)과 같이 '-느-' 없이 형용사에 결합하던 '하게'체 '-이'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형용사에만 결합한다.

'하소서'체의 경우, 평서형 어미 '-나이다' 혹은 '-옵나이다'나 의문형 어미 '-나이까' 혹은 '-옵나이까'의 '-나-' 역시 그 자체의 기능이 소멸된 하나의 종결어미이다. 왜냐하면 형용사에 '-이다'만이 아니라 '-나이다', '-옵나이다'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나-'를 현재 시제 요소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3) ㄱ. 이런 거슬 보오니 ᄇᆞ라ᄂᆞᆫ 것도 잇고 무셥기도 ᄒᆞ옵ᄂᆞ이다 <텬로력뎡 37ㄴ>
ㄴ. (쵸월) 아씨게셔 쳡을 이갓치 ᄋᆡ호ᄒᆞ샤 용납ᄒᆞ야 드리시니 덕틱이 하해갓솝ᄂᆞ이다 <화즁화 11>

또한 19세기에는 청자 대우로 기능 변화를 하는 '-습-'과 청자 대우 기능의 '-이-'와 융합하여 새롭게 청자 대우를 표시하는 어미 '-습니-'를 생성한다. 이때 '-느-'는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현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은 이 자체로 청자 대우 기능의 선어말어미로 볼 수도 있지만 '-다', '-까'에만 결합되므로 '-다/까'와 함께 묶어 종결어미로 본다.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을 보면, '-습니-', '-나이-', '-옵나이-'는 '-네'와 다르다. '-네'는 '-느-'의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와 통합하고 후행형식이 절단된 형태가 종결어미가 된 후, '-느-'의 기능이 소멸되면서 융합하였다. 이에 반해 '하십시오'체와 '하소서'체의 경우는, '-느-'의 기능이 사라지고 전·후행 요소인 청자 대우의 '-이-', 그리고 객체 존대에서 화자 겸양 단계를 거쳐 청자 대우로 기능 변화한 '-습-'과 융합한 것이다. 이렇게 형성 과정이 다른 것은 종결어미의 형성 시기에 따른다. '-ᄂᆡ'가 형성된 시기는 16세기로 이 시기는 '-ᄂᆞ-'의 본래 기능이 활발히 작용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ᄂᆞ-'의 기능은 유지된 채 후행형식과 통합되었고, 그 후 근대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시제 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네'에 통합되었던 '-느-'는 점차적으로 그 기능을 잃고 융합되었다. 그러나 '하십시오'체는 19세기에 형성되는데 청자 대우 요소와 결합되는 '-느-'의 경우 본래 기능이 소실되면서 전후의 청자 대우 요소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어미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 '-ㄴ가'에 '-ᄂᆞ-'가 결합된 형태인 '-ᄂᆞᆫ가'의 축약형 '-나'가 나타난다. 고은숙(2007/2011)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나'가 형용사나 계사 뒤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

52) 현대국어에서 '하게'체의 어미로 '-네'와 달리 '자네 말이 옳으이'와 같이 '-느-'가 결합되지 않은 형태가 있다. 이것은 형용사와 결합하는 종결어미로, '-ᄂᆞ-'가 통합되지 않았던 어미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eCollection @ uos

느-'가 융합되어 있는 '-는가'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들 어미 앞에 '-었-'이나 '-겠-'이 선행할 경우엔 '-느-'가 화석형으로서만 존재하므로 형용사나 계사 뒤에도 '-나'가 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해체일 경우 '*사람이나(요)'와 같이 계사 뒤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예쁘나(요)'와 같이 형용사 뒤에서는 쓰일 수 있다.[53] 이것은 '-는가'와 달리 뒤의 종결어미와 축약하면서 융합하였기 때문에 '-느-'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다.

(34) -나 ; ᄒᆞ나 / 먹나 / 깁__ <韓英文法>

(35) ㄱ.「인력거를 타고 밤중에 쪼차온 것을 엇덕하나」「인력거에 올려 안처 주지 안흔 것만 다행하이!」「그럼 엇덕하나. 번지를 안 가르처주면 멧칠이고 내가 감금을 당할 형편이니. 양복저고리를 쌔앗고 내노하야지」「바지는 안 쌔앗겻든가?」「바지야 설마 쌔앗겻겟나」「다행하이—」하고 나는 실소를 하얏다. <嫉妬와 밥>

ㄴ.「그럼 나으린가 영감인가는 싸로 살고 오지를 안나?」하고 무러보앗다. <宿泊記>

ㄷ. 자—그러니 인젠 엇더케 햇스면 조켓나? <嫉妬와 밥>

(36) ㄱ.「이건 다 뭐야? 오늘이 누구 생일요?」「내 생일!」「생일을 인제야 차려?」「아뭇째엔 못 차리나. 그러나 생일이든 무어든 잇다가 청자나 단여주.」<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ㄴ.「자긔가 키가 작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럴 디경이면 채송화는 무슨 향긔가 잇나」하며 키 큰 덕순이가 대거리를 하고 나서「사람은 큰 게 조흘 게 업슬지 모르지만 <싸리아>는 커두 조화!」<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ㄷ. 貞: 그러닛까 지금 오지 안엇니? (元峰의게 말하는 듯이)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봄은 아니여요. 봄이 오면 누구의게든지 와야지 참말 봄이라고 할 수 잇지.

元: (안즈며) 貞淑이 것흔 이의게도 봄이 오나? <山돼지>

ㄹ. 그外엔 또 무슨 特長이 업나요? <E선생>

ㄹ'. 밥 짓는 로파더러 돈 이십 전을 내주고 고기를 사오라면서「큰손님이 드셧스니까 범연히 대접할 수 잇나요」하고 생글 웃는다. <嫉妬와 밥>

(34)의『韓英文法』을 보면 형용사에 '-나'가 결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형용사와 '-나'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20세기 들어서의 일이다. (35)는 '하게'체로 실현된 '-나'이고 (36)은 '해'체로 실현된 '-나'이다. (35ㄷ)은 형용사에 '-겟나'가 실현된 것이다. 즉 '-겠-'이 '-ㄴ가'와 결합할 경우 '-느-'가 결합된 형태인 '-겠는가'로 실현되므로 축약되어

53) '하게'체로 쓰일 경우 형용사는 주로 '-ㄴ가'로 실현되고 '-나'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체로 쓰일 경우에는 형용사도 '-나'로 실현 가능한데, '자문' 내지 [의심] 등의 양태 의미를 띤다.

Collection @ uos

‘-겠나’가 되는 것이다. ‘하게’체로 ‘-나’가 쓰일 경우 (35ㄴ, ㄷ)과 같이 순수한 의문문으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35ㄱ)과 같이 대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질문에도 쓰인다.[54] ‘해’체로 쓰일 경우도 순수의문문으로 쓰이는데, (36ㄹ)의 경우 순수의문문이지만 (36ㄹ')은 수사의문문으로 ‘잘 대접해야 한다’는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라’의 경우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시와 같은 글에서만 쓰이는 예스러운 종결어미인데,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ᄂᆞ-’와 ‘-오-’가 통합된 형태로 현대국어에서는 ‘-오-’가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종결어미이다. 중세국어에서 1인칭에 나타나는 현재를 실현하는 평서형 어미였던 ‘-노라’는 현대국어에서도 1인칭하고만 공기하는 제약이 있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 [의지]에 의한 것이다.[55]

2.2.1.2. ‘-더-’ 결합형 종결어미

‘-더-’가 결합하여 형성된 ‘-더이다’, ‘-더이까’, ‘-더라’, ‘-습디다’, ‘-디’ 등의 종결어미는, ‘-더-’의 기능이 있으므로 ‘-더-’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더-’의 결합 제약과 함께 ‘-느-’와의 계열관계, 뒤에 오는 ‘-이-’나 ‘-라’형 어미 등이 하나의 형태소로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는다.

(37) ㄱ. 칠십 인이 깃버 드라와 ᄀᆞᆯᄋᆞ듸 쥬여, 쥬의 일홈으로 샤귀도 저희게 항복ᄒᆞ더이다 <신약젼셔 눅 10:17>

ㄴ. 그들도 ᄃᆡ답ᄒᆞ듸 쥬여, 우리가 어ᄂᆞ ᄣᅢ에 쥬릐셔 주리셧거나 목 ᄆᆞᄅᆞ셧거나 나그내 되셧거나 옷 버스셧거나 옥에 갓치셧시매 공양치 아니ᄒᆞ더잇가 <신약젼셔 마 25:44>

‘-더이다’, ‘-더이까’의 경우, ‘-더냐’, ‘-더구나’, ‘-던가’, ‘-더군’과 같이 ‘-나이다’, ‘-나이까’로도 실현되지만 선어말어미 ‘-느-’가 더 이상 시제적 요소를 상실하고 공형태가 됨으로써 뒤의 어미와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느-’와 계열관계를 이루었던 ‘-더-’, ‘-리-’와 결합한 ‘-더이다/까’와 ‘리(이)다/까’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

54) 작가 염상섭의 경우, 대답을 바라지 않는 의문문 따위의 수사의문문에는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로 쓰고 있다.

55) ‘-노라’는 다시 뒤에 ‘-니’, ‘-면’과 통합하여 연결어미화한다.

ㄱ.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김소월_못닞어>

ㄴ. 사노라면 언제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Collection @ uos

19세기 말, 아주 높임 등급이 ‘하소서’체에서 ‘하십시오’체로 대체되어 현대국어에 이르면 ‘하소서’체는 의고체로 남아 경전류와 같은 특수한 문체 외에는 쓰이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소서’체에서 청자 대우 기능을 하던 선어말어미 ‘-이-’는 /ㅣ/ 모음 다음에서는 ‘-리까’와 같이 축약되어 현대국어에서 청자 대우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8) ㄱ. 내가 예수를 너희게 잡혀 보내리니 얼마나 주랴ᄂᆞ냐 ᄒᆞ니 그들이 은 삼십을 ᄃᆞᆯ아 주거ᄂᆞᆯ 그 때브터 예수 잡혀 보낼 긔회를 찻더라 <신약젼셔 마 26:15-16>

ㄴ. (쏘) 아모렴 그러코 말고요 급ᄒᆞ면 바늘허리에 실을 ᄆᆡ여 씀닛가 장ᄉᆞ 부탁을 고만 두시고 령감께셔 ᄌᆡ촉이나 마르시오 그날부터 쏘 셩어미 가심 진ᄉᆞ 집에를 풀방구리에 쥐나들 듯 ᄒᆞ더라 <월하가인 18>

ㄷ. (리) 그ᄂᆞᆫ 즁의 잘못이 안이더라 네가 길만 잘못 들지 말고 바로 도션암으로 ᄎᆞ자갓더면 쉭 만낫슬썰 그리힛구나 삼션평에셔 너 만나던 그 량반 셰 분이 도션암에셔 셔방님과 함씌 맛나 이르거니 ᄃᆡ답커니 ᄒᆞ다가 필경에ᄂᆞᆫ 셔방님이 쟈쳐를 ᄒᆞ랴고 칼노 목ᄉᆡ지 질넛더란다 <우중행인 120-121>

ㄹ. 元 : 그 前 말이지. 只今은 내 생각도 變해젓다. 이왕 男女가 갓치 한 지붕 밋헤서 살어 가쟈면 男便 하는 일 안해 하는 일 다 달나질 것이 아니니? 일전에 日本서 온 엇던 新聞에 보닛가 女子가 自行車 타고 엽헤 사내가 애를 업고 터덕어리고 가는 漫畵가 잇드라 <山돼지>

(38ㄱ, ㄴ)과 (38ㄷ, ㄹ)은 다른 ‘-더라’이다. 즉 ‘-더-’의 기능이 다른 것이다. (38ㄱ, ㄴ)의 ‘-더라’는 이전 시기부터 지문에 쓰였던 ‘-더라’로 여기서 ‘-더-’의 기능은 중세국어의 ‘-더-’와 같다. 최동주(1996)에서 중세국어 ‘-더-’는, ‘비완료상’[56])을 나타내는 형태소로서 담화상에서 배경적 상황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졌는데, 대화에서는 ‘-더-’는 대체로 화자가 발화시 이전에 체험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쓰이고 지문에서는 설화자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가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더-’가 상황시에서 인식시로 시점이 이동하면서 지문에서는 쓰이지 않게 된 것이다.[57]) 이와 달리 (38ㄷ, ㄹ)은 현대국어의 ‘-더-’와 기능이 같은 [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어에서만 실현된다.

---

56) 본고의 용어대로라면 ‘비완망상’이다.

57) ‘-더-’의 기능이 인식시로 시점이 이동한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던가’는 여전히 지문에 사용할 수 있다. ‘-던가’나 ‘-느냐’ 등이 지문에 쓰일 때는 대개 수사의문문으로 나타난다.

Collection @ uos

현대국어에서 '-더라'의 경우 분석하지 않는 이유는 '-더-' 뒤에 오는 평서형 어미가 '-다'가 아닌 '-라'이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에는 선어말어미 '-더-, -리-, -오-, -니-' 그리고 계사 다음에 오는 평서형 어미 '-다'는 '-라'로 실현되었는데, 선어말어미 '-오-'는 고어체로 화석형인 '-노라'가 남아 있기는 하나 선어말어미 자체는 소멸하였으며, 계사 '-이-'는 의고체로 '-이라'가 쓰이기도 하나 일반적인 문체에서는 뒤에 결합하는 평서형 어미는 '-다'이다. 다만 간접인용에서는 옛 형태대로 '-이라(고)'로 실현된다. 그리고 '-니-'는 의고체로 남아 있기는 하나 현대국어에서는 문어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법은 아니다. '-리-'의 경우도 '-ㄹ 것' 또는 '-겠-'으로 대체되었는데, 현대국어에서 '하소서'체 '-리(이)다/리(이)까'는 의고체로, '-리라'는 '하라'체로[58] 표제어나 시와 같은 문체에 쓰인다. 그러므로 '-이라', '-니라', '-리라'는 현대국어의 일반적인 구어에서 나타나는 종결법이 아니다. 오롯이 '-더라'만이 현대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법인데, 이것은 문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구어에서만 쓰인다.

(39) ㄱ. 이젼은, 죠션 히협에, 등ᄃᆡ가 업셧더니, 이번 일본 공ᄂᆡ들이 나와셔 셜지하엿습듸다
<日韓言語合璧 178>

ㄱ'. 죠션은 금강산이란 데가 잇셔 유명ᄒᆞᆸ듸다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107>

ㄴ. 일젼,부터, 어듸가, 계셧습듸가 <日韓言語合璧 151>

(40) ㄱ. 그래 이 돈은 무엇하라고 하시던? <除夜>

ㄴ. 正말이지 그짓말일까. 아마 올 一年 동안은 대엇나 보데. 한 달에 三十圓式은 대나 보데 <萬歲前>

(41) ㄱ. 귀 츙쳥도는 날이 가므러셔 비가 아조 아니 왓답듸다 <日韓韓日新會話 215>

ㄱ'. 슈신학은, 박셕사요, 산슐과 디리학은, 림가랍듸다 <韓語正規 243>

ㄴ. 래일 두 분을 데리구 와 달라데. 아츰이든지 오후 한 시에…… 라 군! 갈 테지?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ㄴ'. 웬 세음인지 자네더러는 말々라데그려 <萬歲前>

'-습디다', '-디'도 형태는 다르지만 '-더-'가 통합한 형태로, '-습디다'의 '-디-'는 '-더-'와 '-이-'의 통합형이고 '-디-'는 '-더-'와 '-니'의 통합형이다. 즉 '-습디다'는 '-습니다'에서 '-느이-'가 줄어든 것같이 '-더이-'가 축약한 것인데 화계는 '-습니다'보다 한 단계

58) '해라'체로 볼 수도 있다. '하라'체로 분류되는 것은 명령형 어미 '-라'가 실현된 것과 평서형에서 부정법으로 쓰인 것 정도이다. 그러나 '-리라'가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표제어나 시 등에서 쓰이는데 이것은 부정법의 용법과 유사하므로 '하라'체로 보아도 무방하다.

eCollection @ uos

낮은 하오체이다. 화계가 낮아진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더-'가 기능상 구어에만 쓰이게 되면서 문어로도 사용이 많은 '하십시오'체에 쓰이지 않게 되자, '-시-'가 결합한 명령형 어미 '-시오'를 제외하고 구어에서 쓰임이 더 많던 '하오'체에 안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0)의 '-던'은 '-더냐'의 축약형이고 (41)은 인용 구성에 나타나는 '-더-'의 양상이다.

(42) ㄱ. 젊어서는 그렇게 고우시더니.
　　ㄴ. 어려서는 배고파 울기도 많이 했더니.

(42)는 국립국어원(1999)에서 제시한 평서형 어미 '-니'에 '-더-'가 결합한 '-더니'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게'체 평서형 어미 '-느니'나 '-니'와 달리 혼잣말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하게'체의 어미가 아니다.[59] '-더니'의 '-니'는 '하게'체 평서형 어미 '-니'가 아닌 [전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에서 온 것이다.[60] 의미도 [원칙]이 아닌 [경험]과 관련되어 '경험으로 알게 된 일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와 대조되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하게'체로 실현되는 평서형 '-니'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종결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조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후행문이 생략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61]

2.2.1.3. '-리-' 결합형 종결어미

'-리-' 결합형 종결어미는, '-더'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ㄹ-'의 기능이 있으므로 '-리-'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리-'의 결합 제약과 함께 '-느-'와의 계열관계, 뒤에 오는 '-이-'나 '-라'형 어미 등이 하나의 형태소로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ㄹ-'이 결합되어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43) ㄱ. ᄃᆞᆯ니 변통을 허여셔라도 좀 쉬이시면 실긔치 안코 속키 갑ᄉᆞ오리다. <日韓通話 113>
　　ㄴ. 녀름은 웃옷슬 항나로 허면 ᄌᆞᆺ소리다. <日韓通話 155>
　　ㄷ. 내가 범연ᄒᆞ오릿가 <日韓韓日新會話 189>

59) '-느니'에 대한 부분은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에서 살펴볼 것이다.
60) 오늘날 연결어미 '-니'는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61) 예문 (42)에 제시된 "젊어서는 그렇게 고우시더니."는 "젊어서는 그렇게 고우시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상하셨을까?"("젊어서는 그렇게 고우시더니……")와 '-더니'의 기능이 다르지 않다.

Collection @ uos

ㄹ. 이 잇고 셰샹이 다시 나를 보지 못ᄒᆞ되 오직 너희ᄂᆞᆫ 나를 보리라 <예수셩교젼셔 요 14:19>

ㅁ. 부인이 탄식하야 ᄀᆞᆯ오ᄃᆡ 달아 무러보 ᄌᆞ 너ᄂᆞᆫ 널니 보리로다 낭군이 소식 업고 옥년은 간 곳 업다 <혈의루 20>

ㅂ. 도젹이 각각 탄복ᄒᆞ야 말호ᄃᆡ 너는 효셩 잇ᄂᆞᆫ사 ᄅᆞᆷ이라 우리 갓ᄒᆞᆫ 쟈ᄂᆞᆫ 엇지 인류라 ᄒᆞ리오 <ᄌᆞ유죵 24>

'-리-'도 '-더-'와 마찬가지로 (43ㄹ)과 같이 '해라'체의 평서형 어미로 '-다'가 아닌 옛 형태 그대로 '-라'를 취한다. 그러므로 (43ㄱ, ㄴ)의 '-리다'는 '해라'체가 아닌 '하소서'체로 '-리-+-이-+-다'로 분석된다. 그런데 (43ㄷ) '-리이까'의 축약형 '-리까'는 '하소서'체를 유지하지만 '-리이다'의 축약형 '-리다'는 화계가 한 등급 낮추어져 '하오'체로 쓰인다. '-리까'는 '해라'체의 의문형 어미가 '-냐'이므로 '해라'체와 혼동되지 않는 반면, '-리다'는 '해라'체의 평서형 어미가 '-다'이므로 혼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다'가 '-다'에 이끌려 '하오'체로 한 등급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62] (43ㅁ) '-리로다'의 경우 '-리-' 뒤에서 '-도다'가 '-로다'로 변하던 것이 그대로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 것이다.[63] 또한 (43ㅂ)의 '-리오'는 '하오'체 '-리-+-오'가 아닌 '해라'체 의문형 어미 '-리오'로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ㄹ'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다. 여기서 '-리-'는 [추측], [의지] 등의 양태 의미를 띤다.

(44) ㄱ. 일싱에 반ᄃᆞ시 ᄌᆞᄀᆡᄂᆞᆫ 그러ᄒᆞᆫ 세샹과 사ᄅᆞᆷ을 차즐 놀이 잇스리라고. <무정 1 149>

ㄴ. 자! 또 네 셔방에게 들킬라. 어서 드러가자 <물레방아 3>

ㄷ. 여지껏 밀어왔지만 느들 오늘은 안 될라 마음을 아주 다부지게 먹고 <따라지 283>

ㄹ. 네가 참 잘아라칫 다 막먹고 막써셔 부모셰덕 다업시고 가ᄂᆞᆫ방이되얏스니 네신샹에ᄂᆞᆫ 편ᄒᆞ니라 베ᄶᆡᆨ이나 ᄒᆞ던 지물 지금ᄭᆞ지 진혓던들 걸렷슬라 걸렷슬라 영문 고밀ᄀᆡ에 걸렷슬라 강원 감사 정등ᄂᆡ 곰빅뎡ᄶᆞᄂᆞᆫ 아니지마ᄂᆞᆫ 고밀ᄀᆡᄂᆞᆫ 가지고 왓데 압흐로 글ᄭᅩ 뒤로글 ᄭᅩ 이리글ᄭᅩ 져리글ᄭᅩ 자나 굴그나 굴그나 자나듸々글거 드리ᄂᆞᆫ 판에 너쫏차 걸려들어 <은셰계 268>

(45) ㄱ. (계) 그ᄂᆞᆫ 념녀 마시고 한봉이 일이나 잘 되게 ᄒᆞ서요 졔야 셜마 본국 갓가온ᄃᆡ 엇덜라고요 <송뢰금 3>

ㄴ. 로파는「설마 죽엇슬라고요」ᄒᆞᄂᆞᆫ 형식의 말에 <無情 2:283>

---

62) '-리이다', '-리이까', '-리까'는 '하소서'체이다.

63) '-도다'가 '-로다'로 실현되는 경우는 '-리로다', '-리로쏘냐', '-이로다', '-이로구나', '-이로군' 따위가 있다.

Collection @ uos

(44)의 '-ㄹ라'는 '-리라'의 축약형으로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다. 이유기(2001)은 <念佛普勸文>(龍門寺本 1704)에서 '-ㄹ라'가 발견되는데[64] 이것은 '-리라'에서 발달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ㄹ라'와 현대국어의 '-ㄹ라'의 의미 기능이 다르다. 근대국어의 '-ㄹ라'는 '-리라'와 의미 기능이 같지만 현대국어의 '-ㄹ라'는 '-리-'가 본디 가졌던 [추측], [의지]의 의미에서 확장된 [염려]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염려]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20세기 넘어서의 일이다.

또한 이것은 인용 구문 '-ㄹ라#하고'가 융합하여 (45)의 '-ㄹ라고'라는 종결어미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본래 가졌던 의지의 의미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융합된 형태이다. 그러나 여기에 '-었-'이 결합하면 [부정의 의심] 혹은 '가벼운 물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달라진다. [의도]의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는 '-었-'이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ㄹ라'가 [염려]를 나타내고 '-었-'과 '-고'와 융합하게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ㄹ라'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ㄹ라고'에서는 본래 의미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려 하-'에서와 같이 의도와 관련된 '행위'를 실현시키는 것은 '하-'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65] 그리고 종결어미 '-고'가 평서형, 의문형 어미로 실현되므로 이 어미 역시 평서형, 의문형으로 모두 쓰이게 되었다. 다만 명령형 어미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본래 '-ㄹ-'이 가진 기능에 의한다. 또한 "내/네/걔가 공부했을라고."와 같이 '-었-'이 실현되면 인칭 제약이 없지만, "내/*네/*걔가 공부할라고."와 같이 '-었-'이 실현되지 않으면 인칭 제약이 생긴다. 그런데 평서형 어미는 1인칭과 공기하는 것과 달리 의문형 어미에서는 급히올림(↑) 억양이 수행될 때에는 2인칭과 공기하지만 올림(↗) 억양이 수행될 때에는 2인칭 외에도 3인칭이 올 수 있다. 의미도 올림(↗) 억양이 수행될 때에는 "걔가 설마 혼자 할라고?"와 같이 부정적인 의심을 나타내지만, 급히올림(↑)이 수행될 때에는 "네가 할라고?"와 같이 [의지]의 의미가 담긴 가벼운 물음이다.

(46) ㄱ. 「눈이 올지 모르는데 술이나 한殘 먹고 써나랸?」하며, 밧게다 대이고, 술床을 차리라고 일럿다. <萬歲前>

ㄱ'. 술이나 한잔 먹고 떠나려느냐?

ㄴ. 술이나 한잔 먹고 떠날래?

ㄴ'. 술이나 한잔 먹고 떠나려고 해?

ㄷ. 나는 바람, 바람이려오.

64) 내사 고기를 먹지 아니홀라 ᄒᆞ고 <普勸 龍門寺本 19ㄴ>

65) 4장 참조.

Collection @ uos

ㄷ'. 나는 바람, 바람이려 하오.

이 형태는 다시 (46)의 '-ㄹ래'로 파생되는데, [의지], [의도]의 의미가 있어 본래 '-리라'가 가졌던 의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ㄹ래'는 '-ㄹ라고#해'가 융합된 어미로 본래 '-리라'의 의미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역시 뒤에 결합하는 '하-'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의지], [의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평서문에서는 1인칭과 공기를 하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과 공기하는 인칭 제약이 있다. 그런데 '-ㄹ래'를 앞에서도 보았듯이 '-려고#해'가 융합되어 형성된 종결어미라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다(박재연 2006). 그러나 '-려 해'가 융합된 형태가 '-ㄹ래'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의도]의 '-려 하-' 통합 형태인 '-렵니다', '-려네', '-려오' 등은 '-ㄹ래'와 달리 환원 가능한 형태만이 나타난다. (46)을 보면, (46ㄱ)은 (46ㄱ')으로 환원 가능하다. 이에 반해 (46ㄴ)의 '-ㄹ래'는 (46ㄴ')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형태이다. 그런데 '-려 하-'가 융합 형태로도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46ㄷ) '-려오'는 융합형인데 (46ㄷ')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의 '-려오'가 아니다. 그러므로 [의도]의 의미를 가진 융합형 '-ㄹ래'는 '-려 해'의 변화형이라 볼 수 없다. '-ㄹ래'는 현대국어 구어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이라기보다 근대국어에서 비롯한 형태이다.

(47) ㄱ. 이ᄯᆡ 장씨 부인이 뜻밧게 금션을만나 ᄌᆞ긔 친ᄉᆡᆼ보다 못지 안이케 ᄉᆞ랑ᄒᆞ며 학교에 보ᄂᆡ여 공부를 식이ᄂᆞᆫᄃᆡ 아침이 되면 시간이 느즐셰라 죠반을 ᄌᆡ촉ᄒᆞ야 쥬고 하학을 ᄒᆞ고 돌아오면 얼마나 시장ᄒᆞ냐고 먹을 것을 맛침 쥰비 ᄒᆞ얏다가쥬며 <모란병 66>

ㄴ. ᄇᆡ도 곱흐고 ᄌᆞ긔 쳡의 박ᄋᆞ지 긁ᄂᆞᆫ 것도 귀치안어셔 낫 모로ᄂᆞᆫ 집으로 남이 알셰라 단이며 소ᄆᆡ 동량ᄒᆞ야 가지고 ᄌᆞ긔 집에 드러갈 졔ᄂᆞᆫ ᄀᆞ쟝 누가 보내쥰 모양으로 그 쳡을 속여 안유ᄒᆞ며 근々히 지내더니 <화의혈 7>

ㄷ. 달도 밝을세라

이렇게 '-ㄹ라'에서 발달한 이 어미들은 새로운 의미를 파생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계도 달라지는데, '-ㄹ라'는 '해라'체이지만 변화형 어미인 '-ㄹ라고', '-ㄹ래'는 '해'체이다. 그것은 뒤에 오는 종결어미가 '해'체이기 때문이다. [염려]를 의미하는 어미로 '-ㄹ라' 외에 '해라'체 '-ㄹ세라'가 있다. 이것은 본디 '-ㄹ#ᄉᆞ+-이' 구성인 '-ㄹ세'에 계사 '이라' 형태가 융합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이 형태는 염려의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 감탄의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47ㄱ)은 연결어미이고 (47ㄴ)은 [염려]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며, (47ㄷ)은 [감탄]의 종결어미이다.

eCollection @ uos

(48) ㄱ.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누가 당ᄒᆞ지 아니한 일이냐 제 곳에 아니ᄂᆞ고 제 눈에 못 보앗다고 ᄐᆡ평성셰로 아ᄂᆞᆫ 사ᄅᆞᆷ들은 <u>밥벌레라</u> 사ᄅᆞᆷ 사ᄅᆞᆷ이 밥벌레ᄀᆞ 되야 셰상을 모로고 지ᄂᆡ면 몃 ᄒᆡ 후에ᄂᆞᆫ 우리ᄂᆞ라에셔 일쳥젼징 갓ᄒᆞᆫ 란리를 또 당ᄒᆞᆯ 거시라 <혈의루 65>

ㄴ. 사셰가 엇지ᄒᆞᆯ 슈 업셔 이짓을 한다 너 쥭은 뒤라도 우리ᄂᆞᆫ 죠곰도 원망ᄒᆞ지 말고 너의 계모 되ᄂᆞᆫ 최 씨가 쥭인 쥴만 <u>알러라</u> 우리도 너의 계모의 돈을 만히 먹엇스니 엇지ᄒᆞᆯ 슈 인ᄂᆡ <금국화 50>

ㄴ'. ᄇᆡ옥 갓ᄒᆞᆫ 아씨도 네 손에 ᄋᆡᄆᆡᄒᆞᆫ 루명을 입어 친졍으로 가셧ᄂᆞᆫ이라 ᄒᆞᄂᆞᆫ 열어입이 한갈 갓ᄒᆞᆫ <u>말이러라</u> 오월이가 쳐음에ᄂᆞᆫ 앙탈도 ᄒᆞ고 발병도 ᄒᆞ더니 <금국화 97>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 ‘-겠더-’의 소급형인 추측 회상법 어미 ‘-리러-’, ‘-ㄹ러-’가 있는데 이것은 ‘-리-’와 ‘-더-’가 결합한 것이다(고영근 1981/2011). 이 ‘-리러/ㄹ러-’가 통합된 어미들이 현대국어에 남아 있는데, 하게체의 ‘-ㄹ런가’, ‘-ㄹ런고’, ‘-ㄹ레’, ‘해라’체의 ‘-ㄹ레라/ㄹ러라’가 그것이다. 이들 어미는 ‘-리러-’가 화석형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이러한 어미는 일상 대화에 사용된다기보다 시 등의 예스러운 표현에 주로 쓰인다. 그것은 ‘-더-’가 ‘-리-’ 뒤에서 ‘-러-’로 실현된 고어 형태의 ‘-리러-’가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겠더-’보다 ‘-더-’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이형 ‘-러-’에 ‘-더-’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이다.

(49) ㄱ. 깁흔 산 놉흔 봉에 사람의 자취 업ᄂᆞᆫ 곳으로 속절업시 가ᄂᆞᆫ 것도 그 쳐자 된 사ᄅᆞᆷ은 무정ᄒᆞ다 <u>ᄒᆞᆯ런지</u> 야속ᄒᆞ다 <u>ᄒᆞᆯ런지</u> 설고 ᄀᆡ맥힌 ᄉᆡᆼ각ᄲᅮᆫ일 터인ᄃᆡ 그 산즁에 드러가서 더 깁히 드러가ᄂᆞᆫ 곳은 짱속이라 <은세계 440>

ㄱ'. (홍부인)붓처 말솜과 갓치 금강산 유졈ᄉᆞ로 가셔 잇슬 터이니 할멈만 알고 소문ᄂᆡ지 마오 만일 군수가 알면 또 졀ᄭᅡ지 <u>좃차올는지</u> 알 수가 잇쇼 <洗劍亭 85>

ㄴ. 그쳐럼 ᄂᆡ심의 ᄌᆞ탄을 ᄒᆞ면셔 압길 거취을 <u>엇지할지</u> 졍신이 밋쳐 돌지 못ᄒᆞ고 안져더니 <한월 57>

‘-ㄴ지’에 선어말어미 ‘-리-’가 결합한 형태로 ‘-ㄹ런지’와 ‘-ㄹ는지’, 그리고 ‘-ㄹ지’가 있다. 19세기부터 나타나는 ‘-ㄹ는지’는 ‘-리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파악되지만, 이지영(2008)은 19세기 이전에는 선어말어미 ‘-으리러-’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으리러’와 ‘-ㄴ지’이 결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49ㄱ)과 (49ㄱ') 비교해 보면, ‘-ㄹ는지’는 ‘-ㄹ런지’의 변이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ㄹ지’나 ‘-ㄹ런지’는 주로 내포문에 많이 나타난다.

Collection @ uos

2.2.2. ‘-느-’, ‘-더-’, ‘-리-’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2.2.2.1. ‘-느-’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ᄂᆞ-’는[66] 근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시제 기능이 점점 축소되다가 19세기로 오면 형태와 기능이 분화된다. 그리고 ‘-느-’의 기능이 변화하고 여기에 다양한 종결어미가 생성되면서 그 결합 양상도 분화되었다.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2.1장에서 다루었던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종결어미를 이루고 있는 ‘-느-’로, 여기에는 ‘-네’와 19세기에 형성된 ‘-습니다/까’가 있다. ‘-네’의 경우 종결어미와 결합한 형태는 이미 16세기에 출현하였는데,[67] 이 시기에는 ‘-ᄂᆞ-’가 활발하게 기능하므로 종결어미에서 분석되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느-’의 시제 기능은 거의 사라지고 점점 종결어미와 융합하여 종결어미화한다. 그리고 양태 범주에 놓이는 ‘-느-’와 비완망상으로서 상 범주에 놓이는 ‘-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범주의 ‘-느-’의 기능과 함께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50) Declarative Terminations / Present Tense[68]

ㄱ. -다 ; ᄒᆞᆫ다 / 먹ᄂᆞᆫ다 / 깁다

ㄴ. -에 ; ᄒᆞ네 / 먹네 / 깁헤[69]

ㄷ. -오/소, -지오, -ᄋᆞᆸ지오 ; ᄒᆞ오 / 먹소 / 깁소 | ᄒᆞ지오 / 먹지오 / 깁지오 |
ᄒᆞᄋᆞᆸ지오 / 먹ᄉᆞᄋᆞᆸ지오 / 깁ᄉᆞᄋᆞᆸ지오

ㄹ. -ᄂᆞ이다, -ᄋᆞᆸ나이다/ᄉᆞᄋᆞᆸ나이다 ; ᄒᆞᄂᆞ이다 / 먹ᄂᆞ이다 / 깁ᄂᆞ이다 |
ᄒᆞᄋᆞᆸᄂᆞ이다 / 먹ᄉᆞᄋᆞᆸᄂᆞ이다 / 깁ᄉᆞᄋᆞᆸᄂᆞ이다

<韓英文法AN INTROD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51) ㄱ. (변) 나ᄂᆞᆫ 자네보고 ᄒᆞᆯ 말 업ᄂᆡ 그 역시 팔자지만…… <모란병 64>

---

66) 본고는 중세국어 ‘-ᄂᆞ-’가 현재시제 기능을 한다는 일반적인 논의에서 출발한다. 즉 중세국어의 ‘-ᄂᆞ-’가 현재시제인지, 비완망상인지, 혹은 직설법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다.

67) 16세기에 ‘-ᄂᆞ-’가 통합되어 형성된 어미는 ‘ᄒᆞ소’체의 평서형 어미 ‘-ᄂᆡ’이다. 통합된 형태이지만 ‘-ᄂᆞ-’는 현재시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 자료에서, ‘-뇌’, ‘-데’의 경우 선어말어미 ‘-ᄂᆞ-’, ‘-더-’를 분석할 수 있다.

ㄱ. ᄀᆞᆺ 와 문 들어든 슌ᄫᅵ 한 잔곰 받ᄌᆞ오라 쳥ᄒᆞ뇌 <번노 下:35ㄱ>

ㄴ. 더뎌 두소 ᄂᆞᄆᆡ 집도 그러ᄒᆞ데 <김씨 언간>

ㄷ. 예 초나한 날 뎜졔니 사ᄒᆞᆫ날 기니 겻기ᄂᆞᆫ 도히 <김씨 언간>

68) Underwood(1890)에서 제시한 종결형 목록으로 이소흔(2015)에서 정리한 것임.

69) 이에 대한 과거형은 ‘ᄒᆞ엿데 / 먹엇데 / 깁헛데’로 제시되어 있다.

Collection @ uos

ㄴ. (을) 자네ᄂᆞᆫ ᄉᆡᆼ각이 나보다 한층 더 깁다고 ᄒᆞᆯ 만ᄒᆞ이 <우중행인 87>

ㄷ.「어느 분 차례입니까?」하는 우선의 말에,「내 차례인가 보에.」<無情>

(52) ㄱ. 형「글셰 졍진이 소원이 그러ᄒᆞ다네 신식으로 ᄒᆞ면 엇더케 ᄒᆡ야 좃케ᄉᆞ나」<금강문 180>

ㄴ. 형「쥰비가 별것 잇나 신랑 신부의 의복은 지어 노은 지가 오ᄅᆡ고 그날 잔치 음식은 요리 집에 맛츄엇네」<금강문 179-180>

ㄷ.「하지만 여보게 참 정말 전활랑은 아예 걸지 말게. 그러다가는 우리집 마나님께 이 혼당할까 무서우이」<電話>

19세기 말 '-네'에 결합되어 있는 '-느-'는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50ㄴ)의 19세기 말『韓英文法』에서 제시된 종결형 목록에서도 '-느-'가 분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적용된 예가 (51)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자료 (52)에서는 '-느-'를 분석할 수 없다. (52ㄱ)은 '-네'가 형용사와 결합하고 있고, (52ㄴ, ㄷ)은 '-네' 앞에 '-엇-'이 결합되었으므로 '-느-'가 현재 시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는 하나의 융합된 형태이다. 이에 반해 '-느-'가 결합되지 않는 형태 '-이'도 (52ㄷ)과 같이 계속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도 형용사에만 결합된다.

'하소서'체에 나타나는 '-느-'도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50ㄹ)을 보면 '-느-'가 '깁ᄂᆞ이다'와 같이 형용사에도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소서'체에서 실현되던 '-습ᄂᆞ이-'도 '-습-느-이-'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의 기능도 점차 잃기 시작하여 (50ㄹ)과 같이 형용사에도 결합하는 현상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53) ㄱ. 쥬여, ᄉᆞ랑ᄒᆞᄂᆞᆫ 줄 아심ᄂᆞ이다 <신약젼서 요 21:15>

ㄱ'. 쥬여, ᄉᆞ랑ᄒᆞᄂᆞᆫ 줄 아심니이다 <신약젼서 요 21:16>

ㄴ. 즁ᄒᆞᆫ 덕ᄐᆡᆨ은 ᄐᆡ산이 가뷔엽습나이다 <화중화 12>

ㄷ. (셜자) 앗씨게셔 자녀 ᄀᆞᆫ에 업시 고젹하게 지ᄂᆡ시더니 싸님이 ᄉᆡᆼ겻스니 얼마ᄂᆞ 죠흐시닛가 그러ᄂᆞ 오ᄂᆞᆯ 나흐신 아기가 ᄃᆡ단이 슉셩하오이다 <혈의루40>

(53)에서는 '하소서'체 평서형에 결합하는 선어말어미들의 다양한 결합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느-'가 결합되기도 하고 결합되지 않기도 하며 '-느-'의 형태도 일정하지 않다. (53ㄴ)은 형용사에 '-느-'가 결합된 데 반해, (53ㄷ) '-하오이다'에서는 '-느-'가 결합되지 않았으나, 이 두 형태에서 '-느-'의 결합 유무로 인한 의미 차이는 나지 않는다.

Collection @ uos

과도기에 있던 ‘-느-’는 다양한 양상이 출현하는데, 형용사에서 ‘-느-’의 결합은 오늘날까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54) ㄱ. Interrogative Terminations / Present Tense
-ᄂᆞ냐(뇨)/으냐(뇨) ; ᄒᆞᄂᆞ냐(뇨) / 먹ᄂᆞ냐(뇨) / 깁흐냐(뇨)
<韓英文法AN INTROD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ㄴ. 타ᄂᆞᆫ 거시라 ᄒᆞ니 잘 타면 하로 몃 니나 가ᄂᆞᆫ냐 <南原古詞 2:11ㄱ>
ㄷ. 예수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녀인아, 엇지ᄒᆞ야 울며 누구를 ᄎᆞᆺᄂᆞ냐 <신약젼서 요 20:15>
ㄹ. 이놈아 네가 ᄂᆞ를 웃던 ᄉᆞᄅᆞᆷ으로 알고 잇다위 힝위를 ᄒᆞ느냐 <추천명월 76>
ㅁ. 호랑이은 사ᄅᆞᆷ을 먹냐 <韓語教科書 53>[70]
ㅂ. 이 밤중에 또 어데를 간단 말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ㅅ. 웨? 실흐냐?[71] 흐흥 <闇夜>

(55) ㄱ. Interrogative Terminations / Past Tense
-ᄂᆞ냐(뇨) ; ᄒᆞ엿ᄂᆞ냐(뇨) / 먹엇ᄂᆞ냐(뇨) / 깁헛ᄂᆞ냐(뇨)
<韓英文法AN INTROD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ㄴ. 이년 너 갓튼 더러온 년을 쥭이려 ᄒᆞ여도 이 칼이 더러올가 ᄒᆞ야 쥭이지는 아니ᄒᆞᆯ 터일다마는 첫번들고 나오든 금봉지는 어ᄃᆡ 두엇느냐 <행락도 466>
ㄷ. 그ᄅᆡ 독갑이들이 몰녀와셔 우리 모녀를 쌍그리 잡아먹엇스면 네게 무엇이 그리 시훤ᄒᆞ겟느냐 <치악산 下 8>

‘해라’체 의문형 어미 ‘-냐’는 오늘날에도 형용사와 계사에는 ‘-느-’가 결합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동사에서 ‘-느-’의 결합은 수의적이기 때문에 ‘-느-’에 현재 시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9세기 말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54)을 보면 동사에 ‘-느-’가 수의적으로 결합하지만 의미는 차이가 없다.[72] (55)와 같이 ‘-었-’이나 ‘-겠’과 결합한다는 것은 ‘-느-’에 더 이상 현재를 나타내는 기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최동주(2002)는 후기 근대국어 시기 ‘-엇ᄂᆞ-’의 ‘-ᄂᆞ-’는 시제적 기능을 상실하고 화자의 視點이 발화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독으로 쓰이던 ‘-ᄂᆞ

70) 이 시기에는 ‘-느-’가 탈락한 형태인 ‘-냐’는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71) 오늘날 ‘-냐’는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는 비분간어미이다. 그러나 15세기부터 20세기 전기까지 형용사와 결합하는 ‘-냐’는 매개모음을 취하는 분간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동사와 결합할 때는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으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취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매개모음을 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권위적이지만 친근한 말투가 되는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말투이다.
72) (54ㄱ)은 ‘-느-’가 ‘-ᄂᆞᆫ-’으로 실현된 경우인데, 평서형 어미 ‘-다’와 결합하는 ‘-는다’에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Collection @ uos

-'는 지난 시절의 기능을 유지하여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현재를 뜻하는 표현에 필수적으로 출현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었느-', '-겠느-'의 경우 '-느-'가 탈락한 형태가 가능하다. 오늘날에도 형용사나 계사에는 '-느-'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사에는 '-느-'의 결합이 수의적인데, '-었-', '-겠-' 다음에도 '-느-'가 탈락한 형태가 가능하다.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던 의문형 어미 '-냐'와 결합하는 '-느-'는 점차적으로 현재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현대국어에서 '-느냐'는 의고체로 권위적인 말투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동사에 쓰인 것은 '-냐'가 아닌 '-느냐'인데, 이는 아랫사람에게 쓰던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이므로 권위적인 말투이다. 그리고 친근한 말투로는 '-니'가 쓰였다.[73] '-느-'의 현재 시제 기능이 소멸되면 '-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고, 고착된 형태의 '-느-'는 권위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서 '-느-'가 탈락된 형태도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56) Interrogative Terminations / Present Tense
-ᄂᆞ니/으니 ; ᄒᆞᄂᆞ니 / 먹ᄂᆞ니 / 깁흐니
ㄴ. Interrogative Terminations / Past Tense
-ᄂᆞ니 ; ᄒᆞ엿ᄂᆞ니 / 먹엇ᄂᆞ니 / 깁헛ᄂᆞ니 <韓英文法>

(57) ㄱ. 이 ᄌᆞ식아 네가 군칠의 집 더부ᄉᆞ리 술 졔 산젹 굽던 붓치질노 ᄉᆞ람을 긔가 막히게 붓치ᄂᆞ냐 그리면 너ᄂᆞᆫ 부치질을 엇지ᄒᆞᄂᆞ니 <南原古詞 3:41ㄴ>
ㄴ. 貞: (못들은 체하고 妻의게) 아-니 그럿케, 自由 업는 게 事實이니? (손을 붓잡으며) 노라 쎈을 왜 본밧지 안늬? 瓊順 이도 世上 달은 女子와 항상 갓흐라는 法 이 어듸 잇늬? …… (중략) …… (妻의게) 네가 너무 맘이 곱기는 해도, 그럿타구 나것흔 女子고 보면 가정은 벌서 깨어젓슬 것이 아니늬? <山돼지>

19세기 현재를 나타내는 '-느-'가 결합하는 종결어미로 의문형 어미인 '-니'가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의 해라체 의문형 어미 '-니'로 이어지는 것인데, 현대국어에서는 '-(느)냐'와 달리 '-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현희(1982)는 '-느니> -느이> -늬> -니'와 같이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니'에 '-느-'가 결합되었다고 하였고,[74] 고영근(1989/1999)에서는 '-니'는 '-더냐'의 '-디'와 비교하여 해라체 '-느냐'에서 줄어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57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세기 말까지도 '-ᄂᆞ-'가 결합한 '-ᄂᆞ니' 형태가 출현할 뿐만 아니라 계사나 형용사에 '-니'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73) 근대국어에서도 '-니'는 친근한 말투로 쓰였다. 20세기 음성 자료를 통해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엄격하게 말할 때에는 '-느냐'를, 다정하게 말할 때에는 '-니'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4) 예문 (67ㄴ)에서 보듯, '-늬' 형태도 나타난다.

Collection @ uos

이소흔(2015)에서 언급한 '-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15세기의 반말 어미인 '-니', '-리'는 문말형식 절단형인데, 이러한 형태가 문법 체계에 정착될 때는 대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윤용선 2006).75) 15세기 평서형, 의문형으로 쓰이던 반말 '-니'는 16세기로 오면 의문형의 경우 화계가 한 단계 낮아져 'ᄒᆞ라'체로 나타난다. 그러나 평서형의 경우 16세기, 17세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18세기 『癸丑日記』에 등장하는데 화계는 의문형보다 위 등급인 'ᄒᆞᄋᆸ소'체이다.76)

19세기를 지나면서 의문형은 '해라'체로, 평서형은 '하게'체로 자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국어 의문형 어미 '-니'와 근대국어 의문형 어미 '-니'가 과연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현대국어 '-니'에 '-느-'가 통합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니'에 '-느-'가 통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니'에는 '-느-'뿐만 아니라 '-느-'와 같은 계열인 '-더-'도 결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니'의 축약형인 '-디'와 같이 '-느니'가 축소되어 '-니'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느니'에서 '-니'로 변화 과정에서 '-늬'와 같은 형태가 출현하는 것은 '-느니'의 축약 과정을 말해 준다. 그러나 19세기 말까지도 의문형 '-ᄂᆞ니'가 출현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넘어서도 극소이기는 하지만 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에 계사나 형용사와 결합한 '-니'가 출현한다는 것은 '-느-'의 본래 기능이 살아 있으며 이 시기에도 '-느-'가 '-니'와 통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77)

(58) ㄱ. 이런 경ᄀᆡ 다 본 후의 광한루의 다ᄃᆞ라셔「방ᄌᆞ야 도원이 어듸메니 무릉이 여긔로다」<南原古詞 13>

ㄴ.「방ᄌᆞ야 ᄒᆡ가 언마나 갓ᄂᆞ니」……(중략)……「방ᄌᆞ야 ᄒᆡ가 엇지 되엿ᄂᆞ니」「셔산의 빗겨 종시 아니 넘어가오」<南原古詞 1:36ㄴ-37ㄱ>

ㄷ.「어대로가느니」아人「이사람이 負傷하얏기로 藥이나 하야 줍시사고 업고 왓습니다」<『少年』중「笑天笑地」>

---

75) '-이다', '-잇가'가 절단된 이 어미들은 'ᄒᆞ쇼셔'체보다 등급이 낮다 할 수 있는데, 다만 'ᄒᆞ쇼셔'체 종결형과 수의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76) ㄱ. 그 후는 ᄂᆞᆷ의 말ᄒᆞ듯 ᄒᆞᄃᆡ「부원군도 아ᄂᆞ이다」ᄒᆞ니「네 그 집의 가니 엇디 ᄒᆞ더니」<癸丑日記 상:17ㄴ>

ㄴ.「대비ᄂᆞᆫ 엇디 겨시며 공쥬ᄂᆞᆫ 엇디 이시며 ᄂᆡ인들은 ᄆᆞᄉᆞ 일 ᄒᆞᄂᆞ니」그 아희 ᄃᆡ답ᄒᆞᄃᆡ 「대비 마노라ᄂᆞᆫ 유야우ᄅᆞ시고 공쥬 ᄌᆞ가야 ᄆᆞᄉᆞ 일을 ᄒᆞ오시며 ᄂᆡ인〃들 ᄆᆞᄉᆞ 일을 ᄒᆞ올고 아모 일도 아니 ᄒᆞᄋᆸᄂᆞ니」시녀 뎡슌이 ᄉᆞ지저 닐오ᄃᆡ「(중략) 블셔브터 손 혜여 오라 ᄒᆞᄃᆡ 아니 오다가 엇디 이제야 온다」ᄃᆡ답ᄒᆞᄃᆡ「어버의 긔별 모ᄅᆞ니 안부 어더 드ᄅᆞ라 왓ᄉᆞᆸᄂᆡ」<癸丑日記 下:32ㄱ>

ㄷ. 가히 놀나고 깃거 무ᄅᆞᄃᆡ「ᄆᆞᄉᆞᆷ 역질고 」「대역 ᄒᆞᄋᆸ시ᄂᆞ니」「고이 줄 ᄒᆞᄋᆸ시ᄂᆞ냐」「언마나 도닷ᄂᆞ니」「작게 도닷다 ᄒᆞᄋᆸᄂᆡ」「어드록 ᄒᆞ엿ᄂᆞ니」「거의 다 ᄒᆞ여 겨ᄋᆸ시니」「텬복이ᄅᆞᆯ 침실의 브리게 ᄒᆞ니 뉘라셔 막어 아니 브리시게 ᄒᆞᄂᆞ니」「아희 나라 일을 어이 아올고」<癸丑日記 下:33ㄱ>

77) 형용사와의 결합 양상은 이소흔(2015) 참조.

Collection @ uos

19세기 자료인 <南原古詞>를 보면, (58ㄱ)은 계사에 결합한 것이고, (58ㄴ)은 '-엇느-'이다. (58ㄷ)은 20세기에도 '-느-'가 결합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58)을 보면 '-니'에는 '-느-'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니'에 '-느-'가 융합되어 있지 않다면 '-느-'와 '-더-'는 같은 계열관계이기 때문에 '-니'에 '-더-'가 결합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더니'가 축약되어 '-디'로 실현되는 양상을 통해 '-니' 역시 '-느니'가 축약되어 실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더니'가 축약되어 '-디'가 된다고 해서 '-느니'도 '-니'로 축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는가'가 축약되어 '-나'로 실현되지만 '-던가'가 축약되어 '-다'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9) ㄱ. 母: (뛰여나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서) 저녁에 웬 일이냐. 밥도 안 먹고 웬 말기운이 그리 나니. 제발 애 좀 자게 하려무나. 님을 맛낫으면 맛낫지 왜 그렇게 소리치라는 법이라드니? 님도 님이지만 어린 子息도 좀 생각을 해야지. <두데기 詩人의 幻滅>

ㄴ. 主: 갓구 말구, 여부가 잇나. 그러니까, 얘야 내가 처음붓허 무엇이라고 하드니. 그까짓 년 갈보 갓흔 년 고만두라고 혀가 달코 입이 달토록 말하지 안트니. <山돼지>

(59)를 보면, 20세기 전기에 '-느-'가 탈락한 이후에도 '-더-'는 탈락하지 않고 계속 결합하고 있는 예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국어에서도 '-더니'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는데, 국립국어원(1999)에는 의문형 어미 '-더니'를 "그 일이 참말이더니?/어머님께서는 진지를 잘 잡수시더니?"와 같이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종결어미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느니'에서 '-느-'가 탈락된 이후에도 '-더니'는 계속 쓰였으며 현대인의 인식 속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니'와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니'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없다. '-느-'가 본디 가지고 있던 기능이 쇠퇴하는 가운데 '-니'와 결합하는 '-느-' 역시 본래 의미를 잃고 탈락한 것이다. '-느니'와 비슷한 결합 양상을 가진 형태는 '-느냐'인데,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도 '-(느)냐'로 나타난다. 즉 '-느-'는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재 시제의 기능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기보다 양태 의미를 가진다. 즉 '-냐-'에 '-느-'가 쓰임으로 인해서 '-냐'만 쓰이는 것보다 의고체로서 보다 권위적인 말투가 된다. 그런데 '-니'의 경우 현대국어에서도 그러하지만 '-냐'보다 친근하고 다정한 말투에 쓰이므로 결합 양상에 따라 예스럽고 권위적인 기능을 하는 '-느-'

Collection @ uos

는 더 이상 '-니'에는 결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이소흔 2015).

'-더-'의 경우 '-느-'가 결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상 대화에서는 점차 결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탈락한 '-느-'와 달리 '-더-'는 문체에 따라 결합되어 의고체로 쓰이기도 한다. 그것은 예스럽고 권위적인 말투가 되게 하는 기능만이 있는 '-느-'와 달리 '-더-'는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느냐'가 의고체로 권위적인 색채를 띠듯이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냐' 역시 의고체로 권위적인 색채를 띠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60) ㄱ. 柳: 에 자네 소리도 듯기 실네! 에-키! 나가세. 어서 나가! 나 혼자 벌어서 먹고 술이나 마시고 사구라마씨 나가면 고만이지. (나간다) <李永女>
ㄴ. 그는 帽子를 바드며,「웨? 실흐냐? 흐흥」<闇夜>
ㄷ. 主: (울며) 엇더케 하면 조으니? 아 너는 나만 가지고 그러케 골니려 드니, 다 늙어 빠진 내가 무엇을 엇더케 하라고 그러니? <山돼지>

(60)은 형용사와 '-네', '-니', '-냐'의 결합 양상에 대한 예로, (60ㄱ)의 '-느-'가 결합되어 있는 '-네'의 경우 매개모음이 실현되지 않으나, (60ㄴ)의 '-느-'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냐'는 매개모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60ㄷ)의 '-니'는 '-냐'와 같이 매개모음을 가지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서도 '-니'는 '-느-'가 결합되어 있다기보다 탈락한 형태이다.

(61) ㄱ. 아 그래 몰으겟단 말이야? 내게두 인간성이 잇구 인격이 잇구 눈치가 잇네. 그러케 업시 역일 게 안일세. 넘어 심하고 넘어 야속하지…… 사람을 사람으로 알면 그러케는 못 하느니!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ㄴ. 미상불 이 번에 동혁이가 어려운 일 했느니 <常綠樹>
ㄷ. 그리게 취해두 더럽게 취하고 지저분하고 몽롱한 아츰 술가티 취하느니. 여간 초대로서는 안이 되느니! 하々々 <廢墟以後_니즐수업는사람들>

(61)의 평서형 '-니'는 동사와 결합 시 여전히 '-느-'가 실현되고 형용사에는 '-느-'가 결합되지 않는 '-니'만이 나타난다.[78] 평서형은 의문형과 달리 '하게'체에서 실현되는데 '하게'체는 '해라'체보다 등급이 높은, 아랫사람 내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상대를 대우해 주는 화계이다. 그래서 '하게'체의 종결어미에는 양태 의미는 없지만 '해라'체나 '해'체보다 말투에

78) ㄱ. 웃어른을 알아 모시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ㄴ. 물은 동해가 맑으니. (국립국어원 1999)

Collection @ uos

무게가 실리게 된다. 평서형 '-느니/니'는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 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의미는 원칙법의 '-니-'에서 온 것이다.79)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 『癸丑日記』에 나타나는 평서형에는 이러한 원칙법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80) 이에 반해 현대국어에서는 이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근대국어에서 이렇게 의문형과 평서형의 화계가 차이 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의문형은 '그듸'와 공기하고 있는데, 황문환(1998)은 의문형 '-니'가 2인칭 대명사 '그듸'와 공기하므로 평서형보다 대우가 낮다고 하였다. 의문형 어미는 특히 주어와 청자가 같을 경우, 즉 주어가 2인칭일 때 청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청자가 명시되는 것은 화계가 명확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81) 그러므로 대우 등급이 명확하게 실현되었던 의문형 어미에서 평서형 어미보다 등급이 더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하게'체 평서형 어미 '-니'는, 동사 현재형에는 '-느-'가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사 외에 '없다'와 형용사 '있다'와도 결합한다. 그리고 '-었-'과 '-겠-' 뒤에도 결합하여 '-었느-', '-겠느-'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느니'의 '-느-'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2) ㄱ. 술은 많이 마시면 실수를 하느니.
ㄴ. 여기엔 큰 못이 있었느니.
ㄷ. 물은 동해가 맑으니.
ㄹ. 웃어른을 알아 모시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62)는 국립국어원(1999)에 제시된 현대국어의 예인데, 동사에는 '-느-'가 결합되나 형용사에는 '-느-'가 결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느-'에 현재를 나타내는 기능이 없음에도 이러한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 다른 형태와 달리 기능이 없음에도 탈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형태가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형태이기

79) 고영근(1989/1999)는 원칙법 '-니-'는 '해라'체, '하소서'체에서 '-니-'를 얻고, '합쇼'체에서 '-ㄴ-'을 얻으며 '하게'체의 경우 단어의 끝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해라'체: 하느니라 / 하더니라, 하소서체; 하나니이다 / 하더니이다,
'합쇼'체: 합닌다 / 합딘다, 하게체; 하느니 / 하더니

80) 가히 놀나고 깃거 무ᄅᆞ듸「ᄆᆞᄉᆞᆷ 역질고」「대역 ᄒᆞᄋᆞᆸ시ᄂᆞ니」「고이 졸 ᄒᆞᄋᆞᆸ시ᄂᆞ냐」「언마나 도닷ᄂᆞ니」「작게 도닷다 ᄒᆞᄋᆞᆸᄂᆡ」「어드록 ᄒᆞ엿ᄂᆞ니」「거의 다 ᄒᆞ여 겨ᄋᆞᆸ시니」「텬복이ᄅᆞᆯ 침실의 ᄇᆞ리게 ᄒᆞ니 뉘라셔 막어 아니 ᄇᆞ리시게 ᄒᆞᄂᆞ니」「아ᄒᆡ 나라 일을 어이 아올고」<癸丑日記 下:33ㄱ>

81) 중세국어에서도 이 어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문헌은『龍飛御天歌』,『月印千江之曲』과 같은 시가인데, 이 문헌에서 평서형으로 쓰일 경우 청자(독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문형일 경우 그것을 듣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Collection @ uos

때문에 옛 형태가 그대로 굳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니'는 동사의 경우 '해라체' 의문형 어미 '-냐'와 달리 '-느-'가 결합되지 않은 '-니'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더-'의 결합도 가능하나[82] 이것은 혼잣말에 쓰이므로 '하게'체 '-니'가 아니다. 그러므로 '-느니'는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이고, 형용사와 결합하는 '-니'와 이형태 관계에 있다. 다만 '해라'체 '-느냐'와 같이 '-느-'가 결합됨으로써 예스럽고 권위적인 기능과 함께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 주는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형태가 현대국어에서 완전한 종결어미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느니/니' 다음에 후행문 혹은 종결어미가 생략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느-'의 현재 시제 기능이 유지되기도 한다. 현재 시제 기능을 가진 '-느-'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다', '-구나', '-도다', '-다니', '-ㄴ가', '-ㄴ지'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ㄴ'과 관형사형 어미 '-ㄴ'에서 비롯된 종결어미이다.

(63) ㄱ. 일남: 복례야 그런 말 마라. 나는 더 기가 맥힌다. 나의 가슴은 시퍼런 칼로 천 조각 만 조각 떼는 것같이 쓰리고 아프다. <유성연극_아리랑고개>
ㄴ. 종가의도 일천 ᄃᆡ우 업고 일촌 무년ᄒᆞ고 즘농안 반종 노와 즐 되엿다 <순흥안씨 언간 20>
ㄷ. 요놈의 자식! 목쟁이를 잘라 죽인다! <孤獨>

(63)은 종결어미 '-다'와의 결합 양상으로 동사에는 '-느-'가 결합되고 형용사에는 결합되지 않으며 과거에는 '-었-'만이 결합된다. 미래인 경우도 '-느-' 없이 '-겠-'만 결합한다. 그런데 (63ㄷ)의 경우 "학교는 내가 간다", "까불면 죽는다"와 같이 [의지], [경고] 등의 양태 의미가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와 관련되는 것으로, 현재의 일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는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와 같이 현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부사 '꼭'을 넣어 "나는 내일 학교에 꼭 간다"가 되면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을 통하여 '-느-'는 [경고]로 의미 확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83]

(64) ㄱ. 무슨 ᄯᅢ문에 나를 믜워ᄒᆞᄂᆞᆫ가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39>

---

82) "젊어서는 그렇게 고우시더니." <국립국어원(1999)>
83) 경고를 할 때, 다른 종결어미에서는 '-ㄹ 것'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습니다'나 '-어'로 나타낼 수도 있다. '-습니다'로 나타낼 때에는 어휘에 따라 그에 따른 억양이 수반되어야 하고 '-어'의 경우는 "너 죽어"와 같이 '죽어' 정도가 [경고]를 나타낼 수 있다.

Collection @ uos

ㄴ. 이런 말이 터지고 보면 우리들은 살인의 결인으로 무사ᄒᆞᆯ 듯 십은가 <현미경 22>

ㄷ. 쇼식이 ᄭᅳᆫ어진 후 ᄒᆡ가 밧괴엿ᄂᆞᆫᄃᆡ 그 병인이 아직도 살어 잇ᄂᆞᆫ가 죽엇는가 <두견셩 下 36>

(65) ㄱ. 그런 ᄌᆡ조가 그 사ᄅᆞᆷ들 즁에 잇슬는지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58>

ㄴ. 그 사ᄅᆞᆷ이 오마고 ᄒᆞ여 노고 지금ᄭᆞ지 아니오니 무슨 ᄉᆡᄃᆞᆰ인지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26>

ㄷ. 쓰지 안은 새 그릇 가튼 良順의 가슴속에 새로운 사랑의 씨를 담어 주랴는 一馥이 뒤에 잇슴을 알엇는지 몰낫는지!

(66) ㄱ. 졔긔 우리가 그 구박을 당힛슬 말이면 승문고라도 치고 남산에 봉화라도 들엇슬 텬이야 남편 망신되고 안이 되ᄂᆞᆫ걸 <빈샹셜 111>

ㄴ. (녀편네) 여보 마음도 급ᄒᆞ기도 ᄒᆞ지 오날은 너무 일은걸…… <치악산 上 90>

ㄷ. 나도 만폭동이 좃탄 말은 어려셔브터 들엇ᄂᆞᆫ걸 <금강문 154>

ㄹ. (평) 그런면 잇더케 힛스면 됴킷늬 무얼 졔가 싸져 죽은걸 늬게 지다위ᄒᆞᆯ가 <빈샹셜 150>

(64), (65)의 의문형 어미 '-ㄴ가', '-ㄴ지'는 현재일 때는 '-다'와 결합 양상이 같으나 과거일 때는 '-었-'이 아닌 '-었느-'가 결합된다. 이때의 '-느-'는 기능이 없는 공형태이다.[84][85] 그런데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에서 비롯된 (66ㄹ)의 경우 동사의 과거형에서 '-었느-' 외에도 형용사의 현재형과 같이 영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관형사형 어미의 경우 '-었느-'형은 나타나지 않고 부정법으로 실현되는 것의 영향이다. (65)의 '-ㄴ지'도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의 구성이지만 근대국어 시기 종결어미화하였으므로 종결어미 결합 양상만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종결어미화한 (66)의 '-ㄴ걸'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 결합 양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형사형 구성의 결합 양상도 나타나는 것은 문법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67) ㄱ. 됴와ᄒᆞᄂᆞᆫ 쳬ᄒᆞ고 ᄂᆞᆷ을 속이려 ᄒᆞᄂᆞᆫ구나 <朝鮮語五十日間獨修 97>

ㄴ. 날쌘품이 참 비호갓구나! <孤獨>

ㄷ. 쥬인이 ᄀᆞᆯᄋᆞᄃᆡ 원슈가 이거ᄉᆞᆯ ᄒᆞ엿고나 <신약젼서 마 13:28>

(68) ㄱ. 그들이 무ᄅᆞᄃᆡ 네 아바지가 어ᄃᆡ 잇ᄂᆞ냐 예수ㅣ ᄃᆡ답ᄒᆞ샤ᄃᆡ 너희가 나ᄅᆞᆯ 아지 못ᄒᆞ

84) 김영욱(1993/1995)에서, '공형태'는 아무런 문법 기능도 지니지 않고 음성형식만 지니고 있는 것이고, '영형태'는 문법 기능은 있으나 음성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85) '-엇-'과 '-느-'가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엇'이 '-어#잇-' 구성에서 온 것으로 '-어#잇-'에 '-ᄂᆞ-'가 결합 가능했기 때문이다. '-더-', '-리-'가 결합 가능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고 내 아바지도 아지 못ᄒᆞᄂᆞᆫ도다 <신약젼서 요 8:19>

ㄴ. 그리면 옥딘이로다 <南原古詞 1:16ㄱ>

ㄷ. 실샹 ᄉᆡᆼ각ᄒᆞ야 보면 조샹의 ᄇᆡᆨ골노 타인의 산판 쌔앗ᄂᆞᆫ 긔계를 삼앗도다 <경셰죵 4:11>

ㄹ. 어둔 ᄃᆡ 안진 ᄇᆡᆨ셩이 큰 빗촐 보앗고 죽을 디경과 그늘에 안진 쟈의게도 빗치 니러나도다 ᄒᆞ셧ᄂᆞ니라 <신약젼서 마 4:16>

(69) ㄱ. (리) 그난 다 오히려 과ᄒᆞᆫ 말이오 마는 쥬인이 당번 져 ᄋᆡ의 이모부가 된다니 셰샹에 긔묘ᄒᆞᆫ 일도 잇소 <우중행인 133>

ㄴ. (부인) 그게 왼말이오 그게 왼말이오 경임이가 오다니 영창이ᄂᆞᆫ 엇더케 되얏셔 <추월색 372>

(67) '-구나'의 경우 평서형 어미 '-다'와 같이 현재형에서 동사는 '-느-'가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결합하지 않으며 과거의 경우는 '-었느-'가 아닌 '-었-'만이 결합한다. 다만 '-다'와 다른 것은 동사 현재의 경우 앞에 자음, 모음 상관없이 '-는-'만이 결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17세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으로 16세기에는 '-ᄂᆞ고나'로 출현하던 것이 17세기에는 '-ᄂᆞᆫ고나'로 나타난다. (68)의 '-도다'도 마찬가지로 17세기 이후 '-ᄂᆞᆫ도다'로 실현된다(이소흔 2015).[86] 그런데 '-도다'의 경우 '-ᄂᆞᆫ-'의 결합은 수의적이다.[87] (69) 인용 구성의 융합형 어미 '-다니'도 마찬가지이다. '-다'에서 비롯된 구성인 만큼 '-다'와 결합 양상은 같아야 하지만 '-느-'가 결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소흔(2013)은 '-다니'를 의문형 어미 '-니'가 통합된 제1유형 '-다니'와 연결어미 '-니'가 통합된 제2유형 '-다니$_2$'를 나누어 보았다.[88] 의문형만 나타나는 제1유형 '-다니'의 경우 현재형은 반드시 '-느-'가 결합해야 하지만, 놀람, 확인, 감탄 등을 나타내는 제2유형 '-다니$_2$'의 경우 '-느-'결합은 수의적이다. 그렇다면 왜 '-느-'의 결합이 필수적이지 않은지, '-느-'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 ㄱ. 햄릿의 코라는 걸 안다. 지연은 그냥 가만 있는다.

ㄴ. 동우 한참을 서서 방안의 소리를 듣고 있는다. 그러다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동우 (김선영 2008)

---

86) 내 엇디 너를 머믈워 재리오 네 모ᄅᆞᄂᆞᆫ고나 요ᄉᆞ이 ᄒᆞᆫ 사ᄅᆞᆷ의 집의셔 <노걸 상 4ㄱ>

87) ㄱ. 將次 길ᄒᆞᆯ 나아가ᄂᆞ니 유무를 베플 바ᄅᆞᆯ 구펴 보내도다 <두시 중 8, 53ㄴ>

ㄴ. 이에 ᄡᅵᆨᄡᅵᆨᄒᆞ고 이에 기ᄅᆞᄂᆞᆫ도다 <산성 147>

88) 제2유형 '-다니'는 다시 '-다니$_1$'과 '-다니$_2$'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다니$_2$'이다.

eCollection @ uos

(71)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다.

김선영(2008)은 '있다'에 의해서만도 현재를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희곡의 지문에서 '있는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느-'를 통합시킨 것은 時點을 이동시키고 '-느-'의 상적인 기능, 즉 눈앞에서 실제 행해지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진행의 상적' 기능이 있는 '-느-'를 통합한다는 것이다.89) 이와 같은 설명은 (71)에서 상태 표현에는 '-느-'가 결합되지 못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소흔(2015)의 논의를 보자.

(72) *벌써 시험에 합격한다.

(73) ㄱ. *?물고기 벌써 죽는다.

ㄱ'. *물고기 벌써 죽어.

ㄴ. *?벌써 유리 깨진다.

ㄴ'. *벌써 유리 깨져.

시간부사 '벌써'는 완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72), (73)과 같은 순간동사의 현재형은 수식할 수 없다. 이것은 "걔 벌써 밥 먹는다."와 같이 현재에서 '벌써'가 가리키는 시점은 '먹기 시작한 시점'인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순간동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73ㄱ, ㄴ)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이지 못하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듯하다. 물고기가 죽는, 유리가 깨지는 그 순간을 포착할 때 나오는 표현은 보통 '죽어, 깨져'와 같은 '-어' 형태가 아니라 '죽는다, 깨진다'와 같은 '-는다' 형태이다.90) 그것은 '-는-'이 가지고 있는 상적 기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91) 그러니까 (73)의 경우, 사건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일찍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발화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겠다(이소흔 2015).

---

89) 어떠한 작품에서 '-었다'가 아닌 '-는다'를 쓰는 것에 대해, 신현숙(1986/1998)은 작품에서 '-는-'으로 표현된 사건이 '-았-'으로 표현된 사건보다 전경 사건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 즉 작가는 거리감(rem-oteness)을 표현하는 '-았-'이라는 형식 대신에 '-는-'을 선택하여 {작가/독자}와 가까운 사건임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90) 예문 (32)의 '벌써 합격한다'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합격하는 순간'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시간의 길이가 점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이소흔 2015).

91) 여기서 '-는다'는 되고 '-고 있-'는 안 되는 것은 '-는-'과 '-고 있-'의 의미 차이 때문이다. 송영주(1991)은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에서 '-느-'는 시간의 길이가 압축적이고 '-고 있-'은 시간의 길이가 좀 더 길다는 비교도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텍스트상에서 '-느-'는 '-고 있-'보다 더 의미 영역이 좁아 더 강한 문맥상의 초점을 부여하기도 한다(신현숙 1986/1998)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74) ㄱ. 그 애가 집에 온다니! / 그 애가 집에 온다니(요)?(↗)
　　ㄴ. 그 애가 집에 오다니! / 그 애가 집에 오다니(요)?(↗)

(69)에서 보았듯이, 인용 구성 융합형 '-다니$_2$'의 경우 '-느-'의 결합이 수의적인 것은 이소흔(2013)에서는 이때의 '-느-'가 상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소흔(2015)은 예문 (74)을 통하여 부연하고 있다. 즉 '오다니!'의 경우는 '집에 온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나타내므로 발화한 시점에서 그 애가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집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온 시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까운 미래나 과거이나 '집에 오는' 사실은 현재인 것이다. 그런데 '온다니!'의 경우는 지금 오고 있는,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집에 이미 와 있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 즉 그와 같은 상황을 듣거나 결심한 시점부터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다니$_2$'와 같이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에 '-느-'가 필수적으로 오지 않는 것은 감탄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건의 진행, 동작보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탄하기 때문에 진행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필수요소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진행, 반복 등 동작이 중점이 될 때에는 '-ㄴ/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17세기 이후 '-도다'가 수의적으로 '-는-'을 취하는 경우와 그 맥을 같이한다. (68)에서도 보았듯이, '-도다'가 "별이 빛나는도다."와 같이 '-는-'을 취할 때는 '별이 빛나고 있는' 순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에 반해 "별이 빛나도다."와 같이 '-는-'이 없을 때는 '별이 빛나는'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구나, -군, -구먼'의 경우 부정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처음 앎, 추론에 의해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현재 깨달은 상황이 중요하므로 '-는-'이 탈락되지 않은 것이다.

(75) ㄱ. 이 영화 진짜 웃기다.
　　ㄱ'. 너 정말 웃기다.
　　ㄴ. 이 영화 진짜 웃긴다.
　　ㄴ'. 너 정말 웃긴다.

또한 이소흔(2015)는 '웃기다'의 결합 양상을 통해 '-느-'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75)의 '웃기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평서형 '-다'와 결합할 때는 '-느-'의 결합은 필수이다. 그런데 (75ㄱ)에서 보듯이 '-ㄴ-'이 결합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이때 (75ㄱ)은 어떤 상태에 대한 느낌처럼 쓰였다. 즉 (75ㄱ) 문장에서의 '웃기다'는 [+상태성]이다.[92] '영화'에는 시간

Collection @ uos

적인 개념이 있으므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 대신 '그림'을 넣으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75ㄴ)과 같이 '-ㄴ-'이 결합되면 그러한 감정 혹은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웃기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웃게 만드는' 동작만을 나타내면 '웃기다'는 올 수 없고 '웃긴다'만 올 수 있다.[93] 이것은 (75ㄱ', ㄴ')이 비꼬는 말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김선영(2008)과 이소흔(2015)의 논의를 통하여 '-느-'가 가진 상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도다', '-다니$_2$' 등의 '-느-'의 결합 유무는, 동작과 상태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 이야기하느냐에 따른다. 그러므로 (63)-(69)에 나타난 '-느-'의 기능은 '비완망상(imperfective)'[94]인 것이다. 감탄형 어미인 '-도다'는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느-'를 수의적으로 결합하였으므로 17세기부터 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빛나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태에 대해 감탄을 하느냐 동작에 대해 감탄하느냐에 따라 '-느-'의 결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감탄형 어미이면서 '-ᄂᆞ-'가 '-ᄂᆞᆫ-'으로의 변화를 보인 '-고나'에는 '-느-'의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새로 앎, 추론에 의해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가져서이다. '깨달음'은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순간, 즉 시간과 연관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탄이기는 하나 [새로 앎]의 의미는 띠지 않는 '-다니'는 '-도다'와 같이 '-느-'의 결합이 수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19세기에 '-느-'는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종결어미화하는 경우로 '-습니다/까',[95] '-네'가 있고, 양태 의미를 가진 '-느냐'의 '-느-'가

---

92)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라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휘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이냐에 따라 동사가 가지는 동사성은 달라질 수 있다. 김천학(2007)은, Comrie(1976)나 Lyons(1977)에서 '상태'는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의를 통해 영어에서 상태 동사에 포함하고 있는 'know, have, belong' 등의 동사를 국어의 [상태성] 동사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상태성] 동사는 '도달점'이 파악되지 않는 동사들인데, [상태성] 동사들은 '도달점'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성] 동사와 달리 '-어 가-'와의 결합이 제한되나, [상태성] 동사들은 '-게 되-'와의 결합을 통해 이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도달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93) '웃기다'가 관형사형일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느-'를 써야 하는데, 이것이 '웃기는 세상'과 같이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웃긴 세상'이라고 해도 이것이 과거라기보다 현재로 보인다. 그러나 '웃게 하는'의 의미로 쓸 때는 '나를 웃기는 동생'과 '나를 웃긴 동생'은 현재와 과거로 시제가 다르다(이소흔 2015).

94) Comrie(1976)의 'perfective'와 'imperfective'는 '완료상'과 '미완료상', '완망상'과 '비완망상', '외망상'과 '내망상' 등으로 번역된다. 'perfective'는 '사태를 하나의 점으로 압축하여 바라보는 것'이고 'imperfective'는 '사태를 내부에서 바라보고 그 내적인 시간구조를 서술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망'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완망상'과 '비완망상'의 용어를 쓰기로 한다.

95) '-습니다/까'를 분석하여 '-습니-'를 선어말어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유형 어미 '-습시다'의 '-습시-'와 같이 '-습니다', '-습니까', '-습시다' 외에는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이들 어미를 분석을 하게 되면 '-외다', '-올시다', '-(옵)나이다', '-(옵)나이까', '-소이다' 따위의 어미 모두 분석을 해야 하고 선어말어미 양상도 복잡해진다.

Collection @ uos

있다. 그리고 비완망상의 기능을 가진 '-느-'[96]도 있다. '-느-'는 (56ㄷ)의 '죽인다'와 같이 [의지], [경고] 등의 양태 의미로까지 발달한다.

비완망상의 '-느-'는 현대국어에서 '-다', '-구나', '-도다', '-다니',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다. 그러나 이 어미들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합 양상이 일정하지 않다. '-도다'와 '-다니'의 경우 '-느-'의 결합은 수의적이고, '-다'의 경우는 비완망상뿐만 아니라 "그 일 꼭 하고 만다."에서와 같이 [의지], [경고]의 양태 의미를 띠기도[97]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느-'의 결합 여부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76) ㄱ. 션싱님 모쇼가 일너ᄉᆞ되 사ᄅᆞᆷ이 아달 업시 죽으면 그 동싱이 그 쳐ᄅᆞᆯ 취ᄒᆞ여 형ᄋᆞᆯ 위하여 자식ᄋᆞᆯ 낫ᄂᆞᆫ다 ᄒᆞ여ᄉᆞ니 <예수셩교젼셔 마 22:24>

ㄴ. 일남 : 복례야 그런 말 마라. 나는 더 기가 맥힌다. 나의 가슴은 시퍼런 칼로 천 조각 만 조각 떼는 것같이 쓰리고 아프다. <연극_아리랑 고개>

(77) ㄱ. 됴와ᄒᆞᄂᆞᆫ 쳬ᄒᆞ고 ᄂᆞᆷ을 속이려 ᄒᆞᄂᆞᆫ구나 <朝鮮語五十日間獨修 97>

ㄴ. 명서 : 다들 가고야 마는구나. <유성연극_토막_ 빵보 일가의 이향(離鄕)>

종결어미 '-다', '-구나', '-ㄴ가'는 현재를 의미할 때는 '-느-'가 반드시 결합된다. 그런데 '-다'와 '-구나'는 '-느-'와의 결합 양상이 조금 다르다. '-는다'의 경우 "나 내일 집에 간다."와 같이 시점이 미래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는다' 자체에서 표시가 된다기보다는 부사 등의 다른 요소에서 표시가 되는 것이고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느-'가 나타내는 것은 비완망상 내지 양태이다.[98] '-구나'와 결합하는 '-느-' 역시 비완망상이지만, 결합 양상은 '-다'와 조금 다르다. 즉 '-구나'와 결합하는 '-느-'는 앞의 어간에 상관없이 '-는-' 형태만이 오지 '-ㄴ-'은 오지 않는다.

'-ᄂᆞ다'에서 '-ㄴ/ᄂᆞᆫ다'로의 변화는 16세기 내포문 중 모음어간 동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즉 'ᄒᆞᄂᆞ다'가 'ᄒᆞᆫ다'와 같이 'ᄂᆞ > ㄴ으로 변화한 것으로, 그 후 17세기에는 자음어간 동사

96) '-습니다'와 같이 '-는다도'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는다'의 경우 '-었-'등의 선어말어미의 결합 시에는 탈락할 뿐만 아니라 실현 양상에 따라 '-느-'의 결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한다.

97) '-는다'가 양태 의미를 띤다 하더라도 그것을 상으로 볼 때 비완망상이라고 할 수 있다.

98) 한동완(1999)에서 '-고 있-'은 지시하는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가 기준시인 발화시와 동시적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아, 상황의 내재적 시간 구조에 관여하는 반면, '-느-'는 상황의 전체성을 조망하여, 외망상적 의미를 보이는데, '-었-'과는 달리 '-느-'는 현재 시제적 의미에 따라 유표적이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상적 의미라고 하였다. 오충연(2006)은, 관점상으로 볼 때 '-는다'는 무표적 종결형 '-어'와 상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상태성 동사에 제약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었-, -겠-, -더-'와 공기할 수 없는 점은 상황, 양상, 서법의 모든 층위에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은 상황의 내부에서 작용하느냐, 외부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완망과 비완망으로 나누었다. 오충연(2006)에 따르면, '-ㄴ/는-'은 서법의 기능을 하고 부차적으로는 비완망의 하위 부류인 현망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에도 '먹ᄂᆞ다 > 먹ᄂᆞᆫ다'와 같이 'ᄂᆞ > ᄂᆞᆫ'으로의 변화가 생겼다. 그런데 '-구나'의 경우, 결합하는 '-ᄂᆞ-'가 변화한 시기는 17세기로(이소흔 2015), '-ᄂᆞᆫ-'의 형태가 출현하는 시기에 '-구나'의 '-ᄂᆞ- > -ᄂᆞᆫ-'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구나'와 결합하는 '-느-'는 앞의 동사 어간이 자음이든 모음이든 '-ᄂᆞᆫ-'만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76ㄱ)에서도 보듯이 19세기까지도 '-ㄴ다'는 내포문에서 주로 실현되는데 그것은 '-ㄴ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형 자체가 주로 내포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78) ㄱ. 뎌희가 예수ᄭᅴ 닐너 ᄀᆞᆯᄋᆞᄃᆡ 요한의 뎨ᄌᆞᄂᆞᆫ 자조 금식ᄒᆞ며 긔도ᄒᆞ고 ᄯᅩᄒᆞᆫ 바리식인의 뎨ᄌᆞ들도 그러ᄒᆞ되 오직 너의 뎨ᄌᆞᄂᆞᆫ 먹고 마시ᄂᆞᆫ도다 ᄒᆞ니 <신약젼셔 누 5:33>

ㄴ. 쥬ㅣ 너와 ᄒᆞᆫ가지로 ᄒᆞ시도다 ᄒᆞ니 <신약젼셔 누 1:29>

(79) ㄱ. 사ᄅᆞᆷ이란 것은 만물 즁에 귀ᄒᆞ다 ᄒᆞᄂᆞᆫ 것은 자긔 동족을 ᄉᆞ랑ᄒᆞᆷ이라 그럿치 아니ᄒᆞ면 ᄀᆡ 도야지 모양이지 ᄯᅩ 죽는다니 웨 죽소 셜혹 나가 몸은 고기 ᄇᆡ 속에 장ᄉᆞ 지ᄂᆡ더라도 나의 일홈은 썩지 아니ᄒᆞᆯ 터이라 <금의쟁성 240>

ㄴ. ᄯᅩ 쓰다니요. 즉접 분명한 탐색을 해보지도 안코 남의 말만 듯고서야 어쩌케 써요. <檢事局待合室>

'-도다'와 결합하는 '-ᄂᆞ-'는 '-ᄂᆞ구나'와 마찬가지로 17세기부터 변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ᄂᆞ도다' 역시 '-ᄂᆞᆫ도다' 양상만이 나타난다. 그런데 '-도다'는 같은 감탄형 어미이지만 '-구나'와 달리 수의적으로 '-ᄂᆞᆫ-'을 취한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형성된 융합형 어미 '-다니'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의문형어미 '-니'와 결합한 제1유형 '-다니'는 인용 구성 하위문 '-다'의 영향을 받아 '-느-'를 반드시 취하는 데 반해,[99] 연결어미 '-니'와 결합한 제2유형 '-다니$_2$'는[100] 융합형 어미이므로[101] '-느-'를 취하는 데 있어서 (79)와 같이 수의적이다. 그러나 '-도다'와 달리 '-다니'는 두 경우 다 모음 뒤에서는 '-ㄴ'이 오는데 그것은 '-다니'가 '-다 하니/하니'의 구성에서 온 것이므로 '-다'와 마찬가지로 모음, 자음에 따라 '-ㄴ'과 '-는-'을 취하는 것이다.

(80) ㄱ. (풍금을 치우는가?)—생각하얏다. <ᄯᅩᆼ파리와 그의 안해>

ㄴ. (강습소 기부금은 五백 원까지 모집을 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 주지 않었는가) 영신

99) 제1유형 '-다니'가 융합형이 되어도 '-느-'는 필수적이다.

100) 인용 구성의 제1유형, 제2유형에 대한 논의는 4.2장 참조.

101) 제2유형 '-다니$_2$'는 의문문에도 쓰인다. 즉 평서문에 쓰일 때는 감탄형 어미이지만 의문문에 쓰일 때는 의문형 어미로 실현된다. 다만 의문문일 때에는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 못마땅함, 놀람, 감탄 등의 의미가 나타나는 양태 어미이다(이소흔 2013).

eCollection @ uos

은 일이 손에 집히지 않었다. <常綠樹 1:168>

ㄷ. 빌나도ㅣ 긔이히 넉이며 에수ㅣ 발셔 죽은가 ᄒᆞ야 ᄇᆡᆨ부쟝을 불너 죽은 지 오래냐 뭇고 <신약젼셔 막 15:44>

(81) ㄱ. 어—참ᄂᆡ 쫏기에 힘도 뭇쳑 드렷는걸 오날밤에야 안이 올나오겟지 <눈물 下 28>

ㄴ.「대관절 어ᄃᆡ로 가ᄂᆞᆫ 길인가. 급지 안커든 뎜심이나 ᄒᆞ세그려.」「뎜심은 먹엇는걸.」「그러면 ᄆᆡᆨ쥬나 한잔 먹지.」<無情 1:004>

ㄷ. 올에 옥ᄂᆞᆷ 아기가 열한 살이나 되얏ᄂᆞᆫᄃᆡ 뎌 아희도 그 나은 되얏것는걸 킈를 보닛가 갓가히 가셔 뜸 보앗스면 죠박사를 부르고 돌아다보며 <고목화 801>

ㄹ. (老妻)ᄂᆞᆫ 다힝이 길의 유걸ᄒᆞ여 다니ᄂᆞᆫ 걸 만나고 ᄌᆞ식은 그때 여섯 쏠 먹은걸 길의셔 일엇다 ᄒᆞᄋᆞᆸᄂᆞᆫᄃᆡ <한월 下 143>

'-ㄴ가'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간접의문문에 쓰였던 형태이다(고은숙 2007/2011).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말에도 간접의문문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ㄴ가'는 과거일 경우에 (80ㄴ)의 '않었는가'와 같이 종결어미 결합 양상에서 나타나는 '-었느-' 형태도 나타나지만 (80ㄷ)의 '죽은가'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구성에서의 과거 형태인 부정법 '-ㄴ가'도 실현된다. 다만 (80)에서 보듯이 과거형 '-ㄴ가'는 내포문에서 간접의문으로 실현되고 '-었는가'는 직접의문으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관형사형 어미 구성인 (81)의 '-ㄴ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종결어미에서는 '-었는걸'로 실현되지만 관형사형 어미 구성일 경우에는 부정법 '-ㄴ걸'로 실현된다. 그러나 현대국어로 올수록 '-ㄴ가'와 달리 종결어미에서도 과거 형태가 '-ㄴ걸'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종결어미에서 '-었느-'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관형사형 구성과 다르지 않다. 형용사에는 '-느-'가 결합하지 않고 '-더-'와의 결합 양상도 같다. 그리고 '-느-'(느)냐'와 같이 '-느-'가 탈락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ㄴ데'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는 '-었느-'만이 실현된다.

현대국어에서, 의고체로 쓰이는 원칙법 '-니-'가 결합한 종결어미 '-니라'[102] 경우도 동사에서 '-니라'와 결합하는 '-느-'에 현재 시제가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인 '-었-'과도 결합한 형태 '-었느니라'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용사에는 '-느-'가 없는 '-니라'가 결합되는데,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에 다르게 실현되는 것은 19세기 말까지 현재 시제로 작용한 형태가 그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102) 원칙법 '-니-'는 '-니라', '-니이다'만 나타나는데, '해라'체 '-니라'는 '-니다'로 바뀌지 않고 이전 형태가 고착되었다.

Collection @ uos

2.2.2.2. '-더-'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중세국어 시기 뒤로 자리 이동하게 된 '-더-'는 점점 양태 기능을 띠게 된다.[103] 최현배(1929/1961:455-463)는 回想時制(도로생각 때매김) '-더-'를 마침법과 함께 다루고 있고 고영근(1981/2011)에서도 '-더-'를 회상법이라 하며 서법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동주(1996)에서는 15세기의 '-더-'는 단순히 '과거'의 상황이 아닌, '과거의 상황을 그 時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104] 표현'하는 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또는 제시하는 화자의 위치가 그 상황의 時點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즉 '상황을 제시하는 화자의 위치'를 '視點(viewpoint)'라 할 때, 중세국어 '-더-'는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는 視點이 상황의 내부에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국어의 '-더-'는 화자의 위치, 즉 視點이 상황시가 아닌 그 상황을 알게 된 時點인 인식시로 그 視點이 이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전후로 문법화한 '-엇-'은 그 기능이 화자의 視點이 상황의 내부에 위치하는 '-더-'보다는 상황의 외부, 즉 발화시점에 위치하는 부정법의 기능에 가깝다(최동주 2002). 그리하여 부정법이 담당하던 과거시제 기능은 점차 '-엇-'으로 대체되었다. '-엇-'과 의미적으로 충돌하게 된 '-더-'는 양태적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 朴在蓮(2003)은 '-더-'가 시제적 기능을 버리고 양태적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엇더-'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동주(1995)는 근대국어에서 '-엇더-'가 현대국어와 다른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고 하였다.[105] 다시 말하면, 근대국어 '-더-'는 19세기로 가면 다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중세국어 내지 근대국어 '-더-'와 현대국어 '-더-'의 차이는 무엇보다 인칭 제약에 있다.[106]

---

103) 김영욱(1993/1995)는 '-더-'가 중세국어에서는 주로 시제를 담당했다면 현대국어에서는 양태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더-'가 '-시-' 뒤로 이동한 것은 '-더-'가 기능 변화한 것으로, 문법 기능의 변화에 의해 문법형태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104) 경험시 또는 상황시 기준의 현재

105) 朴在蓮(2003)에서 재인용.

106) ㄱ. 拜損ᄒᆞ노니 형아 어듸 갓ᄃᆞᆫ다 모롱이에 비단 사라 갓ᄃᆞ니라 <朴通事諺解 上:14ㄱ>

위의 예는 질문과 대답으로 앞의 의문문의 주어는 이인칭이고, 뒤의 평서문의 주어는 일인칭으로 현대국어에서 '-더-'가 가지는 인칭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때 '-더-'의 기능은 여전히 시제 혹은 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대국어의 '-었더-'와 달리 '-엇더-'가 단순한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예는 '-엇더니'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였다.(최동주 1995:165-166)

ㄱ. 일즉 ᄇᆡ호ᄃᆡ 아니호니 오ᄂᆞᆯ우터 알와라 <飜譯老乞大 上:36ㄱ>
ㄱ'. 일즙 ᄇᆡ호ᄃᆡ 아니ᄒᆞ엿더니 오ᄂᆞᆯ붓터 알괘라 <老乞大諺解 상:32ㄴ>
ㄴ. 小人이 어제 張火卿의 慶賀 잔채에 갓더니 ᄆᆞᄋᆞᆷ 됴흔 형 아ᄋᆞ들히 내게 빌거늘 <朴通事諺解 중:15ㄴ>

(ㄱ)의 경우 '아니호니'가 '아니ᄒᆞ엿더니'로, 즉 'φ'가 '-엇더-'로 바뀐 것으로 현대국어와 같은 특성으로 나타

Collection @ uos

'-더-'의 결합 양상이 연결형이나 관형사형에서 다르고 '-엇더-'가 '-더-'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의 원인은 '-엇-'이 '-어 잇-'에서 온 구성인 것과 '-더-'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는 것에 기인한다.107) '-엇-'의 문법화 이후 서서히 변화를 시작한 '-더-'는 19세기 말에도 현대국어와 다른 기능을 가진,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82) ㄱ. 김셔방 **오ᄂᆞᆯ** 그 일 ᄒᆞ더라. Mr. Kim is doing that **today**.
ㄴ. 김셔방 **어제** 그 일 ᄒᆞ더라. Mr. Kim was doing that **yesterday**.
<한영문법 THE VERB>

(82)는 시간을 나타내는 '오늘'과 '어제'를 제외하면 같은 구문이 된다. 이러한 구문은 중세국어와도 현대국어와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 구문에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82)의 예문만으로는 개화기에 '-더-'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한영문법』에서 '-더-'의 설명을 더 보면 과거, 완료, 미래 등의 시제와 함께 쓰일 때 진행 개념이 여전히 있고 화자의 視點이 현재가 아닌 과거, 완료, 미래 등의 時點으로 옮겨진다고 설명하고 있다.108)

(83) ㄱ. 아까 올 적에 ᄆᆡ우 칩ᄉᆞᆸ더이다.
A while ago, while we were coming **it** was very cold.

나는 (ㄴ)의 경우와 달리 단순 과거이다. 朴在蓮(2003)은 현대국어의 '-었더-'는 과거시제 요소 '-엇-'의 성립과 '-더-'의 기능 변화 가운데에서 과도기적으로 생겨난 '-엇더-'가 국어 시제 체계의 재편 후에도 化石的으로 남은 결과일 가능성으로 보았다. 즉 이전 시기의 과거 시제 요소인 '-더-'와 새로운 과거 시제 요소인 '-었-'이 중복되어 출현한 후 굳어지게 된 결과라는 것이다.

107) 최동주(2002)에 의하면 '-엇더-'나 '-엇ᄂᆞ-'는 '-엇-'의 문법화 이후 출현한 것이 아니라 '-어 잇더-'와 '-어 잇ᄂᆞ'가 줄어든 형태로, 당시 중세국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더-', '-ᄂᆞ-'가, 문법화 이후 과거표지로 굳어진 '-엇-'과의 결합으로 인해 변화를 입은 것이다. 즉 '-ᄂᆞ-'의 경우 '-엇-'과 '-ᄂᆞ-'의 결합이 일반화되면 의미상 모순으로 인하여 '-ᄂᆞ-'가 필연적으로 기능상의 변화를 겪었으나 '-더-'의 경우는 결합 시기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108) Underwood(1890)에서 '-더-'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The particle 더 shows that the action signified by the verbal stem, was continuing or progressing, at the time shown by the tense root, and may be used alone, or with either the past or future tense root, or with both. When used alone, it signifies that the action was continuing or progressing, and can be used with either present or past time.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위의 내용을 보면 '-더-'는 상황시에서 행위가 지속되거나 진행됨을 말하고 있다. 시제의 기능보다는 상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뒷부분 설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더-'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과거나 미래 시제 요소와 함께 쓰일 수 있는데, 단독으로 쓰일 때는 행위가 지속 혹은 진행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나 과거 시간과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ㄴ. 싀골 잇ᄉᆞᆯ 적에 공부 만히 ᄒᆞ엿소.

While I was in the country I studied hard.

ㄷ. ᄒᆞ나흔 열니고 ᄒᆞ나흔 닷쳣습더이다.

One is open, the other is shut. <한영문법 PART Ⅱ>

(84) ㄱ. 슌용이 손가락을 벌의게 쏘이엿습더이다

Soun Yongi has been stung in the finger by a bee.

ㄴ. 륙월 열잇흔 날에 포교의게 잡혓소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on the twelfth day of the sixth month.

(85) ㄱ. 쇼나모 ᄲᅮᆯ회 밋희 ᄀᆞᆷ초아 잇습더이다

It was hidden under the roots of a pine tree.

ㄴ. 공ᄉᆞ 방에 불을 혓더냐

Is the lamp lighted in the minister's room? <한영문법 PART Ⅱ>

(83)을 보면, '-더-'와 '-엇-'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3ㄱ, ㄴ)의 영어 문장은 'it was very cold'와 'I studied hard'로 둘 다 과거에 대응한다. 그렇다면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현대국어의 '-더-'의 용법인 인칭 제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포절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은 'while we were coming', 'While I was in the country'로 (83ㄴ)은 과거이지만 (83ㄱ)은 과거 진행이다. 그리고 (83ㄷ)은 영어의 현재를 '-엇더-'로 번역한 것으로 미루어 (83ㄴ)의 '-엇-'은 과거이고 (83ㄱ, ㄴ)은 과거 지속으로 볼 수 있다. Underwood(1890)은 '-더-'는 피동 표현에도 쓰이며 가끔 자동사가 쓰였을 때 '-더-'가 과거 시제라면 계속적인 용법이라 하였다. (84), (85)이 그러한 예인데 (85)의 경우 자동사라기보다 타동사이다.

(86) ㄱ. 내가 곤ᄒᆞᆸ데다 – I was tired.

ㄴ. 그 사람이 일ᄒᆞᆸ데다 – That man working or was working.

<KOREAN GRAMMATION FORMS>

(87) ᄂᆡ 남의 말을 들으니 남편에ᄂᆞᆫ 시졀이 무던ᄒᆞ다다라

I heard some one say that in the south the harvest was good.

<KOREAN SPEECH>

Gale(1903)은 '-ㅂ데다'형을 제시하며 이를 간접 동사 형태라 소개하고 있다.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된 후 말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공손법, 상태, 특징, 그리고 화자가 어떤 대상

Collection @ uos

을 관찰한 후 그것을 보지 않은 청자에게 말해 줄 때 쓰이는 형태라는 것이다. 예로 '합데다 −doing, 봅데다−seeing, 먹습데다−eating, 걸어갑데다−walking'를 들고 있다. 또한 행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1인칭대명사('나', '우리')와 이 종결어미 '−ㅂ데다'는 쓰이지 않으나 상태나 특성을 의미할 때는 자유롭게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현대국어 '−ㅂ디다'로, 1인칭일 경우 동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형용사와는 결합하는 오늘날 '−더−'의 용법과 같다. (87)는 '해라'체의 간접인용으로 '−다 하더라' 형태의 축약형이다.

(88) 날이 붉은 줄 알엇더니 ᄃᆞᆯ 빗칩데다
I thought it was daylight and it was the moon shining. <KOREAN SPEECH>

(88)과 같은 경우는 1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이면 항상 과거로 번역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직접 봤거나 경험하고 이를 보지 못한 청자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1인칭이 '빗칩데다 − was shining'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알엇더니 − thought'에 걸리는 경우이다. 그리고 '−더라'는 아이나 계층이 낮은 사람에게 쓰는 형태라 하고 '먹더라−eating, 주더라−giving, 밧더라−taking, 부르더라−calling, 둇터라−good'의 예를 제시하였다.

(89) ㄱ. **내**가 눈 어둡기 전에는 책을 잘 봅덴다
Before my eyes failed I used to read well.
ㄴ. 졂었을 적 매 사냥 많이 다녓습덴다
When young I used to hunt with a falcon. <KOREAN SPEECH>

(90) ㄱ. 내 어ᄃᆡ 무엇 ᄒᆞᄂᆞ냐 　내 언제 무엇 ᄒᆞ더냐
Where have I done so? When have I done so?
ㄴ. **네** 어ᄃᆡ 가더냐 　아희들 집에 잇ᄂᆞ냐
Where are you going? Are the children at home? <언문말칙 VERBS>

'−ㅂ덴다' 형은 주로 한때 존재했으나 없어진 형태임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쓰였고 'used to'나 'was'와 같은 표현으로 번역되는데 1, 2, 3인칭에 모두 쓰이는 것으로 '문허집덴다−fall, 잇엇습덴다−existed, 주엇습덴다−gave'를 예로 들고 있다. '−ㅂ데다'와 다르게 '−ㅂ덴다'가 인칭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ㄴ'에 있다고 하며 예로 'ᄒᆞᆸᄂᆡ다, ᄒᆞᄂᆞ니라'를 들었다. 그러나 '−ㅂ덴다'가 인칭에 관계없이 쓰일 수 있는 것은 'ㄴ'과 상관없다. 원칙법 '−니−'는 인칭과 관련이 없으므로 '−니−'가 쓰였다고 해서 인칭 제약이 사라지

Collection @ uos

는 것은 아니다. 『언문말칙』에서는 (90)과 같이 습관적 용법의 의문문의 경우 인칭, 수에 상관없이 '-ᄂ냐', '-더냐'가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89)와 같이 '-습뎬다'가 1인칭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더-'의 기능이 오늘날의 '-더-'의 기능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90ㄱ) '-더냐'에서 '-더-'는 앞의 설명대로 관찰 후 말하는 것이므로 관찰되는 대상은 1인칭 '나'이지만 관찰하는 주체는 2인칭인 청자이다. 즉 '-더-'가 나타내는 의미인 경험, 회상을 하는 주체는, 평서문에서는 1인칭 화자이고 그것의 대상은(그 행동을 하는 주체) 주어이다. 그리고 의문문에서는 경험, 회상을 하는 주체는 2인칭인 청자이고 그것의 대상은(그 행동을 하는 주체) 주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0ㄱ)의 "내 언제 무엇 하더냐?"가 습관적인 용법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때 내가 무엇 하더냐?"의 의미가 되어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90ㄴ)의 경우는 <언문말칙>의 설명대로 습관적 용법일 때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냐' 자체가 의고체가 되어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더냐'는 주로 '-디'로 나타난다.

이렇게 19세기 말은 '-더-'의 과도기적 양상이 잘 드러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최동주(1995)에서 논의한 대로 근대국어의 '-엇더-'는 '-엇ᄂ-'와 같이 단순 과거이고 현대국어와 다르다. 다만 '-엇ᄂ-'와 다르게 같은 과거를 나타내므로 크게 상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가 기능 변화를 겪으면서 '-엇더-' 역시 변화가 나타나 '-엇-'과 '-더-'의 기능이 나뉘게 된다. 즉 視點이 달라지는데 완료된 사건을 '-엇-'으로 나타낸다면 그 사건을 회상을 하는 것은 '-더-'를 통해서이다.

시제 요소였던 '-더-'의 변화는 15세기에 시작되었다. 양태로의 기능 변화는 15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시제로서의 기능과 체계가 흔들린 것은 '-엇-'이 문법화된 17세기의 일이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 '-더-'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ᄂ-'와는 달리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것같이 근대국어의 양상을 유지하고 경우도 있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회상]의 기능으로 변함으로써 인칭 제약이 생겼다. 그리고 종결어미와의 결합에도 제약이 생겼는데, 그것은 절단 형태인 '하오'체나 '해'체에는 '-더-'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와 분포상에 제약이 생기자 '-더-'의 쓰임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제 체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더-'의 기능도 변화되었다. 최동주(1996)는 '-더-'의 재해석은 18세기 말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은 시제적 기능 상실과 상황시에서 인식시로 視點 이동한 것으로, '-엇-'의 문법화로 시제적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視點의 이동은 '-ᄂ-'와의 대립관계를 바탕으로 한 체계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더-'와 '-ᄂ-'는 계열 관계에 있으므로 '-ᄂ-'가 결합되어 있는 종결어미에는 '-더-'가 결합할

Collection @ uos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느-'가 탈락한 형태에는 '-더-'도 탈락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더-'가 '-느-'의 결합 양상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 '-더-'와 결합하는 어말어미는 한정돼 있다. 그 이유는 '-더-' 앞에서 절단된 형태들이 종결어미화되었거나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형태들이 많을 뿐 아니라 '-느-'가 종결어미화하면서 계열관계를 이루었던 '-더-'가 결합하지 못하게 된 것도 있다.

(91) ㄱ. 元: 爀이는 안 왓드니? <山돼지>

ㄴ. 榮: 옵바도! 사냥개 갓구려.

원: 그것 보렴. 왜 또 왓다드니? 또 어머니하고 직거리고 안젓지?

元: 그까직 것 물으서서 뭘 해요. 고만 두서요. 그 詩나 읽읍시다요. <山돼지>

(92) ㄱ. 그 일이 참말이더니?

ㄴ. 어머님께서는 진지는 잘 잡수시더니?

'-느-'와 결합에서도 잠깐 살폈듯이, 20세기에도 의문형 어미 '-니'에 '-더-'가 결합한 '-더니'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더니'의 축약형인 '-디'가 구어에 나타난다. 그래서 의문형 어미 '-니'는 '-느니'의 축약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니'는 '-느-'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탈락한 것인데, 문제는 현대국어에서 '-더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가 '-느-'를 따라 탈락한 것은 '-느냐'에서 보여 주듯 문체상의 이유로 보인다. '-느냐'가 '-냐'보다 더 권위적이고 의고적이듯이 '-더냐' 역시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즉 '-니'는 친근한 어감을 주는 어미이므로 의고체의 느낌을 주는 '-더니'는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게 되고 그 축약형인 '-디'가 구어에서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9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세기 초에도 의문형 어미 '-더니'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92)와 같이 국립국어원(1999)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예스러운 문체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3) ㄱ. (권) 허허 그 놈의 힝동이 아모려도 슈샹ᄒᆞ던걸 그런 쥴 알앗더면 그 놈의 하인 악가질너 왓슬 제 뒤로 슬몃이 네게 다통긔를 ᄒᆞᆯ 걸 그리힛구나 <비파성 192>

ㄴ. (홍) 쥬인은 아ᄃᆞᆯ이나 잇는지 올치 앗가 나왓든 그 소년이 응당 쥬인의 아ᄃᆞᆯ인 게로군 응 그ᄋᆡ가 쏙〻이 싱겻든걸 나 갓흔 사람도 친히 두면 혹시 유익ᄒᆞᆯ 곳이 잇슬 법ᄒᆞ니 그ᄋᆡ 좀 불너보게 ᄒᆞ소 <치악산 下 32>

(93)의 통사 구성에서 비롯된 '-ㄴ걸'은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에서는 인칭 제약이 없지

Collection @ uos

만 종결어미화하면 인칭 제약이 생긴다. 관형사 어미 '-던'은 1인칭과 호응을 하지만 종결어미 '-던걸'은 1인칭이 올 수 없다. 이것은 관형사어 어미와 종결어미에서 '-느-'의 결합 양상이 달라지는 것과 그 맥락이 같다.

(94) ㄱ. 가진 풍악을 치며 ᄉᆞ면으로 호위ᄒᆞ고 올나가ᄂᆞᆫ 거시 ᄆᆡ우 조흐니 이 소ᄅᆡ를 드ᄅᆞ면 텬셩 사름들도 다 나아와 영졉ᄒᆞ겟더라 <텬로력뎡 200ㄱ>

ㄴ. 리 춤판과는 질삳ᄒᆞ여 경슉이 위ᄒᆞ기를 제 집 신쥬보다 더ᄒᆞ니 그ᄅᆡ 경슉이는 친동긔보다 더ᄒᆞ단 말이냐 춤 야쇽ᄒᆞ여 못 슬겟더라 <목단화 468>

ㄷ. 쌍々히 어러부튼 한강을 건너오다가 빙판 한가운데서 오두가두 못하고 발々 쩔제...... 아— 참 그 째에 어쩍해서 어러 죽지를 안엇든지!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더-'가 종결어미에 결합되면 평서문에서는 1인칭이, 의문문에서는 2인칭이 올 수 없다. 그러나 '-더-'는 새로운 선어말어미 '-엇-', '-겟-'과 결합할 수 있는데, 이들 어미 뒤에서는 '-더-'의 결합 양상이 달라진다. (94)에서 보듯, '-더-'가 가진 의미는 같지만 인칭 제약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엇-', '-겟-'이 가진 의미 기능과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S V-엇/겟]더-]와 같이 '-더-'가 문장 전체에 걸리기 때문이다. 즉 이미 완료된 상황이나 추측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인칭 제약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던지'는 선어말어미 '-더-'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표기가 '-든지'로 나타난다(이지영2008ㄴ).[109]

2.2.2.3. '-리-'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리-'는 '-느-'나 '-더-'와 달리 기능은 변하지 않았으나 형태가 '-ㄹ-'로 축약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래, 추측을 담당하였던 '-리-'는 18세기 말에 출현하는 '-겟-'이[110] 그 세력을 점점 확대해 가자 '-리-'의 세력은 축소되고 이이서 19세기 후반 '-ㄹ 것' 구성으로 인해 '-리-'의 쓰임이 줄게 되어, 현대국어에서 '-리-'는 문어체나 의고체 정도로만 쓰인다.

19세기에는 '하오'체가 활발히 쓰이기 시작하고 새롭게 형성된 '하십시오'체는 '하소서'체를

109) 이지영(2008ㄴ)은 '-더-'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게 됨에 따라 표기가 '-든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뒤의 '-지'가 절단된 '-든' 형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예문 (88ㄱ')의 '-든'은 '-던지' 혹은 '-든지'의 '-지'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 '-더냐'의 축약형이다.

110) '-겟-'은 18세기 말에 형성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다.

Collection @ uos

대체한다. 또한 다양한 '해'체 어미들이 형성되었는데, 이들 어미에는 '-리-'가 결합되지 않는다. 선어말어미 '-리-'가 실현되는 어미는 '해라'체의 평서형·의문형 어미, '하소서'체 평서형·의문형 어미 정도이나 그중에서 '하소서'체는 '하십시오'체로 대체되고 의고체로 남았기 때문에 20세기에는 주된 문체가 아니다. 그리고 '해라'체의 경우 계사 '-이-'와 달리 '-리라' 형태로만 나타난다. '-이-'의 경우 19세기 말에 '-이다'로 해라체 평서형 어미 결합 양상이 바뀌고, '-이라'는 간접 인용 내지 의고체로 쓰인다.

(95) ㄱ. 각 사ᄅᆞᆷ이 조곰씩 먹어도 부죡하리이다 <신약젼서 요 6:8>
ㄱ'. (문) 그리ᄒᆞ오리다 ᄅᆡ일 다시 오기로 작정을 ᄒᆞ오마는 돈변통이 ᄅᆡ일 못 되면 모레라도 돈을 가지고 오리다 <황금탑 163>
ㄴ. 이ᄂᆞᆫ 제 ᄇᆡᆨ셩을 죄악에셔 구ᄒᆞ시리라 ᄒᆞᆷ이니라 ᄒᆞ더라 <신약젼셔 마 1:21>
ㄷ. ᄂᆡ가 이리 갓다가 와도 못 보왓스니 필경 이 길로 갓스리라 <추천명월 73>

(96) ㄱ. (이) 예 이 디경된 터에 엇의가 일호나 긔망을 ᄒᆞ오릿가 바로 말슴을 고ᄒᆞ오리다 <구의산 下 13>
ㄴ. 처자 권속 다 버리고 혼자 가ᄂᆞᆫ 져 신셰 이졔 가면 언제 오리 ᄒᆞᆫ뎡 업ᄂᆞᆫ 길이로다 <은셰계 442>
ㄷ. 그 량반 ᄒᆞᆫ춤 당년에 돈이 퍽퍽 쏘다지ᄂᆞᆫ 벼슬을 단이면셔도 엇의가 쓴 담ᄇᆡ 한 ᄃᆡ 먹어 보라고 주엇스릿가 <화셰계 693>

'-리라', '-니라', '-더라'는 종결어미가 '-다'형으로 바뀌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리다', '-니다', '-더다'는 하소서체의 '-리이다', '-니이다', '-더이다'의 축약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라'는 구어로만 쓰이는 데 반해 '-리라'는 표제어 정도로만 쓰이고 구어로는 쓰이지 않는다.[111] 그리고 '-니라'는 의고체로 남았다. (95ㄷ), (96ㄷ)에서 보듯 '-엇-'과 결합이 가능한 것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양태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96ㄴ)의 반말 어미인 '-리'는 수사의문문으로만 나타난다.

이전 시기에 이미 선어말어미 '-리-' 또는 동명사 어미 '-ㄹ'이 융합된 의문형 어미 '-랴/리오', '-리', 그리고 '-ㄹ가/ㄹ고', '-ㄹ소냐', '-ㄹ손가' 등이 있다. 이 의문형 어미는 동명사 어미 '-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어미 앞에는 시제와 관련한 선어말어미는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어미는 주어 및 서술어로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 [의도], [능력], [가능성], [추측] 등의 다양한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은숙 2007/2011). 그러나 근대국어 시

111) '-더라' 외에도 '-더-'가 결합한 '-ㅂ디다', '-디', '-더이다' 모두 구어에서만 쓰인다. '-더-'는 [회상], [경험]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 기능은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다.

Collection @ uos

기에 형성된 ‘-엇-’으로 인해 시상 체계가 재편된다. 기존의 시상 체계 ‘-ᄂᆞ-’, ‘-더-’, ‘-리-’가 새로운 시상 체계의 ‘-엇-’과 결합되면서 기능 변화를 한 것이다. ‘-엇-’과 결합한 ‘-리-’는 [추측], [의도], [능력] 등의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게 된다.

이 의문형 어미들의 양태 의미는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려/뇨’계 의문형 어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순수의문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수사의문에 사용된다. 이에 대하여 고은숙(2007/2011)은 이들 어미가 포함하고 있는 기원적 요소 ‘-ㄹ’의 의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 어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도]나 [능력]과 같은 의미가 나타나는 예는 적어지고 [가능성]이나 [추측]과 같은 의미가 나타나는 예가 늘어나는데, [가능성]이나 [추측]의 의미가 나타날 때 해당 문장은 수사의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97) ㄱ. ᄂᆡ의 마실 잔ᄋᆞᆯ 네 능히 마시랴 <예수셩교젼셔 마 20:22>
ㄴ. 그러면 이 아희 쟝차 엇지ᄒᆞ리오 ᄒᆞ니 <예수셩교젼셔 누 1:66>
ㄷ. (박) 발셔라니 지금이 어느 ᄯᅢ라고 눈 안이 올가 동지가 ᄂᆡ일몰엔ᄃᆡ <고목화 386>
ㄹ. 혼ᄌᆞ말로 온냐 ᄂᆡ가 이 모양을 당ᄒᆞ고 살면 무엇할고 조금 틈만 으드면 곳 ᄌᆞ쳐를 ᄒᆞ리라 <한월 下 103>

현대국어에서 ‘-랴/료’의 경우, ‘아’계는 ‘-랴’ 형태만 남아 있고 ‘오’계는 ‘-리오’ 형태만이 남아 있는데, (97)과 같이 19세기 말에도 ‘-랴’와 ‘-리오’ 형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본디 ‘-랴’와 ‘-리오’는 ‘아’ 계열의 판정의문문이냐, ‘오’ 계열의 설명의문문이냐의 차이이지 다른 양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이 없어진 오늘날에는 ‘-랴’와 ‘-리오’는 의미 기능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랴’는 오늘날에도 질문에 쓰일 수 있으나 ‘-리오’는 수사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랴’보다 ‘-리오’가 더 공손하게 느껴지는 것은 ‘-랴’ 보다 ‘-리오’의 어형이 더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리오’의 ‘오’가 하오체의 ‘-오’와 인식을 같이하여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112)

(98) ㄱ. 부ᄌᆞ의 혈ᄆᆡᆨ이 구통ᄒᆞ여 죵일 너를 픔어 더운 긔운으로ᄡᅥ 너의 ᄎᆞᆫ 긔운을 밧고지 못ᄒᆞᆷ과 너의 알ᄂᆞᆫ 거ᄉᆞᆯ 밧고디 못ᄒᆞᄆᆞᆯ ᄋᆡ돌나 ᄒᆞ더니 이졔ᄂᆞᆫ 긔운이 엇더 ᄒᆞ며 부모 형뎨를 아라 볼소냐 태위 비로소 부공이 ᄌᆞ긔를 픔고 계시ᄆᆞᆯ 알고 <명듀보월빙 83:176>
ㄱ'. 제 공로 ᄒᆞᆫ아 업고 쥬의 의리 ᄲᅢ이니 죄악에 죽을 몸이 예수ᄅᆞᆯ 밋어보세 무지야 회

112) 고영근(1989)에서는 ‘-리오’가 ‘하오’체로 분류되어 있다.

eCollection @ uos

ᄀᆡᄒᆞ라 심판을 당ᄒᆞᆯ소냐 ᄒᆞ더라 <텬로력뎡 186ㄱ>

ㄱ''. (리) 그만ᄒᆞ면 소져에의향을 알이로다 청학동 쳔장암의 졔명ᄒᆞᆫᄉᆞ람이면 허락을 ᄒᆞᆯ소냐 <한월 131>

ㄴ. (희봉) 이 사ᄅᆞᆷ아 이것이 웨일인고 네 아무리 말 안 ᄒᆞᆫ들 내가 네 마음 모ᄅᆞᆯ소냐 ᄌᆞ고로 ᄋᆡᆨ화와 환난이라 ᄒᆞ는 것이 별々일이 다 마느니 그 역시 팔ᄌᆞ이라 <화즁화 6>

ㄷ. 미댱가젼 아희놈이 눈ᄊᆞᆯ이 아니 상ᄒᆞᆯ쇼냐 ᄌᆞ셔히 드러보라 …… 뉘 분부라 아니 ᄀᆞ고 뉘 령이라 거슬쇼냐 잔말 말고 어셔 가ᄌᆞ <南原古詞 1:21ㄱ>

ㄷ. 집안즙물 방ᄆᆡᄒᆞ여 의원의게 문병ᄒᆞ고 무녀의게 굿슬 ᄒᆞ여 살니기로 ᄋᆡ를 ᄡᅳᆫ들 님 그리ᄂᆞᆫ 상ᄉᆞ병에 무ᄉᆞᆷ 효험 잇슬쇼냐 <南原古詞 4:14ㄱ>

(99) ㄱ. 이런 말로만 보아도 약안이 타일에 능히 법국을 회복ᄒᆞ고 일홈이 쳔츄력ᄉᆞ상에 혁々히 빗날 녀장부가 안일손가 <愛國夫人傳 2>

ㄴ. 옥즁명월 긴긴 밤의 독의셔창 빗기 안ᄌᆞ 산운히월 바라본들 쇽졀업시 ᄉᆞᆺᄂᆞᆫ 간장 눌다려 니ᄅᆞᆯ손가 <南原古詞 4:9ㄱ>

ㄷ. ᄉᆞ또 분부 ᄯᅩᄒᆞᆫ 이러ᄒᆞ옵시니 다시 무어시라 알외오릿가 어름 ᄀᆞᆺ튼 ᄂᆡ 마음이 이졔 와셔 변ᄒᆞᆯ숀가 어셔 밧비 쥭여 쥬오 <南原古詞 5:33ㄱ>

'-ㄹ소냐', '-ㄹ손가'는 근대국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ㄹ소냐'는 근대국어에서는 [능력], [가능성], [의도] 등의 의미가 나타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형 어미이다. '-ㄹ손가'는 [추측]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문에 해당하는 수사의문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고은숙 2007/2011). 그러나 이 역시 현대국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의문형 어미이다. (98ㄱ)은 현대국어와 같은 [부정]의 의미가 있는 수사의문문이 아니라 순수의문문이고, (98ㄴ, ㄷ, ㄹ)은 현대국어 '-ㄹ쏘냐'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99ㄱ)은 자문에 해당되고,[113] (99ㄴ, ㄷ)이 현대국어 '-ㄹ쏜가'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100) ㄱ. 슈일 후에 니ᄀᆡ 특의 병이 쾌복되니 틔빅극의 죵적을 듯볼 작졍으로 기극과 갓치 잡밍특을 향ᄒᆞ고 써날셰 뉴욕에셔 륜션을 타고 인도 알이혁달 항구에 와셔 다시 긔챠를 타고 네팔 달급 졍거쟝에 와셔 나리니 <비행선 11>

ㄴ. 우리 셩도 해ᄒᆞᆫ 자ᄂᆞᆫ 제가 저를 해ᄒᆞᆷ일셰 <텬로력뎡 117ㄱ>

ㄷ. 여보 형님 형님 뎌게 누구의 넉이 드럿소 아마 지취마님이지 엇던 계집은 안일셰 은반상 히 가지고 오셧다ᄂᆞᆫ 것을 드러보게 <구마검 3>

113) 주어가 1인칭이 아니므로 자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신소설 『애국부인전』의 문체는 '서술 대상 중심-보여주기' '-다'형이 아닌 '서술자 중심-말하기' '-라'형이다.

(100)은 '하게'체 평서형 어미 '-ㄹ셰'이다. 그런데 이것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17세기 '-ᄉᆞᄫᆞ리로소이다'가 축약된 형태인 'ᄒᆞᄋᆞᆸ소'체의 '-올쇠'(이유기 2001)라고 보는 것이고[114] 다른 하나는 중세국어의 연결어미 '-ㄹᄉᆡ'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용(2003)은 [원인], [시간]의 의미로 쓰이던 연결어미 '-ㄹᄉᆡ'는 17세기에 들어서면 '-ᄉᆞᆸ-', '-시-'와만 결합하는 제한된 양상을 보이다가[115] 19세기에 들어서면 '-ㄹᄉᆡ'는 '-ㄹ새', '-ㄹ셰' 등으로 표기되고 의미는 [원인]보다 [설명] 정도로 바뀌게 되지만 그 쓰임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였다.[116]

(100ㄱ)은 [설명]의 연결어미이고, (100ㄴ, ㄷ)도 [설명]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그런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경우 그것은 해체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100)의 종결어미 '-ㄹ셰'는 해체가 아닌 하게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결어미 '-ㄹ셰'는 ᄒᆞ소체 '-ㄹ쇠'의 변화형태라 할 수 있다.

(101) 텬디만물챵죠홈은 하ᄂᆞ님의젼능이라 만민죄를ᄃᆡ쇽홈은 구세쥬의공로로다
부요ᄀᆞᆺ흔텬디간에 초로ᄀᆞᆺ흔인ᄉᆡᆼ이라 쳔년만년살줄알고 셰샹일만도화ᄒᆞ네
텬부은헤져ᄇᆞ리고 헛된영화구치말게 디옥불에ᄯᅥ러지면 ᄋᆡ동흔들쓸ᄃᆡ업네
팔구십을살지라도 이셰샹은허화시라 우환질병다졔하면 깃분날이몃칠인가
회ᄀᆡ하고쥬밋으면 텬당으로 올나가리 구셰쥬와동거ᄒᆞ면 영ᄉᆡᆼ복락한량업네
후렴) 어셔나오게어셔나오게 죽어진후에ᄂᆞᆫ 못구ᄒᆞ리 <'권중가' 신학월보>[117]

(101)은 20세기 초의 자료로,[118] [설명]의 '-ㄹ세' 외에 [추측]과 [의도], 그리고 [새로

114) 17세기에는 ᄒᆞ소체 '-ㄹ쇠'는 나타나지 않고 {-ᄉᆞᆸ-}이 결합된 ᄒᆞᄋᆞᆸ소체 '-올쇠'만이 나타난다(이유기 2001).
ㄱ. 어제ᄂᆞᆫ 술을 ᄀᆞ장 먹고 正根 업서 도라오니 아므리 ᄒᆞᆫ 줄도 모로올쇠 <捷新 3:28ㄱ>
ㄴ. 太守 드르셔도 過分타 ᄒᆞ셔 感激히 너기시올쇠 <捷新 7:5ㄴ>

115) ㄱ. 샹이 챵경궁의 시어ᄒᆞ오실ᄉᆡ 어침과 금뎡이 ᄒᆞᆫ 곳도 조흔 고디 업ᄉᆞᆫ디라 <인조행 7ㄴ>
ㄴ. 내 ᄒᆞᆫ 버디 ᄢᅥ디여 올ᄉᆡ <번노걸 상:1ㄴ>
ㄴ'. 내 ᄒᆞᆫ 벗이 이셔 ᄢᅥ뎌 오매 <노언 상:1ㄴ>
ㄷ. 충이 옥에 잇셔 음식을 먹지 아니ᄒᆞ고 죽을ᄉᆡ 상서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유필 1:31>

116) 이용(2003)은 '-ㄹᄉᆞ'의 쇠퇴 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ㄹᄉᆡ'가 19세기에 급격히 감소한 원인 중 하나는, 16세기에 들어서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한 '-ㄹ ᄉᆞ' 명사구 보문 구성의 소멸이다. 이 명사구 보문 구성이 쇠퇴하는 것과 시기를 맞추어 명사형 어미 '-옴'이 발달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기' 명사형 어미가 생기게 됨에 따라 '-ㄹ ᄉᆞ'의 세력은 매우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원인의 처격조사 '-에'는 의미적 특수성 때문에 각각의 명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연결어미 '-매', '-기에'를 생성해 낸다. 이렇게 의미 겹침은 연결어미의 감소 또는 소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117) 기독교 단체인 '엡윗청년회'(1897년 10월 31일 조직)의 청년 회원들이 전통가락에 지어 부른 '勸衆歌'는 <신학월보 1901년 7월호에 실린 자료이다. 원곡 앞에 실린 글은 다음과 같다. "경동 청년 회원들이 대한 풍속에 흔이ᄒᆞᄂᆞᆫ 노ᄅᆡ 곡됴로 찬미가를 지여 노ᄅᆡᄒᆞ니...... ᄆᆡ우 자미가 잇기로 위션 권즁가 ᄒᆞᆫ 편을 긔록하노라."

118) ㄱ. 건네 저어 극낙셰계 드러 가니 칠보금디에 칠보ᄂᆞᆫ 금과 은과 쟈거 마노 산호 호박 진쥬 칠뵈니라 칠보망을

Collection @ uos

앎]을 나타내는 '-ㄹ세'도 오늘날까지 실현되고 있는데,[119] [추측]과 [의도]는 종결어미 '-ㄹ'의 양태 의미에서 비롯된 의미이다. 근대국어 시기 [추측]과 [의도]의 의미는 [새로 앎]으로 의미 확장이 되고 [설명]의 의미까지 변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도 이 시기에는 '-리-' 혹은 '-ㄹ'이 융합된 어미들이 다양하게 형성되는데, 그것은 '-ㄹ'이 가지는 의미 특성에서 비롯된다.

'-리-'는 현대국어에서는 '-ㄹ 것' 또는 '-겠-'으로 대체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일부 종결어미에서 실현되기도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미라기보다 시나 표제어 등에 쓰이는 어미이다.

(102) ㄱ. ᄃᆞᆯ니 변통을 허여셔라도 좀 쉬이시면 실긔치 안코 속키 갑ᄉᆞ오리다. <日韓通話 113>
ㄴ. 녀름은 웃옷슬 항나로 허면 좃소리다. <日韓通話 155>
ㄷ. 내가 범연ᄒᆞ오릿가 <日韓韓日新會話 189>
ㄹ. 이 잇고 셰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ᄒᆞ되 오직 너희ᄂᆞᆫ 나를 보리라 <예수셩교젼셔 요 14:19>

'-리-'는 '하십시오'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십시오'체에 나타나는 것은 '-겠-', '-ㄹ 것'이다. 그러므로 결합 양상은 이전 시기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은 (102)의 예 정도인데, 이러한 형태들은 종결어미로 분류한다.

둘너시니 구경ᄒᆞ기 더욱 죠희 구품 년ᄃᆡ예 념불 소ᄅᆡ 자자 잇고 청학빅학과 잉무공작과 금봉청봉은 ᄒᆞᄂᆞ니 념불일쇠 청풍이 건듯 부니 념불소ᄅᆡ 요요ᄒᆞ외 어와 슬프다 우리도 인간애 나왓다가 념불 말고 어이ᄒᆞᆯ고 <염불보권문 30ㄴ>

(ㄱ)은 18세기 자료 <염불보권문>으로, '념불일쇠'에서 [설명]의 '-ㄹ쇠'가 ᄒᆞ소체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ᄒᆞ소체의 '-ㄹ쇠'와 ᄒᆞᄋᆞᆸ소체의 '-외'가 ᄒᆞ라체와 함께 쓰인 것이다. 본문의 (65)도 하게체와 해라체가 함께 쓰인 것이다.

119) 국립국어원(1999)는 '-ㄹ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ㄱ. 하마 다 갔을세. [추측]
ㄴ. 아버님이 오시면 함께 먹을세. [의도]
ㄷ. 참 약속이 있을세. / 그 생각 참 좋을세. [설명]
ㄹ. 우리 이번만 참을세. / 이번 그림 참 좋을세그려. [새로 앎]

Collection @ uos

2.3. '-거/어-', '-니-', '-도-'

청자 대우법, 시상법 선어말어미 외에 살펴보아야 할 선어말어미로 '-니-', '-거/어-', '-도-'가 있다. 이들 어미는 그 기능이 소멸하였거나 약화되어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도 상실하였지만 현대국어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가 있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120]

2.3.1. '-거/어-', '-니-', '-도-' 결합형 종결어미

2.3.1.1. '-거/어-' 결합형 종결어미

'-거/어-'의 경우 다른 선어말어미와 달리 이형태 관계인 '-거-'와 '-어-'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 '해라'체 명령형 어미 '-어라'는 '하라'체 명령형 어미 '-라'에 선어말어미 '-거-'의 이형태인 '-어-'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같은 형태는 19세기에 처음 나타난 형태가 아니라 많지는 않지만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나던 형태인데, 중세국어, 근대국어에서는 '-거-'가 분석되지만 현대국어 '-어라'는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다.

(103) ㄱ. 네 다시 드르라 내 니ᄅᆞ마(你再聽我說) <오륜 1:23ㄴ>
ㄴ. 내 이제 너희를 ᄀᆞᄅᆞ칠써시니 모롬이 드르라…… 내 닐너든 네 들ᄋᆞ라 <오륜 1:34ㄴ>
ㄷ. ᄋᆡ 츈향아 ᄎᆡᆨ방 도련님 와 계시단다 밧비 나와 잘 뫼시라 <南原古詞 1:41ㄴ>

현대국어에서는 '-라'는 간접명령문형으로 '-어라'는 직접명령형이라 하는데(남기심·고영근 1985), 박영준(1994ㄱ)은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라'의 '간접적' 특성은 중세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121] 이와 같은 경우는 (103)과 같이 18세기 자료인 대화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영준(1994ㄱ)에서도 중세국어 '-라'에 간접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직접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한 바와 같이 '-라'에는 간접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103ㄷ)에서 확인되듯 19세기에도 직접적인 특성을

120) 인칭법 '-오-'는 근대국어 시기에 형태가 소멸하였고, 감동법 '-돗-'도 형태가 소멸되었지만 이형태 '-도-'는 19세기에 남아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121) 간접명령이란 매체를 통한 간접적 발화상황, 곧 신문 기사의 제목이나 시위군중의 구호, 플래카드, 책의 제목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박영준 1994).

Collection @ uos

가진 문장이 대화로 실현되지만 19세기 말에 가면 직접적인 특성은 잃어버리고 간접적인 특성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거-'는 확인법을 나타내지만(고영근 1981/2011), 확인법은 이미 일어나 일에 대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므로122) 명령법과 대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에 '-거-'가 결합하여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거/어-'에 대한 여러 논의를 종합해 보면 '-거라'는 강조형 정도로 볼 수 있다. 명령형 어미 '-라'와 결합되는 형태들이 중세국어 시기에도 나타나고 19세기에 이르면 '-거/어-'와 결합한 형태들이 늘어나면서 '-라' 형태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거/어-'가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어라'에서 '-어-'를 더 이상 분석해 내지 않는다.

중세국어 '-거 -'는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 '-어-', '-나-', '-야-'로 나타나는데, 16세기에는 '-야-'가 '-여-'로 바뀌고 18세기에는 '-나-'가 '-너-'로 바뀐다.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이형태 관계가 유지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어-'와 '-여'만이 이형태 관계라 할 수 있고 '-거-'와 '-너-'는 의고체로 남아 잘 쓰이지 않는다. 다만 "게 섰거라."와 같이 '섰거라'는 '서 있거라'의 단축형으로(고영근 1976), '-섰어라'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선어말어미 '-거-'가 결합되었기보다 본래의 형태가 어휘화된 것이다. 그런데 '-거-'와 '-어-'는 20세기 초까지도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는데 '-어-'가 선택되어 '-어라'형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모음 /아/, /어/의 경우 '하라'체와 '해라'체의 형태가 같게 나타나는 것에 연유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라'보다 좀 더 강하게 명령하는 '-어라'가 직접 명령으로 자리 잡으면서 '-라'는 직접 명령의 기능은 사라지고 간접명령 기능만이 남게 된다.

(104) ㄱ. 이 짐을, 엇씌예, 메고 가거라 <韓語正規 236>
ㄴ. 비누와 슈건을 갓다 노코, 통에 더운물 부어라 <韓語正規 245>
ㄷ. 내가, 집을 지으려 ᄒᆞ니, 목슈를 불너 의논ᄒᆞ여라 <韓語正規 247>
ㄹ. 어름이 둣거우니, 쌔질가 넘녀ᄒᆞ지 마라 <韓語正規 245>
ㅁ. ᄂᆡ일은, 늣치 안게, 오ᄂᆞ라 <韓語正規 184>
ㅁ'. 방셕을, 가져 오나라 <韓語正規 215>
ㅁ''. 물을 가져 오너라 <韓語正規 245>
ㅂ. 불빗치, 과히 ᄇᆰ으니, 좀 낫초라 <韓語正規 224>

122) '-거-'가 나타나는 조건은 '-더-'와 같다. 安秉禧·李珖鎬(1990)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주관적으로 확신하여 강조하는 선어말어미로 과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Bybee(1985/2000)은, 인식적 서법은 특히 과거시제와 함께 짝을 이룰 때에는 사건의 발생이 직접 목격된 것이 아니거나 추정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러한 기능은 흔히 확인법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데, 확인법이란 일반적으로 명제의 정보의 근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eCollection @ uos

ㅂ'. 지금부터라도 나를 바리라. 그리고 아버지도 바리라. <유성연극_말 못 할 사정>

(104)는 <韓語正規>에 나타난 명령형 어미 '-어라'의 예이다.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거-'의 특성이 '-어라'에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다만 (104ㅂ)은 '-라'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라'가 실현되었다기보다 '-어라'가 결합한 '낫촤라'가 '낫초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세기 전기까지도 '-라'가 직접 명령에 간간이 실현되었음을 20세기 전기 음성 자료인 (104ㅂ')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5) ㄱ. 복례: 아, 일남아, 잘 가거라. 나를 버리고 잘 가거라.
일남: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복례야 잘 있거라. <연극_아리랑 고개>
ㄴ. 어제도 카페서 나오다가 골목에서 영애를 꾹 찌르고「얘! 너 오늘 어디서 자구오너라」하고 귓속을 하니까「또? 얘 너는 좋구나!」「좋기 뭐가 좋아? 애두!」<따라지 30>

이렇게 20세기 전반까지 대체적으로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는 '-아라/어라/여라'와 더불어 '-거라'와 '-너라'에 의해 실현되는데, 정경재(2016)는 (105ㄴ)에서와 같이 오늘날 한국어에서 모든 동사는 '해라'체 명령형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형태를 지닌다고 하였다. 즉 '-아라/어라'와 '-거라'가 어휘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제약 없이 결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다'와만 결합을 하고, '하다'는 '-아라' 대신 '-여라'가 결합을 하며 '해라'로 준말이 실현된다. 20세기 후반에는 '-거라', '너라'의 쓰임은 급감하고,[123] '-아라/어라/여라'로 평준화되어 간다. 다만 '-거라', '-너라'가 결합되면 '-어라'와 달리 [권위]의 의미가 드러나 아랫사람에게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까지도 '-거라', '-너라'는 (105)에서와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도 쓰일 수 있었다.

(106) ㄱ. 너 이거 가지고 다방골 병원댁에 갔다 온. 얼른 오시라고. <흙 3:385>
ㄴ. 어린애가 우는 것이 미안해 그랬든지 얼른 청아 편으로 가며 "오, 이리 온. 우지 말고……" <어머니 1:26>

일반적인 문체는 '-어라'로 통일되었지만 '-거라', '-너라' 형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

123) 정경재(2016)은 '오다'의 경우,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서 '와라'가 확인되지 않고 1950년대 이후 구어 자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니다. 이전 시기에는 '-라'에 비해 '-어라'가 어떠한 양태 의미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124] 오늘날 '-어/아/여라'는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에 반해 '-거라', '-너라'는 현대국어에서 권위적이고 의고적인 말투이다. 그런데 '-너라'는 현재까지도 '오다'에만 결합되는 것과 달리 '-거라'의 경우 자동사, 타동사 구분에 대한 인식 없이 혼동되어 쓰인다. 이렇게 현대국어 '오너라'는 예스러운 말투이지만 이것의 준말인 (106) '온'의 경우는 어른이 아이에게 쓰는 친근한 말투이다.

(107) 흥 정승지 갓ᄒᆞᆫ 자는 모다 그럿케 쥭어야 올컷다 ᄒᆞ는 ᄉᆞ름도 잇고 허 셰상은 더 볼 것이 업게 되얏것다 ᄌᆞ네부터 ᄀᆡ화를 ᄒᆞ더니 창자가 밧구여셔 도로혀 고런 방자ᄒᆞᆫ 년을 찬셩ᄒᆞᆫ단 말인가 <현미경 73>

'-거-'가 포함된 형태로는 '-것다'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종결어미화한다. 허웅(1975)는 '-것-'을 강조·영탄법이라 하여 극히 국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하였다. 정경재(2007)에 따르면, '-거-'와 달리 자동사와 결합하든 타동사 혹은 형용사와 결합하든 '-것-'으로만 실현되는데 중세국어를 거쳐 전기 근대국어 시기까지 독자적인 형태소로 존재하다가 '-겠-'이 등장한 후기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겠-'과 혼용되고 있고, 오늘날에는 '-겠-'과 변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25] 그리고 "명제에 대해 확인하거나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영탄을 담아 드러내는 서법 형태소"라 규정하였다.

(108) 「소인의 솜씨 비록 미천하오나, 처음 아뢰었던 날짜까지는 기필코 완성할 것이옵니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또박또박 박아서 말을 했다. 「어김이 없으렷다!」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어느 안전이라고 두말을 하오리까.」 <어떤속 539-540>

중세국어 추측 확인법 선어말어미 '-리어-'가 첨가된 '-리어다/려다' 종결어미가 있는데, 고영근(1981/2011)은 현대국어 '-렷다'의 직접적 소급형으로 대부분 독백 내지 일방향적 진술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정경재(2007)은 20세기에 등장하는 '-렷다'가 '미정적인 사태에 대한 확신과 단언'의 의미 외에 명령형 어미로도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리엇-'의 예가 중세에서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명령의 의미를 획

124)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옛말 '-거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라 기술하고 있다.
125) 고영근(1981/2011)에서는 '-것/엇-'은 확인법 '-거-'와 감동법 '-옷-'의 복합 형태로 중세국어에서 '-거/어/나-'의 세 이형태로 분화되어 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 '-것/엇-'이 된 것은 확인법과 의미 기능에 있어 공유 부분이 많은 감동법 '-옷-∥-돗-, -ㅅ-'과 어형상의 혼효에서 빚어진 것이라 하였다.

eCollection @ uos

득하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에서 '명령'의 의미로 넘어가는 계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108)의 '-렷다'의 겉 뜻은 "청자와 관련된 앞으로 있을 사태에 대한 단언"이라면 속뜻은 "앞으로 청자가 해야 하는 사태에 대한 재확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의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렷다'는 통합형 종결어미를 이룬다.

'-것-'은 전기 근대국어까지 '-다', '-니'와 결합하였으나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면 '-다'와만 결합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국어 전반기가 되면 해체 어미 '-지'와도 결합한 형태가 나타난다(정경재 2007). 현대국어 후반기 이후 '-지'와 결합한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은, '-거-'가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잃었듯이 '-것-' 또한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것다'의 경우와 같이 종결어미화하지 못한 것은 확인법의 '-거-'와 [확인]의 양태 의미를 가진 '-지'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종결어미화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대국어에서는 '-것-'과 '-겠-'이 변별되지 않아 혼용되어 쓰인다. '-것다', '-렷다'는 감탄의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인데, 여기에서 '-렷다'는 명령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명령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문문으로도 실현된다.

2.3.1.2. '-니-' 결합형 종결어미

현대국어에서 '-니-'는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라'체의 '-니라'는[126] 오늘날에도 종교서 등의 문헌에서는 쓰이고 있다.

(109) ㄱ. (리승지) 이년 네가 이 일을 모른다구 ᄒᆞᆯ 수는 업느니라 하나 쎅놋치 말고 바로 고ᄒᆞ여라 그러치 아니ᄒᆞ면 ᄂᆡᄆᆡ에 씨려 죽일 터이다 <금국화 096>

ㄴ. 그러ᄒᆞ오면 존성이 장 씨가 아니시오닛가 ᄆᆡ션이 ᄃᆡ답ᄒᆞ되「그러ᄒᆞ니이다」<셜즁ᄆᆡ 76>

현대국어에서 '-니-'는 선어말어미가 아니고, 평서형 어미 '-라'도 종결어미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니라'는 하나의 형태로 취급한다. 이러한 형태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더라', '-리라' 외에 계사 '-이라'가 있다.[127]

19세기 말 다양한 결합 양상을 보이던 '-니-' 결합 형태는 현대국어로 오면서 하나의 형

126) '해라'체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주석 (42) 참조.

127) 이 가운데 의고체는 '-니라'와 '-이라'인데, '해라'체에서 계사 '-이-'는 '-이다'로 쓰이지만 '-니-'가 결합한 다른 형태는 쓰이지 않는다.

Collection @ uos

태로 통일된다. 그것은 선어말어미 '-니-'가 기능을 잃었으므로 종결어미화한 것을 제외하고 탈락하였기 때문이다. (109)와 같이 '해라'체는 '-니라', '하소서'체는 '-니이다'로 정리되면서 종결어미가 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의고체로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고 국한된 환경에서만 쓰인다.

2.3.1.3. '-도-' 결합형 종결어미

선어말어미에서 나타내던 감동법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이 소멸되면서 그것의 이형태 '-도-'는 종결어미 '-다'와 결합하며 종결어미로 잔존하게 된다. '-도다'는 '-어라'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형성된 '-다니$_2$'와 함께 감탄형 어미이다.[128] 그런데 오롯이 감탄을 나타내는 '-도다', '-어라', '-다니'는 일상에서의 사용은 자연스럽지가 않다. '-도다'는 시와 같은 문어에서 나타나고, '-어라'는 쓰이는 양상이 어휘에 따라 차이가 난다. '-다니'도 일상에서는 의문문으로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10) ㄱ. 내 자줏빛 술을 마시도다 / 말하리라, 벗 없어도 / 너는 내 심장 고동의 벗, / 허나 너무도 고통스런 벗이도다! <일문시 번역_병고(病苦)>[129]
ㄴ. 허ㅣ ᄂᆡ가 괴악ᄒᆞᆫ 놈이로다 빅쥬에 남의 집 규수와 억지 혼인을 뎡히 놋코 이 ᄯᅢᄭᆞ지 모로ᄂᆞᆫ 테ᄒᆞ야 뎌 광경이 되도록 ᄒᆞ얏스니 <화셰계 588>
ㄷ. (됴) 그러면 오늘 ᄂᆡ일을 모른다ᄂᆞᆫ 것은 거즛말이로구나 사돈 령감이 약쥬가 취ᄒᆞ야 그리ᄒᆞᆫ 것이지 <재봉춘 243>

16세기에 '-고나'가 계사에 쓰일 때 계사 다음에 '-도-'가 결합되었는데, 이렇게 결합된 형태 '-이로고나' 역시 현대국어에까지 '-이로구나/이로군'으로 이어진다. '-도다'와 달리 '-이로구나/이로군'은 구어로만 사용되는데, 이것은 예스러운 표현이다.

감동법 선어말어미 '-에/애-', '-게-'는 종결어미 '-라'와 결합하여 현대국어에서 '-어라/아라'의 형태로 남았다. 선어말어미 외에도 '-이여'가 결합된 '-ㄴ뎌', '-ㄹ쎠', '-고녀'와 같은 종결어미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구나'의 선대형인 '-고녀'를 제외한 '-ㄴ뎌', '-ㄹ쎠'[130]는 거의 소멸하였다.

---

128) '-구나'는 양태 의미를 가진 평서형 어미이다. '-구나'가 '감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억양을 수반해야 한다.
129) <병고>는 김우진이 일문시를 번역한 것으로, 『김우진 전집 Ⅰ』에 실린 것이다.
130) '-ㄴ뎌'는 현대국어에서 '-ㄹ진저' 정도에서 그 잔영이 보이나, '-ㄹ진저'는 '~해야 할 것이다'라는 당위의 의

Collection @ uos

(111) ㄱ. 하하하하 에그 웃노란 말일세 노ᄂᆞᆫ 것이 ᄒᆞᆫ이 잇나 밤도 들고 집도 비워셔 어셔 가 보아야 ᄒᆞ겟네 <산쳔초목 11>

ㄴ. 나는 누구냐 ᄒᆞ면 네가 모히 잡든 그 아씨의 유모화ᄀᆡ동마〻일다 너 한아를 잡아오랴고 ᄀᆡᄯᅩᆼ인지 쇠ᄯᅩᆼ인지 그놈의 집으로 먼져 들어갓드니라 <치악산下 23>

(111ㄱ)의 '-ㄹ다'는 계사와 '-도다'의 결합 형태 '-이로다'의 '-로-'가 축약된 것이다. '-니-'와 달리 '-도다'의 기능은 현대국어에서도 유지되나 '-일다' 형태는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다'는 '-이로구나'와 마찬가지로 의고형으로 남아 있다. '-ㄹ세'는 '-돗-'이 결합된 '-도쇠'의 후대형으로[131] 계사와 결합한 '-이로세'의 축약형이다.[132]

2.3.2. '-거/어-', '-니-', '-도-'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2.3.2.1. '-거/어-'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지나오면서 선어말어미의 기능은 축소가 되었다. 청자 대우법에서처럼 기능이 종결어미로 넘어가거나 혹은 선어말어미가 종결어미와 결합함으로써 종결어미화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상법에서처럼 새로운 선어말어미의 형성으로 시제 체계가 바뀌고 본디 그 역할을 수행하던 선어말어미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양태 기능만을 띠는 경우도 있다. 그와 달리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면서 형태 또한 소멸되는 단계를 겪는 경우도 나타난다. 선어말어미 '-니-', '-거-'가 그러한 경우로 현대국어에는 이 형태들과 더불어 이것들이 담당하던 원칙법, 확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형태는 현대국어에서 어말어미와 결합하여 화석형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에는 본래 가지는 고유의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확인법 '-거-'는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나, 중세국어 시기 이미 뒤에 오는 어미와 통합하여 연결어미화한 것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 정경재(2007)은 중세국어의 '-거-'가 전기 근대국어 시기 세 갈래의 변화를 겪는다고 하였다.[133] 그중 서법의 기능을 했

미를 가져 이미 감탄의 의미를 상실했고, '-ㄹ쎠'는 현대국어에서 '-ㄹ사'란 형태로 남아 있는데, 구어체에서 쓰이지는 않는다(이승희 1996).

131) 17세기에 'ᄒᆞᄋᆞᆸ소'체에 '-ᄋᆞᆸ도쇠' 형태가 나타난다(이유기2001).

132)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참, 좋을세."와 같이 '-ㄹ세'도 실현된다고 한다.

133) 정경재(2007)은 '-거-'를 '-거$_1$-', '-거$_2$-'로 나누어 보았는데, '-거$_1$-'은 완료상의 기능을 했던 것으로 전기

eCollection @ uos

던 '-거$_2$-'는 감동법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여 하나의 형태소 '-것-'으로 굳어진다는 것이다.[134]

(112) ㄱ. 뎡녕히 쥬션ᄒᆞ겟다 ᄒᆞ엿지 응 뎡녕히 쥬션ᄒᆞ겟다고 햇것다 응 <원앙도 70>

ㄴ. 「나도 그러케 되면 헌 계집이렷다」 하는 생각을 하야 보고 눈살을 찌푸렷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거-'의 경우 정경재(2007)을 따르면, 중세국어 선어말어미 '-거-'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는 감동법 선어말어미[135]와 함께 쓰여 하나의 형태소 '-것-'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원적으로 '-거-'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도 분석이 되지 않고 단일한 어미인 '-거니와', '-거늘', '-거든' 등의 일부 연결어미들은 변화·소멸과 관계없이 현대국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136] 중세국어 시기 형성된 '-것-'은 '-겠-'의 형성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혼용되어 쓰이다가 '-겠-'으로 통합·합류 후 소멸하였다(정경재 2007). 그러나 완전히 소멸되었다기보다 '-다'와 결합하여 종결어미 '-것다', '-렷다'의 형태로 남았는데, 일상대화에서 쓰인다기보다 예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쓰인다. (112ㄴ)의 '-렷-'은 '-것-'에 '-리-'가 결합된 '-리엇-'의 축약형이다.

'하라'체 명령형 어미에 '-어-'가 결합한 '-어라' 형태가 '하라'체를 대체하게 되었다.[137]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이형태들 중 '-어라/여라'만이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지고 '-거라/너라'는 의고체로서만 쓰인다. '오다'와만 결합하였던 '-너라'(<-나라)는 오늘날에도 '오다'

근대국어 시기 '-었-'의 등장으로 사라진다고 하였으며, '-거$_2$-'는 서법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중세국어 시기에도 이미 분석이 되지 않는 단일한 어미였던 '-거든', '-거늘' 등의 일부 연결어미들은 '-거-'의 변화·소멸과 관계없이 현대국어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134) 이 외에도 '-거-'가 종결어미와 통합하여 종결어미화한 형태도 있다. 양태 의미를 띠는 '-거-'가 포함된 종결어미 '-것다'와 명령형 어미 '-어라'가 있다.

135) '-것-'에 결합된 감동법 선어말어미의 형태는 '-ㅅ-'이 아닌 '-옷$_1$'이다. 河崎啓剛(2016)은 기존의 감동법 선어말어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즉 '깨달음'과 '복수성' 표지로 나누고 있는데 [깨달음]을 나타내는 감동법 어미 '-돗/옷$_1$'과 '복수성' 표지인 '-ㅅ/옷$_2$'가 그것이다. '-ㅅ-'은 복수 표지이므로 '-것-'에 결합한 것은 '-옷$_1$-'인 것이다.

'-것-'의 의미에 대하여 정경재(2007)에서는, 크게 명제에 실린 사태에 대한 "관찰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두 가지 의미로 보았다. [+관찰의 직접성] 명제와 결합한 '-것-'은 이를 재확인하고 다지는 기능을 하고, [-관찰의 직접성] 명제와 결합한 '-것-'은 이를 확신하고 단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의 태도를 영탄적으로 표현"한 것이 '-것-'의 의미 기능이라 하였다.

136) 정경재(2007)은 이와 더불어 완료상 기능을 했던 '-거$_1$-'은 전기 근대국어 시기 '-었-'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해서 '-거-'의 변화를 세 가지로 보았다. 본문에서 감동법 어미와 결합한 '-것-'은 정경재(2007)에서는 '-거$_2$'라 하여 상의 기능을 하는 '-거-'와 양태 기능을 하는 '-거-'를 다른 형태로 보고 있다.

137) 2.3.1.1장 참조.

eCollection @ uos

와만 결합을 하지만, 자동사와 결합하였던 '-거라'의 경우 '-어라'가 자·타동사 구분 없이 쓰이듯이 '-거라'도 자·타동사 구분 없이 결합 가능하다. '-거-'는 '-니-'와 마찬가지로 선어말어미로는 남아 있지 않고 종결어미와 결합한 형태, 즉 종결어미화한 것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른 시기에 결합한 형태인 연결어미나 '-것다'는 '-거-'가 결합한 형태만이 남았지만 명령형 어미는 의고형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는 '-거라'가 아닌 '-어라'가 선택되어 쓰인다.

(113) ㄱ. 比丘ᄃᆞᆯ하 부텻 양ᄌᆞᄅᆞᆯ 보아라 <釋詳 23:13ㄱ>
ㄴ. 너희ᄃᆞᆯ히 至極ᄒᆞᆫ 誠心ᄋᆞ로 내 紫磨黃金色身ᄋᆞᆯ 보라 <釋詳 23:11ㄴ>

종결어미로서의 '-어라'는 2.3.1.1장에서 논의하였지만, 그것이 결합되는 양상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라'는 '-거/어-+-라'의 구조로 15세기에도 보인다. '-거-'는 자동사, 타동사에 따라 '-거-'와 '-어-'가 교체되고 '오다'에만 결합하는 '-나-'가 있다. 그런데 15세기에 많은 예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라'와 '오나라'가 나타나는 예는 한두 개에 불과한 데 반해 '-어/아라'가 나타나는 예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로써 자동사보다는 타동사에 결합한 '-어라' 형태가 먼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와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확인법의 '-거-'가 왜 명령형 어미에 결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138] 다만 고영근(1981/2011)에서는 '-라'와 '-어라'의 차이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의 경화(硬化)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청자가 신념 있게 행동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현대국어는 '하라' 형태가 간접 명령으로 주로 쓰이나, 중세국어에서는 'ᄒᆞ라' 형태가 직접 명령으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와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14) ㄱ. 누가 겻헤 와 억ᄀᆡ를 흔들며「이 ᄋᆡ 너 어ᄃᆡ로 가ᄂᆞᆫ 아ᄒᆡ냐 어서 정신을 차려 이러나거라」<고목화 786>
ㄴ. 여보아라 최병도 분부 듯거라 너ᄂᆞᆫ 소위 ᄃᆡ민명ᄉᆡᆨ으로 부모의게 불효ᄒᆞ고 형뎨의게 불목ᄒᆞ니 텬디 간에 용납지 못ᄒᆞᆯ 죄라 <은세계 230>
ㄷ. [박판서] 여보 부인 이거 ᄎᆞᆷ 신통ᄒᆞᆫ 일이오그랴 죽어든 사위가 살어서 잇구려 리집 어ᄃᆡ 갓늬 이리 오너라 글셰 무엇 ᄒᆞ늬 <금국화 101>

(114)는 20세기의 '-거/너-'의 양상으로 (114ㄴ)을 보면 타동사이지만 '-거라'가 결합되

138)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라' 형태보다 '-어라'가 더 직접적이고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는 고영근(1981/2011)에서도 밝혔듯이 '-어라'가 직접 인용에 쓰이고 '-라'는 간접 인용 내지 문어에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Collection @ uos

어 있는 것이 보인다. '–어라'는 18세기에 그 예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19세기가 되면 쓰임이 확대되되는데 19세기 말이면 명령형 어미 '–라'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명령형 '–라'가 '–어라'로 대체된 것은 고영근(1981/2011)에서 차이를 밝힌 바대로 명령을 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표현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라'형은 주로 청자가 구체적이지 않는 문어에서 쓰이고 '–어라'는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있는 구어에서 쓰인다.139) 또한 18세기에 '–너라'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오너라'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너라'가 '–나라'를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선어말어미 '–거–'는 지위를 잃고 '–라'와 통합할 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에서는 '–거/어/너–'의 구분도 없어지고 '–어/아/여라'로 통일된다.

(115) ㄱ. ᄀᆞᆯᄋᆞᄃᆡ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 이스라엘 짜흐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해ᄒᆞ려 ᄒᆞ던 사ᄅᆞᆷ이 죽엇ᄂᆞ니라 ᄒᆞ니 <신약젼셔 마 2:20>

ㄴ. 예수ㅣ 그 곳에 니ᄅᆞ샤 우러러 보시고 닐ᄋᆞ시ᄃᆡ 삭카요야, 속히 ᄂᆞ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너야 ᄒᆞ겟다 ᄒᆞ시니 <신약젼셔 눅 19:5>

'–거라/어라'에서 '–거라'의 세력이 약화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빈도가 높은 어휘인 '가다, 자다'가 '하라'체로 쓰일 경우와 '해라'체의 '–어라'와 결합했을 경우의 형태가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다. (115ㄱ)은 '하라'체로 쓰였는데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15ㄴ) '오라'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하라'체의 '–가라'는 '해라'체 '–어라'가 결합한 형태와 같을 뿐만 아니라 (113ㄱ)은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하라'체와 '해라'체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타동사와 결합하는 '–어라'가 먼저 발달한 상태에서, 선어말어미로서 '–거–'의 세력도 약화되고 '하라'체로 쓰인 형태도 '해라'체로 쓰인 것으로 혼동되면서 명령형 어미는 '–어라'로 통일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3.2.2. '–니–'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니–'는 '–거–'와 함께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선어말어미이다. 그러나

139) '–라'형도 구어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일반적인 구어가 아닌 구어체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외칠 때 쓰이는데, 이 경우 역시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극이나 성경 등의 대화에서도 쓰이는데 '–어라'형보다 명령이 직접적이지 않다. 또한 '–어라'형은 문어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해라, 봐라'와 같이 축약 형태로는 쓰이지 않고 '하여라, 보아라'와 같이 본래 형태 그대로 쓰인다. 본래 형태는 권위적이고 문어적인 데 비해 축약 형태는 구어적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준말로 실현된다.

Collection @ uos

이 선어말어미들의 형태가 현대국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3.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니-’의 경우 ‘해라’체의 ‘-니라’, ‘하소서’체의 ‘-니이다’와 같이 의고체로 남아 있으나 더 이상 선어말어미로서의 지위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140) 이들 어미는 분석하지 않고 뒤의 종결어미와 통합하여 하나의 종결어미로 취급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하나의 어미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116) ㄱ. 영화 잇ᄂᆞᆫ 면류관과 의복을 주샤 우리ᄅᆞᆯ 닙혀 ᄒᆡ와 ᄀᆞᆺ치 하ᄂᆞᆯ의셔 빗최게 ᄒᆞ시ᄂᆞ니라 <텬로력뎡 7ㄴ>
ㄴ. 니후 ᄂᆡᄂᆡ 그쳬후 안령ᄒᆞ압심 복축ᄒᆞ압난니다 <순흥안씨 언간 09>
ㄴ'. 니후 ᄂᆡᄂᆡ 그쳬후 안령ᄒᆞ압심 복축ᄒᆞ압나니다 <순안씨 언간 11>
ㄷ. 그런데 그것은 大概慶尙南北道나 그러치 안으면 咸慶 江原, 그 다음에는 平安道에서 募集을 하여야 하지만, 그中에도 慶尙南道가 第一 쉽습넨다. 하々々 <萬歲前>

‘-니-’를 보면,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은 형태이지만 성경과 같은 의고체를 사용하는 종교적인 문헌에 (116ㄱ)과 같이 ‘-니라’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디 ‘-니-’가 가졌던 원칙법의 기능은 나타나지 않는다. ‘-니라’가 쓰인 문장에서 원칙의 의미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문맥에 의해 표현된 의미이지 ‘-니-’에 의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규칙은 지켜야 하느니라.”, “너는 지금 가야 하느니라.”에서 나타나는 것은 [당위]인데, [당위]는 ‘-니라’가 아니라 ‘-야 하-’에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니라’에 나타나는 것은 권위적이고 예스러움이다. ‘-니-’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116ㄴ, ㄷ)과 같은 형태들도 나타나는데, ‘-니-’의 경우 종결어미와 결합한 ‘-니라’는 의고체로 남아 있지만 과도기 형태인 (116ㄷ)의 ‘-ㄴ-’은 소멸된다.

(117) ㄱ. 니후 ᄂᆡᄂᆡ 긔쳬후 안령ᄒᆞ압심 복축ᄒᆞ압난니다 <순흥안씨 언간18>
ㄱ'. 니후 ᄂᆡᄂᆡ 그쳬후 안령ᄒᆞ압심 복축ᄒᆞ압나니다 <순흥 안씨 언간11>
ㄴ. 뎌의 왼 집 우너수도 갑고 각하의 은덕을 갑기는 싱ᄉᆞ라도 ᄉᆞ양치 아니ᄒᆞ겟ᄂᆞ니다 <명월뎡 60>
ㄷ. ᄇᆡ는 무슨 ᄇᆡ를 타 계십던닛가 <쌍옥적 9>
ㄹ. 그러키루 말하다면 B는 더하지 아너요? 의지가지 업는…… 더구나 폐ㅅ병에 걸닌 사람이 아니애요. 사람의 마음이란 그러케 리해타산으로 움직이는 게 안입넨다

140) 그리고 ‘하게’체의 평서형 어미 ‘-니’의 경우도 선어말어미 ‘-니’에서 온 것인데, ‘-니’, ‘-느니’의 경우 이들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진리나 으레 알고 있는 사실’은 ‘원칙’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Collection @ uos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ㄹ'. 앗! 李樣, 只今 오세요? 막 今方 電報가 왓는데요. 한턱 내세야 합넨다. 하々々 <萬歲前>

ㅁ. 그러ᄒᆞ오나 도련님이 하 민망ᄒᆞ여 ᄒᆞ시니 쳔쳔이 뫼시리이다 다만 길 가기 심심ᄒᆞ고 도련님 마음도 하 산난ᄒᆞ여 ᄒᆞ시니 위로 겸하여 그 노던 이아기나 ᄒᆞ며 가사이다 우리 귀덕이도 묘ᄒᆞ왼다 <南原古詞 2:62>

ㅁ'. 진작 사직샹쇼를 ᄒᆞ고 벼슬을 ᄂᆞ노와야 올습닌다. <현미경 75>

이렇게 현대국어에서는 '해라'체와 '하소서'체에서만 나타나지만 20세기 초에는 (117)과 같이 '하십시오'체에도 원칙법의 '-니-'가 나타난다. 고영근(1989/1999)는 원칙법 '-니-'는 '해라'체, '하소'체에서 '-니-'를 얻고, '합쇼'체에서 '-ㄴ-'을 얻으며 '하게'체의 경우는 단어의 끝에서 나타난다며, '해라'체 '하느니라/하더니라', '하게'체 '하느니/하더니' 외에 '하소서'체 '하나니이다/하더니이다'와 '합쇼'체 '합닌다/합딘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소서'체 '-나니이다/더니이다'는 현대국어에서도 '하소서'체를 쓸 경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인 데 반해, 19세기 말에는 출현하는 형태 '-닌다/딘다'는 현대국어에서는 소멸된 형태이다.

(117)은 '-니-' 또는 '-ㄴ-'이 덧나는 것으로 여기서 '-니-' 또는 '-ㄴ-'은 원칙법의 '-니-'이다. (117ㄱ, ㄴ)에서 보듯이 '-니-'가 '-ㄴ-'으로 축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지은(2008)은 일부 종결어미에서 '-ㄴ-' 유무의 따른 종결어미 쌍이 발견된다면서, 신소설 자료에서는 'ᄂᆞ니다-ᄂᆞ이다, 는니라-ᄂᆞ니라, 던닛가-더닛가, ㄹ진니라-ㄹ지니라, 습닌다/ㅂ닌다-습니다/ㅂ니다, 습딘다/ㅂ딘다-습듸다/ㅂ듸다, 온닛가-오닛가'가 확인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원칙법으로 설명되었던 것들도 있고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었던 어미들도 있는데, '-습니다'처럼 원칙법으로 설명되었던 어미들도 신소설의 용례에서는 그러한 원칙법의 기능과 상관없이 사용된 예들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원칙법의 '-니-'는 기능을 잃어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2.3. '-도-'의 기능 변화와 결합 양상

감동법의 경우도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돗-', '-에-'를 통하여 감동법을 표현하였다. 선어말어미 '-돗-'은 근대국어에서 다른 형태들은 사라지고 '-도-'만이 남았는데, 선어말어미로서가 아니라 '-다'와 결합한 종결어미 '-도다'로 남게 된다. 선어말어미 '-도-'는 계사 뒤에서 '-로-'의 형태를 띠는데 현대국어에서도 그러하다. '-도다'는 현대국어로 이어

Collection @ uos

지지만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시나 표제어와 같은 문어에만 쓰인다.

(118) ㄱ. 바리ᄉᆡ인들이 보고 예수씌 ᄀᆞᆯᄋᆞᄃᆡ 션ᄉᆡᆼ님의 뎨ᄌᆞ가 안식일에 당치 못ᄒᆞᆫ 일을 <u>힝ᄒᆞᄂᆞᆫ도다</u> ᄒᆞ거ᄂᆞᆯ <신약젼셔 마 12:2>

ㄱ'. 은근히 영졉ᄒᆞ야 드린 권의장의 부인도 그 로부인의 리약이ᄒᆞᄂᆞᆫ 요긴 뎜을 듯고보니 긔가 <u>막히도다</u> <두견셩 38>

이렇게 중세국어에서 활발하게 기능을 하던 선어말어미들은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새로운 선어말어미로 기능이 이전되거나 기능을 완전히 잃고 소멸하게 된다. 또한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 본디 선어말어미가 가졌던 기능을 잃어 화석 형태가 되기도 하지만 기능을 잃지 않고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본래 선어말어미가 가졌던 기능을 종결어미화한 후에도 그대로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2.4. 요약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에 대해서 크게 대우법, 시상법, 그리고 부차서법[141]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시상법의 경우 '-느-'는 변화 양상에서 '-더-, -리-'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선어말어미의 변화 양상은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습-'의 변화이다. 19세기의 '-습-'은 '하소서'체에서는 화자 겸양 기능을, '하십시오'체에서는 청자 대우 기능을 한다. '-시-' 앞에 오던 '-습-'은 '-시-' 뒤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화자 겸양에서 청자 대우로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습-'은 뒤에 오는 어미들과 결합을 하여 '-습니-'라는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두 번째는 '-느-'의 변화이다. '-느-'는 근대국어에 등장한 '-엇-'의 기능과 충돌하면서 기능이 변화한다. '하오'체인 절단형에서 결합에 제약을 받게 되자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체계가 변화되면서 '-느-'의 기능은 변화하게 된 것이다. '-느-'의 기능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기능을 잃고 종결어미화하는 경우, 둘째, 비완망상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 셋째, 양태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것은 종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는 '-더-'와 '리'의 변화이다. '-더-'는 '-엇-'의 기능과 충돌하면서 기능이 변화하였고, '-리-'는 기능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나 새로 형성된 '-ㄹ 것'과 '-겟-'에 의해 대체

141) '부차서법'은 확인법, 원칙법, 감동법을 말한다(고영근 1981/2011).

Collection @ uos

된다. '-더-'가 기능이 변화하고 '-리-'가 '-ㄹ 것'과 '-겟-'에 대체된 다른 이유는 '-느-'와 마찬가지로 절단형에 제약이 생기는 것과도 연관된다.

네 번째는 '-거/어-', '-니-', '-도-'의 변화로, 이 어미들은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잃어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형태는 남아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소멸되었으나, '-도다'의 경우 감동을 나타내던 '-도-'의 의미는 살아 있어서 감탄형 어미로 쓰인다.

이러한 선어말어미들은 종결어미의 결합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습-'의 경우 뒤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고 다시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하십시오'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화자 겸양을 나타내는 형태도 계속 존재하여 '하소서'체와 비종결어미에 실현된다.

'-느-'는 다양한 기능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에 따라 결합 양상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종결어미에 결합되어 있었던 '-네'의 '-느-' 외에도 '-습-'과 결합하는 '-느-'도 기능을 잃고 종결어미와 결합하게 된다. 다른 '해라'체 어미들과 결합되는 '-느-'는 종결어미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데, '-느냐'의 '-느-'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며 '-다', '-구나', '-도다', '-다니'에 결합하는 '-느-'는 비완망상인 것이다. '-더-'가 결합한 형태인 '-더라', '-디', '-ㅂ디다' 등은 구어에서 쓰이게 된다. '-더-'가 가지게 된 [회상]이라는 의미 기능은 경험을 통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리-'의 경우 '-ㄹ 것', '-겠-'으로 대체되면서 '-리-'가 결합한 '-리라', '-리이다' 등은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문어에서 사용된다.

'-거/어-'의 경우, '-거-'와 '-어-'는 이형태 관계이지만 두 형태가 나뉘어 변화하게 된다. '-어-'의 경우 '하라'체 명령형 어미 '-라'와 결합하여 명령형 어미 '-어라'를 형성한다. '-어라'는 '-라'를 대체함으로써 '해라'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라'만이 '-어/아라'와 이형태 관계를 형성한다. '-거라', '-너라'는 의고체로 남아 있다. '-니라'도 의고체로 남아 있으나 '-도다'는 문어에서 쓰이는 형태이다.

19세기 종결어미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데에 선어말어미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선어말어미의 변화는 종결어미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종결어미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종결어미로 넘어가면서 종결어미의 기능도 변화하게 하였던 것이다.

Collection @ uos

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2장에서 살펴본 선어말어미 결합형 종결어미는 기존의 종결어미가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으로 변화한 형태이다. 그러나 3, 4장에서 살펴볼 종결어미는 종결어미가 아닌 형태가 종결어미로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비종결어미, 즉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것과[142] 통사 구성이 종결어미화한 것이 있다.

19세기 후반 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종결어미들이 대거 출현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해'체 즉 반말 어미가 많이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본디 중세국어에서 '半말'이란, 완전한 어형이 아닌 어미의 일부가 잘려 나가는 형태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된 것, 즉 형태상 완전하지 못한 어형을 가리키는 것이다(김영욱 1997: 183). 그러나 근대국어 이후에 출현한 반말어미는 형태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통사론적인 절차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으로 쓰이게 되고 다시 종결어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으로 쓰이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서형 어미와 의문형 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평서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형 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것은 어미가 가진 양태 의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평서·의문형 어미를 중심으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자리에 쓰이게 되는 것은 주로 문장과 문장의 접속에서 후행절이 생략되거나 후행절이 도치되는 과정을 통해서인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잘 쓰이는 것은 주로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유현경 2003).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것은 대체적으로 양태 의미를 띠게 된다. 이성하(1998)은 굴절 형태소의 특징은 이 형태소가 문법성만을 표시한다고 하였으나 국어의 경우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해'체의 종결어미는 기존에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던 문법적인 기능 외에도 양태 의미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결어미에서 나타나던 양태 의

142) 명사형 어미 '-ㅁ'이나 '-기'도 종결어미 위치에 쓰일 수 있다. 이 당시에도 신문 등의 자료에는 '-ㅁ'으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나 '-ㅁ', '-기'는 종결어미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쓰임은 '종결적 용법'이다. 오늘날 구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은 "어제 나도 같이 공부했다는."과 같이 쓰이기도 한다.

Collection @ uos

미에서 이어진 것도 있지만 새롭게 의미가 변화한 경우도 있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현상은 19세기 넘어서면서 본격화하게 된다.143)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 자리에 쓰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연결어미는 점차 종결어미의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변화 정도가 같지 않다. 종결어미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단계에서 정착되기도 한다. 변화 과정을 보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는 단계, 연결어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종결어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연결어미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획득하여 종결어미로서만 기능을 하는 단계로 나뉜다. 즉 문법화가 되는 정도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연결어미가 다 종결어미화하지는 않는다. 즉 모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갖춘 어미만이 종결어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종결어미화가 가능한 연결어미라 할지라도 의미 항목에 따라 종결어미 용법을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현경(2003)에서 제시하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용법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문체적 조건 : 문장과 문장 접속 구문에서, 도치와 생략을 통한 '구어적 환경'
2.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의한 조건 : 도치의 경우 선·후행절이 독립성을 가질 때
3. 의미적 조건 :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선·후행절이 시간적 관계, 인과적 관계에서는 불가능

선·후행절이 도치가 일어나고 후행절이 생략되는 현상은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많이 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문장종결 억양이 얹히면 종결어미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용언 구성, 부사적 용법의 연결어미 경우는 선·후행절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결어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김태엽(1999)는 '문장 구조의 축소, 문법 기능의 이전, 끊어짐의 수행–억양 얹힘, 문장 종결 기능의 획득'의 과정을 통하여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바뀌는 문법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장 구조의 축소 과정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법 기능의 이전과 끊어짐의 수행–억양 얹힘을 통해 연결어미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종결어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나타나고, 종결 기능의 획득으로 연결어미

143) '해'체의 '–어'와 '–지'를 연결어미에서 왔다고 본다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것은 19세기 이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현상은 19세이다. '–어'와 '–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Collection @ uos

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획득하여 비로소 완전한 종결어미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을 어떤 기능을 가진 것으로 처리하느냐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능이 확장된 연결어미로 보느냐 연결어미와 별도로 종결어미로 보느냐 그리고 종결어미로 본다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종결어미화가 문법화의 범주로 묶일 수가 있느냐이다.

김태엽(2000)은 하나의 문법 형태가 본디 기능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Hopper(1991)에서 제시한[144] 분화의 원리에 의한 문법화의 한 양상으로 보았다. 구현정·이성하(2001)에서는 '-거든'이 문법화 과정의 끝부분에서 사멸이 아닌 새로운 기능의 획득을 통한 생존 현상을 문법화의 현상에서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유현경(2003)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해 덜 문법적인 요소가 더 문법적인 요소로 문법화한 결과로 보았다.

위의 견해에 반해, 남미정(2010)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는 범주의 변화만 일어난 경우이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보다 덜 문법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법화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하나의 형식이 기능 분화를 겪어 다의적 용법을 획득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의미상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 종결어미로 쓰일 때 의미가 큰 차이가 없고 단순히 기능상의 변화만 일어났기 때문에 문법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겪지만은 않는다. 즉 종결화하는 단계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법화는 어떤 어원어가 문법화 현상을 반드시 끝까지 겪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없다고(이성하 1998) 한 바와 상통하는 것으로, 종결어미화도 문법화의 정도[145]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정도화에 따라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4장에서 살펴볼 인용 구성도 그러하지만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는 되어도 역으로 종결어미가 연결어미화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법화의 단일 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문법화의 범주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문법화의 어떤 작용으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으로 먼저 '-어'와 '-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볼 때 이미 종결어미로 자리 잡은 '-어'와 '-지'는 앞으로 논의할 어미들과 성격이 다르다. 물론 '-어'와 '-지'도 연결어미 '-어'와 '-지'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지만, 이 시기면 종결어미 '-어'와 '-지'는 이미 연결어미 '-어'와 '-지'와 의미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종결어미

---

144) Hopper(1991)는 문법화의 다섯 가지 원리로 층위화의 원리, 분화의 원리, 특정화의 원리, 의미지속성의 원리, 탈범주화의 원리를 제시하였다(김태엽 2000).

145) 문법화의 연쇄(grammaticalization chain)와 관련하여 Heine(1992)는 '문법화의 정도'와 '인식적 관계' 두 가지의 패러미터로 나누었는데, '문법화의 정도'란 것은 문법화의 연속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문법화가 된 것이고, 선상에 있는 형태들은 서로 가까울수록 문법화의 정도와 의미가 비슷하다(이성하 1999에서 재인용).

Collection @ uos

위치에서는 연결어미의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오롯이 종결어미의 의미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형태소의 어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할 어미들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유현경(2003)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이은경(1996)에서 제시한 29개의 연결어미 목록 중 '-고, -어/어서, -고/고서, -면, -ㄴ데, -지만, -니(까), -려고, -러, -든지, -느라고, -거든, -게, -도록'을 제시하였다. 본고도 이에 따라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다른 논의에서도 제시한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인용어미 구성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은 인용 구성에서 따로 논의하겠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나타나는 어미는 그 단계가 일정하지 않다. 즉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그 과정을 멈추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결어미화하는 정도에 따라 어미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정도화에 따라 목록화한 것이다.

<표 6>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146]

종결어미화	종결어미	'-거든$_2$', '-ㄴ데$_2$', '-고$_2$', '-려고$_2$', '-게$_2$', '-거들랑$_2$/걸랑$_2$'
	종결어미적 용법 (연결어미)	'-면서', '-어서', '-다가', '-지만/지마는', '-니까/니깐', '-면', '-든가', '-든지', '-느라고', '-길래', '-ㄴ데$_1$', '-고$_1$', '-려고$_1$' '-거든$_1$', '-거들랑$_1$/걸랑$_1$'
		'-러', '-도록', '-게끔', '-든', '-게$_1$'
		'-느라', '-니까는'
연결어미[147]		'-려', '-어', '-다', '-니', '-며'

<표6>의 어미들은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이다. 이것은 구어에서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후행문이 분리·생략되어도 문맥을 통하여 후행문의 의미까지 청자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연결어미 위치에서의 의미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후행문이 생략된 문장은 문장만으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구분 짓기가 명확하지 않다. 발화 시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난 것에는 종결의 수행-억양이 얹히면서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 이것은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146) <표6>에서 인용 구성의 연결어미는 포함하지 않았다. 인용 구성의 연결어미는 환원이 되는 구성에서 문법화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표6>에 제시된 연결어미이다. 이 부분은 4.2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47) 종결어미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연결어미는 '-요'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Collection @ uos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종결어미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문법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법화 정도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148]

<표6>을 통하여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완전히 종결어미화한 형태,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태, 종결형으로 쓰이지 않는 형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맨 아랫줄에 있는 연결어미는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지 않고 오롯이 연결어미 위치에서만 실현되는 어미들이다.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완전히 종결어미화한 것이 아니라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에 놓인 형태이다. 그리고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태는 그것이 종결어미화해 가는 단계를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종결적 용법 1단계의 어미인 경우, 종결어미 위치에는 나타나기는 하나 종결어미의 억양이 얹히지 않고 '-요'와 결합하지 않는다.[149] 2단계 어미의 경우는 '-요'와 결합은 가능하지만 종결어미 억양은 얹히지 않는다.[150]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의 어미들은 주로 대답에서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다. 그리고 3단계의 어미들은 종결어미의 억양이 얹히고 종결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후행문이 생략된 것으로 연결어미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어미로 처리해야 한다.

(1) ㄱ. 오날은 불의 즐힝이야 공연이, 남의게 찔려서 이리저리, ᄒᆞᆫ참을 쏘댓거든. <귀의성 637>

ㄱ'. 습관도 졸디에 곳치기 어렵거든 ᄒᆞ믈며 장위의 습관이리오 <경셰죵 4>

ㄴ. 대단히 도고하던 산월이도 아주 허 변호사 영감께 홀딱 반했는데. 글쎄 뒷간에 가는 데를 다 따라가는구먼. <흙2 230>

ㄴ'. 여보 누구신데 여긔를 드러왓소 <고목화 69>

ㄷ. 어머니는 집에 혼쟈 게시고? <山돼지>

ㄹ. 그러기에 내가 뭐라더냐, 굶어 죽기로니 내 딸이 논에 들어서랴고. 다실랑 가지 말아. <흙1 90>

ㄹ'. 돈을 좀 만들랴 다니랴고…… 오십 원이 되엇는데 이십 원은 그 자리에서 빗쟁이를 맛나서 하는 수업 시 당장 쎄앗겻지. <嫉妬와 밥>

148) 권성미(2010)에서 진행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의미 기능에 따라 억양이 달리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9) "공부하느라……."라고 하였을 경우 어말어미에 종결어미 억양이 수행되지 않고 연결어미 억양만이 수행된다. 그리고 "*공부하느라요."와 같이 '-요'가 결합된 형태는 실현되지 않는다.

150) "공부하러요."와 같이 '-요'는 결합이 가능하고 그러므로 종결어미 억야이 수행된다. 그러나 "공부하러……."에는 종결어미 억양이 수행되지 않는다.

ㅁ. 어느시 방은 쓰러 무엇ᄒᆞ게요 <치악산 上 119>

ㅁ'. 오늘밤에 우리가 곤ᄒᆞ게 잠든 후에 죄인이 도망할지경이면 우리들은 죽는 놈이다 잘 아ᄅᆞ채려라 <은세계 44>

ㅂ. 여기가 우리 집이걸랑.151)

ㅂ'. 인제 둘이 살림살이를 재미있게 하거들랑 집 구경이나 시켜 줘요. <永遠의微笑 285>

<표6>에서 종결어미는 완전하게 종결어미화가 된 것으로 예문 (1ㄱ, ㄴ, ㄷ, ㄹ, 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연결어미와 의미 차이가 난다. 이와 달리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어미는 쓰이는 위치만 다를 뿐 그것의 의미는 연결어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종결어미화된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는 다른 형태이다. (1ㄹ')과 같이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는 종결어미 자리에서 실현돼도 후행문이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1ㄱ', ㄴ', ㅁ', ㅂ')과 같이 연결어미 자리에서 실현된 경우에는 후행문을 생략하여 종결적 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단순히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는 것은 도치 혹은 생략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것은 연결어미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한 단계는 기존의 연결어미와 의미 기능이 달라지므로 독립된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이다.

또한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어미의 경우 연결어미와 같은 통사적 특징을 보이지만 이와 달리 종결어미화한 어미들은 연결어미와 다른 통사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조건]을 나타내는 '-거든'의 경우, 연결어미 '-거든'은 '선행절의 내용이 후행절 내용 실현에 대한 조건'이라는 의미 기능을 하는데, 후행절의 문장 종결법이 '명령'과 '청유'에 제한되기 때문에 종속절의 명제 내용이 참(true)이거나 거짓(false)임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결어미로 구분되는 '-거든'은, 그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가 명제 내용이 참이라고 전제하거나 주장한다며 박석준(1999)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2) 철수가 숙제를 다 했거든, 알려 다오.
  → *철수가 숙제를 다 했다.
  → *철수가 숙제를 다하지 못했다.

(3) 어제 철수가 왔었거든.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 어제 철수가 왔었다.

151) 이 시기까지 '-거들랑/걸랑'이 종결어미화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Collection @ uos

박석준(1999)는 '-거든' 외에도 '-려고'를 통하여 연결어미로서의 통사적 특징과 차이가 나는 종결어미로서의 통사적 특징을 밝힘으로써, 비록 동일한 형태소에서 출발하였어도 현재적 기능과 의미가 분화되었으므로 종결어미 목록에 넣고 있다.

<표6>에서 연결어미 단계는 종결어미 자리에 놓이지도 않고 '-요'와도 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20세기 전반기 자료를 보면 '-니'가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4) ㄱ. 父 : (상략)…… 쥬림잡힌 이 얼굴, 왼갓 世上의 艱難辛苦를 격구 왼갓 世上의 實現의 길을 기내온 나를 좀 바로 쳐다보렴. 보면 네 어란 것과 갓히 안져서 날 辱하지 안을 터이니. <難破>

ㄴ. 男便네란 다 그러치. 두구보시구려. 달이 가시기도 前에 女學生을 끄러드리실 테니 <萬歲前>

ㄴ'. 元 : (상략)…… 이 송장 속에서 나온 꼿! 썩 발을 도로 켜서 나가 서라! 안 나갓다가는 다시 불 질너 버릴 테닛가! <山돼지>

ㄷ. 어서 나려가 있구려. 삼십 분 후에는 당신집 식구를 맡기로 할 테니, 가서 교의나 부시지 말고 가만히 얌전히 앉었어요. 오늘밤 안으로는 조쳐를 할 게니! <輪轉機>

ㄷ'. 좀 덜어 주시죠. 다른 때의 반만 한대두 밤을 꼬박 새야 할껄요. 입자만도 세상없어도 자정 넘어야 끝날 게니…… <輪轉機>

ㄹ. 글세 그래두 일즉이 갓다가 래일 밤 안으로 오세요. 나는 곳 써나야 할 일이 잇스니요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ㄹ'. (침모) 졔 말숨을 드르시랴닛가 돈도 바드시고 그ᄋᆡ도 잘될 터이니요 <洗釖亭 97>

오늘날 (4ㄱ)과 같은 형태는 쓰이지 않아도[152] (4ㄴ)과 같은 '테니'는 나타나는 형태이지만 일상 대화에서는 (4ㄴ') '테니까'와 같이 '-니까'가 결합한 형태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4ㄷ)은 '테니'가 '게니'로 나타난 것으로, '게니'는 '것이니'의 축약형이다. 오늘날 '것이-'의 축약 형태는 주로 '게-'가 아닌 '거-'로 실현되는데, '게-'의 경우는 '하는 게로군', '할 게야', '할 게다'[153]와 같이 주로 노년층에서 나타나지만 '할 게니'와 같은 형태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4ㄷ)의 예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는 종결적 용법으로 '조처를 할 것이니', '끝날 것이니' 또는 '조처를 할 거니', '끝날 거니'와 같이 실현되지 않고 연결어미 위치에서만 실현된다.

---

152) 오늘날 '테니'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노래 가사나 시와 같은 감성적으로 쓰이는 문어에서이다. 이 외에도 문어에서는 '-니'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153) ㄱ. 詩人 : 흥 確實히 어머니가 보낸 게로군. <難破>

ㄴ. "L은 D의 생활과 처지를 잘 모르는 까닭에 그렇게 쉽사리 판단을 내리는 게다. 하지만 이 경우에 L도 의심이 나기로서니 그밖에 더 대답을 못 할 경우도 못 될 게다!" <遺書_염상섭>

Collection @ uos

오늘날 '-니'는 '-니까'로 대체되었다. (4ㄹ)의 경우도 '-니'에 '-요'가 결합하지 않고 '있으니까요'로 쓰인다.

독립된 문장에서 연결어미가 종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연결어미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문장이라도 앞뒤 문맥 없이는 연결어미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어미로 환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결어미화한 경우에는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 기능이 바뀌게 되므로 그에 따라 통사적 특징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는 것은 문법화 가운데 주관화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성하(1998)은 '주관화(Subjectification)'란 Traugott(1982), Traugott & König(1991) 등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언어 형태의 의미가 덜 주관적인 의미에서 점점 주관적인 의미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명제 혹은 외연 위주의 의미에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투사함으로써 점점 주관적인 의미로 변화해 가는 과정으로, 실제적 상황에서 담화적 상황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후행문이 도치·생략되는 상황은 주로 구어에서 일어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면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 또한 담화적 상황에서이다. 이것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쓰이면서 순간적으로 의미가 변한다기보다 문법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angacker(2002)는 '주관화'가 어떤 요소로 문법화될 때, 이산적인 한 부문에서 다른 한 부문으로 건너뛰는 것이라기보다는 연속변차선을 따라 이동하며 의미 변화를 겪는데, 의미 변화는 단계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면 의미 기능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종결어미들은 양태 의미를 띠게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양태 어미들은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평서·의문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나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어미나 대체적으로 평서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로 쓰인다.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은 종결어미 자리에 오는 연결어미들은 주로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러한 어미들은 인식 양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태 의미를 가진 어미들은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실현되지 않는데,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가 실현되어

Collection @ uos

야 한다.154)

반말 어미로 제일 먼저 보이는 형태는 '-어'와 '-지'이다. 그런데 이 어미들의 기원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의 경우는 처음 출현 시기도 논란이 있다. 이 형태들이 연결어미에서 왔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종결어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의 형태를 보면 이들 어미가 가진 특징들을 연결어미와 관련지을 수는 있어도 종결어미로 쓰일 때와 연결어미로 쓰일 때의 기능이 같지 않을뿐더러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변화하는 과정의 중간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은숙(2007/2011)은 반말어미 '-어', '-지'의 형성은 근대국어의 종결어미 간소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 논의를 통하여 연결어미 '-어', '-지'보다는 반말어미와 공통점이 보이는 접속어미 '-어', '-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155)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다. 고광모(2001)은 종결어미 '-어'와 연결어미 '-어'가 공시적으로 같은 형태소라고 보는 데는 반대하지만 그 기원적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박영준(1994ㄴ, 1996)에서는 '-어'와 '-지'의 기원을 향가와 <鷄林類事>에서 찾고 있다.156) 그리고 언해문 자료에서는 16세기부터 종결어미 '-어'와 '-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157) 박영준(1996)은 '이바(你來)'를 '이 보오'와 같이 '이(대명사)#보-(용언어간)+-아(명령문 종결어미)'의 구성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감탄사로 처리한 것을 명령문의 구성으로 본 것이다. '두워'의 경우도 16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중국어 감탄사 '罷罷'에 대한 언해이다. 이것도 박영준(1996)은 '두-+-어'의 구성으로 단순한 감탄적 의미가 아

---

154) Bybee et al.(1994)에 따르면, 화자 지향적 양태에는 명령(imperative), 금지(prohibitive), 기원(optative), 권고(hortative), 경고(admonitive), 허락(permissive)가 있다.

155) 고은숙(2007/2011)에서는 접속어미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어미이고, 연결어미는 그 이하 단위를 연결하는 것이다(주로 보조적 연결어미).

156) 박영준(1994ㄴ, 1996)는, '-어'의 경우 향가의 '伊波' 가운데 '波'에서, '-지'의 기원은 <鷄林類事>의 '寢曰 作之', '興曰 你之' 가운데 '之'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157) '-어'의 출현 시기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바'와 '두워'에서 비롯된다. '이바'는 정극인의 <賞春曲>과 길재의 시조에서 나타나고(정극인과 길재는 15세기 사람이지만 이 작품들이 실려 있는 <不憂軒集>(1756), <靑丘永言>(1728)은 18세기에 간행된 것이다.) 16, 17세기 언해문 자료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ㄱ. 이바 니웃드라 산수 구경 가쟈스라 <賞春曲, 不憂軒集>
    ㄴ. 더러운 노마 이바 뎌 눈 브쉰 활와 치왕오를 블러오라 <飜朴 上:59ㄴ>
(2) ㄱ. 두워 두워 데우라 가디 말라(罷罷休旋去) <飜老 上:63ㄴ>
    ㄴ. 이리 차반 주워 머기니(這般與茶飯喫) <飜老 上:44ㄱ>
(3) ㄱ. 두어 두어 감흔 거시 하디 아니ᄒ다(罷罷減不多) <박해 상:4ㄱ>
    ㄴ. 두어 두어 두어라 ᄒ여 두쟈 <노해 초 상:59ㄱ>

'이바'를 단순히 감탄사로 본다면 (31ㄹ)의 경우 '더러운 놈아'하고 부른 후 다시 감탄을 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봐'와 같이 호격어로 본다면 '호격어+호격어' 구조가 전체 문맥을 검토해 볼 때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eCollection @ uos

니라 실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박영준(1996)은 '-지'의 경우도 16세기 자료에서 명령형 어미 '-지'가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서정목(1987)에서 접속어미 '-디비'가 현대국어 '-지'와 동일한 형태라고 한 견해와 모순되는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디비 > -디위/-디외, -디웨'의 후계형으로 보이는 '-됴에'가 16세기에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은숙(2007/2011)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설명은 어느 정도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른 시기에 반말어미 '-어', '-지'의 예가 왜 명령문으로서의 기능으로 쓰인 것만 발견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이바'가 명령문으로 쓰였다면 '이 보아', '이 봐' 형태가 보여야 하는데 '이바'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158)159)] 그리고 박영준(1996)에서 제시한 <飜譯老乞大> '-지'의 경우도 탈각의 가능성이 있다.[160)]

고광모(2001)은, '-어'는 모두 명령법의 것인데, 명령형 어미 '-어'의 존재는 서술형 및 의문형의 존재를 함의하는 것이라 하였다.[161)] 또한 생생한 대화가 옛 문헌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말이 옛 문헌에 나타날 기회를 얻기는 어려운데, 명령형 어미 '-어'만 시조라는 특수한 글에서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법 형태의 기능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문법 형태가 발달하는 것은 실제의 사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연결어미 '-어'와 '-지'가 종결어미화하여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일이나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 이미 확인되는바, 늦어도 '-어'는 17세기에, '-지'는 18세기에는 쓰이기 시작하였다. 종결어미 '-어'가 무표적인 의미인 데 반해, '-지'의 경우는 일정한 양태의

---

158) 이소흔(2010)에서는 '이바'에서 청자 지시 요소 '-아'가 결합한 형태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입' 또는 'ㅂ'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자 지시 요소 '-아'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59) (23ㄷ, 23ㄹ)에서 '你來'는 '너는/너구나' 그리고 강조의 의미이고, '두워/두어'는 '罷罷', 즉 '그만 그만, 됐어' 정도 의미이다.

160) ㄱ. 손조 밥 지ᅀ 먹고 가지 <飜老 상:39ㄴ>
ㄱ'. 손조 밥 지어 먹고 가쟈 <老解 初 上:35ㄴ>
ㄴ. ᄇᆡ ᄀᆞ장 골프다 우리 가지 <飜老 上:39ㄴ>
ㄴ'. ᄇᆡ ᄀᆞ장 골프다 우리 가쟈 <노해 초 上:35ㄴ>박영준(1996)
위 예에서 두 원문을 비교해 보면 <老乞大諺解>의 청유형 어미 '-쟈'가 <飜譯老乞大>에서는 '-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飜譯老乞大>에서 '가지'가 아니라 '가져'로 보인다. 즉 탈각일 가능성이 있다. (ㄱ)의 '손조 밥 지ᅀ 먹고 가지'에서 '지'가 아니라 안쪽으로 획이 하나 있는 '가저'로 보이므로 나머지 획은 탈각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두 예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모두 '가져'로 나타난다.

161) ㄱ. 형아 아ᄋᆞ야 네 ᄉᆞᆯ홀 ᄆᆞᆫ져 보아 뉘손ᄃᆡ 타 나관ᄃᆡ 양ᄌᆡ조차 ᄀᆞᄐᆞᆫ다 <警敏重 38ㄱ>
ㄴ. 뎌 가ᄂᆞᆫ 뎌 샤공아 ᄇᆡ 잡고 내 말 들어 <李蒔, 操舟候風歌, 善迂堂逸稿>
ㄷ. 日中三足鳥ㅣ야 가지 말고 내 말 드러 너희ᄂᆞᆫ 反哺鳥ㅣ라 鳥中之曾參이로니 北堂에 鶴髮雙親을 더듸 늙게 ᄒᆞ여라 <청구영언 진본 170>

의미를 갖는데(박재연 2006), 19세기까지 하나의 화계로서 자리 잡은 것이 아닌 반말 어미에서 '–어'보다 '–지'가 더 많이 출현하는 이유는 양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고광모(2001)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어'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통사적 결속이 가장 약해 '–어'가 이끄는 절 가운데서 가장 쉽게 분리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현희(1994)는 중세국어 분열문의 경우 계사 '(–)이–' 앞에 통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어'는 '이유'의 의미를 가진 것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이유'의 연결어미 '–어'는 접속문의 도치와 생략을 통해 종결어미 위치에 놓이면서 종결어미 기능을 획득하는데, 이때 종결어미 '–어'는 [이유]의 의미는 사라져 그 의미가 무표적이 된다.

이것은 현대국어 '–어'와 '–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유'의 연결어미 '–어서'가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이유'의 연결어미 '–어'는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지 못하고, 분열문 계사 '(–)이–'와 통합하지 못한다(이기갑 1998).[162] 즉 중세국어에서 종결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가졌던 '이유'의 '–어'가 근대국어에서 종결어미화되면서 그 의미를 잃어 무표적이 되었고, 현대국어에까지 [이유]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 '–어'는 종결어미가 될 수 있었던 환경에서는 '–어서'를 대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종결어미 '–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 무표적이므로 '해라'체의 종결어미와 그 기능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평서형에서, '해라'체 '–다'와 '해'체 '–어'는 화계만 달리할 뿐, 기능은 종결법과 대우법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같기 때문에 청자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답으로 쓰이는 '좋다', '싫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대국어에서 청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주로 '–어'를 결합하여 '좋아', '싫어'로 대답하고 '좋다', '싫다'로는 잘 대답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좋아'의 예가 20세기 초 자료에서도 보인다. 다만 어른이 아이에게 '좋다', '싫다'로 대답하거나 후행문이 이어질 때 쓰이기도 하는데, 어른이 아이에게 "그래, 좋다"와 같이 '좋다, 싫다'로 대답할 때는 권위적이고 예스러운 말투가 된다.

(5) ㄱ. A: 어듸가?

B: 이밤은, 야시가 잇다고, 하인이 ᄒᆞ엿스니, 가봅지

A: 됴와(ヨカロウ) <韓語正規 204>

162) 이기갑(1998)에서는 이 외에도 '–어서'만 가능한 경우로, '때'를 의미할 경우, '서다/나다'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본고의 논의와 무관하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때'를 나타내는 경우, 예로 들었던 '싱싱해서 잡수세요.'는 '–어서'가 아닌 '–니까'로 표현해야 하고 '어려서 집을 떠났다./날이 깜깜해서 돌아왔다.'와 같은 경우는 '–어'로 바꾸어도 무방하다 판단된다. '–어'만 가능한 경우는 부사형 어미 '–어'를 필요로 하는 조동사 구성, 관용화된 표현, 하나의 낱말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 어미로 굳어진 '–어도', '–어야'의 경우이다.

Collection @ uos

ㄴ. A: ᄇᆞᄅᆞᆷ이, 사나으니, ᄇᆡ가 황구에, 드러오지 못ᄒᆞ깃소
B: ᄋᆡ고—, 경치가 <u>둇타</u> <韓語正規 207>

(5ㄱ)의 ‘됴와’는 대답이고 (5ㄴ)의 ‘둇타’는 감탄이다. 이 예 하나만으로 이 당시에 ‘좋아’와 ‘좋다’가 다르게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좋아/싫어’와 ‘좋다/싫다’가 달라지는 초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시기에 ‘해’체는 ‘-지’ 외에는 잘 쓰이지 않았는데, <韓語正規> 역시 ‘해’체는 거의 쓰이지 않고 주로 ‘하오’체와 ‘하십시오’체, 그리고 ‘해라’체가 쓰였다.[163)]

청자 대우 기능만이 있던 ‘하오’체의 ‘-오’가 종결어미화하면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을 모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본래의 의미를 잃은 ‘-어’도 종결어미화하면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모두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달리 ‘-지’의 경우는 이와 달리 인식 양태만이 아니라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데,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명령형 혹은 청유형을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고’ 역시 그 의미가 확장되어 화자 지향적 양태 의미를 갖게 되면서 명령형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들은 인식 양태 의미만을 가진다. 그리고 연결어미도 인식 양태 의미만을 가지므로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일 때도 평서문, 의문문에만 쓰이는 것이다.

박재연(2006)은 양태 의미의 담지자는 일반적으로 ‘화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본 기존의 정의에서 분명히 보여 준다고 하였다.[164)] 다만 의문문에서는 양태 요소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태도를 묻는 데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의문문에서 양태 의미의 담지자는 청자라고 하였다.[165)]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루어진 것은 가능성(possibility), 필연성(necessity) 등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지만, 이 의미 영역은 명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화자가 그 진실성(truth)을 얼마만큼 보장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영역은 화자의 앎의 척도(scale)이다(박재연 2005). 즉 ‘새로 앎’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속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화자는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163) 오히려 ‘해’체보다는 ‘해요’체가 조금 나타난다. ‘해요’체의 경우 ‘-지요’가 잘못 쓰인 ‘-지오’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지오’라고 써도 ‘-오’가 앞의 /ㅣ/에 영향을 받아 [지요]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오’를 ‘하오’체로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

164) 박재연(2006)은 양태의 기본 속성을 ‘주관적인 한정’이라 하였다. 그것은 주어 지향적 양태(동작주 지향 양태)는 전형적인 양태라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165) 박재연(2006)은 양태 의미의 담지자가 문장 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양태 담지자의 전환(switching)’이 하였다.

Collection @ uos

를 전달함과 동시에 청자에게 이를 확인 받거나 수정 받고자 하는 목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는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인식 양태 요소가 사용되면, 그 문장이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전달이라는 평서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청자에게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질문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166)]

앞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결어미화하여 완전한 종결어미가 되었다는 것은 연결어미가 가졌던 의미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오롯이 종결어미로서만 쓰일 때이다. 종결어미화하였지만 연결어미로서도 기능을 하는데, 앞에서 제시한 것은 인용구성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을 제외하고 '-거든$_2$', '-ㄴ데$_2$', '-고$_2$', '-려고$_2$', '-게$_2$', '-거들랑$_2$/걸랑$_2$' 정도이다. 그런데 이 어미들 모두 평서형, 의문형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어미가 가진 의미에 따라 실현되는 양상이 다른데, 가르침이나 설명의 의미를 가지는 '-거든$_2$', '-거들랑$_2$/걸랑$_2$'의 경우 의문형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고$_2$'는 평서형이 실현되지 않는다. 평서문에 나타나는 '-고'는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고$_1$'이다. '-고$_2$'는 의문형[167)]과 명령형으로만 실현된다.

(6) ㄱ. 榮順이 아버지는 언제 도라가고? <山돼지>
ㄴ.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데로 가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흙2 235>
ㄷ. 호젓하고 종용한 데를 차져서 가는 게 조치 아너요? 배두 타볼 수 잇구...... <해바라기>

(6)은 '-고'가 종결어미 자리에서 실현된 것으로 (6ㄱ)은 의문형으로 실현된 종결어미이고 (6ㄴ)과 (6ㄷ)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명령형 어미 '-고'의 경우는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명령형 '-고'에 대해 "또 다른 명령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한 듯한 여운을 둠으로써 부드럽게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166) 그렇기 때문에 박재연(2005)는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어미들이 상향억양을 가지고 질문의 효과를 갖는 문장에 사용되면, 이러한 문장은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과를 갖는 것일 뿐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ㄴ가', '-ㄹ까'는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의문형 어미인데, 이 어미들이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화자의 무지이며 화자의 어떠한 판단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의심]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이 모두 독백문 종결어미라는 사실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167)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고$_2$'의 첫 번째 의미는 물음, 부정, 빈정거림, 항의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물음을 제외하고 부정, 빈정거림, 항의는 의문형이 아닌 평서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고$_2$'의 경우 의문의 억양이 입혀지는데 국립국어원(1999)에서도 어떤 물음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하고 문장을 끝맺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eCollection @ uos

종결 어미"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디 연결어미로서 가지고 있던 의미 기능이 종결어미화한 뒤에도 양태 의미로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ㄴ)의 '마시고'는 명령형이지만 선·후 문장이 도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네는 가고,", "서류를 낸 학생들은 이쪽으로 오시고."와 같은 경우는 뒤의 문장을 생략한 듯한 여운을 주는 것이지 생략한 것은 아니다. 의문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의문형의 경우 [부정], [빈정거림], [항의] 따위의 양태 의미를 띠는 반면, 명령형의 경우 이러한 양태 의미는 나타나지 않고 명령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다만 같은 명령이라도 부드러운 명령이므로 '명령'에 [부드러움]이 더해진 것이라 하겠다.

연결어미 '-고'에서 발달한 명령형 어미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명령형 어미 '-고'가 있다. 이것은 중세국어 '-고라'에서 '-라'가 탈락한 '-고'인데, 현대국어 '다오'의 '-오'와 관련이 있으며(박영준 1994), 방언에서는 "그것 좀 도고"와 같이 쓰이고 있다(김영욱 1993/1995). 이 '-오'는 '그것 좀 다오'와 같이 '달다'에만 나타나는 형태로 '해라'체에 속한다.

(7) ㄱ. 실ᄡᅵᄃᆞᆯ 만히 ᄒᆡ여 다고 <무덤편지 57> (김영욱 1993/1995)
ㄴ. 젹삼 ᄒᆞᆫ 벌 갑중으로 ᄒᆞ려 ᄒᆞ니 아조 됴흔 중을 어더 곱게 지여 ᄃᆞ고 <獨學韓語大成 212>
ㄷ. 일남 : 영영 춘삼월이 다시 돌아와도 저 언덕 비탈 위에 마른 잔디 파릇파릇 속잎 나고 시냇물 잔잔히 흐르거든 이 일남이가 아리랑 고개 너머에서 너를 찾아 허매는 것을 잊지 말아 다오, 복례야. <유성연극_아리랑 고개>

현대국어 '달다'는 '하라'체 혹은 간접 인용형으로 '달라', '해라'체로 '다오'로만 실현되는데, '달라', '다오' 대신에 '주다'의 활용형인 '주라', '줘라'로도 쓰일 수 있다. 직접 명령에도 '줘라' 대신 '주라'가 쓰이기도 하지만, '주어라'의 경우 '달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주다'의 경우 상하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모두 쓰이지만 '다오'의 경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쓰이는 형태로 권위가 나타난다. 그러나 (7ㄷ)을 보면, 20세기 전반기에는 대등하 관계에서도 쓰일 수 있었는데, (7ㄷ)에서 일남이와 복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8) ㄱ. 순례는「그래도 어디 그렇소. 나는 안 잊히는데.」하였다.「무섭다면서?」「무섭긴 해도 안 잊히는 걸 어짜하오?」<흙 2:152>
ㄴ.「네가 뭐 쥔 마누라를 깨물고 사람을 죽이구 그런다며?」<따라지 302>

연결어미 중에서 '-니'[168]와 '-며'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으나 인용구성에서는 이러

Collection @ uos

한 쓰임이 나타난다. 연결어미 '-니'가 결합한 인용구성 '-다니'의 경우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다니$_2$'가 있다.[169] 종결어미 '-다니$_2$'는 평서형과 의문형으로 나타는데, 평서형의 경우 '감탄'으로만 실현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연결어미 '-며'는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나열]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면서'의 준말이다. 여기서 인용구성 '-다며'는 '-면서'의 준말 '-며'가 결합한 것으로, 이것도 종결적 용법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다며$_2$', '-다면서$_2$'가 나타난다. 이 중 종결어미 '-다며$_2$', '-다면서$_2$'는 (8)과 같이 의문형으로만 실현된다.

'-구나'와 같은 계열로 '-구먼'이 있다.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구먼'이 '-군'의 본말이라 풀이하고 있으나 '-군'이 '-구먼'의 축약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20세기 전반기의 자료를 보면 '-구먼'의 예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군'의 예가 더 많이 나타난다. 박재연(1998)에서 '-구먼'의 기원은 불분명한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달리 고광모(2001)은 '-구먼'의 기원을 연결어미에서 찾고 있다. '-구먼'의 고형은 '-구면'인데, 신소설에서 연결어미로 쓰인 '-구면'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는 전남 방언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9) ㄱ. 아조 눌너 ᄂᆡ외가 되엿스면 다시 더 말할 것 업시 됴켓구면 한ᄉᆞᄒᆞ고 말을 안이 드르니 이 노릇슬 엇지ᄒᆞ여야 가ᄒᆞᆯ가 <옥호기연 13>
ㄴ. 이놈곳 잡앗스면 여러 가지 죄로 분풀이를 ᄒᆞ겟구면 엇의 가 잡을 슈가 잇셔야지 <옥호기연 19>
ㄷ. 쏙 그러케 힛스면 령락업시 되겟구면 무슨 빙ᄌᆞᄒᆞᆯ 말이 잇셔야지 <화의혈 9>

(10) ㄱ. 요놈 입으면 쓰겠구만 왜 그리 까탈을 부리냐?
ㄴ. 눈이나 오면 좋겠구만 비가 온다.
ㄷ. 여그 있구만 없다 허네.

그런데 '-구먼'은 '-구나'와 의미 기능도 같지만 선어말어미와 결합 시 '-구나'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인다. 특히 중세국어 '-고나'가 계사와 결합 시 반드시 앞에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가 개입해서 '-이로괴여', '-이로고나'로 실현한 바와 같이(이승희 1996), '-구먼' 역시 의고형으로 '-이로구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11) ㄱ. ᄎᆞᆷ 쟝ᄒᆞ신 일이로구 나는 오십이 넘엇스나 강산유람을 못 ᄒᆞ엿는ᄃᆡ <목단화 879>

16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니'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다.
169) 인용 구성 연결어미의 경우, 평서형에서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구분이 모호하다. 4장 참조.

Collection @ uos

ㄴ. 날이 발셔 밝앗는듸 웬 곡졀이구 이상하도다 <비파성 129>

ㄷ. 아바지게셔 듸례로 듸답을 잘ᄒᆞ시는구 될 말인가 임의경ᄒᆞ야 수쥬ᄭᆞ지 밧고셔 지금 와셔 퇴혼이라니 <비파성 51>

ㄹ. 그러면 그럿치 도쳐 명당이로고 앗가 시됴 소릐가 들니더니 로형이 ᄒᆞ셧나 보구려 <경셰종 1>

ㅁ. 쳐니 죠화옹이 엇지 ᄉᆞ름의 이별을 마련하얏눈고 <안의성 90>

ㅂ. 이러ᄒᆞᆫ 란 즁에 웬 부녀가 홀로 오는고 필연 아리안셩이 파ᄒᆞ며 도망ᄒᆞ여 오는 쟌가 ᄒᆞ며 <애국부인전 13>

또한 '-구나'와 관련된 종결어미로 '-고/구'가 있는데, 이 '-고/구'는 '-고나/구나'에서 '-나'가 절단되어 형성된 종결어미로 이 시기에 나타난다. '-고나'가 '감탄'을 나타냈던 것같이 '-고' 역시 '감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어미 '-고'와 다른 형태이다.[170] (12)에 나타난 '-고/구'는 연결어미 '-고'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나'와 같은 결합 양상을 보인다. 연결어미 '-고'는 선어말어미 '-느-'와 결합을 하지 않는 데 반해 '-구나'는 '-느-'와 결합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합하는 형태 또한 '-눈/는-'으로 같다. 또한 중세국어 '-고나'가 계사 '-이-'와 결합할 시 그 사이에 감동법 어미 '-도-'가 삽입되어 '-이로고나' 형태로 실현되는데, 그 결합 양상이 (11)의 '-고'에서도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고'는 연결어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나'에서 비롯된 형태인 것이다. 그런데 감탄형 어미 '-고'는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의고체로서만 쓰인다.

(12) ㄱ. 여기두 조용한데 아무 데면 어떤가? 나가면 자네 또 술 먹게? <永遠의微笑 092>

ㄴ. 「인내시우, 내 좀 해 보게.」 하고 선희는 한갑 어머니의 도마를 끌어 당기었다. <흙 3:339>

ㄷ. 무경ᄒᆞ게? 내가 무엇을 무경ᄒᆞ게 힛서요? <無情 2:370>

종결어미 '-게$_2$'는 평서형, 의문형으로 실현된다. (12ㄱ, ㄴ)은 종결어미인데, (12ㄱ)은 의문형이고 (12ㄴ)은 평서형이다. (12ㄷ) 중 앞의 '-게'는 종결적 용법의 '-게$_1$'이고 뒤의 '-게'는 연결어미이다. 의문형 어미 '-게$_2$'는 [추측], [근거], [의도], [반어적 물음] 등의 다양한 의미를 띤다. 그러나 평서형 어미 '-게$_2$'는 [의도]의 의미만을 나타내므로 주어는 1인칭으로 제약된다.

170) '-고나'는 20세기 전반기에도 계속 출현한다.
德 : 아―풀사, 이 놈이 또 차자왓고나 <소용도리_희곡>

Collection @ uos

3.3. 부사형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16세기에 생성된 'ᄒᆞ소'체의 어미들은 19세기까지도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시상법의 재구조화로 인해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ᄂᆞ-'의 기능이 바뀐다. 19세기 '하소'체의 평서형어미 '-네'의 경우 선어말어미 '-ᄂᆞ-'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ᄂᆞ-'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네'에 축약되어 있는 '-ᄂᆞ-'의 기능은 소멸되고 하나의 형태로 융합된다. 따라서 '-더-'가 결합되어 있는 '-데'의 경우 '-더-'의 기능은 살아 있지만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소'체의 경우 평서형, 의문형 어미에서는 '-ᄂᆞ-'의 기능 변화로 인한 융합 형태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하라'체의 경우도 '-ᄂᆞ-'의 기능 변화로 인한 결합 양상 외에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의 형태에서는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형 어미의 경우 '하소'체, '하라'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하라'체는 명령형 어미 '-라'에 선어말어미 '-거-'의 기능이 소멸되면서 '-거/어/너/여-'가 결합된 형태가 그대로 융합되어 '-라'를 대체하고, '-라'는 부정법 '하라'체로 사용되면서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런데 '-어/여라'만이 명령형 어미로 고착되어 '-라'를 대체하고 '-거/너라'는 의고체로 남게 된다. '하소'체는 부사형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새로운 형태 '-게'가 나타나 대체되고 기존의 명령형 어미 '-소'는 방언형으로만 남는다.

그러면 '하소'체의 명령형 어미 '-소'를 대체하는 어미 '-게'를 살펴보기 전에 그와 변화 양상이 같은 현대국어의 '-도록'을 먼저 살펴보자.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 기능을 띠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서법 내지는 의문법을 담당하는데 '-도록'의 경우 명령법을 담당한다. '-도록 하-'에서 '하-'가 생략되고 '-도록'만으로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13) ㄱ.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u>모이도록</u>.
ㄴ.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u>모이도록 한다</u>.

석주연(2008)은 현대국어에서 [정도],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도록'은, 중세 이래 [도급]의 의미를 갖는 '-도록'이 특정한 문맥에서 중의성을 가지면서 파생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의미의 파생이 새로운 통사적 구성 'V도록 ᄒᆞ-'의 형성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결과]의 의미를 갖는 '-도록'이 뒤의 '하-'를 생략하고 명령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적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단 [정도]를 나타내는 '-도록'이 '좋다'와 결합할 경우에서는 허락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적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도록'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사용

Collection @ uos

하지 못하고 군대와 같은 집단에서 훈련 혹은 작전을 명령할 때 정도에만 쓰인다.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하소'체의 명령형 어미 '-소'를 대체하는 '-게'이다. '-게'는 19세기 중엽에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정착하게 되는 시기는 20세기가 넘어서이다. 명령형 어미 '-게'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소'체의 '-네', '-데', '-새' 등의 연결선상으로 선어말어미 '-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와 연결어미에서 비롯되었는 견해가 있는데, 그 외에도 고광모(2002), 이승희(2004)는 사동 구문인 '-게 ᄒᆞ-'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해석에는 차이를 보인다. 고광모(2002)에서는 '-게 ᄒᆞ-' 구문에서 'ᄒᆞ-'가 생략되고 '-게'만으로 발화하는 것이 '-도록 하-'에서 '-도록'만 나타나는 명령법이 일상적 발화에서는 쓰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발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 ᄒᆞ-'의 반말체 명령형 '-게 ᄒᆞ여'로부터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명령형 어미 '-게'가 명령형 어미 '-소'에서 갈음되는 시기는 20세기이지만 문헌 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세기 중엽으로, 이 시기에는 소위 반말인 '해'체가 두루 쓰이지 않는 시기이다. 더불어 고광모(2002)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게 ᄒᆞ여' 혹은 '-게여'도 문증되지 않는다. '해'체가 비로소 정착되는 시기는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더구나 19세기에는 '-지'는 간간이 나타나지만 '-어'는 나타나는 경향이 드문데, 활발히 쓰이지 않는 어미가 하나의 어미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뿐만 아니라 '해'체에서 축소된 어미가 예사낮춤인 '하게'체를 이루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14) ㄱ. 곽주→아내: 자내 ᄒᆞᆯ 일 짐쟉ᄒᆞ여서 올 나ᄅᆞᆯ 이 사ᄅᆞᆷ 올 제 유무에 ᄌᆞ셰 ᄀᆡ별ᄒᆞ소 ᄇᆞᄃᆡ 수이 오게 ᄒᆞ소 … 자내 편치 아니ᄒᆞᆫ ᄃᆡ 영히 편치 몯ᄒᆞ엿거든 ᄒᆞ리거ᄃᆞᆫ 오게 ᄒᆞ소 <현풍 49>

ㄱ'. 곽주→종 곽상: 일년이 고친 후에도 수이 됴치 아니ᄒᆞ거든 김홍니 마ᄅᆞᆯ ᄃᆞ려다가 ᄌᆞ죠 고쳐 수이 됴케 ᄒᆞ여라 <현풍 37>

ㄴ. 어머니→아들: 현암 동ᄂᆡ 불안ᄒᆞ다 ᄒᆞ니 가지 말고 누의 올 적 길ᄒᆡ 주막의셔 잠간 만나보고 즉시 써나게 ᄒᆞ여라 <언간 補18>

ㄴ'. 어머니→아들: 일ᄒᆡᆼ 올 적 ᄇᆞᄃᆡ 쥬인ᄃᆡᆨ의 폐되지 아니케 ᄒᆞ여라 <언간 補18>

ㄷ. 김정희→부인: 대되 무ᄉᆞ들 ᄒᆞ온잇가 셔물이 한창 ᄡᅧ오니 ᄇᆞᄃᆡ 참외 가튼 것 만이 잡ᄉᆞ오시개 ᄒᆞᆸ <추사편지 5> (이승희 2004)

그에 반해 이승희(2004)는 '-게 ᄒᆞ-' 구문에서 'ᄒᆞ-'가 생략된 형태로 보았다. 고광모(2002)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7~19세기 문헌을 보면 근대국어 시기에는 사동 구문의 '-게 ᄒᆞ-'와는 완전히 별개의 의미 기능을 가진 '-게 ᄒᆞ-' 구문이 존재하는데, 청자와 행동주가

Collection @ uos

일치하는 '-게 ᄒᆞ-' 구문으로 그것은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므로 사동 구문으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승희(2004)는 예문에서 (14ㄱ', ㄴ')은 사동 구문인 데 반해 (14ㄱ, ㄴ, ㄷ)은 사동 구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동 구문으로 해석되지 않는 '-게 ᄒᆞ-' 구문이 명령문으로 나타나는 '-게 ᄒᆞ소, -게 ᄒᆞ여라, -게 ᄒᆞ라'에서 'ᄒᆞ-' 이하가 생략됨으로써 'ᄒᆞᄂᆡ'체의[171] 명령형 종결어미 '-게'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문 (14)에서 보듯이 '-게 ᄒᆞ-' 구문에서 'ᄒᆞ-'가 생략된 '-게' 형태가 예사낮춤을 표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되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형태 절단이 아닌 통사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데, 즉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명령법 구문 '-게 ᄒᆞ-' 구성에서 '-게'만으로 청자인 행동주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므로 뒤의 구성인 'ᄒᆞ-'는 의미 중복이기에 생략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해'체가 아닌 '하소'체을 대체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은 '해'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게'가 '-소'를 대체하게 된 것은 고광모(2002), 이승희(2004)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하오'체의 명령형 어미 '-오/소'의 존재가 형태상으로 유사한 명령형 어미 '-소'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새로 등장한 종결어미 '-게'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15) ㄱ. 이 냥방을 뫼시고 갸려므나 <日韓言語合璧 332>
ㄴ.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데로 가세요.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흙 2:235>
ㄷ. 베노사가 논을 사거든 우리 한갑이도 주라고. <흙 1:102>

명령형 어미 '-게'의 경우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의 '-게 ᄒᆞ-'에서 온 것이므로,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게' 자체만으로도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도록'인 것이다. '-도록' 역시 '해'체에 포함되지 않고 '해라'체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로 '-고'가 있다. 명령의 '-고'는 앞의 두 명령형 어미와 달리 '해'체에 속한다. 연결어미 '-고'가 '-게', '-도록'처럼 사동의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들과 달리 명령에도 쓰일 수 있는 것은 '-고'가 가진 의미 기능 때문이다. 즉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날 때 쓰이는 '-고'의 구성이나 (15ㄱ)과 같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나는 '-고' 구성에서 명령문인 뒤 절이 생략될 때 앞 절의 '-고'는 명령을 나타나게 된다. (15ㄴ)의 경우 "그렇게 무서운 얼굴 마시고 아침이나 잡수시고

171) 본고의 용어는 '하소'체이다.

Collection @ uos

가실 데로 가세요.”가 도치된 것으로 원 문장에서의 ‘-고’는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이다. 그러나 도치되어 종결어미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명령의 기능을 하는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15ㄷ)은 인용 구문에서 융합된 형태인데, ‘-라고’가 명령을 나타내는 것은 ‘-다고’와 비교해 보면 ‘-라’에 의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위문의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된 형태가 모두 명령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즉 ‘-라니, -라며, -라는데’ 등 모두 명령형 어미가 아닐뿐더러 ‘-라고’ 자체도 명령만이 아니라 “한갑이도 주라고?” “응, 한갑이도 주라고”와 같이 평서, 의문 모두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15ㄷ)의 ‘-라고’에 명령의 기능이 실현되는 것은 명령의 기능을 가지는 ‘-라’와 ‘-고’에 의해서인 것이다.

‘해’체를 구성하는 어미의 조건으로 뒤에 ‘-요’를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의 두 명령형 어미 ‘-게’와 ‘-도록’은 ‘-요’와 결합하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게’는 ‘-소’를 대체하여 ‘하게’체를 이루고 ‘-요’와 결합하지 않는데, ‘-도록’의 경우도 ‘-요’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미에 따라 연결어미에도 ‘-요’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록’이 완전한 종결어미화가 되지 않아서 결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연결어미 위치에서든 종결어미 위치에서든 ‘-요’가 결합할 수 있다. ‘-도록’의 경우도 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나타날 때에는 연결어미 자리에서나 종결어미 자리에서나 ‘-요’가 결합 가능하다.

(16) ㄱ. *해산했다가 12시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요.
ㄴ. 애당초에 그런 말은 비치지두 말게. <常綠樹 2:210>
ㄴ'. *애당초에 그런 말은 비치지두 말게요.
(17) ㄱ. 나무가 잘 자라도록요 거름을 주세요.
ㄴ. 네, 나무가 잘 자라도록요.

그렇다면 명령문에서는 ‘-도록’에 ‘-요’가 왜 결합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게’도 마찬가지이다. ‘-게’가 ‘하오’체와 유사성으로 ‘-소’를 대체하였기 때문에 ‘-요’와 결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설명일 뿐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게’가 ‘-요’보다 먼저 생성되었기에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게’보다 먼저 나타난 ‘-어’나 ‘-지’에는 ‘-요’가 결합하므로 그것도 성립할 수 없다.[172]

명령문의 ‘-게’나 ‘-도록’ 다음에 ‘-요’가 결합하지 못하는 원인은 ‘-게 하-’, ‘-도록 하

172) 20세기 초에는 ‘하게’체와 ‘해’체가 혼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하게’체의 어미가 양태의 의미를 띨 경우 ‘해체’로 바뀌기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은 5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Collection @ uos

-' 구성의 통사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동 구문인 '-게 하-'와 '-도록 하-'는 연결 구성이므로 떨어져서 사동을 나타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요'도 삽입하지 못한다.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의미 중복된 '하-'는 생략되고 '-게'는 종결어미 기능을 갖는다. 즉 본디 '-게'가 가지고 있던 통사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종결어미화하여 '-요'가 결합하지 못하고 '하오'체의 명령형 어미와 형태상 유사한 '-소'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도록'의 경우 종결어미의 자리에서 종결어미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하-'가 생략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결어미화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상 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록' 역시 '-도록 하-' 구성에서의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종결어미가 '-요'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은 '해'체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종결어미는 아니지만 종결적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명령형 '-도록'은 '해라'체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령형 어미 '-게'와 '-도록'은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게'는 종결어미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면서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 '-게 하-'에서 '하-'가 생략되고 '-게 하-' 구성은 사라지게 되지만, '-도록'은 종결어미적 기능은 하지만 종결어미로 그 기능이 바뀌지 않고 '-도록 하-'에서 '하-'가 생략된 단계에서 머물기 때문에 '-도록 하-'의 구성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다만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구문에서 '-도록 하-'는 [허락]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유현경(2003)에서 연결어미로 쓰인 '-도록'과 '-게'는 바꾸어 쓸 수 있지만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18) ㄱ. 차가 [지나가<u>게</u>/지나가<u>도록</u>] 길을 좀 비켜라.
ㄴ. 철수는 [얼어 죽지 않<u>게</u>/얼어 죽지 않<u>도록</u>] 옷을 잔뜩 껴입었다.
(19) ㄱ. 빨리 집에 [가<u>도록</u>/*가<u>게</u>].
ㄴ. 이제 나가 [보<u>도록</u>/*보<u>게</u>].
(20) ㄱ. 내가 바보니? 그 사람을 [좋아하<u>게</u>/*좋아하<u>도록</u>]?
ㄴ. 어디 아프니? 밥을 안 [먹<u>게</u>/*먹<u>도록</u>]? (유현경 2003)

그러나 이것은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종결어미와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에서 비롯된 '해'체 종결어미 '-게', 종결어미적 용법의 '-도록'과 사태의 목적,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혼동한 결과이다. (18)은 대등·종속적 연결어미로서의 '-게'와 '-도록'이고, (19)는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현경(2003)은 (19)에서

Collection @ uos

‘-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화계가 바뀌었을 뿐 둘을 교체를 해도 무방하다. 다만 (20)의 경우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대등·종속적 연결어미 ‘-게’는 의문형으로 종결어미화한 ‘-게$_2$’이므로 연결어미 ‘-도록’과 교체되지 않는다.

3.4. 요약

19세기 종결어미의 형성 방식 두 번째로, 종결어미가 아닌 형식이 종결어미가 되는 것 가운데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가 있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기 위해서는 이유, 나열, 대조 등의 의미를 가진 연결 구문에서 독립성을 가진 선·후행절이 도치·생략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연결어미는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종결어미화한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할 때 모든 어미가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겪지 않는다. 이것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연결어미로만 나타나는 경우, 종결적 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 종결어미가 된 경우인데, 종결적 용법은 연결어미가 종결어미 위치에 놓여서 종결적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구조는 후행문이 생략된 것으로 연결어미와 의미가 같다. 이에 반해 종결어미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연결어미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이다. 종결적 용법은 다시 세 단계로 구분된다. 하나는 종결어미 위치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종결어미 억양이 수반되지 않고 ‘-요’와 결합하지 않는 형태이다. 다음 단계는 종결어미 억양은 수반되지 않으나 ‘-요’의 결합은 가능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억양도 수반되고 ‘-요’도 결합하지만 연결어미와 의미가 같으므로 종결어미로 볼 수 없는 형태다.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는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연결어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대등·종속적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한 것은 ‘해’체에 속하게 된다. 보다 이른 시기에 종결어미화한 ‘-어’, ‘-지’를 제외하고 여기에는 ‘-거든’, ‘-ㄴ데’, ‘-고’, ‘-려고’, ‘-게’, ‘-거들랑/걸랑’이 있다. 연결어미로만 쓰이는 ‘-니’, ‘-려’, ‘-어’, ‘-다’, ‘-며’와 그 외 인용 구성에서 된 형태를 제외하고는 종결적 용법에 속하게 된다. 이 어미들은 대체적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를 지니며 평서형, 의문형 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고’의 경우 평서형은 종결적 용법으로만 나타나고 종결어미로는 의문형만 실현되는데, 평서형 종결적 용법의 의미가 확장되어 명령형 어미로 실현되기도 한다. ‘-거든’, ‘-거들랑/걸랑’의 경우는 그것이 가진 의미로 인해 평서형 어미로만 나타난다.

부사형 연결어미는 ‘하게’체 명령형 어미 ‘-게’와 ‘해라’체 명령형 어미 ‘-도록’이 있다. ‘-게’의 경우 종결어미이지만 ‘-도록’은 종결적 용법이다. 이것은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던 청

Collection @ uos

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 '-게 ᄒᆞ-' 구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ᄒᆞ-' 이하가 생략된 형태이다. '-도록' 역시 '-도록 하-'에서 '하-' 이하가 생략된 형태이다. 대등·종속적 연결이미가 '해'체에 속하는 것과 달리 이들 어미는 각각 '하게'체와 '해라'체에 속하게 된 것은 '-게 하-', '-도록 하-'는 연결된 구성이므로 그 사이에 '-요'가 삽입되지 못한다. 그러한 통사적 특성이 '하-'가 생략되고 종결어미화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자와 행동주가 일치하는 사동 구문 '-게 하-' 구성은 사라졌지만 '-도록 하-'의 구성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dCollection @ uos

4. 통사적 구성의 종결어미화

종결어미화는 한 단어 내에서만이 아니라 통사 구성에서도 생략, 축약 등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도 한다. 'ㄹ#의존명사' 구성, 간접인용 구성 등 통사 구성이 하나의 형태소로 융합되는 것이다.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구성이 하나의 어미로 되는 것은 중세국어 이전부터 많이 나타나던 현상이지만 간접인용 구성이 하나의 형태소로 융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보조동사 '하다' 결합 구성에서 '하-'가 생략·융합된 종결어미가 있다.

4.1. 의존명사 구성의 종결어미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구성이 하나의 형태소로 융합하는 것은 이전 시기에서도 어말어미 형성에 있어 활발하게 작용하던 현상이다. 이러한 구성은 연결어미 혹은 종결어미로 되었는데, 종결어미가 될 경우 주로 중간 등급 내지 아래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어미 중, 현대국어에까지 활발하게 쓰이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종결어미로는 'ㄴ'계의 '-ㄴ지',173) '-ㄴ가', '-ㄴ디라', '-ㄴ데', 'ㄹ'계의 '-ㄹ세', '-ㄹ세라', '-ㄹ지',174) '-ㄹ까', '-ㄹ쏘냐', '-ㄹ쏜가', '-ㄹ디니라', '-ㄹ지라' 따위가 있다.

19세기 말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종결어미가 되었는데, 중세국어에서 의존명사 'ᄃᆞ'와 'ᄉᆞ'의 구성이 어말어미화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의존명사 '것'의 구성이 종결어미화되었다. 이들 어미는 대개 양태 의미를 가졌으며 해체에 포함되었다. 즉 통사 구성의 결합으로 양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하나의 융합형 어미가 형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양태 의미는 통사 구성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즉 관형사형 어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 기능에서 의미 확장되기도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서 좀 더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

(1) ㄱ. (박 부장) 아가 또 리야기 하나 ᄒᆞ랴 뒤집여 복은 ᄋᆡ를 낫ᄂᆞᆫᄃᆡ 귀ᄒᆞ다고 입을 쌤의

173) 이지영(2008), 이금희(2016)은 '-ㄹ지'는 중세국어 시기 동사구 내포문으로 쓰이다가 16, 17세기에 연결어미 쓰임이 나타나고 19세기에 종결어미로의 쓰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때 종결어미화하는 것은 동사구 내포문일 경우이다(이금희 2016).

174) '-ㄹ지'가 동사구 내포문에 쓰이는 시기는 18세기 이후이다(이지영 2008).

Collection @ uos

된다는 걸 불기짝의다 ᄃᆡ셔 입의 쏭이 무덧다더라 <고목화 294>

ㄴ. 졂은 령감이 자미 업서 하시는 것도 당연ᄒᆞᆫ 일이오 ᄂᆡ 역시 그러케 아는걸 그런데 더욱 어림업는 사름은 뎌 죠졍위— 아마 발셔 만쥬로 건너갓다지 <두견화 52>

ㄷ. 신랑은 다시 보아도 잘싱기엿던걸 오날 구경터에셔 보아도 그만ᄒᆞᆫ 아희들에 하나도 눈에 드난 ᄋᆞ희가 하나도 업고 영록이가 졔일 잘싱겻던걸 <비파성 14>

(2) ㄱ. 모레, 낫, 젼에, 부산 직판소로, 젼보ᄀᆞ, 올 터인ᄃᆡ, 그 젼보가 오면, 이리로, 곳 잡으러 ᄂᆞ올 걸 ○○○○○○○ 그 말 긋치기 젼에, 최가는 벌々 썰고, 은 젓고, 졈순이는 장님의 무릅 우에 폭 엎드리며 운다 <귀의성 2527>

ㄴ. (갑동 모) 나도 그ᄃᆡ로 갈 수 잇늬 마님을 뵈와야지 에그 아마 주무실걸 지금 어느 ᄯᅢ라고 네나 단겨 오너라 <고목화 894>

ㄴ'. 元峰 : 걔 밥 잘 먹게 해 주어요. 반찬도 좀 낫게 해 주고요. 얼골이 쑥 빠젓드군요. 아마 내 얼골보다 더 빠졋슬걸요. <山돼지>

ㄷ. (림 씨) 그져 뎌년에 아비가 잇셧더면 송편이나 좀 ᄒᆞ야 먹을걸 명졀이와도 명졀인지 만지 남들처럼 시원ᄒᆞ게 문 밧그로 공원으로 구경이나 좀 단엿스면 좃켓습니다 <비파성 30>

관형사형 어미 'ㄴ'의 경우, 양태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ㄴ걸'은 선어말어미 '-느-', '-었느-', '-더-', '-었더-'가 결합하여 '-ㄴ걸', '-는걸', '-었는걸', '-던걸', '-었던걸'로 나타나며 이와 계열 관계로 '-ㄹ걸'이 있다. (1ㄱ)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구성이지만 (1ㄴ, ㄷ)은 각각 '-느-'와 '-더-'가 결합한 종결어미이다. '-ㄴ걸'이 하나의 종결어미화하였지만 앞의 '-느-' 등의 선어말어미는 시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ㄹ걸'의 경우는 좀 다르다. '-ㄹ걸'은 '-ㄹ걸$_1$', '-ㄹ걸$_2$'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ㄱ)은 (2ㄱ)과 마찬가지로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구성이고, (2ㄴ) '-ㄹ걸$_1$'은 [추측]의 의미를 지닌 '-ㄴ걸'의 계열 관계로 볼 수 있으며, (2ㄷ) '-ㄹ걸$_2$'는 시제 기능은 없이 [뉘우침] 내지 [아쉬움]의 양태 의미만이 나타난다. 즉 '-ㄹ걸$_2$'는 '-ㄹ걸$_1$'에서 의미 확장된 것이다.

'-ㄴ/ㄹ#걸'은 융합되기 전 단계인 축약 단계로, 이것은 하나의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걸'이 '것을'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어미로 융합되면 본래의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다음 구성은 환원이 되어도 그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어 제한이라든가 의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환원될 수 없는 형태들이다.

Collection @ uos

(3) ㄱ. 그 사인교가 가면 얼마나 갓스며 쏘 도막나무 쓷자리로 져자 ᄒᆞᄂᆞ 아희들다려 이러뎌러ᄒᆞᆫ 사인교 지나ᄂᆞᆫ 것을 보앗나냐 슬몃슬몃 물엇스면 영락업시 알 것이다 <산쳔초목 7>

ㄴ. 나ᄂᆞᆫ 건넌방으로 건너갈 것이니 뜻뜻ᄒᆞᆫ 안ㅅ방으로 드러오셔셔 몸을 녹이십시샤 ᄒᆞ고 엿쥬어 보아라 <구의산 上:16>

(4) ㄱ. 어머니々々々 인졔ᄂᆞᆫ 어머니말을 잘 드를게 이젼 어머니안테ᄂᆞᆫ 보ᄂᆡ지 마러 <눈물 337>

ㄴ. 기생 어멈: 애, 듣기 싫다. 다시는 몸 값 얘기를 아니 할게 그 죽는다는 소리 좀 마라, 응. <유성연극_어머니의 힘>

약속형 어미 '-ㄹ게'는 (3ㄱ)과 같은 '-ㄹ#것이다'의 구성이 축약·융합된 것으로, '-ㄹ#것이다' 혹은 '-ㄹ#것이야'가 '-ㄹ#거다/거야'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 미래에 대한 단정의 의미를 지닌 이 구성은 (3ㄴ)과 같이 주어가 1인칭일 때는 그 의미가 [약속]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성이 융합되면서 의미 기능이 [약속]으로 굳어지고 주어는 1인칭으로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ㄹ게'가 연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 (4ㄱ, ㄴ)은 '-ㄹ게'는 약속형 어미이다. 그러나 뒤의 접속부사가 생략되고 이 종결어미에 연결어미 억양이 얹혀 연결어미로 쓰이고 있는데, 종결어미 억양이 수반된다면 "~안 할게.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소리~"와 같이 접속부사 '그러니까'가 두 문장 사이에 삽입될 것이다. 또는 '-ㄹ게' 대신 '-ㄹ#테니(까)'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덧붙여 '-ㄹ거나'는 '-ㄹ#것인가'의 구성의 융합형으로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낸다. 이 경우 본래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거'의 기능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어감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ㄴ지고'의 경우,[175] '-ㄴ#ᄃᆞ+-이-+-고' 구성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고'는 소망, 청원의 '-고'이며 '해라'체로 감탄형 어미이다. 이 형태는 근대국어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형태이나 현대국어에서는 예스러운 표현에 쓰인다.

4.2. 인용 구성의 종결어미화

인용 구성에서 문법화된 어미는 판소리계 소설과 같은 19세기 후반 자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용 구성에서 문법화된 어미의 구조는 하위문의 종결어미 '-다/라, -냐, -라, -자'

175) "오, 참으로 가엾은지고!", "기특하도다! 나이도 어리거니, 참 많이도 읽은지고!" <국립국어원 1999>

eCollection @ uos

에 상위문의 ‘-고, -니, -니까, -며, -면서’ 등의 연결어미나, ‘-ㄴ다, -네, -나, -지, -오’ 등의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생성된 복합형태의 어미이다. 즉 간접인용 구성의 상위문 동사 어간 ‘하-’가 탈락되면서 하위문에 상위문의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인용 구문은 탈락과 축약 과정을 통하여 문법화함으로써 새로운 종결어미를 생성한다.

(5) ㄱ. 아, 先生님 妄侫이 나셧나 보고만……. 金剛山에 들어가시면, 郡守나 하나 시켜 주신다더니…… <標本室의 靑게고리>

ㄱ'. 그래 이 돈은 무엇이라고 하시던? <除夜>

ㄴ. 견무경에 슌겸들이 만이 묘혀셔 죄인을 문최헌답되다 <日韓言語合璧 270>

ㄷ. 여러 농뷔 공논ᄒᆞ고 열의 ᄒᆞᆫ 술 밥으로 한 그릇슬 두둑이 쥬니 어식 포식ᄒᆞᆫ 후 치하ᄒᆞ고 다시 보ᄌᆞ닛가 하직ᄒᆞ고 ᄒᆞᆫ 곳을 다ᄃᆞᄅᆞ니 <南原古詞 4:29ㄱ>

ㄹ. 남원 거시 네 것시오 운향고이 아름치라 네 덕의 나도 관청고ᄌᆞ나 ᄒᆞ여 거드러거려 호강 좀 ᄒᆞ여 보ᄌᆞᆺ고나 <南原古詞 1:21ㄴ>

인용 구성은 ‘하-’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5ㄱ)의 ‘시켜 주신다더니’는 ‘시켜 주신시다고 하더니’에서 ‘하-’가 생략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5ㄱ')의 ‘무엇이라고 하시던’은 ‘무엇이라시던’ 혹은 ‘뭐라시던’으로 축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는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결어미로는 볼 수 없다. (5ㄴ)의 경우도 ‘한다고 합디다’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종결어미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보ᄌᆞ닛가’의 경우 (5ㄷ)에서는 맥락상 환원되는 형태이지만, 이것은 문법화가 더 진행되면 융합형 종결어미 ‘-자니까’가 형성되기도 한다. (5ㄹ)이 그러한 경우로 ‘-자 하였구나’가 축약·융합한 형태이다.

이렇게 통사 구성이 문법화가 되면서 하나의 종결어미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이 (5)에서 확인되듯 모두 종결어미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용 구성에서 문법화된 어미는 문법화 정도에 따라 그 의미 기능이 달라지는데, 상위문 동사의 어간이 탈락됨으로써 하나의 어절로 묶였지만 통사 구성으로 환원 가능 여부는 형태에 따라 다르며 그것이 연결어미로 실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용 구성에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결합한 형태는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환원 가능한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고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실현되지만, 연결어미가 결합하였을 경우 환원되지 않는 형태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종결어미화하였다는 것은 통사 구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환원 가능 형태의 유무는 모든 인용 구성의 결합을 종결어미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Collection @ uos

의미한다. 남기심(1973)은 인용 구성, 즉 완형보문술부구성은 융합축약, 보문자축약, 절단축약의 세 가지 축약형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시 융합축약을 참된 축약형과 유사 축약형으로 나누었는데, 참된 축약은 축약 이전의 형태가 있어서 의미의 변화를 입지 않고 형태음운변화를 거쳐서 축약된 것이고, 유사 축약은 참된 축약형과 겉모양은 같되 그 근원(내부구조)이 다르다는 것이다.

문법화는 어떤 어원어가 문법화 현상을 끝까지 겪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없으므로(이성하 1998), 문법화된 어미들은 그 문법화 정도가 같지 않다. 즉 인용 구성의 문법화는 탈락과 축약 단계를 거쳐 융합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실현되는 어미가 축약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융합 단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소흔 2013). 이러한 인용 구성의 문법화 과정을 이금희(2006)에서는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176] 이소흔(2013)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이금희(2006)에서와 같이 제2유형을 둘로 나누고 있지만 '01'은 환원 가능 형태의 연결어미이고, '02'는 환원 불가능 형태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라는 것이다. 제2유형을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구분하지 않고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로 구분한 것은 융합형에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융합 단계까지 간 어미들이라 하더라도 그 전에 실현되었던 축약 단계의 어미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태에서 비롯된 어미가 축약 단계까지만 문법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융합 단계까지 문법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두 형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하(1998)은 여러 문법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계속 문법화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Hooper(1991)는 '층위화'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용 구성에서 의미 변화는 융합에 의해 일어난다. Bybee(1985)는 융합이란 음운적이면서도 의미적이어서 음운, 의미 두 영역에서 조건이 다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융합이 일어나면 그 형태는 더 이상 분석이 되지 않는다. 융합된 형태는 구조 · 기능뿐 아니라 의미도 변하는데, 인용 구성에서 의미 변화에 작용하는 문법화의 원리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

176) <제1유형>

S-다#한다{합니다/하오/하네…} ⇒ S-[다-한다] ⇒ S-다한다 ⇒ S-단다 ⇒ S-단다
재구조화 'ㅎ'의 약화 축약 융합

<제2유형>

S-다#하고{하니까/하나/하면서…} ⇒ S-[다-하고] ⇒ S-다하고 ⇒ S-다고 ⇒ S-다고01 (연결어미)
재구조화 'ㅎ'의 약화 축약 융합
⇒ S-다고02 (종결어미)

eCollection @ uos

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관화로 볼 수 있다.[177]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요소가 주관화에 의해 문법화가 될 때, 의미는 연속차선을 따라 이동하며 변화를 겪는다(Langacker 2002). 그러면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제1유형과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제2유형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4.2.1. 상위문 종결어미와의 결합 구성

종결어미와[178] 결합하는 제1유형은 '-고#하-'의 탈락·축약에 의해 생성된 어미로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나뉘는데, 환원 가능한 형태만 나타나는 어미도 있고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 나타나는 어미도 있으며 둘 다 나타나는 어미도 있다.

(6) ㄱ. 그 ᄇᆡ가 ᄂᆡ일 써난다드라 / 편지 부친 씌 긔챠가 써낫다드라 / 아비ᄂᆞᆫ 게울너도 아들은 부지런다드라 <朝鮮語五十日間獨修 55>
ㄴ. 올 년ᄉᆞ가 엇답더닛가 / 풍년이라오 <日韓會話 16>
ㄷ. 낫"치 자셰이 보시려면 ᄒᆞᆫ달이라도 부족이랍듸다 <實用日韓會話獨學 全 107>
ㄹ.「아, 그런데 乙羅 오지 안엇세요?」하며 兄嫂를 치어다 보앗다.「안요. 웨, 나왓대요?」<萬歲前>

(7) ㄱ. 일본 냥반이 셰무ᄉᆞ가 되어 ᄂᆡ려 온다고 ᄒᆞᄋᆞᆸᄂᆞ이다 <獨學韓語大成 256>
ㄴ. ᄌᆞ셰히 모르거니와 신문에셔 본즉 이십오만 명이나 된다 ᄒᆞ오 <韓語正規 206>
ㄷ. 당신은 은힝 셜시에 힘쓰신다 ᄒᆞ지요 / 낭셜이지요 <日韓韓日新會話 120>

(6)은 (7)과 같은 구성으로 환원 가능한 형태로 인용 구문이다. 그런데 (7)의 경우 자세히 보면 같은 통사 구성이지만 문맥상 나타나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ㄱ, ㄴ)는 제삼자의 말을 전하는 인용 구문인 데 비해, (7ㄷ)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 융합형 '-다지'의 의미로, 오늘날에는 '-다지'로 실현되겠지만 이 시기는 문법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의 단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만약 상위문이 과거형이라면 인용 구

177) 이원표(1999)는 인용이 주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그에 대한 개념을 인용이 가지는 재귀성과 화자 태도의 표현이라 하였다. 즉 인용은 본질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재귀성을 갖는다는 것인데, Lucy(1993)에 따르면, 직접인용이 논점을 좀 더 생생하고 권위적으로 들리게 하는 데 반해, 간접인용은 원래 사건에 대해 현 화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178) '해'체의 경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형태가 많다. 여기서 종결어미라 함은 앞에서 제시한 목록 중 연결어미와 다른 새로운 뜻을 획득함으로써 완전한 종결어미가 된 형태들이다.

Collection @ uos

문이 되겠지만 현재형으로 쓰인 (7ㄷ)의 예는 인용 구문으로 볼 수는 없다.[179] (7ㄴ)도 '알고 있는 바를 객관화하여 일러 준다'는 융합형 '-다오'의 의미로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8) ㄱ. 다섯 쳑인데 닉일 또 ᄒᆞ나 드러 온다오 <日韓會話 163>
ㄴ. 한강, 어름은, 인제, 다, 녹앗답니다 <日韓言語合璧 250>
ㄷ. 나도 맨처음에—그건 濟州道에서 募集하야 갓지만—그쌔에 五百 名 모아다 주고, 實살 고로 냄긴 것이, 八九百近千圓 돈이 드러왓다우 <萬歲前>
ㄹ. 안 : (나와 房 안을 가르치며) 方今 쟘 들엇네. 그새 오능가? (明順이를 보면서) 또 싸윗다네. 어디 말을 드러야지. <李永女>

(9) ㄱ. 우피 갑시 올낫다지오? <實用韓語學 100>
ㄴ. 봐야 알 일이지 지금 누가 리혼을 한다나요. 아무턴지 애정이라곤 눈쉽만큼두 업스니까 리혼을 할 것 갓다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8)은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 형태 모두 실현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8)의 예문은 모두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종결어미들이다.[180] 이와 달리 (9)는 환원 불가능 형태만 실현되는 종결어미들이다. 즉 '-다지(요)', '-다나(요)'는 환원 가능한 형태는 실현되지 않는다. (9ㄴ)은 [못마땅함], [귀찮음] 등의 의미가 나타난다.

환원 가능한 형태는 통사 구성의 축약형으로 하나의 어절을 형성할 뿐이지 종결어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상위문의 종결어미가 취하는 선어말어미가 축약된 형태에도 그대로 실현되기도 한다. 화자가 상위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이므로 상위문에서는 그 종결어미가 취하는 시제나 주체 높임의 요소가 결합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10) ㄱ. 배가 내일 떠난대더라. (←떠난다고 하더라)
ㄴ. 배가 내일 들어온대니? (←들어온다고 하니?)

환원 가능한 형태는 축약된 형태 사이에서 선어말어미가 교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위문의 종결어미 '-다' 또한 '-대'의 형태로 수의적 교체가 가능하다. 남기심(1973)은 '철수가 간대요' 같은 경우는 '-다 해'에서 온 것이므로 'ㅏ+ㅐ→ㅐ'가 필수적이지만 '영희가 한국에 온대니?'와 같은 경우는 '-다 하-'에서 온 것이므로 수의적으로 '-대-'가 나타나는 것은 변

179) '힘쓴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인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문 자체가 인용 구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초점은 사실 확인에 있기 때문이다.
180) (8ㄱ, ㄴ)은 문맥상 인용 구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Collection @ uos

칙적이라 하여 변이 융합축약이라 하였다. 그러나 융합으로 단일형태가 되면 '-다-'가 '-대-'로 교체될 수 없다. 교체가 가능한 것은 융합이 되지 않은, 환원 가능 형태에서만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간접인용문으로 환원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단일형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1)이 그러한 경우이다.

(11) ㄱ. 얘야, 바깥 춥다니?(↑) (←*얘야, 바깥 춥다고 하니?)
ㄴ. 요즘 왜 이렇게 춥다니?(↗)
ㄷ. 배가 왜 들어온다니?(↗)

의문형 어미 '-니'의 결합 구성은 환원 불가능한 형태도 나타난다. (11ㄱ) '얘야, 바깥 춥다니?'의 경우 인용문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소흔(2013)은, 안명철(1998)의 논의를 적용하여 '얘야, [바깥 춥다]니'에서 대괄호 안의 '바깥 춥다'는 바깥 날씨에 대해 말할 원화자, 즉 청자의 시점이고 대괄호 밖의 '얘야, …… 니'는 화자이 시점이므로 단일형태는 아니지만 간접인용문으로는 환원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81] 이와 같은 경우는 환원 가능한 형태보다 문법화가 더 이루어졌으나 단일형태로 굳어진 것보다는 문법화가 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요소가 주관화에 의해 문법화가 될 때, 의미는 연속차선을 따라 이동하며 변화를 겪는다는 Langacker(2002)의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11ㄱ)에서 더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이 (11ㄴ, ㄷ)의 '춥다니?', '들어온다니?'이다. 이것은 완전한 융합형으로 청자의 의견에 대해 반대할 때, 혹은 [놀람]이나 [못마땅함]일 때 쓰인다.

<표 7> 인용 구성과 종결어미의 결합 양상

	-다	-(이)라	-(느)냐	-라	-자
-ㅂ니다/까	(-답니다/까)	(-랍니다/까)	-냡니다/까	-랍니다/까	-잡니다/까
-었습니다/까	-댔습니다/까	-랬습니다/까	*-냈습니다/까	-랬습니다/까	-잤습니다/까
-ㅂ디다/까	-답디다/까	-랍디다/까	-냡디다/까	-랍디다/까	-잡디다
-었습디다/까	-댔습디다/까	-랬습디다/까	*-냈습디다/까	-랬습디다/까	-잤습디다/까

181) 이소흔(2013)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와 같은 예는 안성 방언권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충청도 방언형에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한영목(2008)에서는 충남 방언에 중앙어의 '-다고 하더냐?'에 해당하는 '-댜?'가 있는데, 이 형태는 인칭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순돌이가 도깨비한테 가본댜?", "*내가/니가 도깨비한테 가본댜?"와 같이 1·2인칭과는 공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보조사와 공기하는 통사 구성에서는 가능한 표현(나/너도 간댜?, 나/너만 간댜?)이라는 것이다. 이소흔(2013)은 이것은 '춥다니?'와 같은 구조라 하였다. (108ㄱ)의 예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깥'이라는 공간을 떠난 청자를 객관화한 것이므로, "바깥 춥니?"보다 "바깥 춥다니?"가 좀 더 객관화된 표현이고, 청자가 경험한 상황에 대한 형태만이 나타난 것이라 하였다.

Collection @ uos

-오/우	(-다오/우)	(-라오/우)	*-냐오/우	*-라오/우	*-자오/우
-었소/수	-댔소/수	-랬소/소	?-냈소/수	-랬오/랬수	-잤소/수
-네	(-다네)	(-라네)	-냐네	라네	자네
-었네	-댔네	-랬네	*-냈네	-랬네	잤네
-데	-다데	-라데	-냐데	-라데	-자데
-ㄴ다	(-단다)	(-란다)	-냔다	-란다	-잔다
-었다	-댔다	-랬다	?-냈다	-랬다	-잤다
-더라	-다더라	-라더라	-냐더라	-라더라	-자더라
-냐/느냐	-(다냐)/느냐	-(라냐)/느냐	*-냐냐/느냐	-라냐/느냐	-자냐/
-었냐/었느냐	-댔냐/댔느냐	-랬냐/느냐	*-냈냐/느냐	-랬냐/느냐	-잤냐/느냐
-더냐	-다더냐	-라더냐	*-냐더냐	-라더냐	-자더냐
-니	(-다니)	(-라니)	*-(느)냐니	-라니	-자니
-었니	-댔니	-랬니	*-냈니	-랬니	-잤니
-는구나/군(요)	-다는구나/군	-라는구나/군	-냐는구나/군	-라는구나/군	-자는구나/군
-었구나/군	-댔구나/군	-랬구나/군	-냈구나/군	-랬구나/군	-잤구나/군
-더구나/군	-다더구나/군	-라더구나/군	-냐더구나/군	-라더구나/군	-자더구나/군
-어(요)	(-대)	(-래)	-내	-래	-재
-었어(요)	-댔어	-랬어	-냈어	-랬어	-잤어
-네(요)	(-다네)	-라네	-냐네	-라네	-자네
-었네(요)	-댔네	-랬네	*-냈네	-랬네	-잤네
-는데(요)	-다는데	-라는데	-냐는데	-라는데	-자는데
-었는데(요)	-댔는데	-랬는데	-냈는데	-랬는데	-잤는데
-던데(요)	-다던데	-라던데	-냐던데	-라던데	-자던데
-는걸(요)	-다는걸	-라는걸	-냐는걸	-라는걸	-자는걸
-었는걸(요)	-댔는걸	-랬는걸	-냈는걸	-랬는걸	-잤는걸
-던걸(요)	-다던걸	-라던걸	-냐던걸	-라던걸	-자던걸
-거든(요)	-다거든	-라거든	-냐거든	-라거든	-자거든
-었거든(요)	-댔거든	-랬거든	-냈거든	-랬거든	-잤거든
-걸랑(요)	-다걸랑	-라걸랑	-냐걸랑	-라걸랑	-자걸랑
-었걸랑(요)	-댔걸랑	-랬걸랑	-냈걸랑	-랬걸랑	-잤걸랑
-ㄹ까(요)	(-달까)	(-랄까)	-냘까	-랄까	-잘까
-게(요)?	-다게	-라게	*-(느)냐게	-라게	-자게

Collection @ uos

-었게(요)?	-댔게	-랬게	*-(느)냈게	-랬게	-잤게
-었지(요)	-댔지	-랬지	-냈지	-랬지	-잤지
-었나(요)	-댔나	-랬나	-냈나	-랬나	-잤나
-지(요)	((-다지))	((-라지))	-냐지	-라지	-자지
-나(요)	((-다나))	((-라나))	*-냐나	-라나	-자나

위의 <표7>은[182] 현대국어의 인용 구성과 종결어미 결합 양상을 정리한 것으로 상위문의 경우 서술어가 동사이므로 현재 시제를 필수적이어야 하는 형태에서는 '-ㄴ-'를 동반한다. '-느-', '-었-', '-더-' 등이 결합한 형태는 축약될 수 있는데 이 세 형태를 따로 제시한 것은 그 양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183] 또한 상위문의 종결어미가 같다고 할지라도 하위문의 종결어미가 평서형일 때와 의문형, 내지 명령·청유형의 결합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명령·청유형 어미에서는 평서형 어미에 비해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환원 가능한 형태는 제약이 많지 않다. 발음이 겹쳐서 발음하기 쉽지 않거나 의문형 어미가 그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연달아 있거나 1인칭과 공기해야 하는 어미 외에는 축약 형태로 쓰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소서체에도 축약 가능한 형태들이 있고, '하게'체, '해'체로 쓰이는 '-ㄴ가'는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는가/었는가/던가'로 축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에 나타났던 '합쇼'체 역시 '모른답세요'와 같은 축약 형태가 나타난다.

의문형 어미의 경우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음상에서 오는 이유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84] 상위문에도 선어말어미 없이 의문형이 오면 의문형 어미가 연달아 오는 형태도 축약이 잘 안 일어난다. 또한 하위문의 평서형 어미에서 융합이 일어나도 의문형 어미와 명령·청유형 어미에서는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소위 감탄형 어미로 분류되는 '-구나/군(요)', '-네(요)'의 경우는 축약이 일어나나 '-도다'의 경우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용문에서는 감탄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구나/군(요)', 그리고 '해(요)'체인 '-네(요)'와 같은 경우는 감탄의 기능이 실현되었다기보다 양태 의미만 가진 평서형 어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감탄 수행 억양도 놓이지 않는다. '-거든'과 '-걸랑'은 선어말어미 '-느-', '-더-'는 결합이 안 되므로 축약 형태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거

182) 괄호 안의 형태는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가 다 실현되는 형태이고, 두 개의 괄호(())는 환원 불가능 형태만이 실현되는 것이다.

183) 주체 높임 '-시-'는 환원 가능한 형태라면 자유롭게 결합되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184) 간접인용에 쓰이는 의문형 어미 '-(느)냐'는 '냐'에 '-었-'이 축약되면 '냈'이 되어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운의 구분도 쉽지 않다.

Collection @ uos

들랑'의 경우 축약형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준말인 '-걸랑'으로 실현된다.

'해'체의 '-게'와 '-었게'의 경우 축약형이 평서형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집에 오라게?"와 같이 의문형만 실현된다. 왜냐하면 평서형 '-게'는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1인칭하고만 공기하기 때문이다. 간접인용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겠-'과 마찬가지로 축약이 되면 하나의 어절을 이루어 한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축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문형 어미 '-게'의 경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문맥에 따라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의미에 따라 억양이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축약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2) ㄱ. 「오는 길에 神戶에 들럿더니, 부덕﹏ 가치가 자는 것 쎄버리고 왓는데, 二三日 後에는 써나겟다든데요」하며 나도 웃어 보이엇다. <萬歲前>

ㄴ. 요사이 셔울셔 ᄂᆡ려온 지 몃칠 안이된 사ᄅᆞᆷ이 잇다ᄂᆞᆫᄃᆡ 인물이 ᄆᆡ우 도져ᄒᆞ다던데 여보게 그런사ᄅᆞᆷ이 과연 잇ᄂᆞᆫ지 한번 보랴면 못 될가 <모란병 56>

ㄷ. 도홍이란 한낫 녀성의 일홈이 그에게 이처럼 큰 힘을 늣기게 하는 것을 누가 아니라고 하라는가?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ㄹ. 「안일세. 千萬에 金議官이 그런 것은 변々히 이 약이나 한다든가」하며 말을 막앗다. <萬歲前>

ㅁ. 「래일 두 분을 데리구 와 달라데. 아츰이든지 오후 한 시에…… 라 군! 갈 테지?」명수는 잠잣고 무슨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니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ㅂ. 「별 소리 아니애요. 안 씨하구 약혼을 햇다니 정말이냐고 순자 씨더러 뭇드라드군요」「그래 무어라구 햇대요」<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ㅅ. 여보시오 그 ᄉᆞᄅᆞᆷ이 셔울셔 무엇ᄒᆞ던 ᄉᆞᄅᆞᆷ으로 인쳔으로 ᄂᆡ려왓ᄃᆡ오 <모란병 56>

ㅅ'. 「이걸 드리릿가?」하며 옷을 내미릿다. 「그건 웨 날 주신대우?」<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13) ㄱ. 형「글셰 정진이 소원이 그러ᄒᆞ다네 신식으로ᄒᆞ면 엇더케 ᄒᆡ야 좃케ㅅ나」<금강문 180>

ㄴ. 官九: (족긔 쥬머니 속에서 게이도로 만든 돈지갑을 내여서 악가운 듯이 돈을 짜랑 그리며) 악까 그 사람하고 엄마 어대 갓대여?

안: 왜, 어대 갓능가 갈쳐쥬면 나 떡 사쥴내?

官: 글새 어대 갓대여. 또 늣게 나 쟘 쟌 뒤에 드러 온대여? <李永女>

(12)는 환원 가능한 형태로, (12ㄴ, ㄷ, ㄹ)은 호칭어 등을 통해 '해'체가 아닌 '하게'체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ㅅ, ㅅ')은 '내려왔다오'의 '-다오', '주신다우'의 '-다우'가

Collection @ uos

수의적 이형태인 '-대오', '-대우'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12ㅂ)에 나타난 '햇대요'와는 다른 구성이다. 즉 '햇대요'는 '했다고 해'의 축약형이므로 수의적 형태가 아닌 '-대'는 필수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13)은 어느 정도 문법화 단계가 이루어진 형태인데, (13ㄱ)은 인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융합형인 '어떤 사실을 일러 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13ㄴ)에서 '갓대여'와 '온대여'의 문법화 정도는 다르다. '갓대여'의 '-대'는 엄마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행적을 인용 구성을 통하여 묻는 것이므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문법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제삼자가 직접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제삼자의 행동을 통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온대여'는 '온다고 해요' 축약형이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그런데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들은 인용 구성에서 융합 후 종결어미화한 것인지, 종결어미화한 어미가 융합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즉 문법화의 단계가 축약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축약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축약 전의 인용 구성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종결어미화한 형태가 인용 구성에 결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환원했을 때에 상위문의 어미가 연결어미의 본래 의미 기능이 아닌 종결어미화됐을 때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종결어미 구성인 제1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2ㄱ, ㄴ)에서 상위문의 종결어미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ㄴ데$_2$', '-거든$_2$', '-걸랑$_2$', '-게$_2$'는 환원 가능한 형태만 나타난다.

융합은 주로 평서형에서 이루어지는데 '하십시오'체의 '-답/랍니다', 하오체의 '-다/라오', 하게체의 '-다/라네', '해라'체의 '-단/란다', '해'체의 '-대/래', '-다/라네' 그리고 의문형 어미 '-달/랄까'는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 모두 나타나는데, '-느-'를 제외하고 다른 선어말어미가 개입한 것은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지'와 '-다나'의 경우 평서형 '-다지', '-다나'는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이 실현된다.

(14) ㄱ. 「金議官은 웨 또 와 잇세요?」하며 어머니께 무러 보앗다. 「집을 뺏기구 妾하고 헤어진 뒤에 벌서부터 와 잇단다」 <萬歲前>

ㄴ. 「그 집이 지금 말이 안이 되엇지. 웬만큼 가젓든 것은 노름을 해서 업샛겟니만은, 崔氏가 作故하기 前에 벌서 다 짜불려 버렷지. ……只今 데려온 저것이 그의 둘째 쌀이란다. 어렷슬 젠 너두 보앗슬썰?」 <萬歲前>

ㄷ. 「아니라네. 조선 에리싸배쓰 녀왕뎐하(女王殿下)께 조선 텰학자(哲學者) 쎄칼트가 바친 책이라네」 하며 명수가 또 새룽새룽 우섯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Collection @ uos

ㄹ. 「누가 아우? 차지가 또 왓단다우」 하며 깔々 웃엇다. <萬歲前>

ㅁ. 「그동안에 난 죽엇답니다」 하며, 풀업는 웃음을 일부러 보이엇다. <萬歲前>

ㅂ. 안애요. 너머 조아서 보채 보는 수작이랍니다. 사람이란 너머 조흐면 복바처나오는 웃음을 감추랴고 짜증을 내어 보고 십흔 법입네다 <해바라기>

(15) ㄱ. 학비가 넉넉지 못하다나요. ......처음에는 밥갑시 비싸서 못잇겟다고 한 달만 잇다가 써나랴는 것을 밥갑 나려 줄게 그대로 잇스라고 하얏다가 <宿泊記>

ㄴ 「응, 참 溫突이란 게 잇다지」 村쑥이가 이러케 말을 하니까, 나하고 마조 안젓는 者가, 암상스러운 눈으로 그者를 맑음언히 치어다 보더니, <萬歲前>

(14)와 (15)는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융합형이다. (14ㄹ)은 '왓다고 한다 하오' 세 형태가 결합된 것으로, '왓단다'는 환원 가능 형태이지만 '-다오'는 환원 불가능 형태이다. (15)의 '-다나', '-다지'는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 나타나는 융합형 종결어미이다.

(16) 「그런데 웬 일이요? 어디 시골 가서 농촌 사업 하신다고?」 하고 임이 숭에게 묻는다. <흙 2:220>

'-고'의 경우, 환원 가능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융합된 어미가 종결어미 '-고'인지 연결어미 '-고'인지 또한 인용표지의 '-고'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융합되기 전의 형태를 유추하여 보면 (16)의 '-고'는 종결어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해'체의 '-ㄹ래'는 '-리라'에서 비롯된 '-ㄹ라'가 '-고'와 융합하여 '-을라고'로 파생되고 다시 '해'가 결합하여 축약된 형태이다. 이 형태들은 융합된 형태로만 나타나고 간접인용의 의미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결어미와의 결합 양상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4.2.2. 상위문 연결어미와의 결합 구성

연결어미와[185] 결합하는 제2유형도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로 나뉜다. 그런데 연결어미와 결합하는 제2유형은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제1유형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제2유형은 두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연결어미로 남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결어미화한

185) '해'체의 경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형태들이 많은데, 연결어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완전한 종결어미가 된 형태 이외의 종결적 용법을 하는 어미들은 연결어미의 의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처리한다. 또한 종결어미화된 것은 종결어미로서가 아닌 본래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로 제시한다.

Collection @ uos

것이다. 종결어미화하였다는 것은 연결어미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형태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용 구성에 나타나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형태들은 제1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형태의 종결어미들인 '-ㄴ데$_2$', '-거든$_2$', '-게$_2$', '-걸랑$_2$'은 환원 가능한 형태만 나타난다. 그런데 이보다 이른 시기에 종결어미가 된 '-어'와 '-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어'의 경우 명령·청유형 어미는 환원 가능한 형태만 나타나지만 평서·의문형 어미는 "일이 왜 이렇게 많대."[186]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실현되는 데 반하여, '-지'는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이 나타난다. 즉 '-어'와 '-지'의 환원 불가능 형태는 종결어미 '-어'와 '-지'가 인용 구성과 결합하면서 융합된 것이다. 그러나 연결어미로서의 '-지'는 "일이 많다지 그랬니."와 같이 '-다(고) 하지'로 환원 가능한 연결어미로만 실현되고 연결어미 '-어'는 축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접인용도 '-어서'로 쓰이지 연결어미 '-어'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17)의 예는 연결어미가 인용 구성에서 축약된 것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17) ㄱ. 아니 뭐 사삭을세를 안 낸대서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오늘부터 잘 데가 없고 이 방을 꼭 써야 하겠기에 <따라지 295>

ㄴ. (평)엇다 셰어 볼 것 업다 어셔 가지고 나가 보아라 만일 젹다거든 ᄂᆡ게와 물어볼 것 업시 져 달나ᄂᆞᆫ 대로 얼마던지 더 주마고 ᄒᆞ지 푸셩귀 흥졍ᄒᆞ듯 졸으고 잇지 말아라 <빈상셜166>

ㄷ. 어졔 저녁부터 오날 식젼까지 사면팔방으로 슈소문을 ᄒᆞ얏스나 다 젹확지 못ᄒᆞ고 그 즁에 밋어 움직ᄒᆞᆫ 것은 집에 늘 드나드ᄂᆞᆫ 동ᄃᆡ문 박 당것 장사가 식젼에 문안 드러오다가 홍릉 나가ᄂᆞᆫ 젼차를 타고 가ᄂᆞᆫ 것을 보앗다ᄂᆞᆫ데 혼자도아니오 제압헤셔 부리던 계슌이와 갓치 가드라ᄂᆞᆫ 걸이오 <재봉춘 756>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형태들은 종결어미로도 기능을 하고 연결어미로도 기능을 하므로 제1유형과 제2유형이 모두 실현된다. 그러나 완전한 종결어미가 되지 않았지만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어미들은 제1유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인용 구성에 쓰인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ㄴ데$_2$', '-거든$_2$', '-게$_2$', '-걸랑$_2$'과 같이 종결어미화한 형태가 인용 구성에서 축약되는 것과 달리, 연결어미가 인용 구성에서 축약 후 융합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어미 구성인 제2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종결어미화한 것이 인용 구성에 결합되어 융합된 것과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융합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융합되기 전 단계

186) '일이 많대?'를 의문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순수의문은 아니고 수사의문으로, '일이 많다'는 일종의 푸념, 못마땅함, 놀람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에서 환원시켜 보면 알 수 있다. 즉 축약 단계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살피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니'의 경우, 제1유형과 제2유형이 모두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미 '-니' 자체가 다른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제1유형에 실현된 종결어미 '-니'는 '해라'체의 의문형 어미 '-니'이고 제2유형에 실현된 '-니'는 연결어미이다. 그러므로 제1유형은 '해라'체이고 '-요'는 결합되지 않지만 제2유형은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어미들이 '해'체로 묶인 것과 같이 이 역시 '해'체이고 '-요' 결합도 가능하다(이소흔 2013).

(18) ㄱ. 글세 그래두 일즉이 갓다가 래일 밤 안으로 오세요. 나는 곳 써나야 할 일이 잇스니요. <너희들을 무엇을 어덧느냐>
ㄴ. 父 : 쥬림 잡힌 이 얼굴, 왼갓 世上의 艱難辛苦를 격구 왼갓 世上의 現實의 길을 기내온 나를 좀 바로 쳐다 보렴. 보면 네 어미란 것과 갓히 안져서 날 辱하지 안을 터이니. <難破>

(19) ㄱ. 인싱이 칠십 사ᄂᆞᆫ 거시 녜로붓터 드물다ᄂᆞᆫ 말인ᄃᆡ 남은 칠십을 살기도 어려온ᄃᆡ 이 거슨 칠십이 넘어 ᄉᆡ로이 쟝가를 든다니 그게 ᄎᆞᆷ 어려온 일이 아니냐 <힝낙도 61>
ㄴ. 모「오 낫다니 다힝ᄒᆞ다 거긔도 집이나 다름 업지마ᄂᆞᆫ 문 밧기 셔울만 ᄒᆞᆯ 슈 잇ᄂᆞ몸 압흔 ᄊᆡᄂᆞᆫ 집만 ᄒᆞᆫ 데가 업ᄂᆞ니라」<안의성 96>

(20) ㄱ.「버금差ㅅ字하고 지탕支ㅅ字의 差支를 몰라?」하며 또 웃엇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그래 差支라니?」하며 덩달아 웃엇다. <萬歲前>
ㄴ. 또 쓰다니요. 즉접 분명한 탐색을 해 보지도 안코 남의 말만 듯고서야 어써케 써요. <檢事局待合室>
ㄴ'.「그앤 읍내로 잡혀갔다우!」「잡혀갔다뇨?」영신은 목소리 뿐 아니라 몸까지 오들오들 떨렸다. <常綠樹>

(21) ㄱ. 조곰만 더 참으렴 또 네가 定處업시 간다니 가면 어데로 가니? <젊은이의 시절>
ㄴ. (침모) 돈을 쥬다니 웃더케 쥰단 말린가 <洗劍亭 94>

제2유형 '-다니'에 결합하는 연결어미 '-니'는 오늘날 종결어미적 용법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연결어미에도 결합할 수 있는 '-요'도 결합되지 않지만, 20세기 초에는 종결적 용법으로도 쓰이고 '-요'와 결합된 형태도 나타난다. (18)과 같은 예는 오늘날에는 대부분 '-니까'로 대체되었으나 융합형 어미 '-다니'는 종결어미화되어 평서형, 의문형으로 모두 실현되고 '-요'도 결합 가능한 형태가 오늘날에도 유지된다.

(19)는 연결어미 '-니'가 결합한 연결어미로서의 '-다니'이고 (20)은 연결어미 '-다니'가

Collection @ uos

문법화 단계를 거쳐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연결어미 '-다니'는 '장가를 든다고 하니'와 같이 환원이 가능하지만 종결어미 '-다니'는 [놀람], [확인] [감탄] 등의 양태 의미를 가진다.[187] 그리고 (19)와 같이 축약 단계일 때에는 현재에는 반드시 '-느-'가 결합하지만 융합형에는 '-느-'의 결합은 수의적이다. (21)은 융합형이지만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이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형태들이다.

(22) ㄱ. (슈)우ᄋᆡ 여긔 온 지가 오ᄅᆡ지 <u>안이ᄒᆞ엿다면서</u> 벌셔 또 엇의로 갓나 <모란병 57>
　　ㄴ. (평)복단이ᄂᆞᆫ 보지도 <u>못힛다며</u> 신은 어셔 가지고 왓단 말이냐 <빈상셜 273>

(23) ㄱ. 「……아 폐백을 <u>드린다면서요?</u>」 누의도 생긋 우스며 이마에 매인 면사포의 슨알에로 느러진 머리카락을 자긔 손으로 다듬어 올리엇다. <해바라기>
　　ㄴ. (평)등불도 업시 <u>왓다며</u> 그년 죽은 송장인지 엇지 아라 그년이 무엇이 뭇맛당히 죽ᄂᆞᆫ단 말이냐 <빈상셜 148>

이와 달리 '-다면서', '-다며'의 경우는 평서형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의문형 어미로만 나타난다. '-다면서'는 '-다고 했으면서'의 축약형이고 '-다며'도 '-다고 했으며'의 축약형인데, 여기서 '-며'는[188] '-면서'의 준말이다. 다만 '-다니', '-다면서', '-다며' 모두 의문형으로 실현될 때에는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22)는 환원 가능한 연결어미로서의 '-면서$_1$', '-며$_1$'이고, (23)은 환원 불가능한 종결어미이다. '-다면서$_2$'와 '-다며$_2$'도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23ㄴ)이 그러한 경우이다.

'-고'의 경우는, 다른 연결어미의 경우 인용 구성과 결합 시 연결어미면 환원 가능한 형태도 실현되지만 -고'는 그렇지 않다. 종결어미화한 '-고'의 경우도 결합하게 되면 인용 구성과 다시 융합하여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이 실현되고, 연결어미 '-고'의 경우도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이 나타난다.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 결합과 같이 '-고'가 연결어미의 '-고'인지 종결어미의 '-고'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융합되기 전의 형태 '-다 하고'를 유추해 보면 연결어미의 '-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특히 연결어미의 경우 인용표지의 '-고'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187) 제1유형 '-다니'는 급히올림조(↑)를 수반하는 순순의문문이다. 이에 반해 제2유형 '-다니$_2$'가 실현되는 의문문은 올림조(↗)를 수반하는 수사의문문으로 [확인], [놀람], [감탄] 등의 의미를 가지며 평서문으로도 실현된다(이소흔 2013).

188) 여기서 말하는 '-면서'의 준말은 '-며$_2$'이고, 나열의 '-며$_1$'은 '-면서'와 관련이 없다. '-며$_1$' 역시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고 '-요'도 결합되지 않는다.

eCollection @ uos

보지 않을 수 없다. 안주호(2003)에서 직접인용표지 ‘ᄒᆞ고’는 18, 19세기에 비언해문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189] 이규호(2006)에서도 ‘…이라 ᄒᆞ고’가 발달하여 ‘…이라고’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것이 최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 역시 18세기, 19세기이라 하였다.[190] 이 둘의 논의를 참고를 하면 인용표지의 출현은 18세기에 시작하여 19세기를 넘어 20세기 전반기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인용문에 결합한 ‘-고’는 인용표지라기보다 ‘ᄒᆞ-’의 활용형이라 하겠다.

(24) ㄱ. 오직 나ᄂᆞᆫ 너희게 닐ᄋᆞ노니 형뎨의게 노여워 ᄒᆞᄂᆞᆫ 이마다 죄ᄅᆞᆯ 면ᄒᆞ기가 어렵고 ᄯᅩ 누구던지 형뎨ᄅᆞᆯ 라카 미련ᄒᆞ다고 욕ᄒᆞᄂᆞᆫ 말ㅣ라 ᄒᆞ면 공회ᄅᆞᆯ 면ᄒᆞ기가 어렵고 ᄯᅩ 누구던지 모레 밋쳣다고 욕ᄒᆞᄂᆞᆫ 말ㅣ라 ᄒᆞ면 디옥 불을 면ᄒᆞ기가 어려오리라 <신약젼셔 마 5:22>

ㄴ. (김) 누가 무슨 고집이 잇다고 어둔 밤에 홍독ᄀᆡᄂᆡ 밀 듯 말을 ᄒᆞ오 <화셰계 121>

ㄷ. (변)실슈ᄒᆞ엿다고 ᄒᆞᆫ 밧게 더 엇더케 ᄒᆞ라고 이리ᄒᆞ시오 <황금탑 471>

ㄹ. 카-로노메: 必要는 업지요. 그럿치만 그 者가 듯기만 하면 (가슴을 쥐며) 아 별이 떨어젓다구! (벌벌 떤다) <難破>

(25) 이런 이면 불안당은 쳐음 보겟네 셰살 젹부터 무당질을 ᄒᆞ야도 목독이라ᄂᆞᆫ 귀신은 못 보앗다고 ᄂᆡ가 외입ᄒᆞᆫ 지ᄂᆞᆫ 몃 ᄒᆡ 못 되엿셔도 밤식도록 남의 계집 ᄶᅵ고 자고 ᄉᆡᆼ떼 쓰ᄂᆞᆫ 이 짜위 화상은 쳐음 보네 <황금탑 74>

(26) 「그런데 웬 일이요? 어디 시골 가서 농촌 사업 하신다고?」 하고 임이 숭에게 묻는다. <흙 2:220>

(24)는 연결어미 ‘-다고’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고’는 환원 가능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4ㄱ)은 (24ㄴ, ㄷ, ㄹ)에 비해 문법화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환원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이 역시 환원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25)는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축약·융합한 형태이나 (26)은 종결어미 ‘-고’가 인용 구문에 결합하여 다시 융합한 형태이다.

앞에서 제시한 목록을 토대로 결합 양상을 살피면, 먼저 상위문 서술어에 간접인용인 ‘-고

---

189) 제3형식도 중세국어에서는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아무 표지 없이 직접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대국어에서는 피인용문과 인용동사 사이에 ‘-고/ᄒᆞ고/라고’ 등의 표지가 개입되어 연결된다(안주호 2003).

190) 이규호(2006)에서는 ‘이라고$_{1-4}$’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들이 최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이라고$_1$’은 『種德新編』(1758), ‘이라고$_2$’는 『독립신문』(1896), ‘이라고$_3$’는 『신학월보』(1901), ‘이라고$_4$’는 『순천김씨묘간찰』(1565)로, 특히 ‘이라고$_1$’과 ‘이라고$_4$’는 『일동장유가』(1764)에서부터 다수 출현함으로 18세기 중엽부터 등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직접 인용 용법으로 쓰인 것은 1920년대에 가서야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하-' 구성으로 잘 쓰이지 않는 것이 있다. '-게' '-려고', '-러', '-느라(고)' '-도록' '-게끔'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 지시가 없는 '하-'보다는 주로 구체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말하-'가 연결되므로 축약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든지'의 준말인 '-든'은 축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결어미 '-어'는 '-어서'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다가'는 준말 '-다'로는 간접인용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간접인용에 사용되는 어미를 보면, '-ㄴ데', '-거든', '-걸랑', '-면서', '-어서', '-다가', '-지마는/지만', '-니까/깐', '-면', '-길래', '-니', '-며' 정도이다. 이 중에 '-다(느)ㄴ데', '-다거든', '-다걸랑', '-대서', '-다가', '-다지마는/만', '-다면', '-다든가', '-다든지', -'다길래'는[191] 환원 가능한 형태$_1$만이 나타나므로 연결어미로만 실현된다. '-면'이 종결어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종결어미화된 것이 아니라 앞의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연결어미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다고', '-다면서', '-다면', '-다니까/깐,' '-다니', '-다며'는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 둘 다 실현되므로 형태$_1$과 형태$_2$로 나누어진다. 환원 가능한 형태$_1$은 연결어미로만 실현되며 환원 불가능한 형태$_2$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실현된다. 형태$_1$과 형태$_2$를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로 나눈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융합형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실현되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연결어미의 경우 후행문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용 구성 종결어미화의 경우 '하-'가 탈락한 형태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가 탈락되어 형성된 형태가 인용 구성 외에도 더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4.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3. '하-' 결합 구성의 종결어미화

Bybee et al.(1994)는 화자 지향적 양태의 인식적 의미는 동작주 지향적 의미(주어 지향적)가 있는 조동사의 문법화를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공식이 한국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박재연(2006)은, '-으려고 하-'나 '-어야 하-'와 같은 우언 형식은 주어 지향적 양태의 성격을 가지고 '-겠-'이나 '-을래' 등과 같은 굴절 형식(어미)은 화·청자 지향적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세국어에서 'ᄒᆞ-'는, 앞의 단어와 결합되면서 'ᄒᆞ-' 내지 'ㆍ'가 탈락되는 일이 자주 있었

191) 내포문 서술어에 종결어미 '-다' 외에도 '-냐', '-자', '-라' 그리고 연결어미 '-려'가 올 수 있다.

Collection @ uos

으나 완전한 어미로 굳어진 것은 아니었다. 근대국어에서는 ‘아니ᄒᆞ다’가 ‘않다’로 변화를 입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어미가 생성되었다기보다 형태가 변화를 겪은 축약형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하다’가 여전히 쓰일 뿐만 아니라 의미 역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오면 ‘하-’가 탈락함으로써 새로운 어미가 생성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바로 ‘-어야지’, ‘-어야겠다’, 그리고 ‘-련다’이다.

(27) ㄱ. ᄂᆡ가 당신 ᄒᆞ자ᄂᆞᆫ ᄃᆡ로 다 ᄒᆞᆯ 것이니 당신도 나의 소원ᄒᆞᄂᆞᆫ 바를 드러 쥬어야지 그러치 안으면 이 자리에서 모진 목숨이 ᄭᅳᆫ어지기 젼에ᄂᆞᆫ 허신을 못 ᄒᆞ겟소 <빈샹셜 595>

ㄴ. 자- 인졔는 져녁을 먹어야지 오ᄂᆞᆯ 과ᄌᆞ 한 봉지만 가지고 종일 단엿드니 ᄃᆡ단히 시쟝ᄒᆞ여...... <두견셩 5>

(28) ㄱ. 기생 어멈 : 할멈, 왜 이리 수다한가? 오겹아, 오늘은 내가 기생 어멈 노릇을 좀 톡톡히 해야겠다. 네 몸 값을 좀 받아내야겠어. <유성연극_어머니의 힘>

현대국어 ‘-어야겠다’, ‘-어야지’는 융합형이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미 또한 달라진다. 그런데 ‘-어야지’는 ‘-어야’에 종결어미 ‘-지’가 결합하여 융합한 형태로 하나의 형태소로 보아야겠지만 문제는 중간에 ‘-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어야겠다’는 ‘-어야다’는 실현되지 않고 중간에 선어말어미 ‘-겠-’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만 실현되고 분석될 수 있으며 청자대우법의 ‘-습니-’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현대국어에서 ‘-어야겠다’, ‘-어야지’로 실현될 만한 것들이 ‘-어야 하겠다’, ‘-어야 하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192)]

(29) ㄱ. 위조물건이 만이 드러오다 ᄒᆞ니 조심ᄒᆞ여야ᄒᆞ깃소 <獨學韓語大成 190>

ㄴ. 비가 개면, 츌입을 ᄒᆞ야ᄒᆞ갯소 <日韓言語合璧 247>

ㄷ. 제다가 次次 스토—프도 드려노코, 손님이 오시면, 좀 들어안저서, 술盞이나 난호도록 하여야하겟지마는, ... <標本室의 靑게고리>

(30) ㄱ. 비가 올지라도 가야ᄒᆞ지 <日韓韓日新會話 85>

ㄴ. 그 ᄎᆡᆨ을 보랴다가 암만 구ᄒᆞ니 잇셔야ᄒᆞ지 <朝鮮語五十日間獨修 85>

192) ‘-어야겠다’에서 대개 띄어쓰기 오류가 ‘-어야 겠다’로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보아 언중의 인식에 어절 경계가 ‘-어#야겠다’가 아닌 ‘어야#겠다’라 하겠다. 그것은 이것의 구성이 ‘-어야 하겠다’, ‘-어야 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uos

일반적으로 '-어야'가 가지는 의미는 [조건]이다.[193] 그런데 이것은 동사 '하다'와 연결되면 의미 기능은 [조건]이 아닌 [의무]가 된다. 즉 '하다' 이외의 동사나 형용사와 연결되는 '-어야 V'와 '-어야 하-'의 의미 기능이 다르게 실현되며, '하다'에 의해 당위성이 나타난다. 다른 선어말어미나 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는 '하'가 탈락하지 않는 데 비해 '-겠-'이나 '-지'와 결합 시 '하-'가 생략되는 것은 '-겠-'과 '-지'가 가지는 양태 의미 때문에 가능하다 하겠다.

현대국어에서 '-어야 하겠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잘 쓰이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발화가 아닌데,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나던 '-어야 하겠다'의 의미는 축약형인 '-어야겠다'로 이어진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도 특수한 경우이지만 '-어야 하겠다'로 쓰이는데 이것과 '-어야겠다'는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다만 '-어야 하겠다'가 '-어야겠다'보다 청자를 염두에 둔 발화이면서 당위성이 보다 강하게 실현된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야겠다'가 '-어야 하겠다'로 환원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어야 하지'는 '-어야 하겠다'와 마찬가지로 '-어야지'보다 당위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데 반하여 '-어야지'로 축약이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 즉 '-어야지'는 동의를 구하거나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194] '-어야 하지로' 환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겠-'이 삽입되면 '-겠-'이 지닌 의미로 인해 '-어야지'가 갖는 융합성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도 '-어야지'보다 '-어야 하겠지'에 가깝다.

(31) ㄱ. 선형이야 적어도 오 년은 잇서야겟지 <無情 2:413>
ㄴ. 벌써 연판을 떠 넘겼는데 배달이 몇이나 모였어야지. <永遠의微笑 009>

'-어야' 다음에 선어말어미 '-겠-'만 결합되는 것은 '-어야'가 가진 의미에서 비롯된다. 연결어미 '-어야'가 가진 의미는 [조건] 내지 [의무]이고 그 의미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뒤에 결합하게 되는 요소는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가 오려면 서술어가 분리되어 '하-'가 실현되어야 한다. '-어야겠다'는 '-겠-'이 탈락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야' 앞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야(겠)지'의 경우, "했어야(겠)지."와 같이 '-어야-' 앞에 '-었-'이 결합 가능하다.[195]

193) 조건 외에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부정어와 함께 쓰일 때 '아무리 가정하여도 영향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
194)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상대편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동의를 구하는 뜻'과 '독백 투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냄'으로 정의하고 있다.
195) 그런데 요즘에는 다른 종결어미에서도 '하-'가 탈락하는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저녁엔 혼자 가게 열어야고"와 '-어얀다', '-어야고' 등과 같은 오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Collection @ uos

(32) ㄱ. 아, 先生님 妄侫이나셧나보고만……. 金剛山에 들어가시면, 郡守나 하나 시켜주신다더니…… <標本室의 靑게고리>

ㄴ. 그 ᄇᆡ가 ᄂᆡ일 ᄯᅥ난다드라 <朝鮮語五十日間獨修 55>

(33) ㄱ. 李氏 : 온 얙이는 ᄯᅩ무슨애기야 할아버님 便히점 누어게시게 조신히점 안졋스라닛가 <희곡_除夕>

ㄴ. ……아 폐백을 드린다면서요? <해바라기>

이렇게 '하-'가 탈락되어 나타나는 어미는 4.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체적으로 간접인용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간접인용에 쓰이는 종결어미 '-다/라, -냐, -자, -라' 다음에 '하-'가 탈락되고 어미가 결합된 구성으로, 융합 정도에 따라 환원 가능 형태와 불가능 형태가 있다. 간접인용문 다음에 결합되는 어미는 주로 어말어미이다. 그러나 (32ㄱ)과 같이 하위문에 '-더-'나 '-었-' 등의 선어말어미가 연결된 경우가 있다. '-다더라/-다더라고(요)', '-답디다', '-다더냐', '-다는데'가 이와 같은 구성인데, 이중 '-다더라', '-다더라고(요)'는 선어말어미 '-더-'가 결합된 경우이고, '-답디다'는 선어말어미 '-ㅂ디-'가 결합한 경우로 이것도 역시 선어말어미 '-더-'가 포함되어 있다.

현대국어 '-더-'는 종결어미와 결합에서 제약이 있어 '-더라', '-더이다', '-습디다', '-더냐', '-디', '-더이까', '-습디까'와 같은 양상으로만 실현된다. 즉 '-더-'와 직접 결합 가능한 종결어미는 평서형 어미 '-다', 의문형 어미 '-냐'뿐이다. '-더이다', '-더이까'는 하소서체의 평서형과 의문형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이-'가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시적인 분석을 하면 '-더-+-이-+-다/까'로 '-더-'가 직접 결합하고 있는 것은 선어말어미로서의 '-이-'이다. '-더라'는 '-다'가 '-더-' 뒤에서 '-라'로 실현되던 것이 그대로 굳어진 형태이다. 결국 현대국어에서는 '-더라', '-디' '-더이다/까', '-습디다/까'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다더라'와 같은 경우 인용문 뒤에 어말어미가 결합하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더냐'의 경우는 다르다. '-냐', '-느냐'가 있으므로 '-더냐'에서 '-더-'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는데'는 하위문에 동사만이 아니라 형용사에도 결합되고 또 선어말어미 '-었-', '-느-', '-겠-' 모두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문에서 과거로 '-ㄴ데'가 쓰이지 않으므로 어말어미가 바로 결합될 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위문 과거로 '-댔는데'와 '-다던데'가 사용된다. 그러므로 '-다더냐', '-다는데', '-댔는데', '-다던데'의 경우는 인용문 뒤에 바로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미류는 환원되지 않는 융합형 어미 '-어야겠다', '-어야(겠)지'와 달리 융합

Collection @ uos

형이 아니므로 환원 가능하다.[196] 그렇기 때문에 상위문에도 선어말어미가 결합할 수 있는 것이고 본래의 구 구성과 축약 형태는 의미 차이도 없다. 다만 '하-'가 탈락한 구성보다 '하-'가 실현되는 통사 구성에서 상위문 서술어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환원 가능한 인용 구성은 하나의 종결어미라 볼 수 없다.

이 외에 '하-'가 탈락한 것으로 '-려 하-'가 있다. '하-'가 생략되어 '-련다', '-려나', '-려느냐', '-려는데' 등으로 나타난다. 동사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하-'가 실현되는 구성에서는 앞의 '-어야 하-'와 마찬가지로 좀 더 당위성이 부여될 뿐 의미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축약되면서 인칭 제약이 생긴다. 또한 평서문보다 의문문에서 융합 정도가 더 강하게 실현되는데, 의문문 '-려-' 구조가 '-려 하-' 구조로 바뀌면 'V-려'보다 뒤의 '하다'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34) ㄱ. 도련님이 이졔 가시면 언졔나 오시랴 ᄒᆞ오 ᄐᆡ산즁악만강봉이 모진 광풍의 쁠허지거든 오랴시오 긔암절벽쳔층셕이 눈비 마ᄌᆞ 셕어지거든 오랴시오 뇽마 갈기 두 ᄉᆞ이의 쏄 나거든 오랴시오 십니ᄉᆞ댱 셰모ᄅᆡ가 졍맛거든 오랴시오 금강산 샹샹봉이 물미러 ᄇᆡ가 둥둥 씌여 평지 되거든 오랴시오 <南原古詞 2:32ㄴ>
ㄴ. 우리 ᄒᆞᆫ번 가 보려시오 <日韓韓日新會話 178>
ㄷ.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렵니다. 가시려거든 저를 죽여 없이 하여 주셔요. <환희 286>
ㄹ. 남더러 나를 믿어 달랄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나 나는 그저 믿으련다. 설화가 나를 믿거나 말거나 <환희 173>
ㅁ. 웨요? 한번 해보시랴우? <萬歲前 37>

(34)에서는 '하-'가 탈락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를 볼 수 있다. (34ㄱ)은 '오시랴 하오'와 '오랴시오'의 차이를 보여 준다. 그런데 (34ㄱ)의 '오랴시오'와 (34ㄴ)의 '보려시오'는 축약 형태의 초기 양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즉 '-오려 하시오'에서 '하-'가 탈락되어 '-오려시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34ㅁ)의 '해보시랴우'와 같이 '-려-'와 '-시-'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197]

'-려'는 [의도], [욕망] 내지 [상태 변화]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어미가 결합된, 즉

196) '-ㄴ다'의 경우는 융합형도 나타난다. 그것은 동사의 경우 종결어미 '-다'는 부정법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이 그대로 융합된 것이다.

197) (34ㄱ)은 19세기의 자료이고 (34ㄴ)은 20세기 초인 1906년 자료이다. 이에 비해 (34ㅁ)은 1924년 자료로 (34ㄴ)과 20여 년이 간극이 있다.

Collection @ uos

'하-'가 생략·융합된 형태에서는 [의도], [욕망]만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어떤 어미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인칭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이지양(1998)은 [의도]는 '-려'에 의해 나타나지만 '의도와 관련된 행위'는 동사 '하-'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려 하-'가 나타내는 바는 '의도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축약이 되면 주체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의도'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화자는 '행위를 통한 의도의 표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35) ㄱ. 일이 공교이 될 쎡라 금봉지를 들고 방 안으로 드러가려 ᄒᆞ는데 뒤문 밧게셔 혓깃침 소릐가 에험々々 난다 <힝낙도 446>
ㄴ. 「네, 나야요.」하고 계숙이가 편지를 받으려는데, 「어디서 편지가 왔어?」 <永遠의微笑 221>
ㄷ. 간신히 오늘 하루나 쉬려는데, 또 무슨 일을 허자누 <常綠樹 2:216>
ㄹ. 내일 오시죠. 전 지금 막 자려는데요. <永遠의微笑 223>
ㄹ'. 이건 왜 샀어? 끊어 버리려는데…… <永遠의微笑 248>

(36) ㄱ. 오라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모밀꽃 필 무렵 301>
ㄴ. (쇠) 예 ᄃᆡᆨ으로 이 밤즁에 가질너 갈 것 업시 맛참 슐이 잇스니 잡스시려나 엿쥬어 보라고 ᄒᆞ셔요 <구의산 上:13>
ㄷ. 눈이 올지 모르는데 술이나 한盞 먹고 써나랸? <萬歲前>

(35ㄴ ㄷ)의 '-려는데'는 연결어미로 쓰일 경우 의미 변화도 없을뿐더러 인칭 제약도 없지만 (35ㄹ)과 같이 종결어미일 경우 1인칭만이 쓰인다. 또 다른 평서형 '-련다', '-렵니다', '-려네', '-려오'도 마찬가지로 1인칭으로 제한된다. 의문형의 경우 융합형 '-려느냐'는 2인칭으로 제한되지만 '-려나'는 3인칭에도 쓰인다. 그런데 '-려나'는 3인칭에 쓰이지만 '-려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사 구성에서는 '하다'에 당위성이 부여돼 초점이 놓여 있으나 이 구성이 통합되면 'V-려'의 행위 의도만 집중된다. '-려나'에 3인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나'가 가진 [추측] 등의 양태 의미 때문이다. '-려느냐'는 '-느-'가 탈락된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대신 더 축약된 형태인 '-련'이 실현되는데, 이것은 '-려느냐'의 의미를 그대로 띠고 실현되기도 하지만 의미가 달라진 융합 형태로 실현되기도 한다. 융합형은 "엄마가 해 주련?"과 같이 화자가 상대를 위해 할 행동을 상대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는 의미를 띠며 주어의 인칭도 바뀐다. 즉 의사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청자인 2인칭이지만 행동을 하는 주체는 화자이므로 주어는 1인칭인 것이다.

eCollection @ uos

(37) ㄱ. 헤롯이 아기ᄅᆞᆯ ᄎᆞ자 죽이려 ᄒᆞ리니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 ᄋᆡ굽으로 피ᄒᆞ여 <신약젼서 마 2:13>

ㄴ. 젹삼 ᄒᆞᆫ 벌 갑증으로 ᄒᆞ려 ᄒᆞ니 아조 됴흔 증을 어더 곱게 지여 ᄃᆞ고 <獨學韓語大成 212>

ㄷ. 방ᄌᆞ 엿ᄌᆞ오되 무숨 경을 보랴 ᄒᆞ오 힝힝졈졈졍한ᄉᆞᄒᆞ니 욕하한공슈원ᄉᆡ라 괴득편만 이별안ᄒᆞ니 촉조인어격격쾌라 평ᄉᆞ낙안경이오니 이ᄅᆞᆯ 구경하랴 ᄒᆞ오 <南原古詞 1:6ㄴ>

(38) ㄱ. 건너방으로 건너가 있으려니 어느덧 점심 때나 되었다. <永遠의微笑 190>

ㄴ. 나ᄂᆞᆫ 외하라바지 거긔 가시ᄂᆞᆫ 것을 보고 필경 무안을 당ᄒᆞ고 오실려니 ᄒᆞ얏더니…… <비파셩 54>

ㄷ. 리판셔가 ᄇᆡᆨ돌의게 편지ᄒᆞ야 도라오도록 쥬션ᄒᆞ려니 녀기고 잇ᄂᆞᆫ 터이라 <치악산 上 52>

ㄹ. 무슨 근심인고 ᄂᆡ 속이 이럿케 썩을 ᄯᆡ에 ᄇᆡᆨ속에 잇ᄂᆞᆫ 어린 거시 다 녹아 업셔지려니 십흔 근심이라 <은셰계 466>

(39) ㄱ. 그건 해 무엇하시랴오? 그러나 돈을 가저오셔야지요? <標本室의 靑게고리>

ㄴ. 글세 나 역시 몰라.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케 세워두랴누? <檢事局待合室>

ㄷ. 어디로 갈테요? 저리 아니 가시랴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267>

연결어미 '-니'와 결합할 경우 환원이 불가능한 형태도 나타나게 된다. (38ㄱ)의 '-려니'는 (37ㄱ, ㄴ)의 '-려#하니' 구성의 축약 형태이다. 그러나 (38ㄴ, ㄷ, ㄹ)은 융합형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 (38ㄴ, ㄷ, ㄹ)의 '-려니'는 [추측]을 나타내며 문장 중간에 나타나지만 연결어미가 아닌 종결어미이다.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종결어미 '-려니'는 '-겠거니'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며 주로 동사 '하다', '생각하다', '싶다' 따위에 안기는 문장을 만든다고 하였다.

(40) ㄱ. 리판셔ᄂᆞᆫ 무슨 편지를 쓰ᄂᆞᆫ지 고두쇠가 문안을 ᄒᆞ려고 사랑ᄯᅳᆯ 아ᄅᆡ 우둑커니셧스나 불너 보지 아니ᄒᆞ고 한참동안을 셰여 두더니 <치악산 上 53>

ㄴ. (부) 여보시오 령감 엇지ᄒᆞ려고 이럿케 ᄒᆞ시오 이리ᄒᆞ실 것 갓ᄒᆞ면 ᄂᆡ가 먼저 그 비상을 먹고 죽깃소 <치악산 上 108>

ㄷ. 심々하기에, 들럿다가 兄님께 消息이라두 傳해드리랴구요. <萬歲前 92>

ㄹ. 정신 나간 녀석! 누구를 중상하려고. <뉘치려 할 때 29>

Collection @ uos

연결어미 '-려'가 융합된 형태 중에서 평서형이나 의문형으로 두루 많이 실현되는 형태는 '-려고'이다. 종결어미 '-려고'는 한 단계 더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융합형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것으로 '-려'는 종결어미로 실현되지 않는 데 반해 '-려고'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모두 활발하게 쓰인다.198)

(41) ㄱ. 淑卿 : (성을 내며) 이년아! 그럼 네 맘대로 하랴무나— 그럼 어미는 네깐년을 자식으로 치지 안으면 고만이다! (목메인 소리로 운다) <희곡_月姬-그들의 男妹(續)->

ㄴ. 愛卿 : (編物을 들고 良洙에게 좀 단겨 안즈며) 얘 무슨 便紙니? 별 말 업거든 나도 배 주렴. <희곡_印刷한 러브레터 193>

(42) ㄱ. (로) 이ᄯᅢ도 의리 인졍을 말ᄒᆞ는냐 너는 부모보다 쳐ᄌᆞ가 소즁ᄒᆞ냐 병신의 놈이 무슨 말을 ᄒᆞ던지, 쳐, 쳐쳐ᄌᆞ만 말ᄒᆞ지 부모는 엇더케 ᄒᆞ려느냐 무엇이던지 혜경이 말만 ᄒᆞ지 불효의 놈 갓흐니 <두견성 上 126>

ㄴ. 너는 언제나 人間大事를 치르랸? <闇夜 52>

'-려'는 중세국어에서 항상 '-오려'의 형태로 실현되지만 '-오-'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연결어미로는 '-려ᄂᆞᆯ', '-려니', '-려니와', '-려마ᄅᆞᆫ' 따위가 있고 종결어미로는 '-려녀', '-려뇨', '-려니ᄯᆞ녀', '-려니ᄯᆞᆫ', '-려다', '-려료', '-려므나' 따위가 있는데, 이 형태들은 연결어미 '-려'와 다른 구조이다. 중세국어의 '-려-'는 '-리어-'의 축약형인 선어말어미로, 이것들의 구성은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결합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어미에는 '-리-' 혹은 '-ㄹ'의 의미가 들어 있는데, 현대국어에도 존재하는 '-려므나'의 후대형 '-려무나'의 경우도 [의도], [욕망] 내지 [상태 변화]의 의미가 아닌 확인 추측법 '-리어-'의 축약형인 '-려-'이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선어말어미의 지위를 잃고 어말어미와 융합한 형태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41)의 '-려무나', 이것의 축약형인 '-렴'은 (42)의 '-려느냐', '-련'과는 다른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하-'가 탈락되어 융합한 형태인 경우 불연속 형태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야겠다'의 경우 '-어야다'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한다고 해도 '-어야지'는 '-어야겠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려 하-'의 경우도 융합 형태인 '-련다', '려

198) '-려'에 연결어미가 연결된 것은 '-려니', '-려니까', '-려면', '-련만',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된 '-려는', '-려던'이 있다.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된 '-려는', '려던'의 경우 본래의 구성과 차이가 없어 환원이 가능하지만, 연결어미 구성에는 어미마다 변화가 정도 차이가 있다. '-려면', '-련만'의 경우는 본래의 구성과 차이가 없지만, '-려니'는 평서형의 경우 1인칭으로 제약되는데 만약 2, 3인칭이 오려면 뒤에 바로 '(생각)하다'가 연결되어야 한다. '-려니까'는 인용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1인칭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나' 등 하나의 형태소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련다', '-렵니다', '-려는데', '-려던데'의 경우는 선어말어미 '-느-', '-ㅂ니-', '-더-'를 취하며 분석해 낼 수 있다. 융합형 '-련다' 등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융합되기 전의 형태인 '-련다' 등이 그대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합형 어미의 의미 기능은 바뀌게 된다. '-려고 하다'는 [의도]의 의미가 강하다면 축약·융합한 형태는 [의지]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다기보다 의미 변화의 연속상에 놓인 것이라 하겠다.

'-려'와 더불어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ㄹ라'가 있는데, '-ㄹ라'는 근대국어 '-리라'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지양(1998)은 '-려'는 구어체에서 '-라'로[199] 나타나는데, '-라 하-'의 융합형이 '-라-' 또는 '-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래-'는 '하-'의 재구조화형인 '해'와 융합형인데, 융합형 '-려-'가 구어체에서 '-래-'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해-'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으므로 '-려 하-'의 융합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43) ㄱ. 나는 갈랜다.
ㄴ. 갈래면 가세요.
ㄷ. 오늘 오련?
ㄷ'. *오늘 올랜(올란)?
ㄷ''. *오늘 오려고 한? (이지양 1998)

그러나 (43) '갈랜다'의 '-래'가 이지양(1998)에서 주장한 대로 '-ㄹ라 하-'의 융합형이라면, '갈랜다'는 '-ㄹ라+해'에 다시 '한다'가 결합된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랜다'는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려고'의 변이형 '-ㄹ라'에 '한다'가 융합된 형태인 '-ㄹ란다'가 다시 변이를 일으킨 형태이다. 이것은 간접인용 구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ㅏ'가 'ㅐ'로 수의적 교체되는 것이다(남기심 19973). 즉 '간단다'가 '간댄다'와 같이 실현되는 것인데 이것은 융합된 단일한 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환원 가능한 형태에서만 나타난다.

'-ㄹ라'는 '-고 해'와 융합되어 종결어미 '-ㄹ래'로 실현된다. 이것은 [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서문에서는 1인칭과 공기하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과 공기하며 '내가 할래'와 같이 쓰인다. 그러므로 이지양(1998)에서 제시한 '갈랜다'와 다른 형태소인 것이다.[200]

199) 이지양(1998)에서는 '-려'가 구어체에서 '-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가라고 해'가 아니라 '갈라고 해'이므로 '-려'의 변이 형태는 -라'가 아니라 '-ㄹ라'이다.
200) 이 부분은 2장 '-리-'와의 결합 양상 부분 참조.

Collection @ uos

4.4. ‘말-’ 결합 구성의 종결어미화

중세국어에서 ‘말-’은 통사 구성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ㄹ’ 탈락이 일어났던 현상은 그러한 조건이 점차 사라지면서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ㄹ’이 탈락된 형태로 굳어지기도 하였다.

이지영(2008ㄱ)에서는 ‘말-’의 의미 기능을 주어진 상황과 비관여적인 맥락에 쓰이는 경우와 주어진 상황과 관여적인 맥락에 쓰인 경우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 중 관여적인 맥락에 포함되는 ‘반대 상황’은 같은 연결어미의 반복 구성에도 쓰이는데, 어미 반복 구성에 쓰이면서도 ‘말-’의 ‘반대 상황’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20세기 초 문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대 상황’의 의미를 가지는 ‘말-’에서 더 추상화된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4) ㄱ. 술이란 참 좋은 거야. 암 <u>좋구말구</u>. <연극_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ㄴ. 어머니 : 아즉 괜찮다 말이지?
　　　성칠 : 암요. <u>괜찮구말굽쇼.</u> <연극_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ㄷ. 왕 : 그야 그보담 더한 것이라도 줄 수만 잇스면 <u>주고말고</u> <희곡_흰젓>
　　ㄹ. 내게 리ᄒᆞᆫ 일 갓트면 <u>듯고말고</u>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75>
(45) ㄱ. 노파「네 <u>가다마다요</u> 더ᄒᆞᆯ말ᄉᆞᆷ이오」ᄒᆞ며 신부인은 압흘셔고 노파ᄂᆞᆫ 뒤를ᄯᆞ라 문밧그로 나가더라 <금강문 89>
　　ㄴ. 리시종의 귀에 그 말이 번쩍 ᄯᅴ여「응 그리히 합당ᄒᆞ면 <u>ᄒᆞ다마다</u> 자네 마음에 합당ᄒᆞ면 ᄂᆡ 의향에도 좃치 별 수 잇ᄂᆞ 나ᄂᆞᆫ 양반도 쉬치 안코 부자도 취치 안코 다만 당ᄌᆞ ᄒᆞ나만 고르네」<츄월ᄉᆡᆨ 141>

(44), (45)와 같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선행 상황을 긍정, 강조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고말고’, ‘-다마다’는 구가 아닌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한다. 이 둘은 ‘해’체에 포함되며 결합될 수 있는 시제 요소는 어말어미 ‘-고’, ‘-다’와 같으나 ‘-다’의 경우 ‘하다마다’, ‘한다마다’와 같이 ‘-느-’가 결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마다’가 ‘-다’와 결합 양상이 같다면 ‘-느-’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느-’가 결합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다 말다’ 구성에 의한다. ‘-다 말다’는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비완망상인 ‘-느-’는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 학교에

Collection @ uos

간다."와 같이 [의지]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느−'가 결합되어 '−ㄴ다 만다'와 같이 실현되므로 현재 시제일 경우 '−다마다', '−ㄴ다마다'로 나타날 수 있다.

(46) ㄱ. 송목의 지혀셔셔 원산을 바라보니 거문고 가진 아히 쥬긔롤 늣게 메고 구름 속의 날 츳즈니 적송즈 오단 말가 <南原古詞 2:13ㄱ>
ㄴ. 어머니: 아즉 괜찮다 말이지?
성칠: 암요. 괜찮구말굽쇼. <유성연극_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ㄷ. 금녀 모: 허이구 이 치운 밤에 떠나면 어딜 간단 말이우? 하필 오늘같이 별도 없는 밤에 <유성연극_토막_ 빵보 일가의 이향(離鄕)>

'말−' 외에도 '말이−'의 구 구성이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동사 '말−'이 아닌 명사 '말'과 계사의 구성이다. '말이지', '말이야', '말이네', '말입니다' 등의 보조용언 가운데 '−말이지'가 '−ㄹ세' 뒤에 융합한 형태 '−ㄹ세말이지(요)'가 있다. '−ㄹ세'는 '하게'체로, 추측·의도 또는 감탄, 자신의 생각 따위를 나타내는데, 이 뒤에 '−말이지(요)'가 융합되면 '해(요)'체가 되어 '전제조건을 부인'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201)

4.5. 요약

종결어미가 아닌 형식이 종결어미가 되는 것으로, 통사 구성의 종결어미화가 있다. 여기에는 의존 명사 구성과 '하−' 결합 구성, '말−' 결합 구성, 그리고 인용 구성의 종결어미화가 포함된다. 이것은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존 명사 구성은 고대국어에서부터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는 구성이다. 이전 시기에는 의존 명사 'ᄃᆞ', 'ᄉᆞ'의 구성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ㄹ 것' 구성이 축약하여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종결어미들은 '해'체 또는 '해라'체에 포함된다.

인용 구성의 경우 하위문 '−다/라, −냐, −자, −라'에 상위문의 어말어미가 결합한 구성으로, 상위문의 어미로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 관형사형 어미도 상위문 어미로 올 수 있으나 종결어미화하지는 않는다. 이 구성은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분류되는데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이 문법화한 하나의 형태소이다. 즉 환원 가능한 형태는 인용 구성의 축약 형태이므로 종결어미가 아니고 환원 불가능한 형태에서 종결어미가 형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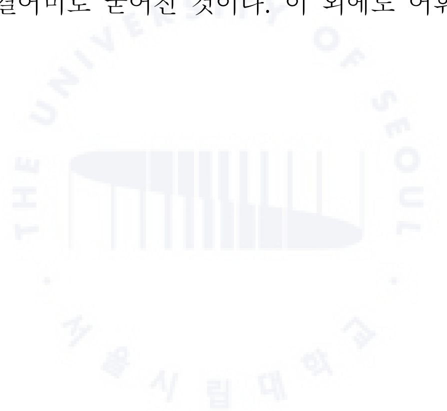
201) 연결어미의 경우 '치−'가 결합한 '−ㄹ라치면'도 실현된다.

eCollection @ uos

는 것이다. 상위문의 연결어미가 결합될 경우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연결어미도 실현될 수 있다. 이때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한 후 결합되었으면 종결어미 구성이지만, 연결어미가 결합한 후 종결어미화되었으면 그것은 연결어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종결어미의 구성은 상위문의 종결어미에 따라 화계가 결정되지만 연결어미의 구성은 '해'체에 포함된다.

인용 구성의 축약 형태는 '하-'가 탈락되었다는 것인데, '하-'의 탈락은 이 구성 외에도 더 나타난다. '하-' 결합 구성인 '-어야 하겠-', '-어야 하지' ,'-려(고) 하-'는 '-어야겠다', '-어야겠습니다', '-어야지', '-어야겠지', '-련다', '-렵니다' 등의 축약 형태로 실현된다. '-어야…다/지' 구성의 경우, 사이에 선어말어미 '-겠-'이 삽입되기도 하지만 '-어야다'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들도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한 형태로 나뉜다. 환원 불가능한 형태는 기존의 통사 구성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며 종결어미화한 하나의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말-' 결합형 구성은 중세국어에서 통사 구성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말-'이 결합된 것이 종결어미로 굳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어휘 '말'이 결합된 구성도 실현된다.



eCollection @ uos

5.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 변화 양상

‘해(요)’체의 발달은 양태 종결어미의 발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해(요)’체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태 종결어미가 발달함으로써 그 양상은 복잡해지고 의미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태 종결어미의 발달은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종결어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형태 변화를 일으켜 의미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요소들을 결합시켜 의미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 형태 내에서 의미가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양태 종결어미의 논의를 위해서 양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양태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어의 경우 양태와 서법, 문장 유형, 청자 대우법 등의 문법 범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태의 범주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5.1. 양태 의미

일반적으로 양태(modality)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Lyons 1977) 정의한다. 이에 대하여 박재연(2006)은, 양태에 대한 이러한 정의의 문제점은, ‘화자의 태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폭넓고 모호하여 양태라는 범주가 지시하는 외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 주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202] 즉 ‘화자의 태도’라는 개념은 적용 범위가 무한히 넓어질 수도 있는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태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아서, 양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양태가 가리키는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양태를 정의함에 있어 서법(mood)과 결부시켜 논의된다. Bybee(1985)는 양태란 ‘여러 가지 유형의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 영역’을 가리키는 반면, 서법은 ‘이러한 의미 영역의 한 하위 영역에 대한 굴절적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한다. 어떤 양태

202) Fillmore(1986)은 문장이 ‘명제+양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a’에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양태라는 이름으로 부른 바 있고, 한동완(1996)에서는 ‘시제’와 ‘관점상(view-point aspect)’, ‘양상(modal)’에 공통적으로 화자의 인식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양태(modality)로 묶을 수 있고, 이선웅(2001)에서는 주체 높임법, 청자 대우법, 문장 유형 등의 범주가 모두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므로 양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재연 2006). 그러나 박재연(2006)은 주체 높임법은 주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태도이고, 청자 대우법은 청자에 대한 태도이며, 시제는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규정하는 범주로서 사태가 가진 객관적인 속성이므로 화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가 굴절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범언어적으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법이 표현 형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개념적 영역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고영근(1995/2004)는 서법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이 일정한 동사의 활용형으로 구현되는 문법범주'이고 양태는 '서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과 명사, 부사 등의 어휘범주와 기타 어순 바꿈, 어조 등에 두루 확인되는 의미영역'으로,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는 시제와 시간성, 동작상과 동작성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 두 논의에서는 양태는 의미 범주이고 서법은 문법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달리 박재연(2006)은 서법은 '인구어의 동사 굴절에 있어서 동사에 붙는 표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양태가 서법, 접어, 조동사, 기타 우언 형식 등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때 서법은 '양태의 구현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한국어의 어미 활용을 굳이 서법이라고 할 필연적인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태란 '명제를 대상으로 하여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양태의 작용 대상은 '명제'이고, 양태 의미의 담지자(possessor)는 '화자'이며, 양태의 기본 속성은 '태도'라고 한다. 이 중 양태의 기본적 속성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한정(qualification)'인데,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언급되어야 할 것은 양태의 주관적인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양태가 가리키는 범주와 국어에서 나타나는 양태 어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1.1. 양태 범주

양태는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나뉜다. Lyons(1977)은 '진리 양태(alethic modality),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는 주관성 표지를 이용해 발화하고 그것에 대해 논평하며,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주관성(subjectivity)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Bybee et al.(1994)에서는, 전통적으로 양태는 의무(obligation),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을 나타내고 서법은 명령적(imperative), 기원적(optative), 조건적(conditional), 종속적(subordinate)임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양태 유형은 동작주 지향적(agent-oriented), 화자 지향적(speaker-oriented), 인식적(epistemic), 종속적(epistemic) 이렇게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박재연(2006)은 '의무'는 주어 지향적 양태로 규정하고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필요성일 수도 있으므로 전형적인 양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즉 주어 지향적(Bybee et al.(1994)의 용어로는 '동작주 지향적 양태')은 양태 의미가 문장 주어의 속성을 표현하는

Collection @ uos

것으로, 이는 문장 서술어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양태를 '화/청자의 태도'에 한정시켜 논의하고자 한다면 주어 지향적인 의미는 양태가 아니라는 것이다.203)

주어 지향적 양태는 필연성과 관련된다. 필연성은 명제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화자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명제를 표현함에 있어 화자의 태도가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작용한다. Lyons(1977)은 진리 양태의 중심 개념인 필연성과 가능성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식되고 형식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식적인 것과 의무적인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고영근(1995/2004)는 논리학에서 다루는 양태 범주는 진리 양태, 인식 양태, 의무 양태가 있으나 서법 범주와 관련되는 것은 주로 인식 양태라 하였다. 인식 양태는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에 걸쳐 있는 화자의 사태에 대한 믿음의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주관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박재연(2006)은 의무 양태를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의무, 허가'와 함께 '의도, 소망, 능력'의 의미 영역을 포괄하는 '행위 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의무, 허가, 의도, 소망, 능력' 등이 모두 동작주(주어)의 행위에 대한 조건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양태 분류가 명제를 지식의 내용으로 사용하느냐, 행위의 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발화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 양태는 '화자가 동작주에 대하여, 명제가 표현하는 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하는 수행적 행위'이다(박재연 2006). 행위 양태는 '요구'를 하는 지시류와 '제공'을 하는 언약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른 동작주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대타적 조건 부과'에는 강도에 따라 '명령', '제안', '기원' 등의 의미 영역을 설정할 수 있고, 화자 스스로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재귀적 조건 부과'에는 강도에 따라 '약속', '소망', '의도' 등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인식 양태는 사실성에 기반을 둠에 따라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의미 영역을 다루는데, 이와 함께 증거성, 내면화의 의미 영역도 인식 양태 범주 안에 둔다. 즉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의 화자의 인식론적 판단, 화자가 가진 정보에 대한 지각, 추론, 전언의 증거성, 화자가 정보를 자신의 지식 체계에 대한 새로 앎, 이미 앎을 내면한 정도를 말한다.

고영근(1995/2004)는 의미 분석에서 논의되는 양태성에는 슬픔과 기쁨 등의 정감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박재연(2006)은 '감정 양태'를 하위의 의미 영역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감정 양태'를 양태로 다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나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감정 양태'라는 범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03) 박재연(2006)은 주어 지향적인 양태는 준-양태 형식이라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그 이유는 첫째, 감정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다른 양태 요소처럼 체계적인 하위의 의미 영역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204] 둘째, 감정 양태는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에 덧붙여지기도 하고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에 덧붙여지기도 한다는 것이다.[205]

그러나 감정 요소만이 둘 이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양태 요소도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의 경우는 인식 양태만이 아니라 행위 양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박진호·박병성(1999)에서 '바람, 의도, 경계' 등의 의미 영역도 화자가 바람직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당위 양태적 의미와 함께 화자의 감정적 태도도 나타낸다고[206] 보았다. 만약 '정감성'을 양태의 범주에 두지 않는다면 의문형 어미 '-냐'에 결합하는 '-느-'의 기능이 문제가 된다. 즉 '-느-'의 결합 여부에 따라 '-냐'와 '-느냐'는 화자의 감정적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느-'의 기능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207]

본고에서는 양태의 범주를 넓게 보고자 한다. 현대국어 종결어미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 결합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남에 따라 양태 의미도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박재연(2006)에 제시하였던 대로 화자 지향적 양태는 인식 양태[208]와 행위 양태[209]를 양태 범주에 두고 '정감성'을 인식 양태의 하위 범주에 두고자 한다.

국어에서 양태가 복잡한 양상을 띠는 이유 중 하나는 문장 종결법과 청자 대우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자 대우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아닌 청자에 대한 태도이다. 그러므로 청자 대우법은 감정 양태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박재연(2006)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청자 대우법 등급이 화자의 감정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화계 사용에 있어서 혼용되는 것은 이전 시기와 달리 화자의 태도에 따라 표출된 결과이다. 그것은 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용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본적인 화계 등급의 선택은 화자의 감정이 아니라 청자에 대한 태도이고 화자의 태도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문장 종결법의 경우 감탄법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204) 감정을 표현하는 '-어라', '-다니'는 "어머나 예뻐라!", "내가 일등을 하다니!"와 같이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지만, "아이고 뜨거워라!", "내가 꼴찌를 하다니!"와 같이 부정적 감정도 표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성 값 없이 긍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도 표현하는 '-어라', '-다니'가 감정 양태라는 문법 범주를 구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205) 인식 양태, 행위 양태 혹은 문장 유형 등의 범주에 부가적으로 감정이 표현된다는 것이다.

206) 박재연(20006)에서 재인용.

207) '-냐'보다 친근한 말투인 '-니'는 양태 어미가 아니다. '-니'가 친근한 말투로 쓰이는 것은 사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문장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8) 하위 영역으로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증거성, 내면화의 의미 영역을 두고 있다.

209) 행위 양태의 경우 문장 종결법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 부분은 더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일차적으로 문장 종결법으로 묶이는 것은 즉 '명령'은 양태라기보다 문장 종결법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Collection @ uos

5.1.2. 양태 어미

국어에서는 어미, 조사, 보조용언 등에서 여러 가지 양태성이 나타나며 명사, 부사 등의 어휘 범주와 관용구, 바뀐 어순, 힘이 주어진 성분에서도 그런 의미가 확인된다(고영근 1995/2004). 박재연(2006)은 문장의 종결, 절 접속, 절의 지위 변환 등의 구조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어에서 양태 범주가 구현되기에 가장 적합한 문법 형식은 선어말어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는 '-겠-'과 '-더-', '-리-' 그리고 '-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데 '-리-'는 오늘날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양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활발하게 쓰이는 것은 '-겠-'과 '-더-'인데, 그중 '-더-'의 일부분은 종결어미에 포함되어 '-더-'가 활발하게 쓰이는 형태는 연결형과 관형사형에서이다. 張京姬(1985/1986)은 양태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언어 표현들 가운데 형태소에 의하여 나타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하고, '-겠-', '-더-', '-네', '-구나', '-지', '-ㄴ', '-ㄹ'을 양태라는 문법적 범주로 설정하였으나 양태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은 이보다 넓고 복잡하다.

19세기 말 '해'체 어미가 대거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해'체에 속하게 되는 종결어미들이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태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만큼 그 양상도 복잡하게 실현되는데, 종결어미의 일차적인 기능은 문장 종결법이므로 양태와 문장 종결법은 연관된다. 박재연(2006)은 문장 유형 범주는 양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문장 유형이란 화자가 다양한 통보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의 일종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장 유형은 일차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통보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인 반면,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라는 점에서 두 범주는 구별되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양태와 문장 유형은 한국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영희는 부산에 있겠다."에서 '-겠-'은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이고 '-다'는 평서형을 나타내는 문장 유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겠다'의 경우 기능이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구별하여 볼 수 있으나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결어미의 경우 실현되는 양상은 간단하지 않다. '감탄'의 경우, 이것이 문장 종결법에 포함되는 범주인지 양태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감탄법 즉 감탄형 종결어미를 상정하여 문장 종결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구나'의 경우 감탄의 기능이 드러나지 않고 평서형으로 쓰이기도 하며 '-다'와 같은 평서형 어미나 의문형 어미가 [감탄]의 의미를 띠기도 하기 때문이다.

Collection @ uos

중세, 근대국어에서는 ‘감동’을 표현하는 감동법은 선어말어미에서, ‘감탄’을 표현하는 감탄법은 종결어미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감탄형 어미는 이전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감탄형으로 처리하고 있는 어미 중에 ‘-구나’, ‘-네’는 감탄형 어미로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들 어미는 감탄이 나타나지 않는 평서형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서형 어미 ‘-다’의 경우는 감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제2유형 ‘-다니’는 세 가지 용법 의문문, 평서문, 감탄문에 실현되는데, 의문문과 감탄문에 쓰이는 ‘-다니’는 종결어미이고, 평서문에 쓰이는 ‘-다니’는 종결적 용법이다. 현대국어에서 오롯이 감탄형으로만 사용되는 종결어미는 ‘-어라’, ‘-도다’ 정도이다. 이 어미들은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어미+종결어미’ 형태였던 것이 근대국어 이후 ‘-에-’, ‘-도-’가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잃고 종결어미와 결합 후 종결어미가 된 것이다.

정리하면, 양태 어미와 감탄형 어미의 구별은, 문장 자체에 감탄의 기능이 드러나면 그것은 감탄형 어미라 설정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감탄형 어미라 일컬을 수 있는 어미는 ‘-도다’, ‘-어라’, ‘-다니$_2$’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이 외의 감탄은 양태 의미로 분류한다.

국어의 양태 어미는 대부분 ‘해’체이다. 박재연(2006)은 ‘해’체 어미 외에 양태 어미는 ‘-구나’와 ‘-ㄹ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ㄹ진저’ 등이 있으며, 여기에 행위 양태와 함께 [친근함], [부드러움] 등의 [+정감성]을 양태 범주에 포함하면 양태 어미는 더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양태 어미가 아닌 경우 형태 변화 내지 다른 형식을 결합하여 양태성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210)]

그런데 박재연(2006)은 ‘해’체 어미, 즉 반말의 형식은 본래 종결어미가 아니었으므로 일반적인 종결어미가 갖는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어’와 ‘-지’는 문장 유형 표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억양을 달리하여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 다양한 문장 유형을 표현할 수 있고 일반적인 종결어미로는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종결어미화한 것은 연결어미 등이 종결어미 자리에 놓여 종결적 용법을 하는 것과 다르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종결어미의 일차적 기능도 함께 획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절단형인 ‘하오’체의 경우 양태 의미는 띠지 않지만 다양한 문장 유형을 표현한다. ‘-구나’의 경우도 평서문, 감탄문 외에도 의문문을 실현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구나’는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ㄹ’을 결합한 종결어미들도 양태 의미를 띠고 있었다. 근대국어 시기를 지나면서 양태 의미를 띤 종결어미가 늘어난다. 형태 내부

210) ‘하오’체나 ‘하게’체의 경우 권위적인 색채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종결어미 형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억양에 의한다. ‘하오’체는 ‘하우’체에 비해, ‘하게’체는 ‘해’에 비해 억양이 낮게 수행된다.

Collection @ uos

의 원인만이 아니라 '-ㄴ가'류의 어미들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구조에서 양태 의미를 갖게 된다. 선어말어미에서 양태 의미를 가졌다가 형태적, 통사적, 화행적인 원인으로 인해 종결어미는 양태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문장 유형 즉 문장 종결법은 종결어미에서, 양태는 선어말어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 등은 종결어미가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양태 의미를 가진 '해'체 어미들의 형성은 다른 체계 어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2. 종결어미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 변화

19세기 말에는 다양한 종결어미가 생성되어 기존의 체계와 다른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중세국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종결어미의 주 기능은 문장 종결법이었고 몇몇 종결어미에서 청자 대우법과 관형사형 어미 '-ㄹ'에서 비롯된 양태 의미가 일부 나타났을 뿐이었다. 그러나 근대국어를 지나면서 종결어미에 청자 대우법이 문장 종결법과 더불어 주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고, 양태 기능 또한 점점 종결어미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된다. 그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더불어 양태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들이 대거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어말어미의 기능 변화는 연결어미만이 종결어미화하면서 변화한 것만이 아니었다. 종결어미에서도 기능이 변화하는 어미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하게'체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하게'체의 평서형 내지 의문형으로 쓰이던 어미들은 기능 변화로 인하여 양태 의미를 획득하고 '해'체의 범주로 묶이게 됨으로써 '하게'체의 어미와 '해'체의 어미가 양분되는 것이다.

'하게'체의 범주와 해체의 범주 모두 속하는 '-네, -데', -나, -ㄴ가, -ㄹ가' 그리고 '-군' 따위가 있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게'체와 '해'체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요'의 결합 유무인데, 그렇다면 이들 어미는 어떻게 그 차이를 가릴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들 어미를 가르는 데 기준이 단순히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차이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16세기에 중간 등급을 형성했던 'ᄒᆞ소'체의 평서형 어미 '-ᄂᆡ', '-데', 의문형 어미 '-ㄴ가/-ㄴ고', '-ㄹ가/-ㄹ고'가 '하게'체[211]로 이어진 것이고,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나'는

211) 'ᄒᆞ소'체의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어미는 '하게'체로 이어지만 명령형 어미는 19세기에 '-소' 형태에서 '-게' 형태로 바뀌게 된다.

Collection @ uos

'-ㄴ가'의 축약형이다. 이것들은 16세기 이후로 줄곧 중간 등급을 이루었던 'ᄒᆞ소'체 혹은 '하게'체 어미들이다. 그런데 16세기부터 중간 등급 'ᄒᆞ소'체, 그리고 '하게'체의 평서형, 의문형 어미로 쓰였던 이 어미들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비격식체인 '해'체로도 쓰이게 되는데, 그것을 구분 짓는 이유는 '하게'체로 쓰인 것과 '해'체로 쓰인 것의 의미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던 기능은 문장종결법과 청자 대우법인데, '하게'체 어미로서는 이 두 기능만을 나타내지만 '해'체로 쓰이게 되면 여기에 양태 의미가 더하여지는 것이다.

5.2.1. 평서형 어미

'-네'는 16세기에 생성된 'ᄒᆞ소'체의 평서형 어미 '-ᄂᆡ'가 이어진 것으로, 이 외에도 '-데', '-이' 등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 형태이다. '-이'는 '-느-'가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형용사와 결합하게 된다. 그리고 '-데'는 '-더-'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의 '-네'는 분석이 되지 않는 융합형인데, '-네'에서 '-느-'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사만이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 가능하다. '-데'의 경우 '-더-'는 분석해 낼 수 있지만 뒤의 '-ㅣ'는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네'와 계열 관계로 보고 더 이상 분석을 하지 않는다. 다만 형용사와 결합하였던 '-이'는 현대국어에서도 '하게'체에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관례대로 형용사와만 결합하므로 계열 관계로 볼 수 없다.

(1) ㄱ. ᄒᆞ네 / 먹네 / 깁헤 | ᄒᆞ엿데 / 먹엇데 / 깁헛데 <한영문법>
ㄴ. 업궤는 임자가 가져가면 나는 폐가 하라는가 이 궤는 못 <u>놓겠네</u> <배비장전 85>

(2) ㄱ. 어-그 계교가 쏙 <u>되엿네</u> 어셔 가 보셰 안이 그ᄅᆡ도 ᄃᆡ낫에 가셔ᄂᆞᆫ 못 쓰지 어슬어슬 ᄒᆞ야 얼골 셔로 못 알 만ᄒᆞᆫ ᄯᅢ가 쪽 알맛지 <황금탑 444>
ㄴ. 누구보다도 사랑허는 내 <u>누이였네</u>! <永遠의微笑 5:7>
ㄷ. 柳: 에 자네 소리도 듯기 <u>실네</u>! 에-키 나가세. 어서 나가! <李永女>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느-'는 근대국어 시기 시제 체계가 변동되면서 '-느-'의 기능도 분화되었다. '-네'의 경우 16세기부터 '-ᄂᆞ-'와 '-이-'가 결합한 형태로 출현하나 이것은 동사와 결합하고 형용사에는 '-ᄂᆞ-'가 결합되지 않는 '-이' 형태만이 결합한다. 이것은 19세기 말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느-'의 기능이 완전하게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19세기의 '-네'는 (1)과 같이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다가 20세기로 가면 '-느-'의 기능

Collection @ uos

이 사라지면서 융합 형태가 되는 것이다. (1)의 19세기 자료에는 '-네'의 '-느-'의 기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데, (2)의 20세기 자료에서는 하게체 '-네'에 결합된 '-느-'의 기능은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ㄱ. 에그 셰상에 이게 웬 곡졀인가 큰일나겟네 사ᄅᆞᆷ 상ᄒᆞ겟소 쳔々히들 나오시오 ᄋᆡ구머니 ᄋᆡᄀᆡᄋᆡᄀᆡ ᄒᆞ더니 <고목화 1034>

ㄴ. (마) 발셔 ᄒᆡ가 넘어갓네 셔방님 졔가 갓다가 ᄅᆡ일 ᄯᅩ 오겟습니다 <구의산 上 88>

ㄷ. 에그 셰월도 쉽기도 ᄒᆞ다 우리 효손이 나간 지가 발셔 반 년이 지나 쥬년이 갓가와오네 이것이 그동안 엇의엇의로 도라단이며 ᄋᆡ를 쓰ᄂᆞᆫ지 졔 몸이나 셩힛스면 뎐힝이련만은 팔ᄌᆞ가 남 다르게 방졍 마즌 년이닛가 뎌를 향히셔도 안이날 ᄉᆡᆼ각이다 업지 <구의산 下 74>

박재연(2006)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하게'체의 '-네'는 양태 의미가 없이 문장 종결법과 청자 대우법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양태 의미를 띠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張京姬(1985)는 양태 의미를 띠는 '-네'는 '-더-'의 [과거지각]의 의미에 병행하여 '-네'에서는 감각적 경험에 의한 [현재지각]의 의미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현존하는 상태의 과거 내력은 현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재연(2006)에서도 '-네'는 인식 양태 체계에서 '(현재) 지각'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정보의 내면화 정도는 [새로 앎]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3ㄱ)은 하게체의 '-네'로 양태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3ㄴ, ㄷ)은 혼잣말로 양태 의미가 나타난다.

'-네'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화자가 지각하여 새롭게 안 정보를 표현한다. 이것은 '-네'와 더불어 [새로 앎]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나'와 비교된다. 그러나 '-구나'는 심증을 통한 정보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으나 '-네'는 화자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장경희 1985). 그렇기 때문에 '-구나'에는 제약 현상이 없는 데에 반하여 '-네'에는 제약이 따른다. 단 '아프다'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부위나 '어디'와 같은 부정칭을 사용할 때는 화자가 느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심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네'를 쓸 수 없지만 '얘가 또 아프네'와 같이 시각적 지각이 가능하므로 사용 가능하다.

(4) ㄱ. 배가 또 아프네.

ㄴ. 얘가 또 아프네.

(5) ㄱ. 배가 또 아프구나.

Collection @ uos

ㄴ. 얘가 또 아프구나.

(4)와 (5)는 문장은 비슷하지만 쓰이는 환경은 다르다. 물론 쓰인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위의 문장만을 보면 (4ㄱ)의 주어는 1인칭이다. 이와 달리 (5ㄱ)에서 '배가 아픈 사람'은 화자가 보고 있는 상대로, 상대의 모습을 보고 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며 '배가 아프다'는 것을 추측하는 상황이다. (4ㄴ)은 아파하는 상대를 보고 하는 말이고 (5ㄴ)은 상황을 듣고 혹은 사진 따위를 보고 추측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구나'는 상황을 듣거나 보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을 추측하는 것인 데 반해 '-네'는 화자 자신이 직접 체험하거나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네'는 과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과거란 장경희(198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과거에 경험한 지각이다. 다시 말하면, '-네'는 과거의 사실이지라도 현재에 지각하였다면 가능한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새로 알았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일지라도 현재 깨달은 것이 되므로 '-구나'의 경우도 결국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현재 깨달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과거에 '-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장경희(1985)의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6) (아이를 보면서) ㄱ. *얘가 아직까지 여기 있었네.

ㄴ. 얘가 아직까지 여기 있네.

(7) ㄱ. *지금 보니 그게 영이 가방이었네. 엊저녁에는 장갑인 줄 알았어.

ㄴ. 지금 보니 그게 영이 가방이네.

장경희(1985)에서는 현장에서 청자를 발견하게 된 순간, '지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두 사실을 알게 되는데 '-구나'의 경우 두 사실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반면에, '-네'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만이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6ㄱ)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였다. (7)도 마찬가지로 '영이의 가방'이라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의 상태이기도 하는데 '-었구나'는 과거를, '-구나'는 현재를 나타내는 반면, 과거의 내력을 현장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네'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과거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흔적으로 추측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추측]의 의미를 가진 '-구나'는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직접 지각한 후 표현하는 '-네'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6)에서 '아이를 보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 아닌 어떤 흔적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라면 '-었네'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네'는 단

Collection @ uos

순하게 지각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앎]만을 나타내지만 그보다 좀 더 강한 [확인]의 의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새로 앎]은 과거의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시점은 현재가 된다. 그 중에서 '-네'는 [현재지각]의 의미를 띤다. 이와 더불어 [과거지각]을 의미하는 '-더-'가 결합된 '-데'는 '-네'와 계열관계를 형성한다. '-데'도 '-네' 마찬가지로 '하게'체와 '해'체에 모두 쓰이나 '하게'체의 '-데'에도 양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더-'가 본디 가지고 있던 [과거지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네'와 '-데', 그리고 '-구나'는 물음 형식으로도 나타난다. 박재연(2006)은 양태 어미들에 의해 물음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사의문문 효과'로서, '-네'는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처 내면화되지 못한 정보를 표현할 때 사용되면 청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용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문문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평서형 어미 '-네'가 어떻게 하여 [현재 지각]과 [새로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양태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 '-네'는 20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네'는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네'를 완전한 융합 형태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느-'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도 '-느-'는 기능이 계속 분화하는 변화 과정 속에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결어미 '-네'의 경우 형용사에는 '-느-'가 결합되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형용사와만 결합하는 '하게'체의 '-이' 형태가 현대국어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현대국어가 정립되어 가는 시기에 형용사와 결합해야 하는 형태, 즉 '-느-'의 기능이 없는 형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는 '하게'체의 경우 '-네'에 '-느-'의 의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동사, 형용사 둘 다 결합 가능하듯이 오늘날 '-이'의 경우도 형용사와 동사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상의 정의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19세기 말에 하게체 '-네'의 '-느-'에 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느-'가 결합하는 다른 화계의 평서형 어미로는 대표적으로 '하소서'체의 '-나이다', 하십시오체의 '-습니다', '해라'체의 '-ㄴ/는다'가 있다. 하십시오체 '-습니다'는 선어말어미 '-습-'이 재구조화하여 뒤의 선어말어미 '-느-'와 '-이-'가 융합되고 다시 뒤의 종결어미 '-다'와 통합된 형태로, 종결어미화한 형태에는 더 이상 '-느-'의 기능이 없다. '하소서'체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도 가졌던 본래 '-느-'의 기능이 있다고 하겠는데 이 또한 현대로 올수록 그 기능은 소멸되어 현대국어에서는 형용사에도 '-나-'가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해라'체의 '-ㄴ/는다'는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완망상으로, '-다'와 결합하는 경우만이

Collection @ uos

아니라 '-구나', '-도다' 그리고 '해'체의 '-다니'도 마찬가지로 평서형 어미로 묶을 수 있는 어미와 결합에서 '-느-'는 비완망상이다.

그렇다면 '-네'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융합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라'체와 같이 비완망상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약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게'체 '-네'의 경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비완망상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융합 형태의 종결어미가 된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네'가 다르게 쓰이면서 그 기능이 나뉘는데, 이때 '-느-'의 기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각]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계열 관계에 있던 '-더-'와 연결하여 볼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더-'는 과거 비완망상으로 과거 지속 내지 과거 회상을 나타낸다. 회상을 나타내던 '-더-'는 19세기로 올수록 양태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각]이라는 구체적인 양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과거지각]의 의미를 띠는 '-더-'가 결합된 '-데' 역시 [과거지각]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와 계열 관계에 있는 '-네'도 맥락에 따라 [현재지각]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하십시오'체의 '-느-'는 '-습-'과 '-이-'와 융합함으로써 하나의 어미가 되고 '-느-'의 기능은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습니-'는 평서형과 의문형, 과거와 비과거에 전부 사용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더-'는 '-습-'과 '-이-'와 결합하여 '-습디-'를 형성하지만 '-습니-'와 대비를 이루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더-'가 가진 양태 의미로 인해 '-느-'와 더 이상 현재 대 과거라는 계열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하게'체 역시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된다. 즉 '-데'는 16세기 이래로 줄곧 유지되어 온 형태이지만 '-느-'와 '-더-'의 기능이 달라져 현재와 과거가 대비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더-'가 가지는 양태 의미와 계열 관계였던 통사적인 특징으로 인해 '-네'와 '-데'가 대비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리하면, '-네'는 '-느-'의 기능이 거의 소멸되어 청자 대우법과 문장 종결법 기능만 하는 평서형 어미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일부 어미들의 기능이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종결어미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네'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현재 비완망상의 기능이 계열 관계인 '-데'에 이끌려서 맥락에 따라 양태 기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네'는 양태 의미가 없는 '하게'체의 평서형 어미와 [현재지각] 양태 의미가 있는 '해'체의 '-네'로 양분되었다. 즉 '현재 지각'하였다는 것은 '새로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새로 앎]의 양태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데'의 경우는 '하게'체에도 양태 의미가 드러난다. 그 이유는 '-더-' 자체가 가지는 양태 의미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더-'의 의미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데'의 '하게'체와 '해'체는 억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하게'체가 '해'체보다 억양이 하강한다.

Collection @ uos

5.2.2. 의문형 어미

의문형 어미 '-ㄴ가/-ㄴ고', '-ㄹ가/-ㄹ고'는 중세국어에서 주로 간접 의문문에 쓰였던 형태이다. 이들 어미는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를 포함하고 있고 간접 의문문에 주로 쓰였으므로 이로 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은숙(2007/2011)은, 이들 어미는 간접 의문에 사용됨으로써 상위문 서술어의 영향을 받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화자의 의심이나 회의, 추측 등과 같은 의미의 유사한 쓰임을 갖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것은 이들 어미가 사용된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특성이고 또한 이것은 직접 의문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즉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디 동명사 어미가 가지고 있던 특성도 띠지만 그보다 간접 의문이라는 문맥에 놓임으로써 그로 인한 의미적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어미가 가지고 있는 '-ㄴ'과 '-ㄹ'의 대립에서 '-ㄴ'의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대립하는 '-ㄹ'이 양태 의미와 관련한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면 '-ㄴ'에도 그와 대립되는 의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ㄴ가/고'의 경우 과거와 현재에 모두 쓰이기 때문이다. '-ㄴ'에 과거 시제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허웅 1975/1995 등), 시제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고영근 1981/20 등) 모두 한계가 있다는 고은숙(2007/2011)은 최동주(1995)의 '현실:비현실'의 대립이라는 논의에 따라 15세기 의문법은 '현실 의문법'과 '비현실 의문법'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ㄴ'계 어미는 동사의 경우 현재일 때는 '-ᄂᆞ-'가 결합되고 동사의 과거나 형용사의 현재의 경우 부정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제성이 없다고 하면 '-ㄹ'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ㄴ'계 어미에서는 '-ㄴ'로 인한 양태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추측]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간접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ㄹ'계 어미는 간접 의문에서 비롯된 의미뿐만 아니라 본디 'ㄹ'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추측] 등의 의미가 나타난다.

'-ㄹ가/고'는 간접 의문에서 비롯된 양태 의미만이 아니라 본디 '-ㄹ'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도 실현된다. 즉 '-ㄴ가/고'와 달리 '-ㄹ가/고'는 직접 의문에서도 '-ㄹ'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고은숙(2007/2011)은 간접 의문 및 자문에서는 주로 나타나는 [추측] 의미가 문맥에 따라 화자의 주관적 태도가 더해져 [회의]나 [의심] 등의 의미로 실현되는 데 반해, 직접 의문에서는 간접 의문이라는 제약된 환경에서 벗어나 [추측] 외에 [능력], [가능성], [의도] 등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8) ㄱ. (셔) 왜 어듸가 편치 안은가 편치 안을 것 갓흐면 증셰를 바로 말ᄒᆞ면 약을 어셔 지

Collection @ uos

어오게 왜 딕답이 업셔 <빈샹셜 234>

ㄱ'. 그 살아도라오는 사룸다려 뭇되 이번 젼장에 승부가 엇더흐고 <즈유죵 29>

ㄴ. 경진「그러면 엇지흐면 좃탄 말이야 그놈이 멀니 다라나도록 우리가 여긔셔 기다렷다가 엇지 흘가」흐고 셔로 망셔리는 판에 얼핏보니 <금강문 156>

ㄴ'. 포도원 쥬인이 골우딕 엇지흘고 내 수랑흐는 아들을 보내리니 뎌ㅣ 보면 응당 공경흐리라 흐엿더니 <신약젼셔 누 20:13>

이렇게 '-ㄴ가/고'와 '-ㄹ가/고'는 중세국어에서도 간접 의문만이 아니라 직접 의문으로도 실현된다. 직접 의문의 경우 질문에도 쓰였지만 자문에 주로 쓰였는데 이러한 직접 의문에 쓰이는 현상은 근대국어로 오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간접 의문은 직접적으로 청자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화계를 설정할 수 없으나 직접 의문의 경우는 청자 대우법이 실현된다. 이들 어미는 다양한 화계에 쓰이고 있는데, 고은숙(2007/2011)은 '-ㄴ가/고' 어미는 주로 간접 의문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직접 의문에 사용되더라도 청자 대우법상 중립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근대국어에서는 중간 높임 등급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주된 이유라 하였다. 즉 '-ㄴ가/고', '-ㄹ가/고' 어미는 중세국어에서 '흐야쎠'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되다가 차츰 근대국어로 오면서 '흐소'체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근대국어에서 '-숩-'이 결합된 형태인 '-온가/온고', '-올가/올고'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흐소'체보다 한 단계 높은 '흐웁소'체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예는 발견하기가 어려운데(고은숙 2007/2011), 그 이유는 '흐웁소'체는 18세기에 등장하는 흐오체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ㄴ가/고', '-ㄹ가/고' 어미는 중간 등급 이하, 즉 '흐소'체 이하 등급에서만 실현된다.

그러면 19세기 말 국어의 양상을 살피기 전에 먼저 현대국어에서 실현되는 '-ㄴ가', '-ㄹ까'를 살펴보자. 현대국어의 '-ㄴ가', '-ㄹ까'는 '-ㄴ가/-ㄹ까 하다', '-ㄴ가/-ㄹ까 싶다', '-ㄴ가/-ㄹ까 보다'와 같이 간접 의문에서도 쓰이지만 직접 의문에서도 활발하게 쓰이는데 이것은 '하게'체와 '해'체 두 화계에서 실현된다. 평서형 어미 '-네'에서 보았듯이 '하게'체로 실현되는 종결어미의 경우 대개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평서형 어미 '-네'와 마찬가지로 의문형 어미 '-ㄴ가'는 양태 의미 없는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해'체로 실현되는 '-ㄴ가'의 경우 자문 내지 [추측]의 의미를 띤다.

다시 말하면, 직접 의문에서 양태 의미가 없는 질문은 '하게'체로, 자문 내지 [추측] 의미를 띠는 양태 기능은 '해'체로 나뉘어 실현되는 것이다. '해'체는 청자 없이 하는 혼잣말이 가능하지만 '하게'체는 그렇지 않다. '하게'체는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으로 '해라'체보다 대

Collection @ uos

우하는 말이므로 대상이 명확하게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게'체에는 자문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측]의 의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9) ㄱ. (판셔) 허 이것 얼마 만인가 그릭 언제 나왓던가 어셔 이리 안게 <금국화 5>
ㄱ'. 「어쌔 사람이 그 모양이야? 내가 무얼 잘못햇다고 야단인가?」 중환이는 마루 안으로 한 거름 드러스며 남으래드시 소리를 질럿다.
ㄴ. 「밥갑을 내지 안엇다는 수작인가?」 명수는 속으로 이러케 생각하여 보고 눈을 흡쩌서 주인 마누라를 노려보고 마루씃흐로 나왓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ㄷ. (김) 맛혼스인가요 례장혼스온닛가 망발에 토 달고 마당만 빌이는 혼스인가요 <명월뎡 120>
ㄹ. 위험하다. 마치 창기 같지 않는가! 세상 계집이란 오롱이조롱이다. 제 아무리한 년이라고 해도 모두 한 판이다. <남편의 책임>

(9ㄱ, ㄱ')은 '하게'체로 실현된 것이고 (9ㄴ)은 '해'체, (9ㄷ)은 '해요'체로 실현된 것이다. '해'체로 실현되는 '-ㄴ가'는 자문 내지 [추측]의 의미를 띠는 양태 어미로, 여기에 '-요'가 결합한 '해요'체도 이러한 양태 의미를 띤다. 그런데 '해요'체의 경우 높임의 요소가 결합되었으므로 혼잣말이 가능한 '해'체와 달리 청자가 상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 의미가 희석될 수 있는데, (9ㄷ)의 경우 [추측]의 의미를 띤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순수의문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추측]의 의미를 띠는 경우는 '해요'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자문을 나타내는 '-ㄴ가'의 경우 '-요'가 결합함으로써 그 의미 기능이 희석되는 것이다. 즉 '-ㄴ가요'는 청자가 상정되기 때문에 자문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자문으로 실현돼도 청자가 없는 상황이 아닌 청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 (9ㄹ)은 대화이지만 문어에서는 [감탄]을 나타내기 위해 (9ㄹ)의 '-ㄴ가'와 같이 수사의문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ㄹ까'의 경우 '-ㄹ까' 자체가 양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체 어미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더-'에 의해 양태 의미가 나타나는 평서형 어미 '-데'와 마찬가지로 본디 '-ㄹ'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로 인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ㄹ까'는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고은숙(2007/2011)은 중세국어에서 '-ㄹ가/고'는 직접 의문으로 자문과 질문에 모두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던 것이 근대국어로 오면 그 기능이 변화하는데, 2인칭 주어 문장에 쓰여 청자의 행동 수행 의도를 묻는 기능으로 사용된 예는 발견되지 않고, 이것은 1인칭 복수일 때 한해 행동 수행에 대한 청자의 의견을 묻는 기능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다고 하였다. 현대국어에서 청자의 행동 수행 의도를 묻

Collection @ uos

는 것은 일반적으로 '-겠-'에 의해 실현되고 '-ㄹ까'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화자의 행동 수행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묻는 기능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칭 복수에 한해서만은 아니고 단수, 복수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 양태 의미로 [추측]이 나타나는데 문맥에 따라 [가능성], [능력] 등의 의미로 실현된다.

(10) ㄱ. (보) 에그 하ᄂᆞ님 맙시ᄉᆞ 누가 그런 소리를 힛슬까요 마님게셔 작죄ᄒᆞ신 것만 업스면 그리 말ᄒᆞ는 사람이 죄로 갑지오 <치악산 下 12>

ㄴ. (박) 발셔라니 지금이 어느 ᄯᅢ라고 눈 안이 올가 동지가 닉일몰엔듸 <고목화 386>

ㄷ. 고개를 돌려 로파에게 「자 울지 마오. 다 젼싱에 연분이어. 사ᄅᆞᆷ의 힘으로 엇지ᄒᆞ나? 시쟝ᄒᆞ시겟소 조반이나 먹읍시다」ᄒᆞ고 벌썩 닐어나면서 혼잣말로, 「엇져나. 쟝국밥을 시켜올가 집에서 밥을 지으랄가」하고 머뭇머뭇ᄒᆞ더니 휙 밧그로 나간다. <無情 2:229>

그런데 문제는 '-ㄹ까'가 '하게'체에서도 실현되는데, '하게'체와 '해'체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ㄴ가'처럼 '해'체와 '하게'체가 나뉘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게'체에 '해체의 '-ㄹ까'가 혼효되어 쓰이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212)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근대국어 '-ㄹ가'가 '-ㄴ가'와 함께 'ᄒᆞ소'체로서 화계가 같았으므로, '-ㄴ가'가 양태 의미를 가지면서 '하게'체와 '해'체로 분리될 때 '-ㄹ까' 역시 '해'체와 분리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래 '-ㄹ'이 가지고 있는 양태 의미로 인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양태 의미는 '하게'체로 실현되어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하게'체 '-ㄹ까'는 화·청자 수행 의도를 묻는 경우이고 다른 양태 의미나 자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행 억양 또한 '해'체보다 낮게 실현되어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10)은 '해요'체와 '해'체로 실현된 것으로, (10ㄷ)은 '혼잣말로'라는 지문이 있으니 '해'체이지만 (10ㄴ)은 앞뒤 맥락에 따라 '하게'체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다.

(11) ㄱ. 그래 자네 생각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常綠樹 5:6>

ㄴ. 「에구구, 에구구, 이 자식이……애흠, 애흠, 이 자식이 미첫나? 에미를 잡아먹으랴나? 」하며, 쓸려나와, 마루 한가운데 업흐러진다. <孤獨>

ㄷ. 그 전화 동티 무섭다! 오늘은 마누라가 웨이리 더 악바리가 됐는지? 신새벽부터 전화 전화하구 상성이니…… 그러지 말아요. 그래두 전화덕에 불려 가서 한잔 잘 먹구 오지 않았나? <電話>

---

212) 다만 '하게'체와 쓰이는 '-ㄹ까'는 해체와 쓰이는 '-ㄹ까'보다 양태 의미가 약하고 억양이 더 내려가 좀 더 권위적인 느낌을 줄 뿐이다.

Collection @ uos

ㄹ. 「웨 내가 浮浪者ㅡㄴ가요. 그런데 나와서 무어라구 해?」하며 누의더러 무러 보앗다. <萬歲前>

(12) 「바지는 안 쌔앗겻든가?」「바지야 설마 쌔앗겻겟나」「다행하이-」하고 나는 실소를 하얏다. <嫉妬와 밥>

이렇게 '하게'체에서 '해'체로 나눠게 되는 양상은 20세기에 일어난다. 이 시기의 문헌을 살펴보면 '하게'체와 '해'체가 혼용되어 쓰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국어에 등장하는 '-ㄴ가'의 축약형인 '-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11ㄱ)은 순수의문문으로 '하게'체이고, (11ㄷ)은 [추측]을 나타내는 '해'체이며, (11ㄹ)은 '해요'체인데 이것은 앞뒤 맥락과 억양에 따라 단순 질문과 [추측] 혹은 [확인]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1ㄴ)은 앞뒤 맥락에 따라 '하게'체, 혹은 '해'체로 실현 가능하다. (12)와 같이 '하게'체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의미가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 의해 양태 의미를 띠었다기보다 '-겟-'에 의해 [추측] 의미가 나타난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 '-ㄴ가/고', '-ㄹ가/고'는 점차 직접 의문에 활발하게 쓰이면서 중간 화계 즉 'ᄒᆞ소'체에 안착하게 되고 간접 의문은 '-ㄴ지', '-ㄹ지'로 대체된다. 중세국어에서 동사구 내포문에 쓰이던 '-ㄴ디'는 뒤의 서술어가 생략됨으로써 연결어미로 발달하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내포문에 쓰이던 '-ㄴ디'는 다시 종결어미로 발달한다(이금희 2016).[213] 이지영(2008)에 따르면, '-ㄹ지'는 중세국어에서는 동사구 내포문으로서의 쓰임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18세기 후반부터 그 예가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ㄹ지'를 동사구 내포문으로 하는 서술어의 유형이 확대되는 것은 19세기 말 이후이다. 즉 18세기 이후 '-ㄴ디', '-ㄹ디'가 '-ㄴ지', '-ㄹ지'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쓰임이 크게 확대되고 '-ㄴ가', '-ㄹ가'와 '-ㄴ지', '-ㄹ지'의 쓰임 영역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다(고은숙 2007/2011). '-ㄴ지', '-ㄹ지'는 현대국어에서도 직접 의문보다 내포문에 더 많이 사용되는데, 국립국어원(1999)에서 '막연한 의문'이라 풀이한 바와 같이 직접 의문에 사용될 경우 뒷부분이 생략된 느낌을 준다.

(13) ㄱ. 聖實: 그야 그러치요 그럼 점 놀다 갈가요 그[ ]짓놈어것도 재미라구 할는지<희곡_홀아비兄弟 1막>

213)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화자가 놀랄 만한 정도성을 가진 원인과 화자의 막연한 추측을 담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후행절 사건이 일어날 전제가 되는 배경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이는데 이때의 배경은 화자가 추측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어미에서 종결형이 된 것이 아니라 [감탄], [놀람], [추측]으로 쓰이던 내포문 어미가 종결형으로 발달한 것이다. 종결형에 쓰이는 경우는 감탄이나 자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아직 종결어미로서 문법화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완곡한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만 종결어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보인다(이금희 2016).

Collection @ uos

ㄴ. 주임에 M이라구 썻든데 조선사람두 검사가 잇는지? <檢事局待合室>

이금희(2016)은 '-ㄴ지'가 내포문에 쓰이는 것은 [의문], [추측], [감탄], [선택]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인데 여기에 [막연함]이란 의미 자질이 항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문 서술어가 무엇인가와 상황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종결형에 쓰일 때는 독백, 자문, 감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뒤에 동사를 삽입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이라 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뒤에 동사 삽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종결어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상위문 동사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상위문 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종결어미가 아닌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완곡한 물음의 '-ㄴ지'는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13ㄱ)은 종결적 용법이라면 (13ㄴ)은 종결어미이다.

양태 의미를 가진 '-ㄴ지', '-ㄹ지'는 '하게'체가 아닌 '해'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ㄴ지', '-ㄹ지'가 직접 의문의 형태보다는 간접 의문의 형태를 띠고 실현되었기 때문에 근대국어 시기 중간 화계로 자리한 '-ㄴ가', '-ㄹ까'와 달리 현대국어에 이르도록 청자 대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ㄴ지', '-ㄹ지'는 직접 의문에서 자문 내지 [추측] 등의 양태 의미를 띠면서 '해'체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214] 현대국어에서 '-ㄴ지'는 뒤를 생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문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요'가 결합된 형태인 '해요'체 '-ㄴ지요'는 활발하게 사용된다. 청자 대우를 수행하는 '-요'가 결합되었다는 것은 청자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ㄴ지'에서 나타나는 '막연한 의문'은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ㄴ지', '-ㄹ지'와 '-ㄴ지요', '-ㄹ지요'는 실현되는 양태 의미가 같지 않게 된다.

(14) ㄱ.「상감마마. 차라리 고구려와 백제와 합하여서 당을 쳐 버리면 어떠하올지.」유신은 이런 말을 하였다. <元曉大師 上>

ㄴ. (쥬) 져이 츙쳥도 문의라던지요 문의라는 골이 잇슴잇가 <한월 99>

이금희(2016)에서 '-ㄴ지요'가 완곡한 물음이라 하였고 고은숙(2007/2011)에서도 현대국어에서 '-ㄴ지요'는 대개 정중한 물음에 사용한다고 한 바와 같이 '-ㄴ지요'는 '하십시오'체와 함께 쓰일 수 있다.[215] 또한 '-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화계는 '하오'체 등급으

214) 그러나 사용 양상에 있어서는 화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15) 이 부분은 사용 양상에 관한 것인데, '해요'체는 '-ㄴ지요'가 아니더라도 '하십시오'체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그것은 양태가 나타나지 않는 '하십시오'체에 양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혼용되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 있는 말투를 써야 할 경우에는 '해요'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Collection @ uos

로 형태는 '해'체에 포함되나 한 단계 높게 실현되는 것이다.[216] '-ㄴ가'나 '-ㄹ가'에는 19세기 이후로 '-습-'이 결합한 형태는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14ㄱ)에서 보듯, '-ㄹ지'에 '-습-'이 결합된 형태가 20세기 자료에도 출현한다.

(15) ㄱ. 이성이 동지로서 그녀를 맞겠네! 이 뜻을 전해 줄 수 없을는지? 하고 계숙에게 관한 마을 일부러 노루꼬리만큼 썼다. <永遠의微笑 254>
ㄴ. 조만간 저승에서 만나더라도 외면이나 하지 않을는지? 그러면 섭섭한 것도 같아서 나의 최후의 필적을 자네에게 남기고 가는 것일세 <永遠의微笑 257>

이와 비슷하게 '-ㄹ는지'도 쓰인다. (15)의 '-ㄹ는지'는 '-리러-'와 '-ㄴ지'가 결합된 것이나 '-더-'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그 표기 또한 '-ㄹ런지'에서 '-ㄹ는지'로 바뀐 것이다.[217] 의미는 [추측], [가능성]을 나타내므로 양태 어미이다.

위의 어미들은 간접 의문에서 직접 의문으로 그 기능을 달리하며 양태 의미를 띠게 된 경우이지만, '해라'체의 '-느냐'는 다른 선어말어미의 변화로 인하여 기능이 달라진 경우이다. '-느-'가 시제 기능을 잃고 권위적이고 의고적인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현대 일상 대화에서는 잘 안 쓰이게 된다. 더불어 '-더냐'도 권위적이고 의고적인 어감을 줌으로써 이 또한 일상어에서는 잘 안 쓰이게 되는 것이다. '-느냐' 대신 '해'체의 '-어'나 '해라'체의 '-니', 그리고 '-느-'가 탈락한 '-냐'가 주로 사용되며, 이 외에도 '-냐' 자체가 축약된 '-ㄴ' 형태도 쓰이는데 '-려'와 결합한 '-련', '-더-'와 결합한 '-던'이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의문문에 쓰였던 것으로써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다. 기원적으로 동명사 어미 '-ㄹ'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로 '해라'체의 '-랴', '-리오',[218] '-ㄹ소냐', '-ㄹ손가', 그리고 '하소서'체의 '-리까'가 그것이다. 이들 어미에는 [추측], [가능성], [확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국어의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어미들이다.

러할 때에도 '-ㄴ지요'가 나타나기도 한다. 뉴스가 그러한 경우인데, 손석희 앵커가 뉴스를 시작할 때 인사말은 "안녕하신지요?"이다. 뉴스 멘트에서 '-ㄴ지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다른 '해요'체 어미보다 정중한 문체이기 때문이다.

216) 현대국어에서 언중이 '-ㄴ지'가 '해'체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예가 있다. 1980년대 희곡에서 남편에게 '하소서'체와 '하십시오'체를 쓰는 부인이 '-ㄴ지'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부인: 촛불을 끄리까? / 무슨 시름이라도 있으신지? / 제 흠과 미진함이 많아 언짢아하시는 건 아니신지? / 저의 미흡함은 서방님을 비길 데 없사옵니다. / 촛불을 끄오리까? /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金相烈『님의 침묵』>

217) 국립국어원(1999)에서는 '-ㄴ지', '-ㄹ지'는 '해'체로, '-ㄹ는지'는 '하게'체, '해'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미들이 종결어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완곡하게 묻는 경우이므로 화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형태상으로는 뒤에 '-요'가 결합할 수 있으므로 '해'체라고 하겠다.

218) '-랴'는 '-리오'에 비해 순수의문에 쓰인 예가 비교적 많다(고은숙 2007/2011).

Collection @ uos

5.2.3. 감탄형 어미

앞에서 살펴본 것은, 선어말어미가 종결어미와 융합하여 종결어미화하거나 간접 의문이 직접 의문에 쓰임으로써 중간 등급으로 실현되던 종결어미가 새롭게 양태 의미를 획득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태 의미를 상실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어미가 분화되는 것이었다. 즉 '하게'체에서 실현되던 어미는 양태 의미를 획득 또는 유지를 통하여 '해'체로 나뉘었는데, 이에 반하여 이번 절에서 살펴볼 것은 문장 종결법으로서 감탄법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이다.

앞에서 '감탄'이 문장 종결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양태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언급하였다. 중세국어 '-돗-', '-에-'는 선어말어미로서 양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감탄형 어미인 '-ㄴ뎌', '-고녀' 등은 문장 종결법에 속하는 유형들이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돗-'의 변이 형태인 '-도-'의 경우 종결어미 '-다'와 결합하여 '-도다'라는 종결어미화되었고, '-에-'의 경우도 종결어미 '-어라'가 되었으며, 새로운 형태인 '-다니'가 생성된 반면, 감탄형 어미였던 '-구나'의 경우[219] 평서형 어미로서도 실현될 뿐만 아니라 [새로 앎], [추측]이라는 양태 의미와 함께 [감탄]의 기능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국어 '-구나/군(요)', '-구먼', '-구려', '-네', '-다니' 등은 감탄형 어미로 처리해야 하는지 [감탄]의 의미를 지닌 양태 어미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다', '-어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이다.

먼저 '-구나'를 살펴보면, '-구나'는 16세기에 등장하는 '-고녀/고야/괴야/고나'[220]의 후대형이다. 이승희(1996)에서 '-고녀'는 화자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 감탄의 종결어미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국어의 '-구나'가 '해라'체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의 '-고녀'는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일지라도 그러한 신분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독백적인 성격의 종결어미라는 것이다. 이것은 '-고녀'가 기원적으로 감탄조사 '-이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탄의 대상에 감탄조사가 통합되어 그것으로써 화자의 찬탄이나 한탄 등의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고녀'는 16세기에 처음 출현한 형태가 아니다. 15세기 이전 구결에서 그 기원 형태가 보이나 15세기에는 출현하지 않는 것이다. 15세기 이전 '고녀'는 'ㅁㄱㅗ', 'ㅁㅗ'만이 나

---

219) '-고나'가 16세기에도 2인칭을 주어로 한 평서문도 나타나므로 이 자체가 감탄형 어미였는지는 알 수 없다. 현대국어와 기능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0) 이승희(1996)은 '-고녀' 계열이15세기 국어 자료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16세기와 그 이후 국어 자료에는 많이 나타나므로 16세기에 새로 등장한 어미라고 생각되어 왔으나(이기문 1972, 허웅 1989), 실제로는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서 이미 그 예가 보이므로 15세기 국어 자료에서 '-고녀'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우연일 뿐이라 하였다.

Collection @ uos

타나지만(이승희 1996), '-고녀' 형태가 등장하는 16세기에는 '-고녀'보다 '-고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녀'가 더 옛 형태이며 점차 사라지는 어형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고나/고야/괴야'는 '-고녀'에서 비롯되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중 '-고나'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윤희(2002)는 '-고녀'는 항상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하여 나타나지만 '-고나'는 앞에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었고, '-고야/괴여/괴야'는 항상 선어말어미를 통합시킨 채 나타난다고 하였다.[221] 그러나 16세기의 '-고녀/괴야/고야'의 출현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출현하는 형태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의 형태 변화는, 이승희(199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야/괴야'는 '-고녀'에서 'ㄴ' 탈락과 어미 양성화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고나'의 경우는 '-고녀'에서 어미 양성화와 함께 'ㅑ > ㅏ'의 변화까지 상정해야 설명할 수 있다. 즉 '-고야/괴야'와 달리 '-고나'는 'ㄴ'이 아닌 'j'가 탈락된 것이다.

'-고녀'류의 출현빈도를 보면 기원형인 '-고녀'는 20세기 초 신소설까지 나타나기는 하나 그 빈도가 적다. 그런데 변이형인 '-고야/고여/괴여/괴야'도 출현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19세기에 보이는 형태들은 감탄형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다. 그에 비해 '-고나'는 어미의 양성화와 'ㅑ > ㅏ'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고녀'에서 '-고나'로 가는 중간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변화 과정은 알 수 없다. 다만 다른 변화 형태인 '-고여/고야', '-괴여/괴야'를 통해 볼 때, 'j' 탈락이 먼저 일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고야/괴야'는 그 빈도가 그렇게 증가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18세기까지만 그 형태가 보일 뿐, 20세기 초에도 간간이 나타나는 선대형 '-고녀'와 달리 19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나'는 빈도수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19세기가 되면 빈도수가 크게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구나'로 발달하게 된다.

(16) ㄱ.「우리의 신혼려행보담두 자미잇셧슬썰!」하는 생각을 하야 보니까 금시로 영희가 얌체빠진 계집가치 보이엇다. <해바라기>

ㄴ. 第腹第: (실적 우서 보고) 져거두 자네가 同무가 아니냐 말야.

第三友: 그럿치, 그래! 竹馬故友라니! <難破>

ㄷ. 원: 아이고 가엽서라! (官九를 아너 살피며) 우지 마라. 어대 요게를 어더 마졋구

221) 16세기에 출현하는 '-괴야'는 '사괴야' 형태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괴다'의 활용형이므로 감탄형 종결어미 '-괴야'가 아니다. '-괴야'가 출현하는 시기는 17세기부터이다. '-괴여'의 경우는 가장 많이 나타나나 이 역시 '사괴다'의 활용형이 주를 이룬다. '-괴여'의 경우 감탄 종결어미의 '-괴여'도 보이나, 주를 이루는 것은 연결어미 '-어'이다.

Collection @ uos

나, 져런 큰 그릇으로. 不常해! 우리 마라, 관찬다, 피 안 난다. …… <李永女>

'-고녀'류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분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독백적 성격의 종결어미로, 장윤희(2012)는 감탄형이 기본적으로 청자를 상대로 하는 종결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높임 등급에 따른 복잡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세국어 이후 감탄형은 안 높임 등급인 'ᄒᆞ라'체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16)과 같이 감탄 등의 독백적 성격의 말에는 종결어미는 '해라'체 내지는 '해'체로 나타난다.

(17) ㄱ. 내 엇디 너를 머믈워 재리오 네 모ᄅᆞᄂᆞ고나 <번노 상:50ㄱ>
ㄴ. 이런 사오나온 사ᄅᆞᆷ이 잇ᄂᆞᆫ고 네 독별이 모ᄅᆞᄂᆞᆫ고나 <노걸 상:24ㄴ>

그런데 '-고나'는 (17)과 같이 16세기부터 2인칭이 주어로 상정된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독백이라기보다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17)은 감탄이라기보다 [새로 앎]의 양태 의미를 지닌 평서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감탄과 [새로 앎]의 양태 의미를 구분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222)]

그러면 여기서 '-고나'의 기원형에 대해 다른 견해인 이유기(2001)의 논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나'가 '-고야/괴야'와 달리 'ㄴ'이 아닌 'j'가 탈락하여 변화 양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합 양상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기(2001)에서는 '-고나'의 형성 과정을 '-고녀'와 다르게 보고 있다. 즉 '-고녀'는 '고+(으)ㄴ+이+어'가 결합한 것으로 이것이 '고녀 > 괴여/*고여 > 괴야/고야'의 변화를 겪은 형태인 데 반해, '-고나'는 '고+(으)ㄴ+아'가 결합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17세기에는 '-고녀'는 나타나지 않고[223)] '-고나', '-괴야/고야'만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종결어미 모음의 양성화 경향에 부합하는 것이다.

'-고나'는 '-*고너' 등의 선대형이 출현하지 않으므로 그 기원형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 다만 형태가 비슷한 '-고녀'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고녀'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나'는 다른 변화형인 '-고야/괴야'와 다른 변화 경로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양상에서도 '-고녀'류와 차이를 보인다. 18세기까지 '-고녀'와 변화 형태인 '-고야/괴야'는 그 빈도에 있어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즉 '-고야/괴야'는 중세국어 이후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다 소멸하였는데, '-고녀'와 '-고나'가 그 기원이 다르다면 '-고녀'류 어미는 중

222) 현대국어의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데에 오름조의 억양을 수행한다.
223) 그러나 '-고녀'는 20세기 초까지도 드물지만 나타난다. '-괴여/괴야', '-고야'도 20세기까지 그 형태가 꽤 보이나 이것은 종결형이 아닌 연결형이다.

Collection @ uos

세국어 시기에는 점차적으로 소멸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호격조사 '-이여/시여'는 구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감탄형 어미나 조사는 그 자체로는 기능하지 않고 억양을 수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탄의 기능 없이 평서형 혹은 호격[224]으로서만 기능을 한다. 억양을 수행하지 않고 오롯이 감탄의 기능을 해 왔던 '-도다', '-이(시)여'[225] 등의 경우 구어에서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감탄형 어미 '-아라/어라'의 경우 현대에도 쓰이나 어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226]

'-고녀'에 비해 '-고나'는 (17)의 '네가 모르는고나'와 같은 예가 16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이것은 주어가 2인칭으로 청자가 상정된 상황으로, 여기에 감탄의 기능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독백이 아니라 청자에게 주는 말이다. '-고나'가 '고+(으)ㄴ+아'의 구성이라면, 여기에서 '아'는 청자지시 요소이다.[227] 현대국어에서 '-구나'는 감탄의 기능이 작용한다고 해도 주로 청자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평서문으로 사용된다. 독백으로 사용될 때에도 감탄을 한다기보다 단순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쓰인다. 장경희(1985)에서도 [감탄]의 의미는 '-구나'의 핵심의미에서 파생된 부수적인 의미로 보았다.

(18) 네 모ᄅᆞᄂᆞᆫ고야 이 활이 ᄀᆞ장 됴ᄒᆞ니 <노걸 하:28ㄴ>

(18)에서 보듯이 17세기 '-고야'에도 그러한 예가 한 번 나타나긴 하나 주로 나타나는 것은 '-고나'이다. 주로 독백체에 쓰였던 '-고녀'류는 19세기에 거의 사라지고 '-고나'만이 남는데 '-고나'에서 발달한 '-구나'와 함께 활발하게 쓰인다.

---

224) '님아, 그 강물을 건너지 마오'와 같이 '-아'에 감탄의 의미를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일상 대화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225) 문어의 경우도 감탄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와 같은 문장에서나 쓰인다.

226) '예쁘다'의 경우 "예뻐라!"와 같이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아름답다''의 경우는 "아름다워라!"와 같이 잘 쓰이지 않는다. '좋다'의 경우, 20세기 전반에는 아이들이 "아이, 좋아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고 1980년대 영화나 드라마에도 곧잘 등장하였으나 점점 "신난다!"로 대체되었고 현재 아이들의 좋다는 표현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이 표현은 오히려 "다들 좋아라 하는데"와 같이 내포문에 나타난다. 박재연(2013)은 '-어라'가 시적인 표현에서,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더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변영로, '논개')"와 같이 일부 자동사에 통합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227) 목정수(2003)은 '-구나', 약속형 어미 '-마' 명령형 어미 '-라'에서 청자지시 요소 {아}를 추출할 수 있는데, {구나}의 {아}는 3인칭화된 {군}의 명제내용을 청자에 접근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을 {아}의 '2인칭화 기능' 또는 '청자지시 기능'이라고 규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호칭에 붙는 호격조사 {아/야}의 기능도 청자지시 요소로서의 {아}와 상관있으며, 청자지시 요소는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므로 결과적으로 아주 친근한 반말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가 결부된 반말 표현과 상대존대 요소인 {요}와의 공기제약은 당연하며, 이는 역으로 {아}의 기능이 '청자지시(=2인칭화)'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

Collection @ uos

현대국어에서 '-구나'는 [새로 앎]의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감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 억양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나'의 변이 형태인 '-군(요)'이나 다른 감탄형 어미라 불리는 '-네(요)'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평서형 어미인 '-다', '-어'의 경우도 상승 억양을 수반하면 감탄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다니'의 경우 평서형과 의문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평서형은 상승 억양을 수반하면서 감탄 기능을 수행한다.228)

'-구나'의 경우, 17, 18세기에 한두 예 정도만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20세기가 되면 '-구나'의 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고나'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구나'에서 '-아'가 탈락한 형태인 '-군'이 20세기에 등장한다. 그런데 '-구나'의 축약형이지만 의미가 같지 않다. 박재연(2014)는 '-구나'와 '-군'은 [새로 앎]과 [추론]의 양태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표현적 의미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군'은 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단호한 독백의 어감을 가지는 반면 '-구나'는 다정하게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군'은 청자와 대화라기보다 독백적 특성이 강하다.

'-구나'는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아'를 분석해 낼 수 없지만, 기원적으로 볼 때 '-구나'에서 청자지시 요소가 생략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던 독백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독백체의 감탄형 어미는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군'도 잘 쓰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해요'체인 '-군요'의 경우 감탄형 혹은 평서형 어미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군요'가 독백체의 어미에서 발달되었지만 청자 대우를 나타내는 '-요'가 결합함으로 인해 독백의 기능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구나'가 청자에게 깨달음을 전하는 표현으로 쓰이듯이 '-군'도 그러한 기능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군'도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단독형으로는 잘 쓰이지 않게 되고 뒤에 '-그래'가 결합한 '-군그래' 형태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자지시 요소가 생략된 '-군'은 감탄이나 혼잣말이 아니어도 단호한 독백의 어감을 가지기 때문에 대화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군요'는 청자를 상정해야 하는 '-요'로 인해 독백의 기능이 희석되어 대화에서 '-구나'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군'은 평서형으로 '하게'체와 '하오'체에도 쓰인다. 몇몇 어미들이 '하게'체와 '해'체로 실현되는 것과 달리 '-군'은 '하게'체에도 쓰이지만 '하게'체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형태의 어

228) 이호영(1996)에서 국어의 억양은 문법 기능, 화용론적 기능, 감정 및 태도의 전달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은 주로 핵억양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였다. 박기영(2009)에서도 억양의 가장 대표적인 문법 기능은 문장 끝의 종결어미에 얹혀 실현되는 억양이 문장의 유형 즉 서법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장의 끝부분은 서법뿐만 아니라 종결어미에 의해 양태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미 '-을걸'은 [추측], [아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의미는 다른 억양으로 실현되는데, [추측]의 의미는 상승 억양으로, [아쉬움]은 하강 억양으로 실현되며 두 억양이 바뀔 경우 그 의미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미가 '하게'체와 '해'체로 실현되는 것은, '하게'체의 어미들이 양태 의미를 획득하여 '해'체의 어미로 변화한 경우인 것과 달리 '-군'은 '하게'체에서 '해'체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229] 그런데 '-군'이 '하게'체만이 아니라 '하오'체와도 함께 쓰일 수 있는 것은 청자지시 요소가 생략됨으로써 화계가 중화되었기 때문이다.

(19) ㄱ.「아, 참, 홍 군도 뎐보를 하얏두군」하며 신부의 얼굴을 치어다 보앗다. <해바라기>

ㄴ.「별소리를 다— 하는군. 라 군이나 하구려」하고 웃고만 안젓더니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20) ㄱ. 중환이는 마루 안을 드려다 보며 이러케 한 마듸 하고「종류 다른 <러브레터>로군!」하고 이러섯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ㄴ. 마리아는 인사를 마치고 나서 중환이를 유심이 치어다 보며 속으로「응! 이 사람이 구두까게에 가서 리혼소송(離婚訴訟)을 하라구 한 자로군!」하는 생각을 하며 입을 씻죽하면서 또다시 치어다 보앗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ㄷ. 성칠 : 여어, 계순이 좀 보우. 아주 기가 맥히게 눈이 부신데. 이야 말로 아주 신선 선녀의 하강이로군그래. <유성연극_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ㄹ.「그런데 뎡옥이는 온대?」「응 아마 오리다. 부덕〱 안 오겟다는 것을 영감님은 어데 갓다구 거짓말을 햇지」「어쪄튼 잘 되엿군?」<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21) ㄱ.「그동안에 쐐 變하얏군요!」하며, 兄님을 치어다 보니까, 兄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웃으며 고개만 끄덕〱하얏다. <萬歲前>

ㄴ.「도처에 구박이 자심하군요」엽헤 섯든 사람도 위로 삼아 한마듸한다. <宿泊記>

ㄷ.「참 이번 저 없는 동안에, 귀찮은 일을 맡으시게 됐드군요?」하고 아픈 구석을 꾹 찔러 보았다. <常綠樹>

(22) ㄱ. 아씨는 방 문설주에 기대어 서며, 남편이 치어다 보기를 기다리다가 표독스러운 소리를 친다. (또 시작이로구나!)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하며,「응? 웨 그래?」하고 인제야 고개를 쳐든다. <電話>

ㄴ. 병식은 끊어진 전화의 수화기를 귀에서 떼기도 전에「공연히 전화를 걸었구나」하였다. <永遠의微笑>

ㄷ.「실례 했다고 하고서 기냥 오랴다가 좀 똑똑이 알어보량으로 정신허구 둘이 들어가서 인사까지 했서요」「그럼 그자의 이름을 알겠구나?」「저…·김수·…경이라든가 아무튼 김가는 확실해요. 말을 입속에다가 넣고 우물쭈물하는 게 아즉 어리배기 같아요」<永遠의微笑>

229) '하게'체와 함께 쓰일 때에는 '해'체에 쓰이는 것보다 억양이 더 낮게 실현되어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

eCollection @ uos

(19)는 감탄이나 독백의 기능이 없는 평서형 어미 '-군'으로, 단순히 화자가 [새로 앎] 즉 깨달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기능만이 나타난다. (19ㄴ)은 '하오'체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19ㄱ)의 경우도 그러한데 청자인 신부에게 화자인 신랑은 '해요'체 내지는 '하오'체를 쓰고 있다. (20)은 감탄 혹은 독백이 실현되고 있는 예문들이다. '-군그래'는 감탄형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20ㄷ)은 '-로군그래'는 기원적으로 중세국어 감동법 어미 '-도-'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예스러운 말투이다. (20ㄹ)은 의문문으로 실현된 것으로 [확인]의 의미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21ㄷ)의 '-군요', (22ㄷ)의 '-구나'도 마찬가지이다. (21)의 '해요'체 '-군요'는 '-군'과 마찬가지로 감탄과 설명의 기능이 나타나지만 독백은 실현되지 않는다. '-구나'는, (22ㄴ)에서는 설명을, (22ㄱ)에서는 독백(생각)을 나타내는데, 독백의 경우 '-군'은 감탄의 기능이 강하다면 '-구나'는 깨달음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구나'에서 '-나'가 생략된 '-구/고'도 감탄을 나타내며 '-구먼' 그리고 '하오'체의 '-구려'도 감탄을 나타내기도 한다. 정재영(2001)은 '-구려'는 중세국어 '-고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중세국어 '-고려'는 [바람]을 나타내는 명령형 어미로 쓰이던 것이 19세기에 형태와 기능이 변하여 감탄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현대국어의 감탄형 어미 '-구려'로 이어진 것이라 하였다.

(23) ㄱ. (허) <u>잘되얏구</u> 그러면 션가를 얼마나 달나누 <명월뎡 357>
ㄴ. (쥬) 참 쟝ᄒᆞ신 <u>일이로구</u> 나는 오십이 넘엇스나 강산유람을 못 ᄒᆞ엿는ᄃᆡ 로형은 년쇼ᄒᆞ신 터에 유람을 단기신다니 <목단화 879>

(24) ㄱ. (치)「졔 방으로 좀 가보지 필경 또 <u>울고 잇나 보구먼</u> 그러치 안이ᄒᆞ면 효셩이 유명히 잇ᄂᆞᆫ 것이 히가 낫이 되도록 어미 아비를 안이 와 볼 리가 잇나」<화의혈 5>
ㄴ. 그 친구 고마운 <u>친구로구먼</u> 우리와 ᄀᆞᆺ치 다시 한슌 ᄇᆡ를 난호앗더면 됴흘 것을 몬져 가고 업스니 우리들 혼ᄌᆞ 먹기가 썩 ᄌᆞ미업슬 뿐 안이라 <화세계 366>

(25) ㄱ. (해붕) 장모 마음 <u>변ᄒᆞ엿구려</u> 무종지칙도 분수가 잇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엇다고 증역을 ᄒᆞ겟느니 무엇을 ᄒᆞ겟느니 여보 사위는 고만두고 과ᄀᆡᆨ이라도 그러케는 괄셰 못 흡닌다 <화즁화 6>
ㄴ. (녀아) 어머니— 발셔 <u>열 시로구려</u> 졸리시지 안이ᄒᆞ오 어머니 평양셩 즁에 지ᄂᆡ시던 말슴이나 ᄒᆞ셔요 <송뢰금 1>

또한 중세국어 '-괴여', '-고나'는 계사와 결합할 때 반드시 앞에 감동법 선어말어미 '-도-'가 개입해서서 '-이로괴여', '-이로고나'로 실현하였는데(이승희 1996), '-구나', '-군', '-구/고', '-구먼/만'도 '-이로구나', '-이로군', '-이로구먼/만'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Collection @ uos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계사와 결합할 때 '-도-'가 개입하는 경우로 '하오'체의 '-구려'도 있는데 이 역시 '-로구려'로 실현된다.[230] 이러한 형태는 모두 의고체로 '-도-'가 계사 뒤에서 '-로-' 바뀌는 중세국어의 규칙이 현대국어에서도 화석화되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들 형태에서는 여전히 감탄의 기능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구나', '-군', '-구먼/만' 그리고 '-구려'[231]에서는 억양을 수반하지 않고는 감탄의 기능이 실현되지 않는 데 반해, '-도-'가 개입된 형태에서는 억양을 수반하지 않고도 감탄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도-'가 '-도다' 외에는 나타나지 않고[232] 또한 감동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도 현대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도다'에서 '-도-'를 분석해 낼 수 없다.

정리하면, 오늘날의 감탄형 어미라고 하는 것 중 '-구나', '-네'의 경우 형태 자체에서는 감탄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억양과 함께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들 어미는 감탄형 어미라기보다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평서형 어미이다. 그러나 '-아라/어라', '-도다'는 억양을 수반하지 않고도 감탄의 기능이 드러나므로 평서형 어미의 하위 부류로 감탄형 어미를 분류한다면 감탄형 어미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나'류에 '-도-'가 개입된 형태인 '-로구나/-로군(요)/-로구먼(요)' 형태도 옛 형태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양을 수반하지 않고 감탄의 기능을 실현하므로 감탄형 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

230) 현대국어 '-도다'의 경우는 계사 뒤에서 '-도다', '-로다'가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현대국어에서는 계사 뒤에서 'ㄷ'이 'ㄹ'로 바뀌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다. 실현되는 것은 옛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으로 '-도다'가 아닌 '-로다'가 더 예스러운 표현이다.

231) '하오'체의 '-구려'의 경우, 두 가지 뜻으로 실현된다. 하나는 명령으로 [권유]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구나'와 같은 의미로 감탄의 올림조 억양이 수반되면 [감탄] 기능이 나타난다.

232) 15세기에서도 '-도-'는 '-도다' 형태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16세기가 되면 계사와 결합한 '-이로고나' 형태가 더 나타난다. 다만 감동법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돗-'이 있고 16세기에는 '-고나', '-괴여'와도 결합하므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Collection @ uos

5.3. 종결어미의 형태와 의미 기능 변화

5.3.1. 음절·음운 변화형

19세기에 새로운 종결어미 형태가 만들어지고 종결어미 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난다. 더불어 다양한 변이 형태들이 형성된다. 과도기적 양상은 종결어미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사라지게 되지만, 변이 형태들은 하나의 종결어미로 자리하게 되는데 이들 어미는 주로 구어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형태로 축약되거나 음운이 변화하여 형성된다. 통사적 구성이 하나의 형태로 되는 것은 4장에서도 보았듯이 주로 인용 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들 중에 다시 환원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환원 불가능한 형태는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종결어미가 된다. 그에 반해 환원 가능한 형태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중간에 선어말어미가 결합될 수도 있는데 그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음운이 변화하는 형태는 음운이 축소 내지 첨가되기도 하고 음운 자체가 변화기도 한다. 이렇게 변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양태와 관련이 있다.

종결어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변화하여 재구조화하면서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형태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기들은 새로운 종결어미가 고착되면서 과도기에 나타났던 형태들은 사라진다.

(26) ㄱ. 지금 남은 것은 단지 집 하나쏀일다 <화즁화 45>
ㄴ. 자네〻들은 그런것을 예사로 아는 모냥일세그려 자네들은 그러케 ᄒᆞ야 나혼 자식이 아니며 리실도 그러케 ᄒᆞ야 나흔 자식이 아닌지 모르깃네 <재봉춘 806>
ㄷ. 에그 셰샹에 밋지 못ᄒᆞᆯ 것은 ᄂᆡ 집이나 남의 집이나 늙으니 일일네 <산쳔초목 33>

먼저, (26)을 보면, '-ㄹ-'이 덧나는 형태들이 있다. 김지은(2008)은 신소설에서는 '-ㄹ-' 유무로 대립되는 종결어미 쌍으로 'ㄹ다-다, ㄹ네-네, ㄹ려고-려고'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ㄹ-'이 덧나는 것도 축약 형태이다. 김지은(2008)은 현대국어에서 모두 '-다'로 실현될 자리에 신소설에서는 '-다', '-ㄹ다', '-라'의 세 형태가 쓰였는데 이 중 '-ㄹ다'와 '-라'는 '이다', '아니다'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능 차이를 보이는데, '-ㄹ다'는 화자와 청자가 직접 발화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쓰이고 '-라'는 글에서 필자가 독자를 상대로 한 표현

Collection @ uos

에서만 나타나고 '−다'는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ㄹ다'와 '−다'의 기능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와 '−다'의 차이는 중세국어에서도 드러난다.[233] 기능이 나뉘었던 것이 '−다'의 쓰임이 넓어지면서 '−라'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ㄹ다'가 화청자 발화에서만 쓰이는 이유는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 기술하였듯이, '−ㄹ다'는 계사와 '−도다'의 결합 형태 '−이로다'의 '−로−'가 축약된 것이다. '−일다'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다. '−도쇠'의 후대형 '−ㄹ세'는 '−이로세'의 축약형이다. 그런데 '−네' 앞에서의 '−일네'는 '−ㄹ다', '−ㄹ세'형에 이끌린 이 시기의 특수한 형태라 하겠는데, 감동법 어미인 '−돗−'은 '−ᄂᆞ−' 뒤에 오기 때문에 '−네' 앞에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 ㄱ. 오− 그 사이에 당신이 도망가려구 <두견셩 상 73>
ㄴ. 닉가 부러 그리 힛지 형님 ᄒᆞᄂᆞᆫ 양 보랴고 <고목화 상 61>
ㄱ. 더구나 남ᄌᆞ도 안이고 별악치ᄂᆞᆫ 하ᄂᆞᆯ을 속일나고 <원앙도 44>
ㄴ. 그놈의 귀신이나 나와 다니면 엇더케 홀나구 <힝낙도 70>

'−ㄹ−'이 덧나는 형태로 '−려고'와 '−ㄹ려고'의 대립이 있다. 김지은(2008)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7)과 같은 현상은 현대국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위 두 용례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려고'와 '−ㄹ라고'는 기원이 다른 형태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ㄹ라고'는 '−려고'의 변이 형태가 아니라 '−리라고'의 축약 형태이다. '−려고'의 변이 형태는 '−ㄹ려고'이다.

(28) ㄱ. 인제 그만해두구 거긔 좀 안치렴으나. 잠간 섯기루 우리들 싀집갈 쌔 모양으로 가레톳이야 스랴만은. 자— 자네두 저긔 좀 안구려 <해바라기 112>
ㄴ. 너나 나와서 먹으렴! 어느 쌔까지 상을 쌔듯드려 노하 둘 모양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338>
(29) ㄱ. 네가 지금 무엇으로써 나를 백정의 자식이라고 모욕하려느냐? 그 조선을 말하여라. <뉘치려할 때 26>
ㄴ. 今順아, ︿! 넌 어데루 싀집 갈얀? 저慶萬이 집으로 가지? <萬歲前 65>
(30) ㄱ. 너희가 엇지 나갓더냐 션지롤 보라더냐 <신약젼서 마 11:9>

233) 고영근(1981/2011)은 [+상관성]에서는 둘째설명법어미 '−(으)니라'에 의존하고, 'ᄒᆞ다' 어형은 [−상관성] 장면자질을 주로 띠는데, 이것은 현대국어의 직설설명법어미 '−다'가 [−상관성]을 띤 특수 문체에 쓰이는 일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ㄴ. 그래 이 돈은 무엇하라고 하시던? <除夜 103>

선어말어미 부분이 축약된 형태 외에도 종결어미가 축약된 형태도 있다. 앞에서 보았던 '-군'의 경우도 '-구나'의 축약된 형태도 그러한 경우이고 (28)의 '-려무나'와 '-렴'의 관계도 그러하다.[234] '-구나'가 '-군'으로 축약되면 화계가 달라지는 데 반해 '-려무나'와 '-렴'은 화계가 같다. '-려므나'의 '-려-'는 중세국어 '-리어'의 축약형으로 명령형 어미 '-어라'와 마찬가지로 확인법 '-어-'가 결합되어 있다. '-려므나'가 '-려무나'로 변한 것은 'ㅁ'에 의한 원순동화이다. '-려무나'와 '-렴'은 명령형 어미에 속하는데 같은 '해라'체인 '-어라'보다는 부드러운 명령으로 '허락'의 의미를 띠므로 명령형 어미의 하위 부류인 허락형 어미라 하겠다. '-려무나'와 '-렴'의 의미 차이는 없다. 다만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축약형인 '-렴'보다 '-려무나'가 친근한 어감을 띤다는 것이다. 허락을 나타내는 '-려무나'는 같은 해라체 '-어라'에 비해 부드러운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화자를 비하시키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박영준 1994). 그리고 '-려무나'의 또 다른 축약형 '-려마'도 있다.

(29ㄴ) 의문형 어미 '-련' 역시 축약형인데 인용 구성의 '-려고 하느냐'가 축약되어 '-려느냐'로 나타나고 다시 축약되어 '-련'으로 실현된다. '-려고 하느냐'는 '-느-'에 의해 의고적이고 권위적인 어감을 띤다. 그러나 '-련'은 '-려무나'와 '-렴'과 반대로 '-련'이 더 친근한 말이다. '-련'은 문법화가 더 진행되어 "엄마가 해 주련?"과 같이 융합된 형태로도 실현된다. 이는 화자가 상대편을 위해 할 의사가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하여 상대편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친근하게 묻는 종결어미(국립국어원 1999)이다. 그렇기 때문에 '련$_1$'은 '-려'가 [의도]나 [욕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어가 2인칭일 경우에만 실현되지만 '-련$_2$'는 주어 자리에 1인칭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더냐'의 축약형인 '-던'도 나타나는데 '-련'과 마찬가지로 '-더냐'보다 더 친근한 말투이다.

---

234) '-려무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8세기 말이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그 예가 드물고 19세기에도 형태는 '-려무나/려므나/렴으나/렴우나'로 다양하게 나타나나 그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려무나'의 기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형을 '-려무나'로 잡을지 '-렴'을 잡을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다. 박영준(1994)는, 한길(1991)에서 '-려무나'를 기본형으로 잡고 '-렴'을 축약형으로 보는 데에 대해 '-렴아'의 형식을 잘 설명할 수 없으므로 기본형을 '-렴'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렴'에 '-아'나 '-우나'가 첨가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8세기에는 '-려무나'와 '-렴'의 예가 하나씩 나타나지만 그 뒤로는 '-려무나'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 19세기에 '-렴'은 역시 예가 하나이지만 '-려무나'의 경우 '-려무나/려므나/렴으나'의 형태로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도 역시 '-렴'보다는 '-려무나'의 형태가 더 많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려무나'에서 '-렴', '-려마'로 축약된 것으로 보인다.

ㄱ. 사름을 어더 보내렴으나 <삼역 6: 019ㄱ> ㄴ. 큰 兄아 됴흔 銀을 주려무나 <몽노 4: 013ㄱ>

ㄷ. 兄아 네 들어가셔 차반을 젹이 지촉ᄒᆞ려므나 <첩몽 3: 010ㄱ> ㄹ. 桃花야 써나지 마로렴 <악습 16>

Collection @ uos

(31) ㄱ. 대관절 내가 무얼 하랴구 나왓드람? <萬歲前 100>

ㄴ. 글세 오늘 써나는 건 조켓지만, 대관절 어데로 간담? 몃 시 차루? <해바라기 129>

ㄷ. 그싸위 상파닥지루두 저런 얍브장스런 서방이, 어더걸린다면…………히々々. 내게두 한 서른대여섯되는 것은 오렷다! 히々々 나—가 부ᄭᅳ럽지 안탐! <廢墟以後_니즐수업는사람들 1>

ㄹ. (츄) ᄒᆡ々 졸디에 밋쳣나 웨 져리ᄒᆡ 오오 말ᄒᆞ는 눈치가 날다려 셔방질 ᄒᆞᆫ다 말이로군 ᄂᆡ가 셔방질ᄒᆞ는 것을 제 눈ㅅ갈로 젹실히 보앗남 웨그리ᄒᆡ 드난ᄒᆞ는 사람이 드난은 말고 <치악산 下 40>

ㅁ. 「그럼 효녀 아냐? 전 머 허다못해, 학교 동무루 등록된 아이래두 찾아댕기면서 애너, 이번에 우리 아버지헌테 투표 꼭 해주어야지 한다. 이런 말이래두 했어?」「난 감투가 필요치 않으니깐.」「누군 그럼, 감투 쓸 령으루 그리는 줄 아는감?」「가령, 대한토건공사(大韓土建公司) 황종택 씨 같은.」「아니, 무엇이 어째?」<도야지 20>[235)]

인용 구성 가운데 '말이다'가 결합되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 의문형 어미 '-ㄴ가'가 결합하여 혼잣말에 쓰이는데 이것은 다시 축약된다. '-단 말인가', '-란 말인가', '-냔 말인가'가 축약하여 (31)과 같이 '-담', '-람', '-남' 형태로 실현되는데 주로 자문 내지 언짢음을 나타낸다. 또한 '오너라'의 축약형인 명령형의 '온'도 나타난다.[236)] '온'의 경우 확인법의 '-너-'는 '오다'와만 결합을 하므로 어말에 '-ㄴ'으로 축약하는 명령형은 '오다'의 '온'밖에 없다. 현대국어에서 명령형 어미 '-어라'보다 '-거라'와 '-너라'가 더 의고적인 어투로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데 반해 '온'은 친근한 어감을 준다. 이 말은 주로 아이에게 쓴다.

(32) ㄱ. 그 흥졍 부ᄃᆡ ᄒᆞ여 보ᄂᆡᄋᆞᆸ심 ᄇᆞ라ᄋᆞᆸ 뎨의 모시 치마도 보ᄂᆡ여 주시면 조케ᄉᆞᆸᄂᆞ이다 <창원 황씨 언간 36>

ㄴ. 어이 아니 그러ᄒᆞ오게ᄉᆞᆸ …… 이곳 저 상 헌 손으로 셰젼부터 신고ᄒᆞ오니 괴롭ᄉᆞ오이다. <창원 황씨 언간 41>

ㄷ. 셥셥ᄒᆞᄋᆞᆸ기 피ᄎᆞ일반이ᄋᆞᆸ 밧사돈계셔 일젼 힝ᄎᆞᄒᆞ셔시나 <창원 황씨 언간 10>

ㄹ. 영감주 젼 상셔 문안 알옵 먼져 하문ᄒᆞ옵시이 황공 젓젓사온 말삼 못ᄂᆡ 알옵ᄂᆡ다 <창원 황씨 언간 26>

ㅁ. '행복의 첫거름을 튼튼히 드듸시옵'이라는 축사를 보낸 것은 자긔싼은 아모 의미없시

235) 채만식의 소설 『도야지』는 1948년 작품이다.

236) Bybee et al.(1994)는 문법 형태가 음성적이고 의미적인 내용에서 줄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환경에서 다른 음성적 재료들과 동시에 조음되기 쉽고, 그래서 주변의 재료에 따라 다른 축약을 겪는다고 하였다.

Collection @ uos

한 말인지 모르지만 영희에게는 쏘 다른 어써한 예상을 가지고 헌 말가티 생각되었다. <해바라기 123>

(33) ㄱ. 이러케 자로 와 보시니 정답ᄉᆞ외다 <朝鮮語五十日間獨修 184>

ㄴ. 아모리 여러 ᄒᆡ 흉년이 든들 그 만은 빅셩이 다 죽소릿가 <朝鮮語五十日間獨修 211>

ㄷ. 아−냐요. 난 카−로노−메애요. 아 그래서 날더러 하는 말이군. 갈쳐 쥬니 고맙소이다. (冷靜히 졀한다.) <難破>

ㅁ. 乙 : 아— 이 내게서 밧는 돈은 실탄다임

丙 : 그럴 리가 잇겟습닛가만은

乙 : 그러믄 내줄 텐데 밧는긔 엇덧습

(34) ㄱ.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ㄱ'.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노을 빈 하늘만 눈에 차는구나

(31) '−읍'의 경우, '하소서'체의 절단형으로 편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이다. '하소서'체와 혼용되어 쓰이는데, 이 당시의 편지를 보면 어간만 나타나는[237] 등 문말이 절단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그리고 '−사오이다'의 변이 형태로 '−소이다'도 보인다.

축약 형태 외에도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이 시기에 나타난다. 근대국어에서의 '−자ᄉᆞ라'와 같이 청자를 높이는 '−요' 외에도 높임의 기능 없이 양태 의미만을 나타내는 '그려'나 '그래'가 '하오'체, '하게'체, '해'체의 종결어미 뒤에 결합되어 나타난다.[238] 문어에서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33ㅁ)과 같이 구어체에서도 그러한 예가 보인다. 명사형 어미를 결합하면 화계가 중화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4)의 '−누나'가 있다. 이것은 국립국어원(1999)에 따르면 현재에 깨달은 동작의 진행을 설명하는 뜻을 나타내며 감탄의 뜻이 수반되는 종결어미이다. 즉 '−누나'는 '−는구나'의 축약형인 것이다.

음운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도 있는데, '하오'체의 '−오'가 '−우'로 변하여 '하우'체를 형성한다. 정경재 외(2015)는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2음절 이하 /ㅗ/>/ㅜ/ 고모음화 현상의 영향으로 '−오/소'와 '−우/수'란 형태의 분화를 겪게 된 것이라 하였다. 유필재(2014)는 먼저 모음과 /ㄹ/ 뒤에서 '−오'가 '−우'로 변화하는 것은 비어두에서 '오 > 우' 변화 때문으로 이것은 서울 방언을 포함한 중부 방언에서 문법적 제약 없이 폭넓게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237) ㄱ. 말ᄉᆞᆷ 남ᄉᆞ오나 총요 이만 쥬리오니 <창원 황씨 언간 48>
ㄴ. ᄎᆞ마 섭섭 굼굼 외롭ᄉᆞ옴 엇지 측냥ᄒᆞ오며 <창원 황씨 언간 45>

238) 보조사 결합은 5.1.2장에서 자세히 살필 것이다.

Collection @ uos

하였다. 그리고 1936~7년에 발표된『천변풍경』에서는 '오 > 우'의 변화가 모든 환경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35) ㄱ. 어머니: 계순아!

계　순: 여기 방에 있소.

어머니: 아니 거기서 뭣하니? 이리 나와, 빨리.

계　순: 하하하, 어머니 나 새 옷 갈아입었수. 이것 좀 봐.

<유성연극_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ㄴ. 있다 열한 시쯤 해서 들르세요. 내가 없드래두 좀 기대려 주슈. 꼭 할 말두 있구 하니...... 네? <電話 165>

ㄷ. 順虎: 어머니! 어머니도 인제는 사람의 부모 된 생각을 좀 해요, 자식도 사람이여요, 어서 그 돈을 이리 내우 (또 召史의 허리춤을 찬는다) <殘雪 244>

'하오'체는 예사 높임으로서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윗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높임]의 자질을 가졌으나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화계가 낮아져 윗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반해 '하우'체는 여전히 윗사람에게도 쓰인다. 그러나 윗사람에게 똑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대상에서 둘은 차이를 보인다. '하오'체는 주로 남성 화자에게서 나타나고 '하우'체는 여성 화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어감 또한 차이가 난다. '하오'체는 남성들 사이에서 쓰는 격식 있는 말투여서 권위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하우'체는 여성들 사이에서 나는데 대상이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격의 없는 친근한 사이에서 쓰는 말투로 친근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우'체는 주로 여성 화자가 쓰는 말투로서 모녀 사이나 형제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다. 유필재(2014)에서도 '-오'는 권위적인 성격을 지는 반면 '-우'는 비격식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것은 점차 높은 대상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239] '-오'가 상호 존대가 필요한 화맥에서 기능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화맥은 격식적인 경우가 많아 언어가 보수적인 형태를 위지하기 쉽기 때문에 고모음화라는 음운론적 변화를 더 늦게, 더 천천히 받아들이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으리라는 것이다(정경재 외 2015).

(36) ㄱ. 부: 그럿소. 아들아, 내 가슴 속을 알어 다우. <難破>

239) 사회 신분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는 낯선 사람 간에 일상적인 친분이 없던 사회적 관계의 사람들 간에 상호 '하오'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높은 대상에게 '-오'를 사용하지 못하는 용법이 일반 민중들에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정경재 외 2015).

Collection @ uos

ㄴ. 점순이가, 상긋상긋 우스면셔, 어듸 무어슬 가지고 그리ᄒᆞ누 ᄒᆞ면서, 슬젹 펴니, <귀의성 2019>

ㄷ. 내가 이건 해서 무엇하누? 누구더러 보아달라랴구 지금 이걸 쓰져거리누? …… 예술이란 무어냐? 인생이란 무어냐? 무슨 까닭에 이 신산한 세상을 아즉두 몃 십 년을 질질 끌려가며 살랴는구? <해바라기 126>

(37) ㄱ. 松實: (그 말을 듯고 별안간 上氣가 되며) 幸福이요? 다― 고만두서요. <冷笑 84>

ㄴ. 웨요? 先生님 머리ㅅ처럼 맨들란 말씀이야요? <E선생>

ㄷ. 아, 글세 어련하시겟습니까만은 큰나리가 그려시기에 말씀이애요. 어느 때 주시거나 상관 잇세요. <孤獨>

ㄹ. 母 : 에구, 시어머니두! 아냐요. 詩人이 몬져 問題가 되어야 합니다. <難破>

ㅁ. 시인: (避해서 母에게 달녀들며) 난 실예요. 그 얼굴은 同腹第의게나 가져가시구려. <難破>

ㅂ. 잘 오구 말구요. 그래 그 동앙ㄴ 얼마나 고생을 허셨에요? <常綠樹>

'우' > '우'만이 아니라 '고'와 '노' 역시 '구'와 '누'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어요'의 축약형 '-여요', '-야요' 형태도 나타나고, '-이에요', '-예요', '-시어요'의 축약형인 '-셔요', '-세요' 등 '해'체의 '-어'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 '-셔요', '-세요' 외에는 하나의 경우로 통일된 경향을 보인다.240)

'-ㄹ려고'를 제외하고 /ㄴ/이나 /ㄹ/이 덧나는 현상은 하나의 음절이 축약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축약된 것이 아닌 음운이 덧나는 형태도 있다.

(38) 돌격! 앞으로 차렷 열중쉬엇 앞으로 갓!

위의 예문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다든지 할 경우, 서술어 형태가 아닌 명사 혹은 부사어로만 발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예도 '해라'체 범주로 묶어야 한다. '돌격', '앞으로'와 같은 경우에 '-요'를 붙일 수는 있지만 이때에는 명령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령의 경우 '앞으로 갓!' 같이 발화할 수 있는데, '차려'나 '열중쉬어'의 경우 명사로 분류되면 여기에 /ㅅ/이 결합하는 '차렷'이나 '열중쉬엇'은 '차려'나 '열중쉬어'보다 강조된 표현으로 하나의 단어로 분류된다. 그런데 '갓'의 /ㅅ/은 하나의 형태소라기보다 이준영(1987)에서와 같이 명령을 강조할 때 쓰는 운소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고영근(1989)에서도 '해라'체 '-자'에 'ㅅ'

240) '하-'의 경우 '하야'에서 '하여'로 변화한 형태가 축약형 '해'와 공존하며, '아냐요'의 경우도 '아니에요'와 '아녜요', '아녀요' 형태만이 나타나는데 '-요'가 결합하지 않은 '해'체에서는 '아녀'가 아닌 '아냐'로 나타난다.

Collection @ uos

을 첨가하면 행동 수행을 재촉하는 뉘앙스가 풍긴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청유형 어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ㄴ감'과 같이 'ㅁ'이 덧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앞 절에서 보았던 '-담, -람, -남'의 /ㅁ/과는 다르다. '-담, -람, -남'의 경우 인용 구성이 축약된 것으로 'ㅁ'은 '말인가'의 '말'에서 온 것이라면 '-ㄴ감'의 /ㅁ/은 인용 구성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41]

이렇게 음운이 변화하여 나타난 형태는 새로운 어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맞춤법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 또한 새로이 형성된 종결어미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종결어미에서도 나타나는데, 먼저 표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미 소멸한 음운 'ㆍ'가 표기로도 사라짐으로써 다양한 표기가 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쇼셔'가 단모음화되어 '-소서'로 되는 것같이 음운 변화로 인하여 표기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5.3.2. 보조사·계사 결합형

19세기 말 '해'체가 발달함에 따라 종결어미가 담당하는 기능이 양태로까지 확장된다. 간접의문에서 비롯한 '-ㄴ가/고', '-ㄹ가/고' 같은 경우도 직접의문에 실현되면서 단순한 질문에도 쓰이지만 그보다 자문이나 수사 의문도 나타낸다는 것은 종결어미가 양태 기능까지 담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동명사 어미 '-ㄹ'이 포함된 어미의 경우, '-ㄹ'이 가진 시제적 기능이 단순한 시제적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만이 아니라 양태 기능으로 전환되어 작용한다.

종결어미에 양태 기능까지 부담하게 된 것은 선어말어미의 쇠퇴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 선어말어미에서 담당하던 기능이 선어말어미가 쇠퇴됨에 따라 종결어미로 이동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기존에 양태 의미가 나타나는 어미 외에 새롭게 생성된 양태 어미는 대부분 '해'체에 속한다. 그래서 양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체 혹은 '해요'체가 실현된다.

양태를 나타내는 '해'체가 발달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높임말 '해요'체도 발달하게 된다. 고은숙(2007/2011)은 19세기에 형성된 '-요'가 결합될 수 있는 것은 반말어미가 지니는 특성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소흔(2010)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요'에 대한 기원은, 'ᄒᆞ오'체의 종결어미 '-오'로부터 변화한 것이라는 것과 계사의 'ᄒᆞ오'체 활용형 '-이오'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 고광모(2000)은 자음 뒤의 '-이요'나 '-이오'는 조사

241) 이와 같이 자음이 덧붙어 양태 의미를 가지는 현상은 오늘날 활발하게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화자의 감정에 따라 다양한 자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Collection @ uos

'-요'의 기원형이 단순히 '-오'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면서 조사 '-요'는 지정사 '-이오'가 반말에 덧붙는 상대 높임의 단일 형태소로 재해석되었다고 하였다. 김정시(1993)은 '-요'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라면서, 17세기는 '-고'의 'ㄱ' 묵음화 의식이 불식되어 '-오'가 단독적 어미로 의식되면서 y순행동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오'의 축약형인 '-요'가 17세기에 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18세기에 발간된 다른 자료에는 '-요'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시기부터 발달한 소설에 '-요'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고'에서 발달한 '-요'는 높임을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래 '-고'가 가졌던 의미 기능 면에서 볼 때 '나열'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고'에서 발달한 '-요'는 '나열'의 연결어미이고,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보조사는 '-이오'에서 발달한 것이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그것은 '-오'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ᄒᆞ오'체의 '-오'는 '-숩-'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소흔 2010).

(39) ㄱ. 우뉴를(쇠젓슬) 먹이면 츙실ᄒᆞ지요 <獨學韓語大成 333>
ㄴ. 드르니 이번 ᄇᆡ로 셔울 가신다지요 <日韓韓日新會話 181>
ㄷ. 시방 밧아 보는데요 <最新日韓會話案內 96>
(40) ㄱ. 그리 급허단 말이요, 나는 ᄉᆡ도 움주겨야 ᄒᆞ지요 <日韓韓日新會話 234>
ㄴ. 무슨 념녀 잇스리요 <日韓韓日新會話 156>
ㄷ. 아무 나라히라도, 슈인 ᄉᆞ법은, 다, 잇지오<實用韓語學 115>
(41) ㄱ. 츰 곤ᄒᆞ시지 아직 십푼 남앗스니 운동이나 ᄒᆞᆯ가요 <實用日韓會話獨 121>
ㄴ. 정희: 오빠, 우리 형제는 너무나 불행합니다요. <유성연극_말 못 할 사정>
ㄷ. 탁지부는 나라 셰금을 팟지는 데요 <日韓言語合璧 271>

그런데 '해요'체의 경우 '하오'체와 혼동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0ㄱ, ㄴ)은 '-오'가 앞의 /이/로 인해 '-요'로 나타난 것인 데 반해 (40ㄷ)은 '-요'가 '-오'로 나타난 것으로 표기는 '-오'로 적혀 있지만 (40ㄱ, ㄴ)을 통하여 발음은 '-요'로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요'는 '해'체만이 아니라 '하십시오'체와 같은 '-다'나 '-까'에 결합하기도 한다. '하십시오'체에 '-요'가 결합됨으로써 좀 더 공손해지고 '-습니다'에 비해 부드러운 어감의 '-요'가 결합되어 친근한 느낌을 준다.[242] (41ㄷ)은 '세금을 받치는 곳이오'라는 뜻으로 '데요'는 '데이오'의 축약 형태이다.

242) '-요'가 부드러움, 친근함 등의 양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다. '-요'의 기능은 청자 대우이다. 다만 정중한 느낌의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의 '-요'가 결합함으로써 '-습니다/까'보다 부드럽고 친근함을 띤다는 것이다.

eCollection @ uos

(42) ㄱ. 「돈 바라구 허는 일두 있구, 일 재미루 허는 일도 있으니깐입쇼」 하고 선뜻 대답을 하였다. <常綠樹 2:248>

ㄴ. 큰아씨께서 아침 잡순 게 관격이 되셔서 아주 자반뒤집기를 하시는뎁쇼. <永遠의微笑 190>

ㄷ. 성칠: 암요. 괜찮구말굽쇼. <유성연극_동방의 비가>

반말과 결합하는 것으로 높임의 종결보조사 '-요' 외에도 '-입시오'의 축약형인 '-입쇼'가 있다. 고광모(2000)에 따르면, '-입쇼'는 반말에 덧붙는 상대 높임 조사로서 본질적으로 '-요'와 같은 성격으로, '합쇼'체 활용형 '-입시오'로부터 발달하였다고 한다. '-입시오'는 20세기 전반기의 신소설과 근대 소설에서 확인되는데, 높임의 정도에 있어서는 '-요'보다 높다. 그러나 '-입쇼'는 '-요'와 달리 보조사로 보기 어렵다. '-입쇼'는 결합 양상에 제약을 보이는데, 모든 반말에 붙지 않는다. 조사 '-요'가 붙을 수 있는 종결어미로 '-어'와 '-지'가 대표적이지만 '-입쇼'는 이들 어미 뒤에는 붙지 않는 것이다. 고광모(2000)은, '반말+-입쇼'는 높임의 등급에 있어서 기존의 '합쇼'체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업쇼'의 자리가 빈칸으로 남게 되는데,[243] 이와 같은 '*믿업쇼'에는 '합쇼'체의 활용형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읍시오' 따위를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의 경우, '*-집쇼' 대신에 '-습지요/습죠'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43) ㄱ. 이주사 나리, 전화 받읍죠. 급한 전화랍니다. <電話>

ㄴ. (금)녜 리약이 합지오 에그 숨차....... 좃골로 가닛가 돌이가 졔 집에 업셔오 <빈샹셜 190>

'-요'와 달리 '-ㅂ쇼'가 계사 '-이-'를 항상 동반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는 '-이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요'도 계사 '-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요'나 '-입쇼'의 출발은 같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입쇼'를 보조사로 본다면 '-입쇼'와 '합쇼'체 어미를 구분해야 한다. '-입쇼'가 결합하는 것은 어말어미와 체언 뒤이고 간혹 조사 뒤에도 결합되기도 하는 데 반해 '합시오'의 어미는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뒤에 결합한다.

그러나 '-입쇼'가 제약되는 환경은 '-어'와 '-지'만이 아니다. 이외에도 종결어미 '-다면서', 종결어미 '-고' 등은 결합되지 않는데, 이것을 대체할 어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요'는 평서, 의문, 청유, 명령을 표시할 수 있지만 '-입쇼'는 평서, 의문으로만 나타난다. 그것은

243) '반말+-요'는 기존의 상대 높임법 체계에 없던 새로운 등급을 말음으로써 '-어요'를 대신하여 그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형식은 없다(고광모 2000).

eCollection @ uos

결합되는 어미가 명령형으로 나타나지 않아서도 그렇겠지만 계사가 융합되지 않고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미들과 결합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가 쓰이게 된 것은 소문장이나 분열문에 계사가 덧붙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광모(200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어말어미와 결합하는 '-입쇼'는 아직 문법화의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하겠다.

'-ㅂ시오'는 '하십시오'체를 기준으로 보면 명령형 어미이다. 그러나 '납시오' 등과 같이 '합쇼'체의 '-ㅂ시오'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어미로 두루 나타나기도 하는데, '-입쇼'는 평서, 의문으로 쓰였던 어미에 결합하여 실현된다.[244] 즉 '-입쇼'는 '하오'체에 '-이-+-ㅂ시-'가 결합된 형태가 발달한 것으로 '하오'체보다는 화계가 높은 '합쇼'체인 것이다. '-요'나 '-입쇼'는 '해'체에 결합하여 높임을 실현한다. 그러나 '-요'는 '해요'체를 형성하지만 '-입쇼'는 하나의 화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245] '합쇼'체와 같은 등급을 이루므로 '-요'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20세기가 되면 '해요'체는 '하십시오'체나 '하오'체보다는 부드러운 말투로 여성과 아이의 말로 먼저 자리 잡는다. '-입쇼'의 경우, '하십시오'체의 어미보다 덜 격식적인 말투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말투로 '-습니다'에 '-요'가 결합하여 '-습니다요'가 쓰이는데 이 또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에서 보인다. 그런데 '-입쇼'나 '-습니다요'의 경우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말투도 점차 사라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요'와 '-입쇼'는 청자 대우법을 수행하는 보조사이지만 부드럽거나 덜 격식적인 말투로 만드는 기능도 한다. 이 외에도 보조사가 결합으로써 대우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태 의미를 실현시키기도 하는데, '-그려', '-그래', '-마는/만', '-나' 등이 그것이다. '-그려'와 '-그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긍정이므로 이것이 종결어미 뒤에 옴으로써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려'와 '-그래'의 기능은 같지만 놓이는 환경은 다르다. '-그려'는 '하게'체의 종결어미와 결합을 하고 '-그래'는 대개 '해'체의 종결어미와 결합을 하지만 간혹 '하오'체의 어미와 '하게'체의 어미와 결합을 하기도 한다. 20세기 전반기 자료에는 '해'체 다음에 '-그려'가 결합한 예도 보인다.

(44) ㄱ. 정희: 오빠는 기여히 떠나갔습니다그려. 모든 것이 옅은 계집의 소견으로 오빠의 ?

244) 명령이나 청유형에 결합 가능한 형태는, '하라곱쇼/하라굽쇼?', '하자곱쇼/하자굽쇼?'와 같이 상대의 말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이다.
245) '-입쇼'가 보조사이고 하나의 화계를 형성한다면 '햅쇼'체가 될 것이다.

Collection @ uos

을 막았구려. 오빠. <유성연극_정희의 옵바>

ㄴ. 제가 제 책임을 지고 하는 일에 누가 무어라구 해요. 정 그러실테면 선생님부터 아무 상관을 마십쇼구려 <너희들은 무엇을 어덧느냐>

ㄷ. 시인: (손을 잡으며) 비비?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하우. 그까짓 生覺은 내 가슴 속에다 가만 너둡시요그려. 져거두 當身을 맛난 이 瞬間은. <難破>

(45) ㄱ. 글세요, 내가 그러케 變하얏슬까. 그러나 乙羅氏의 얼골이야말로 참 變하섯소구려! 그래도 그 눈만은 如前하지만! 하々々々 <萬歲前>

ㄴ. 웨 그리시오 섭섭ᄒᆞ오구려 <日韓韓日新會話 179>

ㄷ. 얼마나 잇셔야 헐 가량은 잇기소그려 <日韓韓日新會話 232>

(46) ㄱ. 에그 자네가 왓네그려 응— 나는 우연히 병이 드러 암만히도 죽깃네 응— <금강문 21>

ㄱ'. 아, 그래두 한盞 나가서 먹세그려. 暫間만이라두 조흐니…… <萬歲前>

ㄴ. 성칠: 여어, 계순이 좀 보우. 아주 기가 맥히게 눈이 부신데. 이야 말로 아주 신선 선녀의 하강이로군그래. <유성연극_동방의 비가>

ㄷ. 교ᄉᆞ 그 ᄌᆞ식도 안이된 ᄌᆞ식이지그려 학도를 가ᄅᆞ치면 과뎡에 잇는 교과셔나 잘 일너쥴 ᄲᅮᆫ이지 별 망칙ᄒᆞᆫ 소리를 짓거려 남의 쏠ᄌᆞ식을 버리러드노 으-응- 안이ᄭᅩᆼᄋᆞ라 <홍도화 9>

현대국어 표준어에서 보조사로 인정하고 있는 형태는 '-그려'와 '-그래'이고, '-구려'는 '하오'체의 어미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그려'는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와 결합하고 '-그래'는 '해'체와 결합한다. 보조사 '-그려/그래'가 결합함으로써 말의 내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감]의 색채를 띠게 된다. 20세기 전기 자료에서도 그러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체의 경우 '-그려'가 결합한 형태도 보이고 '-구려' 역시 '하오'체의 어미가 아닌 보조사의 형태로도 실현된다. (45)을 통하여 '-구려'가 '-그려'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구려'는 '하오'체의 '-구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오'체의 '-구려'는 동사와 결합 시에는 [부탁], [권유]의 의미를 지닌 명령형 어미이지만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하게 되면 [감탄]을 나타낸다. 이 [감탄]의 의미를 지닌 '-구려'가 조사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심리'를 표현하고 강조의 '-구려'를 붙이는 것은 '감탄'의 기능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45ㄴ)을 보면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어색한 표현인데, 이것은 '섭섭하구려'로 바꿀 수 있다. '-구려'가 '-그려', '-그려'로 변화하고 '-그려'와 '-그래'는 놓이는 환경도 달라지게 되었다.

Collection @ uos

(47) ㄱ. (심)네 별로엿줄말솜은 업슴니다마는 령감게셔 우리나라악습을 타파ᄒᆞ시랴고 됴흔언론을 만히ᄒᆞ심을듯고 쳐엄뵈ᄋᆞᆸ고 황송ᄒᆞ오나 시싱이 지금이십ᄉᆞ셰에 아즉셩취를 못힛습니다 <홍도화 61>

ㄴ. 할멈々々 이방으로 건너오게나 웨 거긔 혼ᄌᆞ 안졋나 <힝낙도 311>

(48) ㄱ. 무얼 아모데고 인제는 닥치는대로 정하는 수밧게! <宿泊記>

ㄴ. 소리를 질러 경자나 행랑에서 들어 봤자 못 들은 체 할 것이 분명하다. <永遠의微笑 198>

'-마는/만'은 앞의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붙는 보조사이다. 현재 '-마는/만'은 보조사로 처리되는데 '-다/냐/자/라/지'에 결합하는 것으로 '말다'의 활용형이 문법화된 것이다. 그러나 '-마는/만'이 결합하면 (47ㄱ)과 같이 연결어미나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게 된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게'체의 명령형 어미 '-게' 뒤에 붙어 '-게나'로 실현된다. 여기서 '-나'는 '-게#하나'의 축소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의문형 어미인 데 반하여 '-게나'는 명령형으로만 실현되므로 마지막에 오는 어미 '-나'는 의문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보조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조사 '-나'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최소한 허용되는 선택을 할 때 쓰이는 것으로 체언이나 연결어미 '-아/게/지' 어미 뒤에 붙는 '-나'의 기능이 확장되어 종결어미에도 결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고영근(1989)는 '하게'체의 명령법 '-게'에 '나'가 첨가됨으로써 허락법이 형성되었음을 감안하면 덜 강제성을 띤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하게'체는 아랫사람을 격식을 갖추어 조금 높게 대우하는 말이지만 어투 자체는 권위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러한 '하게'체의 명령형 어미 '-게'에 '-나'가 결합함으로써 그 명령이 부드러워지는데 그것은 보조사 '-나'가 가진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선택'에서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권유]의 의미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문형 어미 '-나'가 결합한 '-다#하나', '-ㄹ까#하나' 등의 인용구성인 '-다나', '-ㄹ까나' 혹은 '하-' 생략 형태인 '-려나'와는 다르다.

또한 어말어미 '-거든'에 보조사 '-을랑'이 결합한 '-거들랑' 그리고 축약형인 '-걸랑'이 있는데 의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의 구성과는 달리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융합형태이다. 그러나 종결어미로 쓰인 '-거든$_2$', '-거들랑$_2$'은 20세기 전기 자료에서는 예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조사가 어말어미 뒤에 결합하는 구성 외에도 보조사가 결합한 통사 구성이 축약하여 나타난 형태도 있다. '-ㄹ 수밖에'가 축약되고 뒤의 '없다' 부분이 생략된 형태인 '-ㄹ밖에'도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다.

(48ㄴ)은 계사 '-이-'의 활용형이 붙는 경우이다. 연결어미 '-았자'와 결합하여 종결어미

Collection @ uos

를 이루는데 '-았자야(그래 봤자야)', '-았자지(그래 봤자지)', '-았자라며(그래 봤자라며)', '-았자라는데(그래 봤자라는데)', '-았잡니다(그래 봤잡니다)', '-았자네(그래 봤자네)'와 같이 '해'체 어미는 물론, '하십시오'체나 '하게'체의 어미도 결합 가능하다.246) '-았자라며'의 경우 인용구성의 '-다며'와 같이 의문형 어미로 실현되는데 감탄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야'의 경우 "집에 왔다야!/지금 시작한다야!"와 같이 '-다야'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이 역시 20세기 전기 자료에서는 예를 확인하기 어렵다.

'말다'의 경우, 중세국어에서도 '말-'과 '마-'의 형태로 나타난다. 명령형 어미 '-라'와 결합 시 '말라'와 '마라' 두 형태가 실현되는데, 직접인용에는 '마라'가 쓰이고 간접인용에는 '말라'가 쓰인다(이지영 2008). 현대국어에서도 명령형 어미 '-라', '-어라', '-어(요)'와 결합에서 '말-'과 '마-'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49) ㄱ. 예수 갈오사ᄃᆡ 우지 말라 녀ᄋᆡ 죽지 안코 잔다 <예수셩교젼셔 눅 8:52>
ㄱ'. [류] 금쥬야 걱정 말라 구경은 낫보다 밤이 더 됴흔니라 잇다가 나와 갓치 종로가셔 등쌜 구경이나 ᄒᆞ여 보자 <옥호기연 3>
ㄱ''. 우리 어머니가 날더러 죽지 말라 ᄒᆞ시던 소ᄅᆡ가 아무리 쉽일찌라도 녁々ᄒᆞ기가 싱시 ᄀᆞᆺ흔고로 슬픈 ᄆᆞᄋᆞᆷ을 진졍ᄒᆞ고 이 목슘이 다시 사라ᄂᆞ셔 너른 쳔지에 붓칠 곳이 업ᄂᆞᆫ지라 <혈의루 74>
ㄴ. 싸윗의 ᄌᆞ손 요셉아 네 안ᄒᆡ 마리아 다려 오기를 무셔워 마라 뎌의게 잉ᄐᆡᄒᆞ신 거ᄉᆞᆫ 셩신으로써 됨이오 <신약젼셔 마 1:20>
ㄴ'. (령) 아가 우지 마라 ᄂᆡ가 지금 써나 너의 어머니 게신 곳에를 ᄂᆡ려가 위션 너의 부친 장사 잘 지ᄂᆡ신 소식도 듯고 <빈샹셜 920>
ㄷ. (부) 오냐 그 걱정은 말아라 셔방님 ᄆᆞᄋᆞᆷ이 감동되실ᄂᆞᆫ지 안이 되실ᄂᆞᆫ지 그난미리 쟝담ᄒᆞᆯ 슈 업다마ᄂᆞᆫ 비진ᄉᆞ졍을 다ᄒᆞ야 보마 <우중행인 25>
ㄹ. 남슌아 울지 말아 남슌아 울지 말아 너의 어머니가 지금은 잠시간 네 외가로 갓스나 몃칠이나 되야 도로 오겟나냐 울지 말아 <치악산 下 56>
ㅁ.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러케 압흔데 <운수조흔날 142>
ㅁ'. 남「앗ᄯᆞ 그리고 져리고 걱정을 마라요 차차 되ᄂᆞᆫ 수가 다 잇스니」<금강문 39>
ㅁ''. 웬 걱정이야, 밥갑슨 주인 아씨하고 약조를 햇스니까, 다시는 내게 말 마라요. 상제보다 복제기가 더 설허하는 셈이로군! <孤獨>
ㅂ. 어린애를 뭉뚱그려 안고 일어스며「우지 마 우지 마」하마 <自己를 찻기 141>

246) '-았자라면서(그래 봤자라면서)'와 같이 연결어미도 결합 가능하다.

Collection @ uos

(49)는 '말다'와 명령형 어미 '-라', '-어라', '-어(요)'의 결합 양상이다. (49) 외에 '마요' 형태가 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과 '마-'가 다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마라'는 '-라', '-어라' 중 어떤 어미와 결합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표기가 아닌 실제 소리로 듣게 되면 '-어' 역시 결합 가능한 형태이다. [마라]는 표기로 '말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말라'는 '-라'와 결합한 형태로 (49ㄱ'')과 같이 현대국어에서도 간접인용은 항상 '말라'로 실현된다. (49ㄱ')의 신소설을 보면 직접명령으로도 쓰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말라'가 직접명령에는 쓰이지 않는다.[247] '마라'에 결합된 명령형 어미는 '하라'체 어미일 수도 있고 '해라'체 어미일 수도 있으나 '하라'체 명령형 어미 '-라'가 다른 어휘와 결합에서도 직접명령이나 직접인용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해라'체 어미 '-어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 또한 '해라'체로 '말아라'가 나타나고 있음을 (49ㄷ)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말아라'와 '마라'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데 다만 '말아라'가 '마라'보다 권위적이면서 친근함을 주기 때문에 '말아라'는 주로 어른이 쓰는 말로 아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쓴다. 그런데 '마라'가 '해'체로 분석될 수 있다. 그것은 '말아요'가 실현되기 때문이다.[248] '-어라'와 결합 시 'ㄹ'의 탈락이 수의적이므로 '-어(요)'와의 결합 시에도 'ㄹ'의 탈락은 수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마라'에서 '해라'체와 '해'체도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해라'체와 함께 나타나게 되면 '마라'의 억양이 좀 더 권위적으로 수행되며,[249]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청자에게 '마'는 쓰여도 '마라'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라'체와 '해'체의 차이는 억양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윗사람에게 '마라'를 쓰지 않는 것은 '-어라'의 '라'에 이끌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 높임 '-시-'는 화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결합 순서도 제일 앞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와의 결합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오'체와 '해요'체에서 '-시-'의 결합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명령형으로 '-시오'가 나타나는 예는 극히 드물다. 19세기 말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오'에 다시 화자 겸양 '-습-'이 결합되고 '-오' 앞에 결합된 '-시-'가 주체 높임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다시 '-습-' 앞에 '-시-'가 결합되어 '합쇼'체, '하십시오'체가 형성된 것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하오'체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쓰이던 문체로, 문어에까지 쓰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오'체는 일상 대화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지만 문어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

247) 방언형으로는 '말라'가 쓰이나 표준어에는 직접명령으로 쓰이지 않는다.

248) (49ㅁ')의 '마라요'는 현대국어에서는 틀린 맞춤법이다.

249) 현대국어에서 '말아'의 '아'는 '어'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권위적인 말투에서는 '말어라'는 이루어져도 '말어'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말어'는 '해'체로만 실현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Collection @ uos

그것은 '하오'체가 쓰이는 범위는 화·청자 관계에 따르므로 구어에만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명령문 '-시오'만이 문어에 쓰이고 있다. 시험 문제에 쓰일 수 있는 질문 문체 유형은 '-라', '-어라', '-십시오' 그리고 '-시오'이다. '-시오'는 권위적이면서 응시자를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인다.

(50) ㄱ. 「마님 살려주세요! 이 골목 안으로 파초선을 밧고 초헌을 타신 대신행차가 오십니다.」 <萬古烈女申叔舟夫人傳 35>
ㄴ. 「왜 령감은 죽지 안코 도라오세요!」<萬古烈女申叔舟夫人傳 36>

(51) ㄱ. 흥, 고만두십시오. 설화를 못 잊어 그러시어요? <환희 103>
ㄴ. 죠곰 잇다가 혜경은 한숨을 쉬는 동시에 푸들々々 떠는 손을 닉여 미러 벼기 아릭셔 편지 한 쟝을 쓰어 닉더니 「이것을—젼히 주셔요—닉가 죽은 후에」 ᄒᆞ고 두 눈에셔 소ᄉᆞ나오는 눈물을 싯츠며 주니 <두견성 下 60>
ㄷ. (침모) 그러실진ᄃᆡ 어ᄃᆡ로 보닉시지 웨-두고 보셰요
(부인) 보닉기는 어ᄃᆡ로 보닉나 그것도 돈 쥬고 사온 거신데 공연이 돈만 바리게
(침모) 돈을 웨- 바리세요 돈 못 바들나구요 <洗鉏亭 97>

'해요'체 명령형에 '-시-'가 결합하면 '-시어요'로 축소하면 '-셔요'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셔요'보다 변이형 '-세요'가 더 활발하게 쓰이는데, '-세요'는 19세기 고소설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에 반해 '-셔요'나 '-시어요'는 19세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세기에는 '-시어요'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셔요'와 '-세요'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20세기 전기에도 '-세요'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셔요'는 신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반면, '-세요' 신소설보다 근현대소설에 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계사 '이다'에서도 나타난다.

(52) 그 여자는 누구며 그 로인은 누구예요? <소강절 37>

(53) ㄱ. (박) 엇잔걸이요 아즉은 웬영문인지 본관인지 모로지오 무신 말을 알어들읍잇가 귀가 아쥬 절벽이여요 본ᄃᆡ 벙어리는 귀버텀 그러게 먹는담이다그려 <한월 60>
ㄴ. (힝) 무엇이에요 숑쟝 숑쟝이라니 숑쟝은 웬 숑쟝인가 <목단화 332>
ㄷ. (방ᄌᆞ) 나는 당신과 말ᄒᆞ는 것 아니예요 박소ᄉᆞ 아자머니와 ᄒᆞ는 말이지 <화즁화 6>
ㄹ. (갑) 그 사ᄅᆞᆷ이 집이라는 거시 무엇이야요 쳐자도 업고 노름판 계집방으로써 도라단기며 협잡이나 ᄒᆡ 먹고 사는 쳐신인ᄃᆡ <고목화 1006>

Collection @ uos

(54) ㄱ. 도련임이 무어시라 하시던야 무어시라 <u>하여요</u> <춘향철종 上 14ㄱ>

ㄴ. 허소져 깜쟉 놀나며 에그 누가 ᄂᆡ게 다 편지을 <u>ᄒᆞ여요</u> 편지ᄒᆞ리가 업ᄂᆞᆫᄃᆡ 아마 잘못 왓ᄂᆞ 보외다 <한월 28>

ㄷ. 어머니 현규수를 오ᄅᆡ 다리고 계셧다오니 그 범졀이 <u>엇더ᄒᆞ야요</u> 져 보기ᄂᆞᆫ ᄆᆡ우 무던흠니다 <모란병 101>

‘해요’체 ‘이다’는 ‘-이어요’, ‘-이에요’ 그리고 축약형인 ‘-여요’, ‘-예요’로 활용된다. 그리고 ‘-야요’가 나타나는데 ‘-여요’와 ‘-야요’는 동사, 형용사 어간과도 결합한다. 이 형태는 1970년대까지도 소설류 문헌에서 대화 구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어감에 따라 수의적으로 선택되어 사용된다.

5.4. 요약

양태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자 지향적 양태만이 양태 범주에 묶이는데, 하위 범주로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가 있다. 인식 양태의 경우 평서문, 의문문으로 실현되고 행위 양태의 경우 청유문, 명령문으로 실현된다.

‘해’체 어미는 대체적으로 양태 의미를 가진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양태 어미에 대한 부분은 인식 양태의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 감탄형 어미이다. 평서형 어미 ‘-네’는 ‘하게’체 어미 ‘-네’가 ‘(현재) 지각’을 통한 [새로 앎]이라는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하게’체 ‘-네’와 ‘해’체 ‘-네’로 분화된 것이다. ‘-네’가 ‘(현재) 지각’을 하고 [새로 앎]이라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에 남아 있던 ‘-느-’의 기능 때문이다. ‘-네’에 결합되어 있는 ‘-느-’는 19세기 말까지도 기능 면에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느-’의 현재 기능으로 [현재 지각]이라는 양태 의미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의문형 어미 ‘-ㄴ가’는 ‘하게’체에서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문 내지 [추측]의 의미를 띠게 되면서 ‘하게’체와 ‘해’체가 나뉘게 된다. ‘-ㄴ가’의 축약형 ‘-나’의 경우도 양태 의미를 띠면서 ‘하게’체와 ‘해’체로 분화된다. 이 외에도 ‘-ㄹ가’, ‘-ㄴ지’, ‘-ㄹ지’ 등이 있는데 ‘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태 의미 나타는 것은 중세국어에서 간접 의문에 쓰이던 것이 직접 의문에 쓰이게 되면서 갖게 되는 양태 의미이지만 ‘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태 의미는 ‘ㄹ’에 의한 것이다.

감탄문 어미 ‘-구나’는 중세국어 ‘-고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고녀’

Collection @ uos

와 '-고나'는 실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고녀'는 주로 독백에 나타나는 반면, '-고나'의 경우 주어가 이인칭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나타는데 이것은 독백이라기보다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문장만으로는 '감탄'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녀', '-고나'는 중세국어에서도 [새로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가진 어미이다. 이것의 후대형인 '-구나'도 [새로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갖는데, '-고나'와 같이 감탄형 어미라 할 수 없다. 감탄이 아닌 평서문에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감탄형 어미라고 하는 것 중 '-구나', '-네'는 감탄형 어미라 볼 수 없는 이유는 형태 자체에서는 감탄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억양이 수반되어야 감탄의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음절, 음운에 따른 변화 형태와 보조사, 계사가 결합된 형태도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과도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양태 의미가 없는 형태가 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말투를 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Collection @ uos

6. 결론

본고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나타난 종결어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19세기에는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 과정은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 의한 종결어미의 형성, 종결어미가 아닌 형식이 종결어미화를 통한 종결어미의 형성, 의미 기능의 변화로 인한 종결어미의 형성이 그것이다.

국어에서 종결어미 사용은 통사론 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종결어미가 가진 기능에서 비롯된다. 종결어미는 문장 종결법 외에도 청자 대우법과 양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화·청자의 관계, 화자의 태도에 따라 종결어미 실현 양상이 달라지게 하는 요소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도 청자 대우법, 양태 의미를 지닌 종결어미들은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 이러한 기능을 가진 종결어미가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 새로운 종결어미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면 기존 체계를 대체하게 되고, 20세기에는 '해(요)'체도 하나의 화계로 자리하며 이원적 체계가 형성된다.

먼저, 선어말어미의 결합에 의한 종결어미를 보자. 19세기에는 선어말어미의 기능 변화로 인해 선어말어미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종결어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습-'의 기능 변화는 높임법 체계와 선어말어미 순서 체계를 변화시켜 놓았다. 근대국어 이후 화자 겸양 기능을 하던 '-습-'은 청자를 높이는 기능으로 바뀐다. '-습-'이 청자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시-'와의 결합 순서가 바뀌고 뒤에 오는 어미들과 결합함으로써 생겨난 것인데,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종결어미 지위를 획득하기에 이른다.[250] 그리고 이러한 어미들은 하나의 화계를 형성하여 '하소서'체를 대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어미들은 '하소서'체의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어미의 구조에서 변화한 것이므로 '하소서'체의 어미들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 '-옵니다'와 같은 형태들도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옵-'의 기능이 화자 겸양인지 청자 대우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게 한다. '하십시오'체 명령형 어미는 '하오'체에 '-시-습-시-'가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시상 체계인 '-느-', '-더-', '-리-'도 기능 변화를 하게 된다. '-느-', '-더-', '-리'의 변화는 근대국어 '-엇-'의 재구조화에서 비롯되었는데 서서히 변화를 겪던 이 선어말어미들은 19세기 말에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느-'의 경우 여러 기능으로 나뉘어 뒤에 어

250) '하십시오'체 어미인 '-습니다', '-습니까', '-올시다', '-외다' 그리고 '-(시)ㅂ시다'는 '-습니-', '-올시-' '-외-', '-(시)ㅂ시-'는 뒤에 오는 종결어미 '-다', '-까'와 분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습니-' 등이 선어말어미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습니다' 등의 어미는 하나의 종결어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Collection @ uos

떤 종결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느-'의 기능이 달라진다. 먼저 다른 어미들과 융합하여 종결어미화하기도 하고 양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구나', '-도다'와 결합할 때인데 이것은 현재보다 비완망상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더-' 또한 변화가 나타나 [회상]의 자질을 획득함으로써 인칭 제약을 받게 된다. '-느-'와 달리 변화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 뒤에 오는 어말어미가 종결어미, 연결어미, 관형사형 어미냐에 따라 결합 양상을 달리한다. 즉 결합 양상에 따라 변화하기 전의 기능을 가진 '-더-'가 나타나기도 하고 변화한 기능을 가진 '-더-'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그대로 고착되어 오늘날도 어말어미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한다. 그리고 '-리-'의 경우 시제에 따른 양태 의미가 실현되므로 기능 면에서는 '-엇-'과 충돌하지 않았으나 새로 생성된 '-겟-', 또는 '-ㄹ 것'으로 대체되어, '-리-'는 특수한 문체로 쓰이는 것 외에는 구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느-', '-더-', '-리-'가 기능이 변화하고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은, '-엇-, -겟-'의 문법화로 인해 기능 면에서 충돌하거나 대체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종결어미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하오'체, '하게'체, '하십시오'체, '해'체에 '-느-', '-더-,' '-리-'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은 이들 어미의 형성 구조에 의한다. '하오'체의 '-오'는 문말형식이 절단된 어미로 본래 '-느-', '-더-', '-리-'는 '-습-' 뒤에 오기 때문이다. '하게'체의 '-네', '-데'와 '하십시오'체의 '-습니/습디-'는 '-느-', '-더-'가 융합되어 종결어미화한 것으로 '-리-'는 결합할 수 없게 된다. '해'체의 경우 본래 그것이 형성하고 있던 구조 즉 연결어미나 의존명사 구성은 '-느-', '-더-', '-리-'가 결합하지 않거나 이미 '-ㄹ'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외의 선어말어미 '-니-', '-거-', '-돗-'의 경우도 그 기능들을 잃어버림으로써 선어말어미로서의 자격도 잃게 된다. 의고체로 '-니라', 명령형 어미 '-어라', 감탄형 어미 '-도다'의 형태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어미들은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이다. '해라'체 명령형 어미는 '-어-'가 결합된 '-어라'로 고착되어 '하라'체의 명령형 어미 '-라'를 대체하고 '-라'는 부정법 '-∅다'와 함께 '하라'체를 형성하여 간접 인용과 간접 명령으로만 쓰이게 된다. '-어라/아라/여라/거라/너라'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어라/아라/여라'만이 이형태 관계이고 '-거라', '-너라'는 이형태 관계가 아닌 의고체 어미이다.

'하십시오'체 어미,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 '-어라'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된 종결어미이다. 이 외에도 '하게'체, '하소서'체에 나타나는 선어말어미들도 그 자격을 잃었으므로 '하게'체, '하소서'체의 어미들도 하나의 통합형 종결어미이고, 제약을 받거나 선어말어미이 기능이 없거나 또는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더라', '-니라', '-리라' 등의 어

Collection @ uos

미도 종결어미 목록에 포함된다.

다음은 종결어미화에 의해 형성된 어미들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형태들은 대부분 '해'체에 포함된다. 종결어미화하는 구성을 세분화해서 보면, 첫째,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것이다. 이 때 종결어미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이는 어미를 구분해야 한다. 이 둘의 구분 방법은 종결적 용법으로 쓰인 것은 연결어미와 의미가 같아 뒤의 문장을 생략한 느낌을 주는 데 반해 종결어미화한 것은 연결어미와 의미가 달라져 다른 의미 기능으로 쓰인 것이다. 이미 이른 시기에 종결어미화한 '-어'의 경우 문장 종결법만 기능을 하고 양태 의미가 없는 무표적 어미로서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으로 모두 실현된다. '-지'의 경우 여러 양태 의미 가운데 [제안]의 의미로 인해 명령형, 청유형 모두 실현되지만 '-고'를 제외한 다른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한 어미들은 대부분 평서형과 의문형으로만 실현된다. 연결어미 가운데 부사형 연결어미 '-게'는 명령형 어미로 되면서 '하소'체의 명령형 어미 '-소'를 대체하고, '-소'는 방언형으로 남는다.

둘째, 통사 구성이 축약되어 하나의 형태로 융합되는 것이다. 통사 구성이 축약된 구성은 끝에 오는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화계가 달라진다. 연결어미나 조사 등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해'체가 되지만 '해라'체 어미가 올 경우에는 '해라'체에 포함된다. 먼저 의존명사 구성이 축약·융합되어 형성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국어의 종결어미가 형성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고대국어 시기부터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종결어미는 생성되었다. 그리고 통사 구성에서 '하-'의 생략되어 형성된 것으로 '-어야지', '-어야겠다', '-련다' 등이 그것이다.

통사 구성 중 인용 구문의 종결어미화는 하위문의 어말어미 '-다/라', '-냐', '-자', '-라', '-려'와 상위문의 어말어미가 바로 결합한 것으로,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문법화하여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융합형 종결어미가 실현되는 문장은 더 이상 인용 구성이 아니다. 상위문의 어미는 종결어미 외에도 연결어미가 결합될 수 있으며, 통합형이든 융합형이든 화계는 상위문의 어미에 따르는데, 상위문 어미가 종결어미일 경우 본래 상위문 어미가 속한 화계에 따르지만 연결어미일 경우 화계는 '해'체가 된다. 연결어미가 결합된 형태는 연결어미로서 쓰이기도 하고 종결어미로서 쓰이기도 하는데, 연결어미로서 쓰이는 것은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가능 형태 모두 나타나나, 종결어미로 쓰이는 것은 환원 불가능한 형태만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생략이나 축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통사 구성이 통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음절이나 음운이 변화한 형태도 출현하게 된다.

19세기 종결어미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면 기능의 변화이다.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기능

Collection @ uos

이 변화하여 종결어미의 특성이 변화한 것은 이 시기이다. 대체적으로 '해'체 어미들은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어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는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하기도 하고 통사 구성이 종결어미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게'체 어미가 '해'체 어미로 실현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양태 의미가 없는 '하게'체 어미가 양태 의미를 가지면서 '해'체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게'체인 경우에는 '-요'가 결합되지 않지만 양태 의미가 있는 '해'체인 경우에는 '-요'가 결합되어 '해요'체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어미로 '-네'가 있다. 평서형 어미 '-네'는 '하게'체일 경우 어떠한 명제를 설명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해'체 '-네'는 [새로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지각에 의한 깨달음을 나타낸다. '-네'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데에는 '-네'에 통합되어 있는 '-느-'의 의미 기능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의문형 어미 '-ㄴ가'도 '하게'체 어미가 양태 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해'체 어미가 분화되었다. 그런데 '-ㄹ가'의 경우 본디 '-ㄹ'이 가지는 양태 의미로 '하게'체보다는 '해'체로 더 많이 실현된다. '하게'체로 실현되어도 '해'체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다만 '하게'체로 실현되면 억양이 '해'체보다 하강한다.

중세국어 감동법 선어말어미 '-돗-'은 소멸되었지만 이형태 '-도-'의 경우 종결어미 '-다'와 결합하여 감탄형 어미 '-도다'와 계사 '-이-'와 '-구나'와 결합한 형태 '-이로구나'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어라'는 현대국어에서도 감탄형 어미로 존재한다. 그러나 감탄형 어미로 오롯이 존재하는 이 어미들은 잘 쓰이지 않는다. '-도다'의 경우 시와 같은 문어에서 쓰이고 '-이로구나'는 의고체로 쓰인다. 그리고 '-어라'는 구어에서는 어휘에 따라 쓰이기는 하나 이 역시 시와 같은 문어에서 더 쓰이는 경향이 있다. 오롯이 감탄형으로만 쓰이는 구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말투가 아니다. 이에 비해 현대국어에서 소위 감탄형 어미라 일컬어지는 '-구나/군/구먼', '-네'(해체)는 일반적으로는 평서형 어미 쓰이다가 여기에 억양이 얹어져야 [감탄]의 의미가 나타난다. 즉 현대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감탄형은 평서형 어미에 억양이 수반되는 경우로, '-구나/군/구먼', '-네'는 감탄형 어미라기보다 양태 의미를 가진 평서형 어미이다.

'-구나'의 선대형인 '-고녀'는 중세국어에서도 [새로 앎]이라는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ㄹ'을 포함하고 있는 어미는 본래 '-ㄹ'의 양태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종결어미에 양태 의미를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것은 19세기의 일이다.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던 양태 의미가 종결어미화되면서 양태 의미를 가지게 되거나 통사 구성에서 나타나는 의미가 종결어미로 이어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하게'체의 어미들이 양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어미가 가지고 있던 요소들에 의해서 양태 의미를 갖게 되고 양태 의미의 유무에 따라 화계가 나누어지게 되었다.

eCollection @ uos

본고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종결어미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이어지면서 종결어미에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능'의 변화이다. 종결어미에 문장 종결법과 청자 대우법 외에도 양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종결어미 기능 부담량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어말어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가 종결어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변화는 기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에도 나타나는데, 이 둘은 따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형태가 함께 맞물리면서 변화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종결어미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종결어미가 양태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종결어미를 실현시키는 데에 화자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종결어미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양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하게'체에 양태 의미가 부여되면서 하나의 형태가 '하게'체와 '해'체로 나뉘기도 하며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에서는 보조사 등의 결합이나 음운 등의 변화를 통해 소극적이지만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하여 양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어미들은 그러한 어미에 비해 정중하거나 권위적인 색채를 띤다.

20세기의 이러한 종결어미의 변화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사용 양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 사용 양상에 따른 종결어미 변화는 1930년대 이후의 사회 구조와도 관련이 깊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상까지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후일 과제로 남겨 둔다.

Collection @ uos

참고문헌

가와사키 케이고(河崎啓剛 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깨달음’과 복수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광모(2000),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ㅂ쇼’의 기원과 형성 과정”, 『國語學』 第36輯, 국어학회.

고광모(2001), “반말체의 등급과 반말체 어미의 발달에 대하여”, 『언어학』 제30호, 한국언어학회.

고광모(2002), “명령법 어미 ‘–게’의 기원과 형성 과정”, 『한글』 제257호, 한글학회.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고영근(1981/201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집문당.

고영근(1985/2010), 『제3판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집문당

고영근(1989), 『國語形態論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1995/2004),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고은숙(2007/2011),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구현정(1996), “반영적 경청에 쓰이는 ‘–구나’의 담화기능”, 『어문학연구』 4,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구현정·이성하(2001),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제8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권성미(2010),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 2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권재일(1986),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되는 복합문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15, 국어학회.

김미형(1996), “고대 소설의 문체 분석”, 『語文學硏究』 4, 상명대학교 어문학 연구소.

김미형(1998),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 연구 – 신문 문장을 중심으로”, 『語文學硏究』 7, 상명대학교 어문학 연구소.

김병건(2014), “{–다}와 {–어}의 변별과 담화에서의 효과”, 『한글』 304, 한글학회.

김영욱(1993/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변화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박이정.

김영욱(1997), 『문법형태의 연구방법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박이정.

김영욱(1999), “통시적 형태 분석의 문법사적 의미 –화합형태 ‘–쇼셔, –어셔’를 중심으로–”, 『형태론』 1권 1호, 도서출판 박이정.

金正市(1993), “補助詞(존경) {요}에 對하여”, 『韓民族語文學』 第24輯, 한민족어문학회.

Collection @ uos

김지은(2008), “신소설에 나타난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어문론총』 제49호, 한국문학언어학회.
김천학(2007), “국어의 동사와 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태엽(1999), “국어 통용종결어미에 대하여”, 『현대문법연구』 18, 현대문법학회.
김태엽(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語文硏究』 33호, 韓國語文敎育硏究會.
김태엽(2001),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 국학자료원.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말』 제12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남기심(1973), 『國語完形補文法硏究』, 啓明大學校出版部.
남기심·고영근(1985/2008),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미정(2007), “근대국어 청자 경어법의 형태원리와 체계”, 『시학과 언어학』 제14호, 시학과 언어학회.
남미정(2008/2011), 『근대국어 청자경어법 연구』, 태학사.
남미정(2010), “국어의 문법화에 대한 재고”, 『한국어학』 49호, 한국어학회.
류성기(1997), “근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민현식(1999), “개화기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 국립국어연구원.
박기영(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결어미의 억양 교육 방안 -특히 양태 의미에 따른 억양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4집, 우리어문학회.
박미영(2012), “명령법 어미 ‘-아/어라’, ‘-거라’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사회』 1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박부자(2005), “선어말어미 ‘-습-’의 통합순서의 변화에 대하여 ‘-시-’와의 통합을 중심으로-”, 『國語學』 第46輯, 국어학회.
박석준(1999), “현대국어 종결어미의 체계화에 대한 몇 가지 -목록 설정과 관련하여 ‘-거든’과 ‘-려고’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7권,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박영준(1994ㄱ),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박영준(1994ㄴ), “종결어미 ‘-지’에 대하여 -그 기원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권, 한국어학회.
박영준(1996), “국어 반말 종결어미의 역사성 -‘-어’와 ‘-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권, 민족어문학회.

Collection @ uos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제41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國語學』 第66輯, 국어학회.
박재연(2015), “한국어 어미 결합에서 나타나는 비합성적 의미 해석”, 『언어와 정보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國語學』 第60輯, 국어학회.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옵니다체’의 해명을 위하여–”, 『국어학』 17, 국어학회.
서정수(1984),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Ⅱ) –청자대우 등급의 간소화”, 『한글』 제167호, 한글학회.
석주연(2008), “국어 형태의 통시적 변화와 문맥 –문맥에 수반되 의미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6, 한국어교육학회.
성기철(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 교육』, 글누림.
송영주(1991), 『발화의 시간 의미 연구』, 한신문화사.
신현숙(1986/1998), 『의미 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국문화사.
安明哲(1990), “國語의 融合 現象”, 『국어국문학』 103, 국어국문학회.
안명철(1998), “동사구 내포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安秉禧·李珖鎬(1990), 『中世國語文法論』, 學硏社.
안주호(2002), “終結語尾 ‘–ㄹ게’의 統辭的 · 意味的 情報”, 『새국어교육』 63권, 한국국어교육학회.
안주호(2003), “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제10권 1호, 담화·인지언어학회.
양영희(2003), “중세국어 2인칭 대명사 ‘그듸’의 존대법상 위치”, 『한글』 260, 한글 학회.
양영희(2004), “15세기 국어 존대법의 특징 고찰 –국어 존대 기능의 변천 양상에 대한 시론–”, 『한국어학』 22권, 한국어학회.
오미라·이해영(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한국어 교육』 5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Collection @ uos

우인혜(1988), “개화기국어의 시제와 상 및 서법에 관하여 -당시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13,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유필재(2014),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國語學』 第70輯, 국어학회.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제261호, 한글학회.
윤석민(1998), “문장종결법”,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윤용선(2006), “국어 대우법의 통시적 이해”, 『國語學』 第47輯, 국어학회.
이경우(1998), 『최근세국어 경어법연구』, 태학사.
李圭昌(1992), 『國語尊待法論』, 集文堂.
이규호(2006), “복합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 『國語學』 第47輯, 국어학회.
이금영(2000), “선어말어미 ‘-거/어-’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문법화 과정과 문법화 정도에 대하여”, 『國語學』 第48輯, 국어학회.
이금희(2014), “確認 疑問法 終結語尾 ‘-다면서, -다고, -다지’의 活用的 條件과 意味”, 『어문연구』 4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금희(2016), “국어 어미 ‘-ㄴ지’의 문법화와 통사적·의미적 특징”, 『韓民族語文學』 第73輯, 한민족어문학회.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제5권 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이병기(2006), “‘-겟-’의 문법화와 확정성”, 『진단학보』 제102호, 진단학회.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소흔(2010), “19세기 청자 대우법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李昭欣(2013), “‘-다니’類에 대하여”, 『語文研究』 158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李昭欣(2015), “개화기국어 종결어미와 {-느-}의 결합 양상”, 『語文研究』 167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國語研究』 第139號, 國語研究會.
이승희(2004), “명령형 종결어미 ‘-게’의 형성에 대한 관견”, 『國語學』 第44輯, 국어학회.
이승희(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이승희(2008), “후기 근대국어의 시제 체계 변화에 따른 종결어미의 재편”, 『국어국문학』 第150輯, 국어국문학회.
이 용(2000/2003),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도서출판 역락.
이원표(1999), “인용조사 ‘-고’의 담화분석: 간접인용의 주관화 문법화를 중심으로”, 『사회언

Collection @ uos

어학』 7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李有基(2001ㄱ),『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장종결형식의 연구』, 도서출판 역락.
이유기(2001ㄴ), “근대 국어 문장 종결 형식의 연구”,『東岳語文論集』38輯, 東岳語文學會.
이유기(2005), “‘-(으)ㄴ가, -(으)ㄹ까’의 대우 등급”,『한국어문학연구』 제44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이정복(1998), “상대경어법”,『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이준영(1987), “현대 한국어 종지형 어미의 연구 -의문형·명령형·청유형 어미를 중심으로-”,『겨레어문학』제11집,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이지양(1998),『국어의 융합현상』, 태학사.
李知英(2007), “連結語尾 ‘-지만’의 形成 過程에 대한 再考察”,『大東文化研究』第57輯,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 연구.
이지영(2008ㄱ),『한국어 용언부정문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이지영(2008ㄴ),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國語學』第53輯, 국어학회.
이필영(1993),『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塔출판사.
이현정(2014), “종결어미적 용법의 ‘-게’에 대한 고찰 -의미와 통사화용적 특성을 중심으로-”,『언어학 연구』19집 3호, 한국언어연구학회.
李賢熙(1982), “國語 終結語尾의 發達에 대한 管見”,『國語學』第11輯, 국어학회.
이현희(1994),『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이현희(2007), “19세기 초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었나: 주로 문법사적 기술을 중심으로”,『우리말글』제41집, 우리말글학회.
이호영(1996),『국어 음성학』, 태학사.
張京姬(1985/1986),『現代國語의 樣態範疇研究』, 塔 出版社.
장윤희(2002),『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장윤희(2012), “국어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쟁점”, 국어사 연구 제14호, 국어사학회.
정경재(2007), “{-겠-}의 발달에 따른 {-것-}의 역사적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재(2016),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명령형 어미의 실현 양상 변화”,『한국어학』72, 한국어학회.
정경재·정연주·홍종선(2015),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하오체 어미 {-오}의 실현 양상 변화”,『한국어학』69, 한국어학회.
정언학(2006), “통합형 어미 ‘-습니다’류의 통시적 형성과 형태 분석”,『국어교육』121, 한국

Collection @ uos

어교육학회.
정은균(1999), "신소설의 문체 연구", 『崇實語文』 15, 崇實語文學會.
鄭在永(2001), "國語 感歎文의 變化 -감탄법 종결어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2, 진단학회.
채숙희(2011/2013),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최동주(1995), "국어 선어말어미 배열순서의 역사적 변화", 『언어학』 제17호,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최동주(1996), "선어말어미 {-더-}의 통시적 변화", 『언어학』 19,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최동주(2002), "후기 근대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 『언어학』 27,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최은규(2010), "한국어 학습서의 경어법 연구 -1889년대~1930년대의 외국인 저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29/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한 길(1982), "반말 종결 접미사 {-아}와 {-지}에 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7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 길(1989), "현대 국어 예사낮춤 종결 접미사에 관한 연구", 『한글』 205호, 한글학회.
한 길(1996), "반어법 구문의 통사 특성", 남기심 엮음, 『국어 문법의 탐구 Ⅲ -국어 통사론의 문제와 전망』, 태학사.
한동완(1988), "청자경어법의 형태 원리 -선어말어미 {-이-}의 형태소 정립을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말』 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韓東完(1999), 「국어의 시제 범주와 상 범주의 교차 현상」, 『서강인문논총』 제10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한영목(2008), 『충남 방언 문법』, 집문당.
허 웅(1975/1995), 『우리 옛말본』, 샘 문화사.
홍종선(1994), "개화기 교과서의 문장과 종결어미", 『한국학연구』 제6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홍종선(1997), "근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황문환(1999),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ᄒᆞ옵'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권 배달말학회.
황문환(2010), "근대국어 'ᄒᆞ옵'체의 형성 과정과 대우 성격", 『國語學』 第58輯, 국어학회.
Bybee, J. L.(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Collection @ uo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이성하 · 구현정 옮김(2000), 『형태론: 의미-형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r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mrie, B.(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gngaker, R.W.(2002), *Image, Concept,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2nd ed., Berlin: Mouton de Gruyter. (나익주 옮김(2005), 『개념 · 영상 · 상징 -문법의 인지적 토대』,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Lyons, J.(1977), *Semantic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Collection @ uos

[Abstract]

Study on Functional Shift of Endings in the Korean Language that Appeared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Early Twentieth Century

Lee, Sohe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and the change of final endings, which took place between Modern Korean and Contemporary Korean. The final endings in Contemporary Korean are not only different in their form and function, but also different in their forming process and in the language system. The general changes of these final endings started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had still been in the process of changing until early 20th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process of how the system of final endings in Contemporary Korean has been accomplished, by investigating the final endings, which were form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In order to do that, the functional shift to final endings is discussed according to how the final endings have been formed.

There are many literature materials from this era that can be referred to, such as old novels, letters in Korean, grammar and conversation books, newspapers, magazines, new-style novels, modern and contemporary novels, dramas, audio materials (such as plays recorded with gramophones), etc. Among these, conversation books, novels, dramas, and audio materials are the most suitable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since the spoken language is especially important to examine the various final endings. Based on these materials, the aspects of final endings in their form, function, and usage are examined.

Chapter 2, 3 and 4 address the formation of final endings. The final endings that were formed in the 19th century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nal endings that were derived from a combination of the pre-existing final ending and other forms. It includes the final endings that are combined with prefinal endings. This type of formation of endings is caused by changes to prefinal endings. The

Collection @ uos

prefinal endings, which had their function weakened or restricted during the process of changing, either lose their status as prefinal ending and their form disappears, or turn into final endings by combining with the existing final ending.

The combination aspect of final endings with prefinal endings is examined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seup(습)-', '-neu(느)-, -deo(더)-, -ri(리)-', and '-geo(거)/eo(어)-, -ni(니)-, -do(도)-'. First, '-seop(습)-', which presents the speaker modesty level of speech, combines with the following prefinal endings and becomes the form of '-seupni(습니)-/-seupdi(습디)-', and also changes in its function to hearer-honorific. This, then, combines with the final endings '-da(다)/kka(까)'. Secondly, in the case of '-neu(느)-', '-deo(더)-', '-ri(리)-', their functions went through change due to the formation of '-eot(엇)-', '-neu(느)-'. These show the most complicated aspects, having their function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aspect with the final ending. '-deo(더)-' and '-ri(리)-' start to have a restriction when they combine with final endings, as well as a functional shift. The last category, '-geo(거)/eo(어)-', '-ni(니)-', '-do(도)-', are not recognized as prefinal endings in Contemporary Korean, so the forms of combination with final ending were also dealt with as one final ending instead of analyzing them further down. '-eo(어)-', which is allomorph of '-geo(거)-', combines with the imperative ending '-ra(라)' in 'hara(하라)' style and forms '-eora(어라)', which replaces '-ra(라)' and makes 'haera(해라)' style.

The second category is final endings were derived from connective endings, which were originally nonfinal endings. There are a few conditions that are necessary for connective endings to become final endings. That is, 1) it has to be possible to invert or omit in sentence or sentence connecting construction, 2) both antecedent clause and following clause need to be independent, 3) antecedent and following clause should have the meaning of cause, listing, contrast, etc. Final ending and final ending usage are differentiated in this study. Final ending is the ending that is only used in the sentence final position with its own separated function and contains changed meaning from its connective ending form. The final ending usage, however, is the ending that is located in the position of final ending and delivers the function of the sentence ending, but the meaning hasn't changed from the connective ending and, therefore, can still be used as a connective ending.

Connective ending construction is divided into coordinated·subordinated connective ending and adverbial connective ending. The coordinated·subordinated connective ending becomes a final ending by the inversion or omission of the following clause, but the adverbial connective ending goes through a different process. The adverbial connective ending

Collection @ uos

becomes a final ending by omitting 'ha(하)-' in the causative construction '-ge ha(게 하)-'. In addition, the coordinated·subordinated connective ending forms 'hae(해)' style as a modal ending, and is mostly realized as a declarative and interrogated ending. Unlike this, the adverbial connective ending forms the imperative ending '-ge(게)' and replaces the imperative ending '-so(소)' in 'haso(하소)' style.

The third category consists of syntactical constructions that became final endings. This includes the quotation construction, the bound noun construction, the 'ha(하)-' combination construction, and the 'mal(말)-' combination construction. As we differentiated final endings from final ending usage of connective ending constructions, depending on the rate of becoming final endings, the syntactical structure is also divided into two different constructions, by the rate of grammaticalization; one can be restored, and the other cannot be restored. The restorable constructions cannot be considered as one single final ending, whereas the constructions that cannot be restored are a fused form and make one single final ending. When the ending in the matrix sentence is a connective ending, these endings form to 'hae(해)' style, but when it is a final ending, the speech style is decided depending on the ending.

The form that shifted to final endings from a bound noun construction is a construction that has appeared since Old Korean. In Middle and Modern Korean, this used to be the construction of the bound noun 'da(ᄃᆞ)', 'sa(ᄉᆞ)', whereas in the period of time this study focuses on, it is the forms that is shortened from '-l geot(ㄹ 것)'. This construction is also realized as 'haera(해라)' style as well as 'hae(해)' style. The combined construction with 'ha(하)-' derives by dropping 'ha(하)-' from constructions of '-eoya haji(어야 하지)', '-eoya hagetda(어야 하겠다)', and '-ryeo ha(려 하)-'. '-eoyaji(어야지)' is realized as a fused form, and '-eoyagetda(어야겠다)' is weaker in the degree of its fusion than '-eoyaji (어야지)'. '-ryeo ha(려 하)-' is divided into the construction that can be restored and the one that cannot be restored.

In chapter 5, the change of meaning·function of final endings are investigated. In the 19th century, the final ending was formed in three different processes, whereas in the 20th century, one form is divided into two systems with some of the final endings going through changes in meaning·function and forming modal endings. The modal endings are realized mostly as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ndings, but some are exclamatory and imperative endings. When the declarative ending with modal meaning expresses 'exclamation', it is accompanied with intonation. When it only expresses 'exclamation', however, there is a restriction on its usage in the case of spoken language. On top of these, meaning·function can be shifted with a change of syllable or phoneme, and

Collection @ uos

meaning·function can be added when combining with auxiliary or copula.

This study shows that the reason why 'hae(해)' style endings were able to be largely formed in this period of time is that the final endings that belong to 'hae(해)' style carry modal meaning and this was the result of speaker's attitude significantly coming into play. This also affects the usage of final endings, and this change was related to the social aspect of the country as the caste system began to fall apart. These aspects are reflected in final endings after 1930s as well.



□ key word: 19th century, 20th century, functional shift to final ending, final ending, final ending usage, connective ending, prefinal ending, modal ending, Hearer-Honorific, Speech level, fusion, grammaticalization, change of meaning · function change.

Collection @ uos